

2002. 7

생명과 문명의 고을
옥천군종합개발계획
2002-2020



제1편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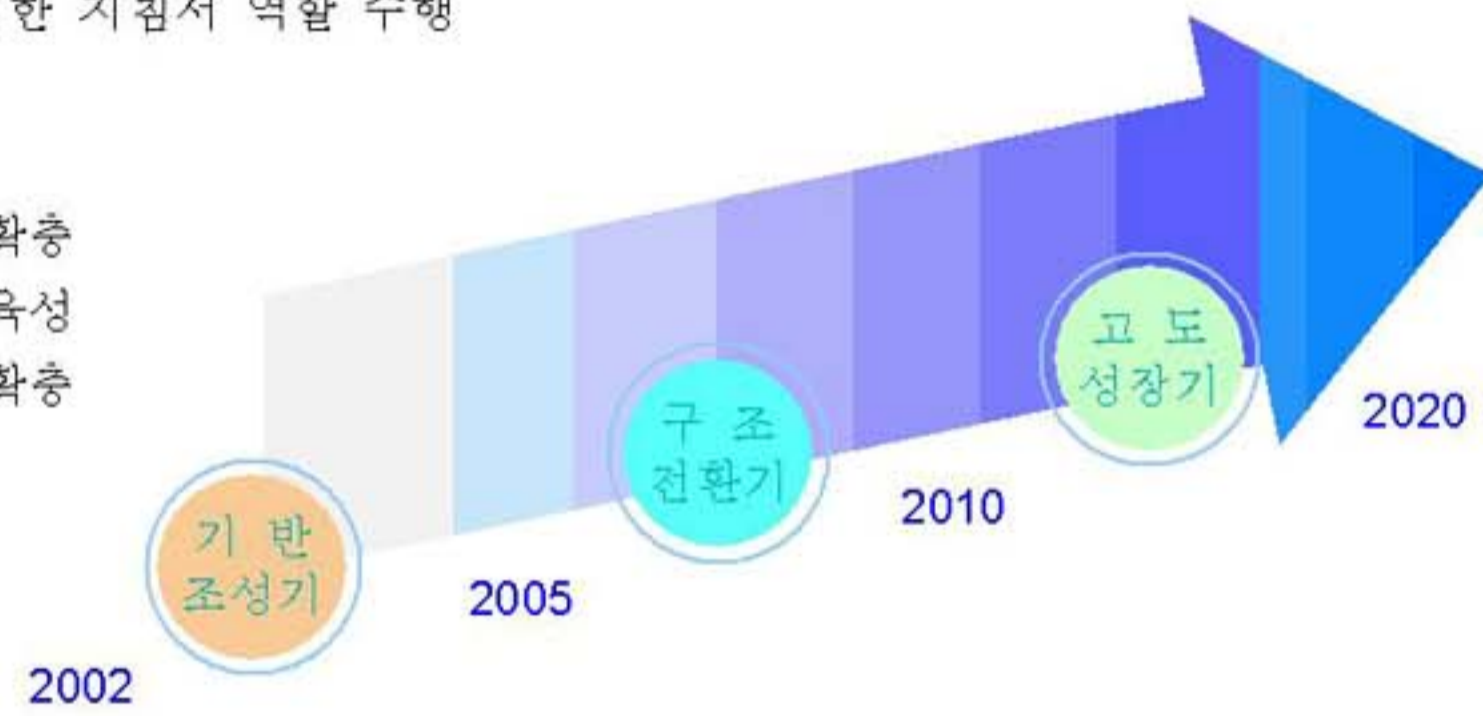
1. 계획수립의 개요

계획의 취지와 성격

- 제4 차 국토계획과 제3 차 충북도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국제경쟁체제의 진입과 지방자치체의 정착에 따라 옥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와 지역의 가치증진을 위한 지침서 역할 수행

계획기간 : 2002-2020년

- 기반조성기(2002-2005) : 지역산업기반 확충
- 구조전환기(2006-2010) : 지식기반산업 육성
- 고도성장기(2011-2020) : 환경복지기능 확충



2. 옥천의 한계와 잠재력



개발의 한계점

대청호 수질보호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대전시로의 경제예속과 지속적 인구유출
동서지역간 연계성 미흡과 주민통합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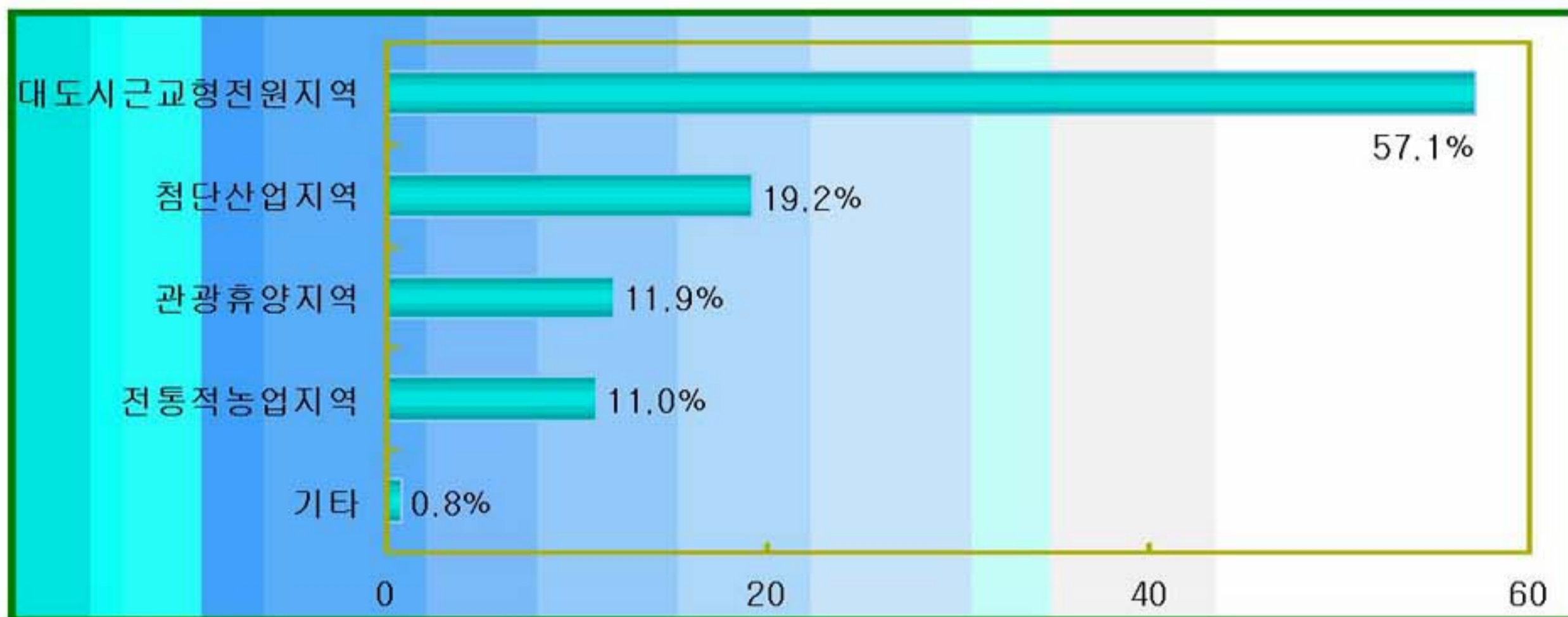
개발의 잠재력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보유
수준높은 역사문화자원과 시민문화 형성
청정무공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여건 양호
대외적 접근성 향상 및 연구개발기능 양호

3. 옥천주민의 개발수요

21세기 옥천의 전략방향

대전광역권 여가수요를 겨냥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연구개발기능 확충을 통한 전통산업의 첨단화 유도



- 옥천주민들은 대전중심의 대도시근교형 전원지역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단산업과 관광휴양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제2편 희망과 미래

1. 발전목표와 7대전략



- BT산업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청정농업기반의 확충과 문화관광사업의 육성, 환경복지수준의 제고와 인적물적자원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첨단BT산업과 정신문화가 어울어지는 생명과 문향의 고을 옥천 건설



■ 생명의 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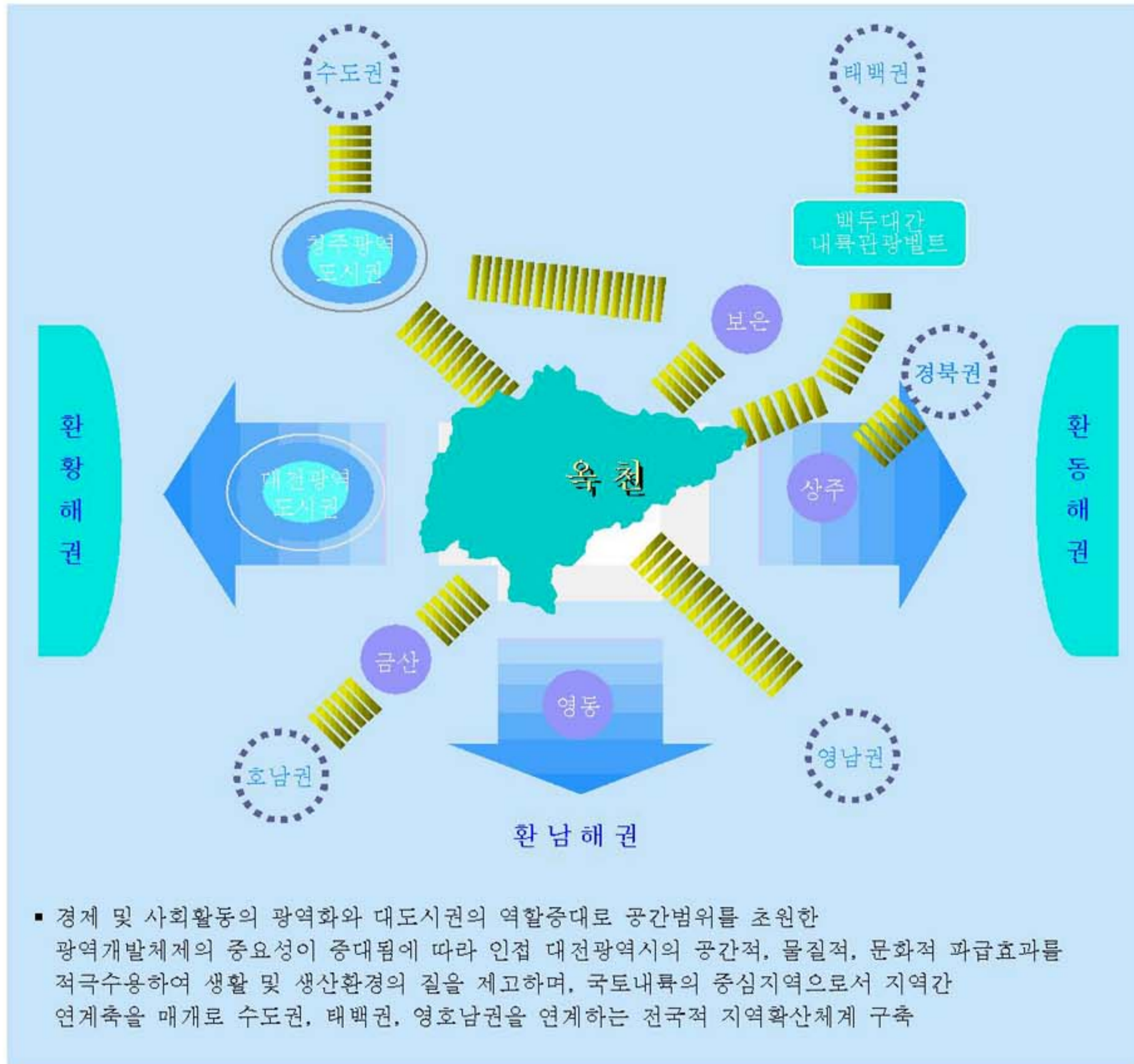
- ❖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무공해식품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라 청정지역으로서의 옥천이미지 부각 효과
- ❖ 포도, 묘목, 인삼, 복숭아, 버섯 등 무공해 지역특산품이 생명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등장
- ▶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
- ▶ 포도, 인삼 등의 지역농특산품을 생명산업에 접목시키고 이를 응용한 고기능작물과 기능성식품생산기반 및 제반기술 도입
- ▶ 대덕밸리와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연계한 옥천생명과학단지 조성

■ 문향의 고을

- ❖ 지용제를 통한 문향의 고을로서의 대외 이미지 정립과 중원문화권, 백제문화권, 안동문화권 등 주변문화권으로의 접근용이
- ❖ 중봉중령제, 지용문학제 등 지역축제의 대외인지도 향상과 전설기행, 유교기행, 선사문화기행, 문학기행 등 테마형 패키지 형성의 여건양호
- ▶ 산재한 역사문화 제자원을 발굴·육성하며, 역사문화의 고장으로서 제반기능확립과 동시에 관광수요와 연계에 역점
- ▶ 예술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인력의 저변확대와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지역주민, 문화단체, 교육기관, 옥천군 등을 연계하는 옥천문화벨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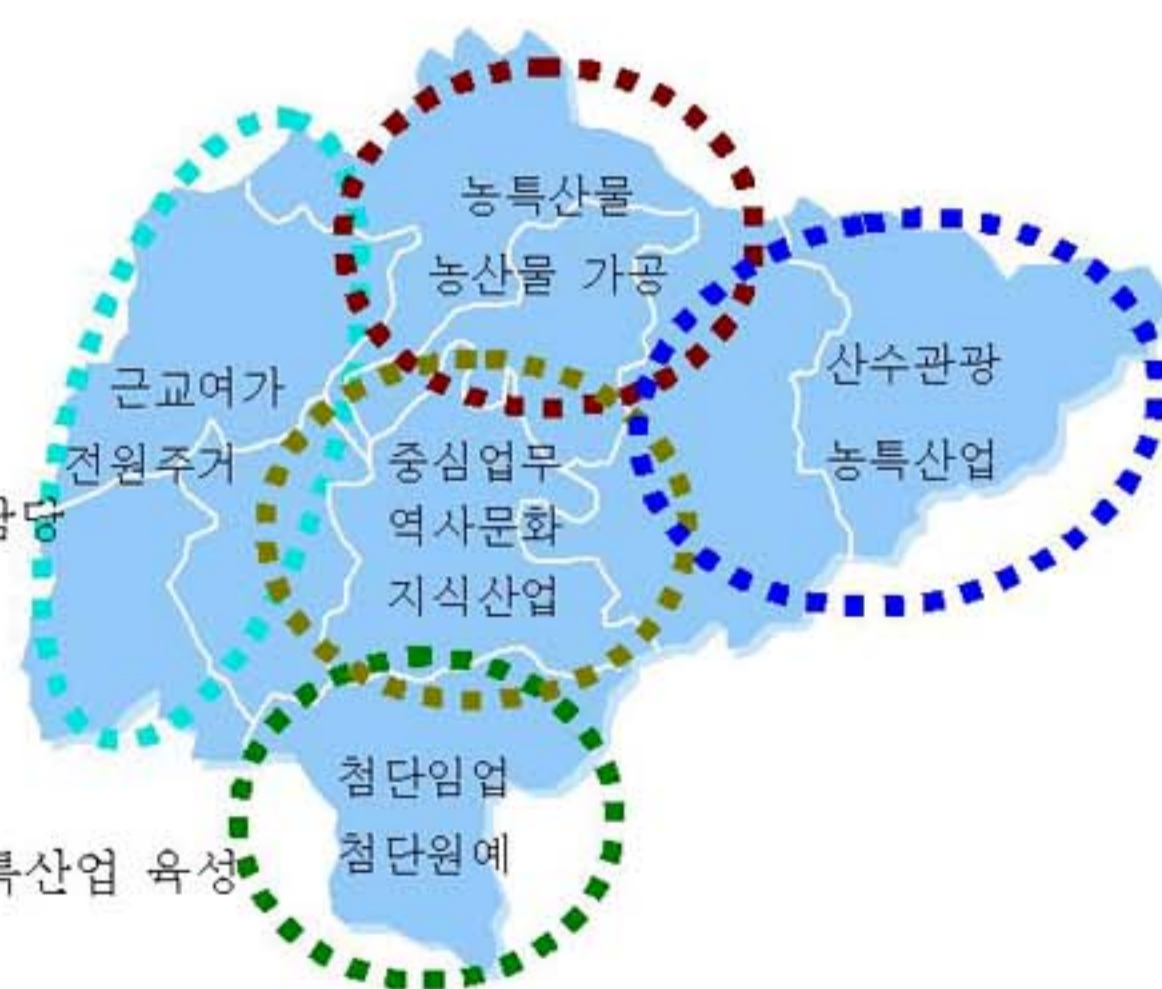


2. 지역간 연계발전축



3. 권역별 기능배분

- 옥천읍·동이지역 :
 - 중심업무, 역사문화 지식산업의 중심지 역할 담당
- 군북·군서지역 :
 - 대전권과의 인접성을 활용한 근교여가, 전원주거기능 담당
- 이원지역 :
 - 묘목특화단지로서 첨단임업과 첨단원예지역으로 육성
- 청성·청산지역 :
 - 산세가 수려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산수관광과 농특산업 육성
- 안내·안남지역 :
 - 포도, 복숭아, 인삼 등을 활용한 농특산업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제3편 과제와 전략

1. 지식육천 실현

생명과학산업 육성

- 군북면 일대에 BT관련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BT산업 벤처전용단지 조성
- 옥천군청내에 BT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을 담당할 생물산업지원부서 설치
-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교육양성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북과학대를 확대·이전
- 중앙 및 도단위 관련기관과의 협력, 마케팅 지원, 제반서비스 지원을 위한 BT벤처플라자 건립
- 옥천고유의 BT관련기업 육성을 위해 중북과학대 내에 생물산업기업지원센터 설립
- 지역 대표농산물인 포도, 묘목, 인삼 등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한 옥천생물자원연구소 설립



지역산업진흥과 특성화

-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에 실버산업지구를 조성하여 실버산업을 집중 육성
 - 이원면 일대에 자전거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레포츠산업 육성계기 마련
 - 옥천, 동이, 이원, 청산지역의 농공단지를 지역특화전문화단지로 육성
- 기업의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계획입지를 유도하는 친환경 산업정책 추진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기업의 지원방안 마련
 - 에너지 수급대책을 비롯한 생활 및 생산인프라 확충에 역점

바이오테크노파크의 조성

- 생명공학산업과 자원공원의 개념이 복합된 미니바이오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며, 옥천군, 중북도, BT청정산업단지, 농공단지, BT실무기술교육센터, 중북과학대, 생물산업기업지원센터, 대덕밸리, 오송생명과학단지간의 연계체계 확립
- 옥천군이 BT청정생산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관련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



2. 영농육천 실현

권역별 영농특화전략

- 옥천·군서·군북권 : 도시근교 겸업농 지대화하며, 지역농업개발센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약초 및 특용작물단지 설립, 운영
- 동이·이원권 : 대규모 첨단과수원예단지를 조성하고, 복숭아, 포도 등의 지역특산물 재배단지로 특화시키며, 묘목생산 유통단지, 주말농장 및 관광농장 역할 부여
- 청산·청성권 : 산간형 종합휴양관광단지로 건설하며, 생태관광 및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실현
- 안남·안내권 :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등의 특용작물과 고랭지 시설채소 재배단지로 건설하며, 임산물 집하장 및 가공시설을 설치



첨단지식영농 추진전략



- | | |
|--|---|
| <p>전통농업과 첨단과학 접목</p> <p>친환경 생물소재농업 육성</p> <p>신지식농업인 육성</p> <p>농산물 유통체계 확립</p> <p>신Agri-Business산업 육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련 S/W 개발 ● 생산기술개선사업 추진 ● 농업기술정보화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5개년계획 연계 ● 청성·군북·이원지역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 생물소재 농업육성(바이오그린21사업) ● 전업농/후계자/선도개척농업인 양성 ● 산학연 공동협력체계 강화 ● 전문교육프로그램 도입 ● 전자상거래 활성화 ● 계약재배, 약정출하사업 추진 ●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벤처농업인 양성 ● 이원묘목의 세계화 |
|--|---|

농촌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 | | |
|--|---|
| <p>소득보전 사업</p> <p>생활환경개선사업</p> <p>그린투어리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직접지불제의 실시와 농작물 재해보험, 조건불리지역 농가보조 실시 ●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산촌종합개발, 교육 및 보건의료환경개선사업 실시 ● 관광휴양자원개발,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을 통한 그린투어리즘 가치 실현 |
|--|---|

3. 문화육천 실현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와 인물선양사업



역사문화자원

- ▶ 역사와 수변 및 산악환경이 결합된 환산관광패키지 개발
- ▶ 공곡재-환평간 수변문화산책로를 조성하여 서정적 이미지 부각
- ▶ 옥천읍·군서·군북지역에 삼국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신라백제전적공원 조성
- ▶ 석탄교 일원에 선사시대 유물복원을 통한 선사유물테마공원 조성
- ▶ 근현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구읍일대에 세대별, 테마별 문화타운 조성

인물선양사업

- ▶ 옥천읍 교동리의 옥영수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건립
- ▶ 군북 추소리태생 류승규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 ▶ 지역출신 문화예술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계승사업 추진

남부권 문화벨트의 형성과 거점화

- 보은 범주사-용암사-가산사-귀절사-영동 영국사를 연계한 불교문화 패키지 개발
- 보은 오장환문학제-지용문화제-중봉충렬제-청마리탑신제-영동 난계예술제의 연계를 통한 예술문화패키지 개발
- 청원 아북이 유적-석탄리-영동 원촌리/금정리를 연계하여 특색있는 선사문화패키지 개발
- 보은 삼년산성-옥천 산성탐방로(환산성, 삼성산성, 노고산성, 굴산성 등)-영동 대왕산성을 연계하는 삼국문화패키지 개발

관광명소화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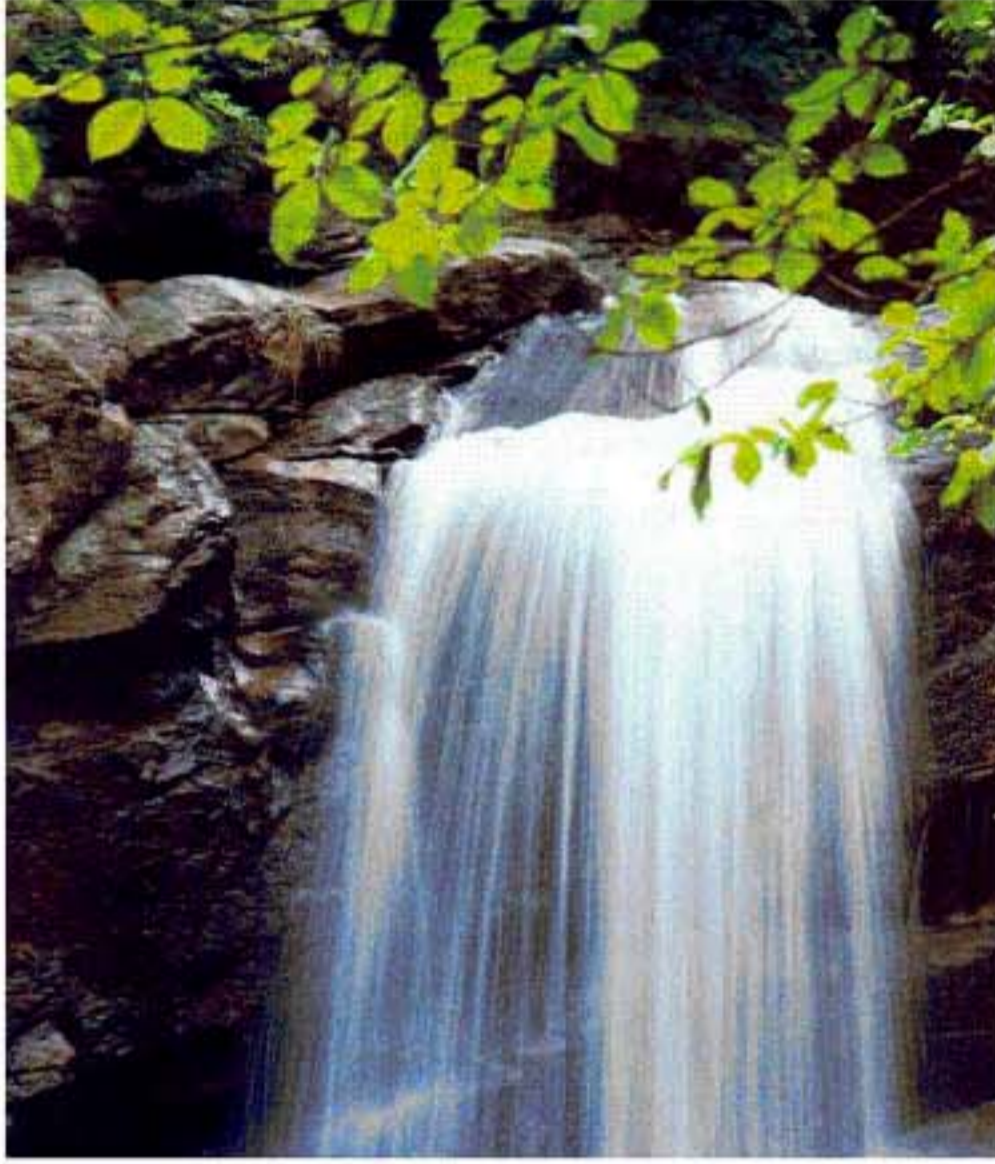
- 옥천읍내에 관광쇼핑거리를 조성하여 역사문화자원 캐릭터 및 지역특산물 판매
- 동이지역에 수상스포츠, 레저휴양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변레저공원 조성
- 동이지역에 회귀동식물 전시 및 화훼원, 식목원, 자연학습장 시설을 도입한 자연생태관광지 조성
- 이원지역에 약재원, 한방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휴양치료숙박기능 강화
- 옥천읍 구일저수지 일원에 가족단위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이 설치된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 군서지역 곤룡재 구룡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심신수련시설과 학습관 등이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조성
- 청산의 명티군유지를 활용하여 주말여행객 유치 가능한 자연휴양림 조성



4. 그린옥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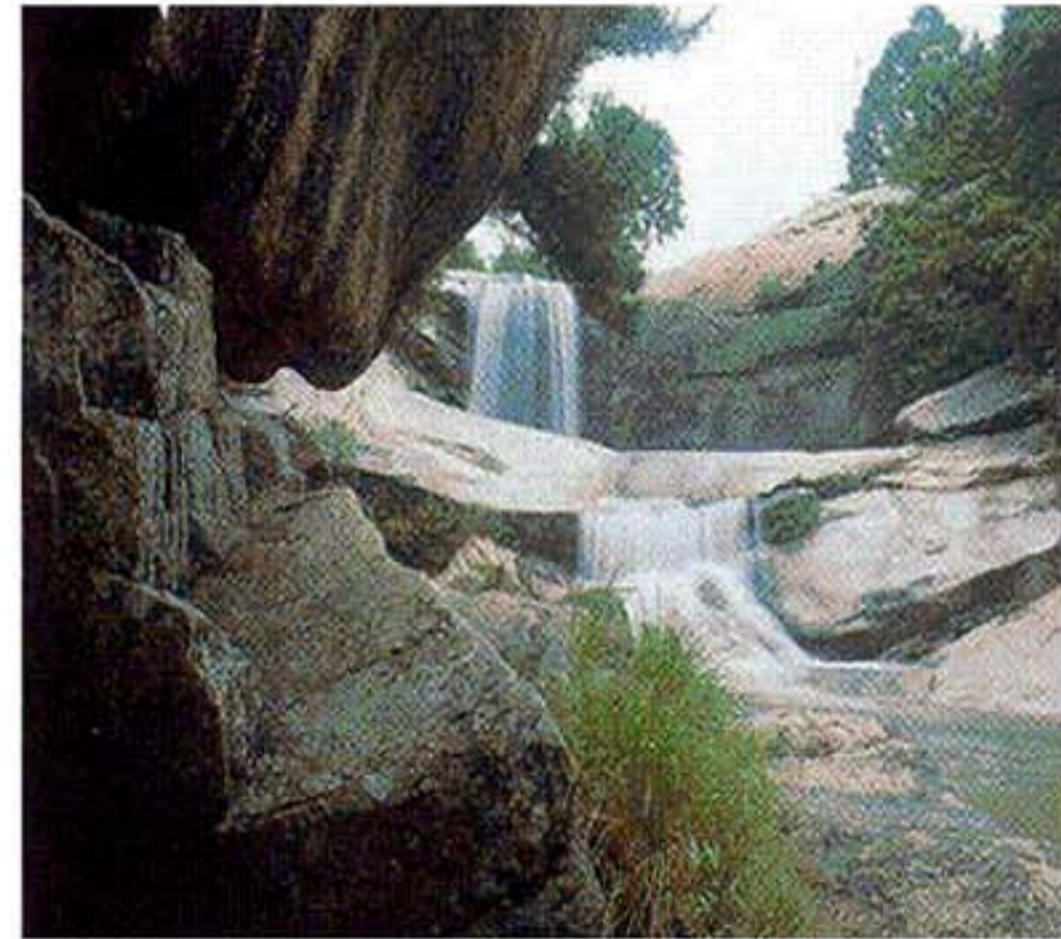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관리체계 확립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을 도입하고 수자원의 자치단체 공유자산화 추진
- 산자수려한 장용산, 관모봉, 도덕봉, 국사봉 등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지구 지정
-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이동통로 확보
- 하천주변의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오염원이 많은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감소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생태계 보존에 유리한 생태산업단지 조성기법 도입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설치
-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행정구역별 추계를 통해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수질총량관리제도 도입



늘푸른 향수옥천21 실천사업

- 대청호분야 : 애향심 갖기운동, 대청호사랑모임 구성, 환경교육장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추진
- 수질분야 : 물받아서 이용하기운동, 하천돌보기모임 구성, 물관리체계 확립, 금강문화행사 추진
- 자연생태분야 : 토종생물정보 전시, 녹색담장 만들기, 자연생태수변공원 조성
- 폐기물처리분야 : 폐기물감량화 추진, 쓰레기 재활용 확대, 청정소각장 운영
- 도시계획분야 : 환경신문고 활용, 안전환 녹색교통환경 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 수변경관 명소화



5. 건강옥천 실현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 공동체 형성

-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하수 및 배수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시스템 확립
- 옥천읍을 중진료권(2차의료기관)으로 하고 1차 보건진료의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 인력확충에 중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수용시스템 확립

- 상하수도
상수도시설을 정비확충하며, 중수·우수이용시스템 구축, 맑은물 공급사업, 합병정화조 공급, 물소비억제운동 등 실시
- 사회복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여성복지사업,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 등 관련사업 실시
- 보건의료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365 건강생활 실천활동 전개, 공공의료서비스,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



6. 정보옥천 실현

지역정보환경 조성

고감도 행정서비스 실현과 열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실현
정보자원의 공유화 및 정보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기반정보화 실현
사이버 생활문화의 확산과 웹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한 문화생활정보화 실현
첨단정보산업지역으로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보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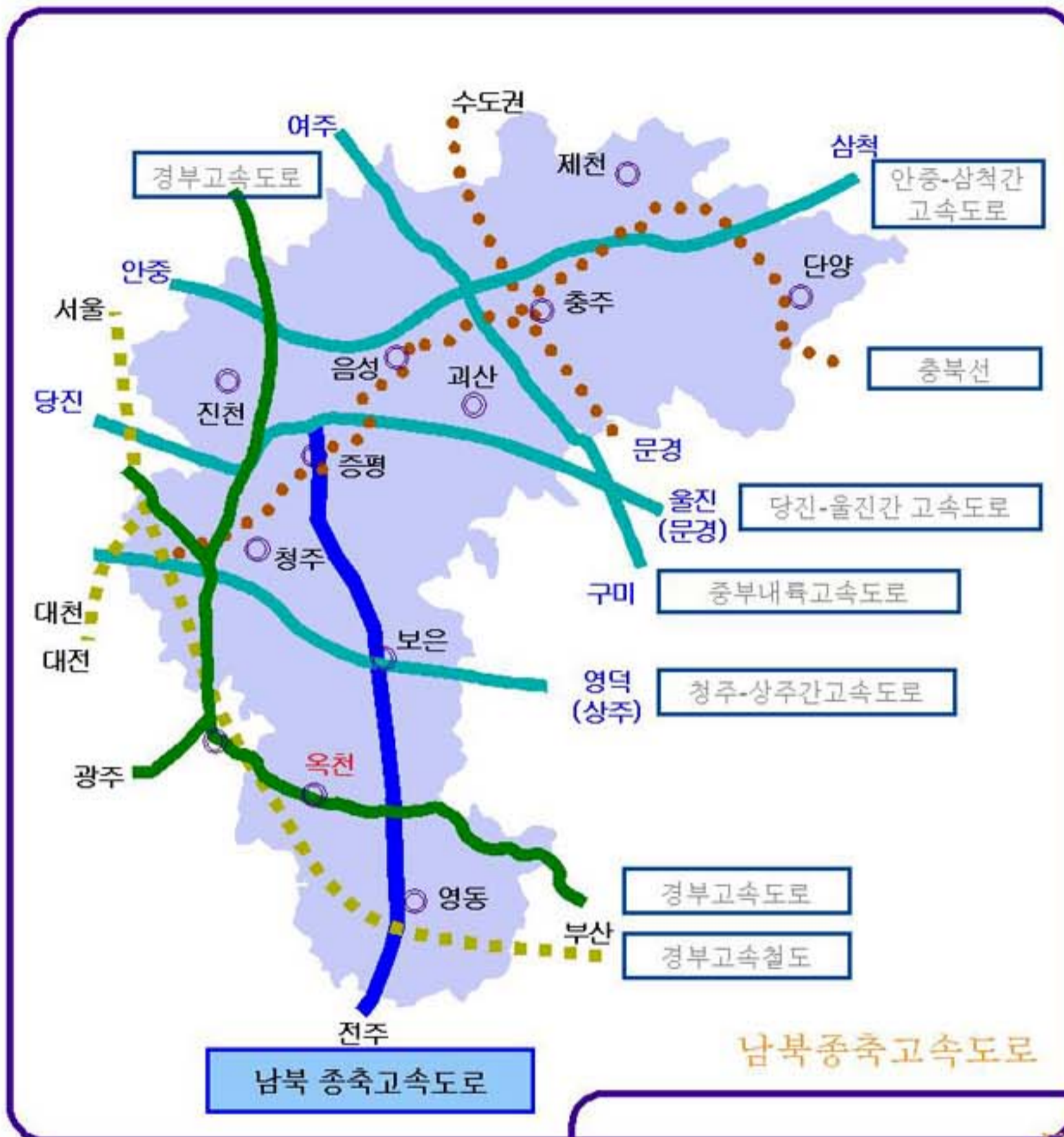
지식기반
실감형
정보화
지역

지역정보화의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

- 행정정보화 : 행정업무의 재설계사업 추진과 민원시스템 구축
- 산업정보화 : 산업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시스템, 중소기업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정보화 : 종합생활정보에 대한 사이버사회복지시스템, 지역종합의료지원시스템 구축



7. 교류옥천 실현



국토간선 남북중축고속도로 개설

- 증평IC - 청주국제공항 - 청주 - 보은 - 옥천 - 전주
- 청주 - 대전간 고속도로 혼잡완화
- 대전 및 호남권과의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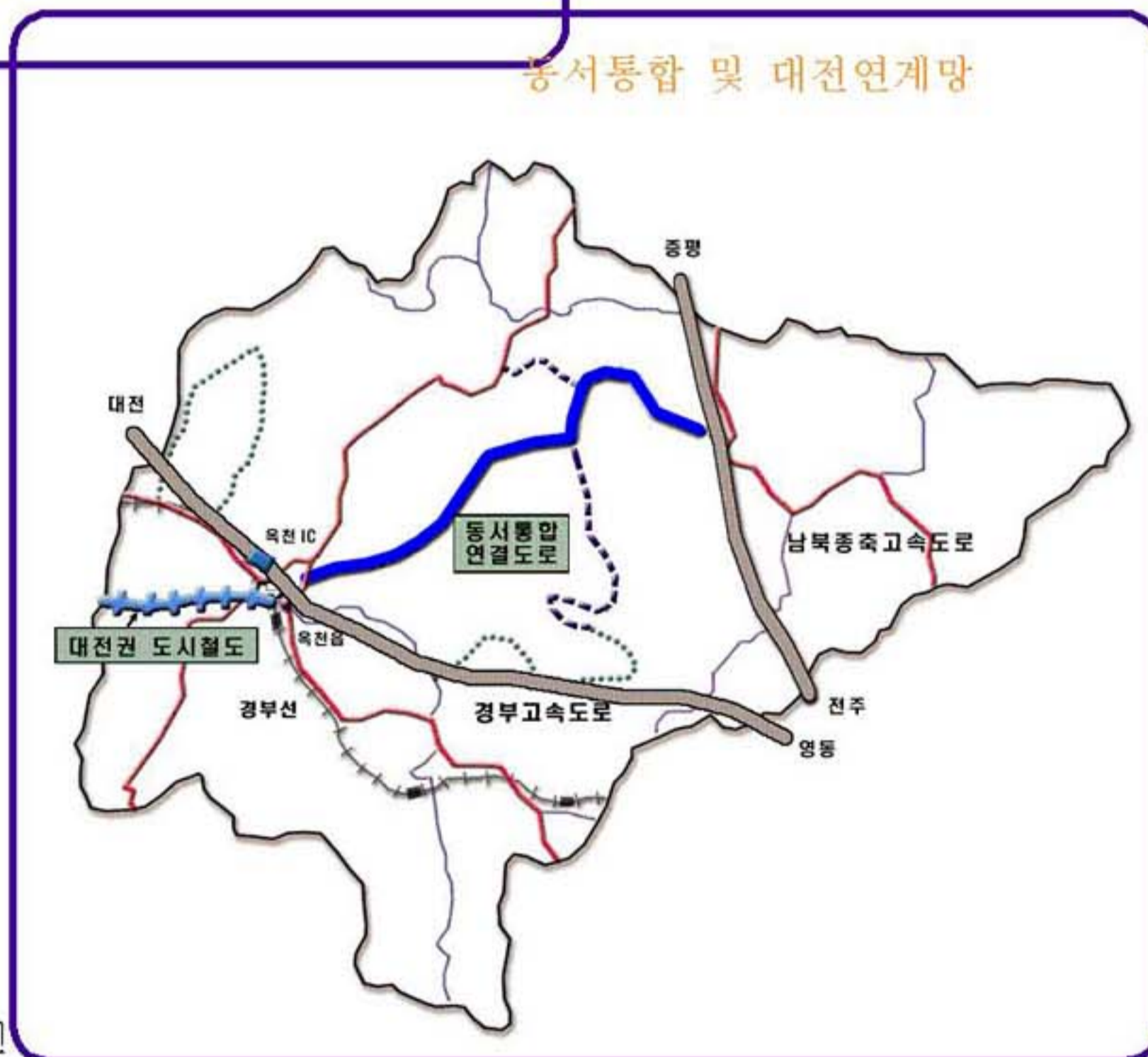
동서통합 및 대전연계망

지역내 동서통합연결도로 개설

- 7번, 18번, 5번군도 확포장
- 옥천읍 구심력 향상
- 청성, 청산지역과의 접근성 향상
- 동서지역간 불균형문제 해결

대전권 도시철도 옥천연결

- 대전 판암동 - 옥천 삼양리
- 옥천지역 광역교통망 구상
-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경부고속철도사업계획과 연계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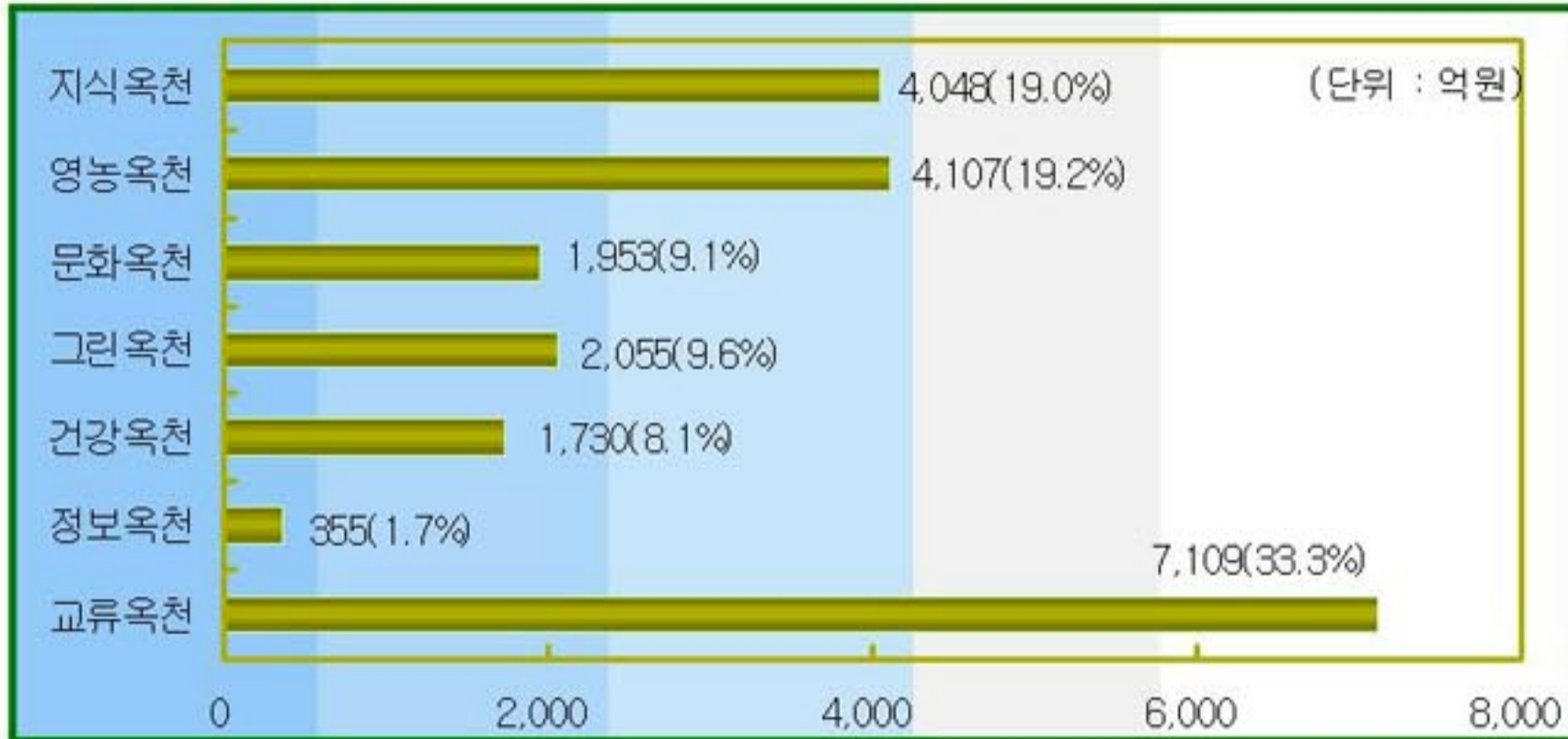
선진형 교통물류시스템 구축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완료
- 경부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한 군도 14호선 증악-향곡간 지방도 연결
- 이원 대흥-신흥간 국도대체 지방도 개설사업 조기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적극 추진
- 임도시설사업, 오지개발사업 추진과 교통공백지역 해소
- 농산물유통센터 조성 및 지역물류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제4편 집행과 관리

1. 투자계획과 자원배분

부문별 투자배분



총 투자액 : 21,357억원

투자결정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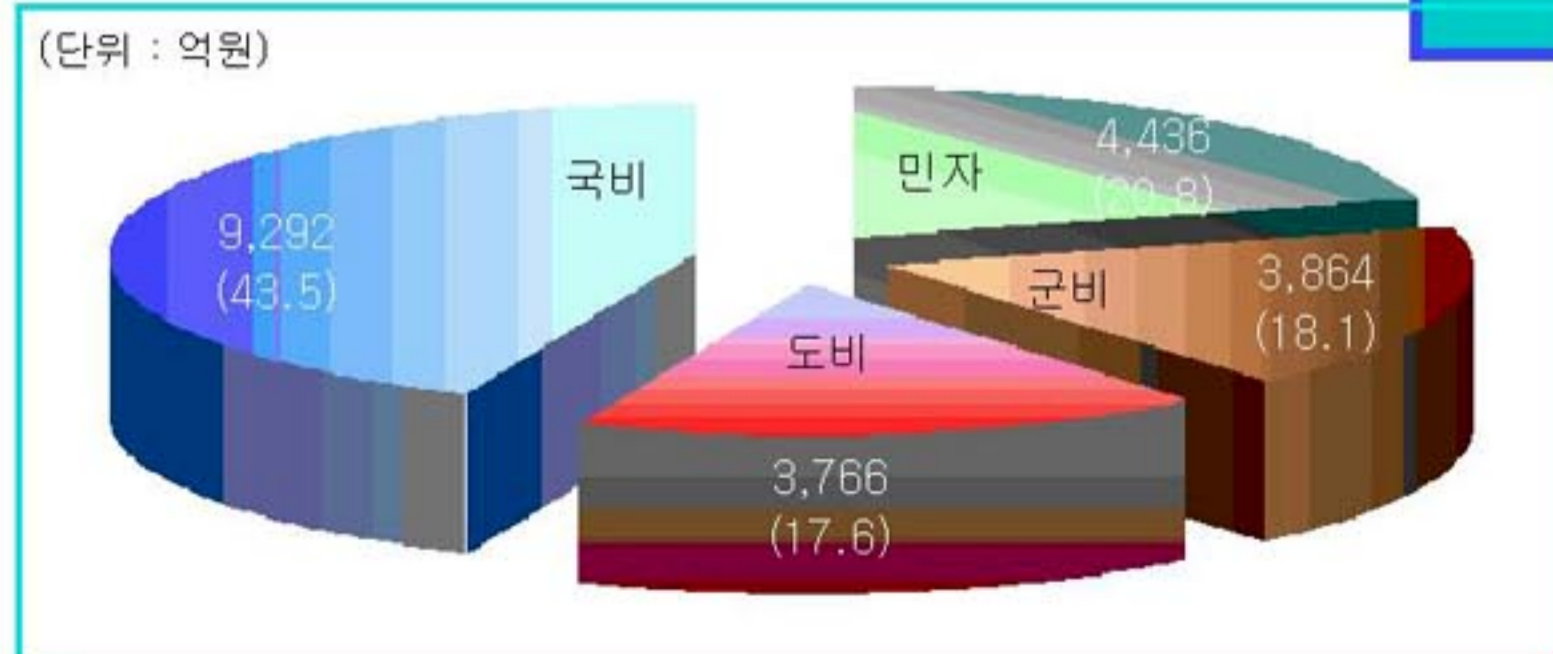
- 투자사업의 핵심역량화
- 계획목표의 달성도
- 지역개발 파급효과
- 지역간 협력 및 연계사업

연차별 투자배분



- 단기투자 : 4,452억원(20.8%)
- 중기투자 : 7,080억원(33.2%)
- 장기투자 : 9,825억원(46.0%)
- 정보, 문화, 환경부문 장기투자비중 강화
- 지식, 건강부문 단기투자비중 강화

- 대규모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물리적 인프라부문은 국비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관광, 지식산업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큰 부문은 민자의 비중을 강화
- 공공성이 높은 문화여건, 사회복지, 환경관리 등의 부분은 중복도와 육천의 투자비중을 높이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및 영농지원부문에 대해서는 군비의 역할을 강조



재원별 투자배분

2. 행정지원 및 재원확보

행정력 및 지역역량 결집

- 군정의 내부역량 강화
 - 전방위적 행정체계 구축
 - 자율적 자치업무 확대
 -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주민분위의 행정체계
 - 주민통합과 의식결집
 - 고객만족 행정체계
 - 주민참여 확대와 NGO 육성
- 성과지향적 사업관리
 - 연차별 추진상황 점검
 - 계획부서의 관리기능 강화
 - 상시평가체계 확립과 피드백



투자재원 확보방안

- 국고지원 확보방안
 - 국가정책과 정합성 높은 국책사업 유도
 - 지역정책 결정시 경제적 타당성 철저 평가
 - 지역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지침 수립
 - 투자심사제도의 정착 및 발전유도
- 지방재정 확대방안
 -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과세강화를 위한 직무 및 인력재배치
 - 사업집행의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강화
 - 투융자심사분석제도 강화
 -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 민자유치 활성화
 - BT, 문화, 여가산업 분야에 전략적 마케팅
 - 민자유치 전담기구의 설치

2. 행정지원 및 재원확보

행정력 및 지역역량 결집

- 군정의 내부역량 강화
 - 전방위적 행정체계 구축
 - 자율적 자치업무 확대
 -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주민본위의 행정체제
 - 주민통합과 의식결집
 - 고객만족 행정체제
 - 주민참여 확대와 NGO 육성
- 성과지향적 사업관리
 - 연차별 추진상황 점검
 - 계획부서의 관리기능 강화
 - 상시평가체제 확립과 피드백



투자재원 확보방안

- 국고지원 확보방안
 - 국가정책과 정합성 높은 국책사업 유도
 - 지역정책 결정시 경제적 타당성 철저 평가
 - 지역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지침 수립
 - 투자심사제도의 정착 및 발전유도
- 지방재정 확대방안
 -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과세강화를 위한 직무 및 인력재배치
 - 사업집행의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강화
 - 투융자심사분석제도 강화
 -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 민자유치 활성화
 - BT, 문화, 여가산업 분야에 전략적 마케팅
 - 민자유치 전담기구의 설치

목 차

계획수립의 개요	1
제1편 과거와 현재	7
제1장 옥천의 일반현황	9
제1절 자연적 환경	9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13
제2장 옥천의 여건평가	22
제1절 지역개발의 제약점	22
제2절 개발잠재력	24
제3장 옥천 관련계획 검토	26
제4장 옥천주민의 개발수요	31
제1절 조사개요	31
제2절 주민의견	31
제2편 희망과 미래	39
제5장 여건변화와 과제	41
제1절 인문사회적 측면	41
제2절 산업경제적 측면	42
제3절 공간 및 교통 측면	43
제4절 정보통신 여건측면	45
제6장 비전과 발전목표	48
제1절 발전목표	48
제2절 인구지표	49

제 7장 지역공간구조 개편	51
제1절 지역발전축의 설정	51
제2절 공간적 기능배분	53
제3편 과제와 전략	55
제 8장 지식육성 실현	57
제1절 현황과 전망	57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68
제3절 육성방안	75
제4절 세부추진계획	80
제 9장 영농육성 실현	95
제1절 현황과 전망	95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00
제3절 육성방안	110
제4절 세부추진계획	113
제10장 문화육성 실현	125
제1절 현황 분석	125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35
제3절 육성방안	137
제4절 세부추진계획	140
제11장 그린육성 실현	155
제1절 현황과 전망	155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58
제3절 육성방안	162
제4절 세부추진계획	165

제12장 건강육천 실현	180
제1절 현황과 전망	180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90
제3절 육성방안	193
제4절 세부추진계획	197
제13장 정보육천 실현	212
제1절 현황과 전망	212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221
제3절 육성방안	226
제4절 세부추진계획	229
제14장 교류육천 실현	249
제1절 현황과 전망	249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258
제3절 육성방안	260
제4절 세부추진계획	261
제4편 집행과 관리	271
제15장 투자계획과 자원조달	273
제1절 투자계획	273
제2절 자원조달방안	277
제16장 행정지원체계 확립	281
제1절 행정지원의 기본체계	281
제2절 행정력 및 지역역량 결집	281
제3절 부문별 행정지원체계	285
부록 : 투자계획 세부내역	296

계획수립의 개요

계획의 취지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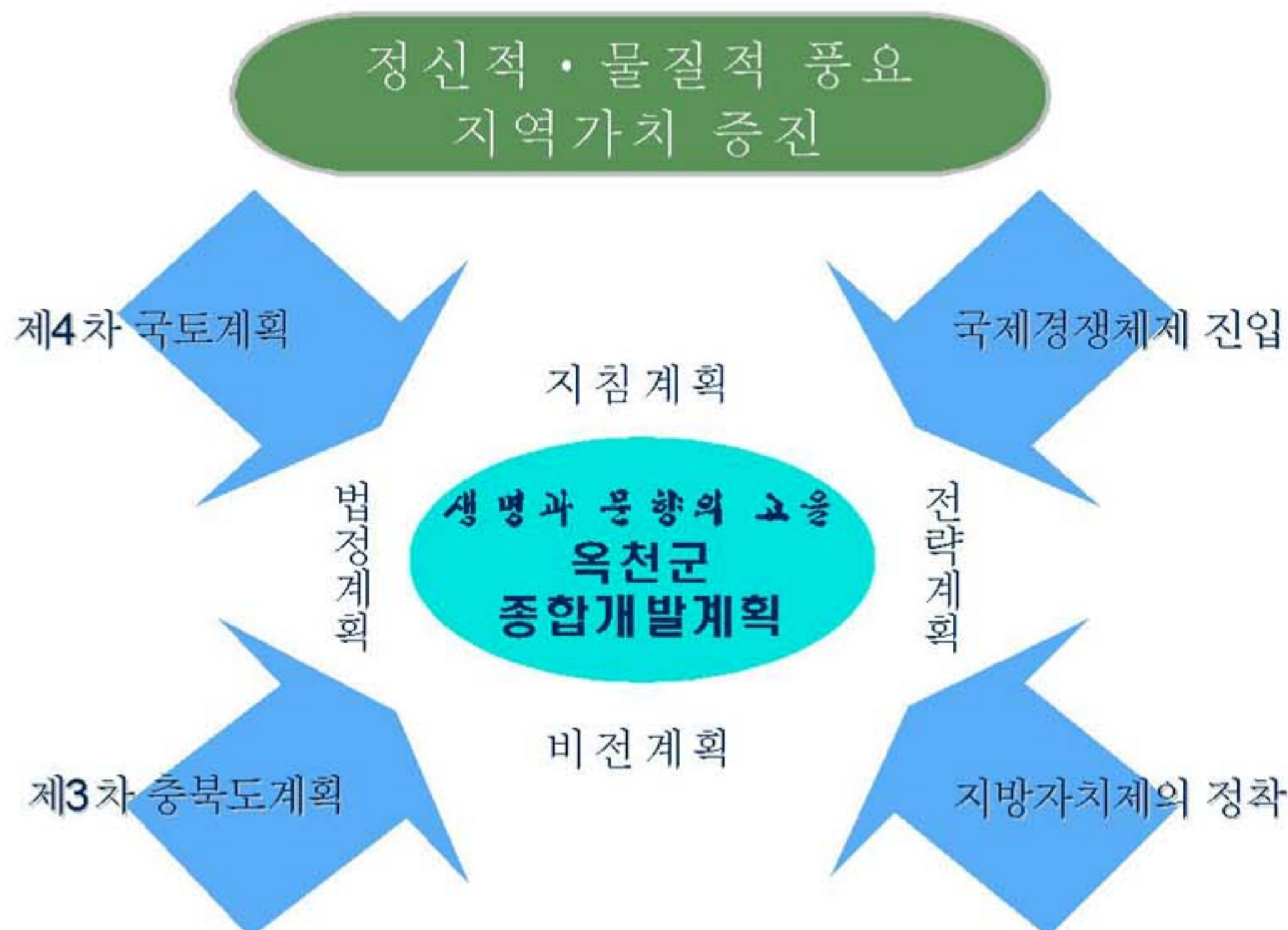
계획의 기간

보고서 편재

옥천은 향수의 고장, 문화의 고장이다. 옥천은 천혜 절경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싱그런 옥천포도가 알알이 영그는 살기좋은 고장이다.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뿌리를 내린 곳으로 훌륭한 선인들의 숨결과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어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가 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간과 지식과 자연이 함께하는 옥천군종합개발계획에 결집시키고자 한다. 이같은 21세기 옥천의 미래를 본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천군종합개발계획은 옥천발전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진 옥천군정의 지침서이다.

□ 계획의 취지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국토계획을 매10년 간격으로 수립하여 왔으며, 현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기간중에 있음.
-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써 제3차 충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000~2020)을 수립하여 20년간의 개발방향과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대외적으로 볼 때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세계화의 확산은 지역간의 경쟁체제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단위 지역도 국제사회의 경쟁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임.
-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지역간에도 연계와 독립의 양상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므로 옥천지역 내부에서도 자치의 의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
- 따라서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옥천지역 내 제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제시하는 지침서임.



□ 계획의 성격

계획의 성격

- ▷ 법정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 비전계획 / 21세기 옥천의 미래를 설정하는 비전계획
- ▷ 전략계획 / 옥천지역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계획
- ▷ 지침계획 / 옥천군정의 목표와 방향과 설정하는 지침계획

▶ 법정계획

- 옥천군종합계획은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북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골격을 군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임.
- ▶ 군계획은 국토계획이나 도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군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담는 계획임.

▶ 비전계획

- 21세기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써 여건변화 전망을 토대로 옥천의 미래를 설정하고 가능성을 확립하는 비전계획임.
- ▶ 미래의 옥천비전과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사진적 성격을 지닌 미래지향적 계획임.

▶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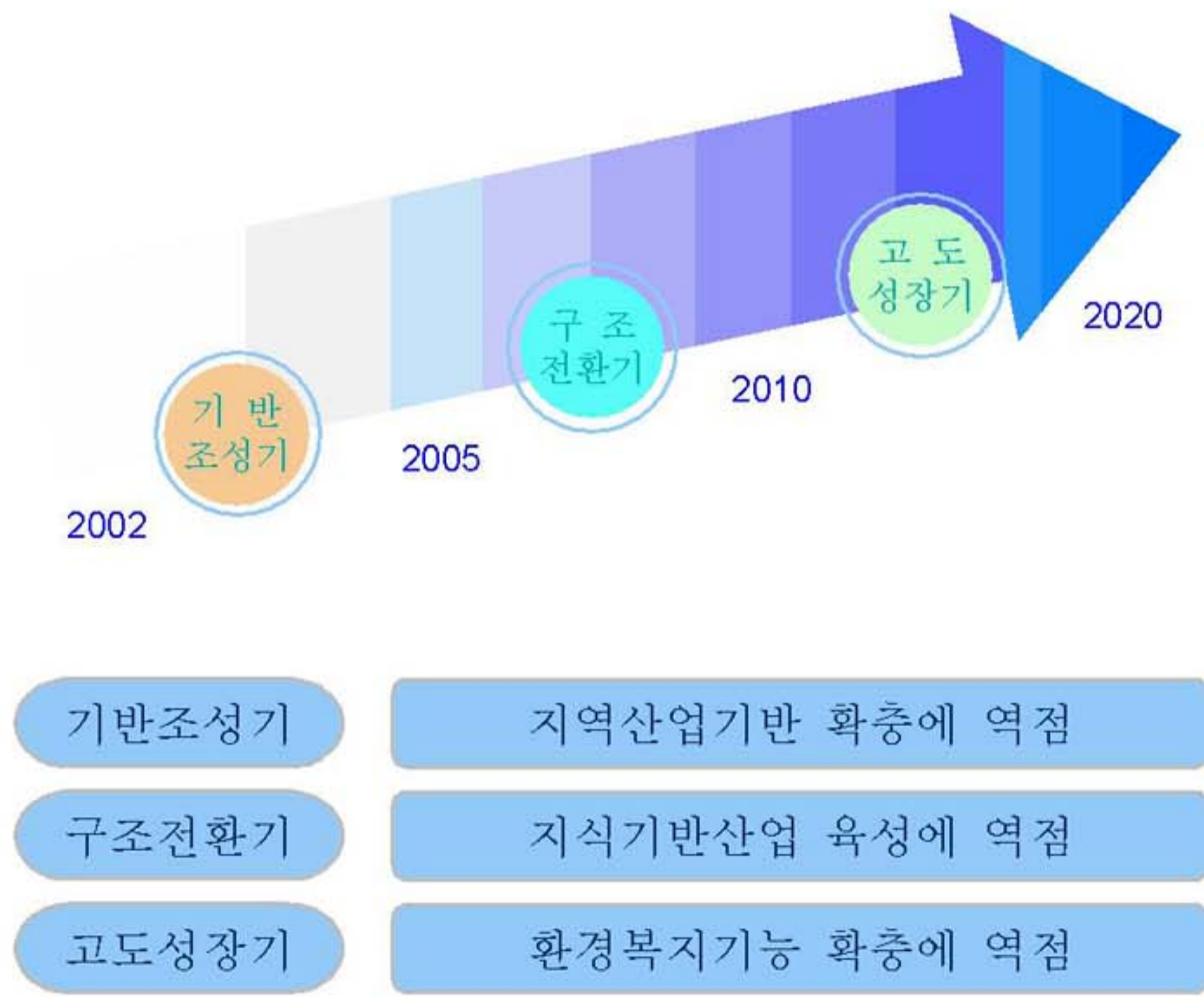
- 옥천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의 모색과 시책의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계획임.
- ▶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여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목표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계획임.

▶ 지침계획

- 옥천지역의 장기발전방향, 전략, 사업 등의 제시를 통하여 부문별 세부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며 민간부문에 대한 개발지침과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임.

□ 계획의 기간

- 본 옥천군종합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과 제3차 충북도계획의 지침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일치시킴.
- 옥천지역의 성장전략과 사업을 제시함에 있어서 2005년까지는 주로 산업구조 개편 등 기반조성에 치중하고,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조성된 성장기반을 토대로 활발한 성장활동을 전개하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성장활동의 성숙기로서 품격 높은 생활 및 생산환경을 조성함.
 - ▶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는 자료의 최종년도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000년, 2001년도 자료도 활용함.
- 한편, 기반조성기에는 구체적인 단위사업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구조전환기에는 현실성 있는 전략과 사업개요를 제시하며, 고도성장기에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장기구상안을 제시함.



□ 보고서 편재

▷ 제1편 / 과거와 현재

제1장 옥천의 일반현황

제2장 옥천의 여건평가

제3장 옥천 관련계획 검토

제4장 옥천주민의 개발수요

▷ 제2편 / 희망과 미래

제5장 여건변화와 과제

제6장 비전과 발전목표

제7장 지역공간구조 개편

▷ 제3편 / 과제와 전략

제 8장 지식옥천 실현

제 9장 영농옥천 실현

제10장 문화옥천 실현

제11장 그린옥천 실현

제12장 건강옥천 실현

제13장 정보옥천 실현

제14장 교류옥천 실현

▷ 제4편 / 집행과 관리

제15장 투자계획과 자원조달

제16장 행정지원체계 확립

과거와 현재

제1장 옥천의 일반현황

제2장 옥천의 여건평가

제3장 옥천 관련계획 검토

제4장 옥천주민의 개발수요

제
1
편

옥천지역 동부는 소백산맥의 지맥이 뻗어 마니봉, 율리봉, 대성산 등이 중첩되어 있고 금강 상류가 바위사이를 구비구비 돌아 마치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북서류하고,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가 근내를 관통하고 있으며 광산물과 하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명승고적이 많고, 삼국시대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진 삼국공방과 백제 성왕이 전사한 곳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다. 동쪽으로는 경북 상주군,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남쪽으로는 영동군, 북쪽으로 보은군에 인접한 약 539.22km²의 지역으로 대전의 근교 농업지로서 또는 대전 근교의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대전위성도시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남한의 중앙점에 위치하여 앞으로 옥천군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발전상이 기대되는 유망지역이다.

제1장 옥천의 일반현황

제1절 자연적 환경

1.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남부에 위치한 옥천군은 동쪽으로 소백산맥과 경북 상주시, 서쪽으로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에 접해 있으며, 남쪽은 영동군, 북쪽은 보은군과 접하고 있는 내륙에 위치한 지역임.

【 옥천군의 지리적 위치 】

구 분	지 명	극 점
동 단	청산면 명티리	동경 127°53' / 북위 36°21'
서 단	군서면 사양리	동경 127°29' / 북위 36°15'
남 단	이원면 평계리	동경 127°39' / 북위 36°10'
북 단	안내면 월외리	동경 127°38' / 북위 36°26'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옥천지역의 면적은 1999년 현재 총 537.12km²으로 이는 충북 전체 7,431.68km²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약 0.54%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옥천지역 전체면적 중 임야와 농경지가 약 47%로 주로 산림자원과 농특산자원이 발달해 있음.

【 옥천군 면적 】

구 분	면 적
전국 면적 (A)	99,434.26 km ²
충북 면적 (B)	7,431.68 km ²
옥천 면적 (C)	537.12 km ²
전국대비 (C/A)	0.54 %
충북대비 (C/B)	7.22 %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0.

- 옥천군의 읍·면별 면적을 보면 청성면이 군전체의 15.4%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산림에 속하여 있으며, 옥천읍은 8.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안남면은 5.9%로 가장 낮은 면적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읍·면별 면적 】

구 분	면 적(km ²)	비 중(%)
옥 천 읍	47.49	8.8
동 이 면	60.22	11.2
안 남 면	31.71	5.9
안 내 면	64.31	12.0
청 성 면	82.96	15.4
청 산 면	72.49	13.5
이 원 면	66.32	12.3
군 서 면	45.99	8.6
군 북 면	65.59	12.2
옥 천 군	537.12	100.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2. 지형 및 하천

- 지형적으로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산악지대이며,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의 팔음산을 최고봉으로 하고, 남쪽은 천금산, 천관산, 도덕봉, 월이산, 북쪽은 삼승산, 금적산, 덕대산이 군을 여덟 팔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
- 보은군의 국사봉을 시작으로 거명산, 덕대산, 하마산, 둔주봉, 철봉산, 월이산, 마니산으로 이어지면서 옥천지역이 동서로 분리되어 지역통합과 연계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천은 산간지대의 급류하천으로 지역내 중심부를 통과해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하천이 합류하고 있음.
- 보은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금강에 합류하는 보청천은 군내 제일의 평야인 청산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충남 금산군에서 유입하는 옥천천은 북쪽으로 흘러 옥천분지를 형성한 뒤 군북면에서 금강에 합류하고 있음.

3. 기상개황

- 최근 10년간(1990~1999) 연평균 기온은 12.9℃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의 평균 최고, 최저 기온의 격차는 12.3℃로 매우 크게 나타나 건조한 내륙북부형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연평균 강수량은 1,232.9mm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강우분포는 여름철 하기에 연간 강수량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그 유실율이 매우 큼.
-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간 강수량의 1/3정도가 집중되는 8월로써 많은 홍수 피해를 주는 반면, 동절기에는 매우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음.
- ▶ 최근 '98, '99년의 경우는 초가을인 9월에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10월에도 140mm로 가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평균 월별 강수량(1995~1999) 】

(단위 : mm,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6.2 (1.3)	20.1 (1.6)	52.1 (4.2)	72.9 (5.8)	89.4 (6.9)	224.5 (17.9)	196.2 (15.6)	328.8 (26.2)	131 (10.4)	61.0 (4.8)	54.1 (4.3)	16.1 (1.0)	1,262 (100.0)

주 : ()의 숫자는 연강수량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년도.

4. 토지이용현황

- 1999년 현재 토지의 종별현황과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면적 중 임야가 404km²로써 가장 많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53.94km²), 담(63.46km²)은 117.4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하천(12.55km²), 유지(12.99km²), 구거(10.85km²)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논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과수원과 목장용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 변화추이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공장용지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 1999년 현재 옥천군 토지이용현황의 경우 전국 및 충북과 비교해 보면 우선 논, 밭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임야의 경우는 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충북보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하천과 제방의 경우는 전국과 충북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지류들이 많은 것과 옥천군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대청댐의 영향으로 보임.
- 대지의 경우도 전국과 충북보다 이용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부내륙에 위치한 산악지형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며, 기타 구거, 유지는 상대적으로 타지방에 비해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잡종지는 이용율이 낮게 나타남.

【 토지종별의 변화 】

(단위 : km², %)

구 분	1985	1990	1995	1998	1999
밭	65.61(12.3)	60.18(11.2)	59.46(11.0)	58.65(10.9)	58.27(10.8)
논	53.21(10.0)	49.78(9.3)	50.35(9.4)	49.66(9.2)	49.39(9.2)
과수원	1.60(0.3)	1.64(0.3)	1.92(0.4)	2.19(0.4)	2.26(0.4)
목장용지	0.09(0.0)	0.19(0.0)	0.19(0.0)	0.35(0.1)	0.45(0.1)
임야	359.40(67.2)	356.65(66.7)	353.77(65.8)	351.0(65.3)	350.7(65.2)
대지	6.99(1.3)	6.90(1.3)	7.55(1.4)	7.97(1.4)	8.08(1.5)
공장용지	0.03(0.0)	0.40(0.1)	1.18(0.2)	1.34(0.2)	1.36(0.2)
학교용지	0.79(0.1)	0.75(0.1)	0.74(0.1)	0.73(0.1)	0.73(0.1)
도로	9.85(1.8)	9.52(1.8)	10.27(1.9)	11.14(2.0)	11.62(2.2)
철도용지	0.95(0.2)	1.05(0.2)	1.17(0.2)	1.18(0.2)	1.17(0.2)
하천	22.54(4.2)	13.31(2.5)	13.42(2.5)	14.64(2.7)	14.58(2.7)
제방	0.33(0.1)	0.34(0.1)	0.34(0.1)	0.35(0.1)	0.37(0.1)
구거	9.19(1.7)	8.92(1.7)	9.83(1.8)	9.93(1.8)	10.75(2.0)
유지	2.17(0.4)	23.25(4.3)	24.14(4.4)	25.22(4.7)	25.23(4.7)
수도용지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체육공원	-	0.03(0.0)	0.04(0.0)	0.03(0.0)	0.03(0.0)
유원지	-	-	-	0.01(0.0)	0.01(0.0)
종교용지	0.02(0.0)	0.02(0.0)	0.73(0.1)	0.09(0.01)	0.01(0.0)
사적지	0.001(0.0)	0.001(0.0)	0.001(0.0)	0.001(0.0)	0.001(0.0)
묘지	1.78(0.3)	1.73(0.3)	1.62(0.3)	1.63(0.3)	1.66(0.3)
잡종지	0.17(0.0)	0.41(0.1)	0.79(0.1)	0.9(0.2)	1.0(0.2)
합계	534.7(100)	535.1(100)	536.0(100)	537.0(100)	537.1(100)

주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연도.

【 토지이용 현황비교 】

구 분	전 국 (%)	충 북 (%)	옥 천 (%)
밭	10.1	11.3	10.8
논	15.6	11.5	9.2
임 야	65.5	70.8	65.2
대 지	2.9	2.0	1.5
도 로	1.1	1.0	2.2
하 천	0.3	0.3	2.7
제 방	0.0	0.0	0.1
구 거	0.2	0.2	2.0
유 지	0.6	0.4	4.7
묘 지	0.3	0.3	0.3
잡 종 지	0.6	0.3	0.2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0.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1. 인구규모

- 옥천군의 인구는 전국 농촌지역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90년 70,700명에서 1999년 말 62,072명으로 12%가 줄어들었음.
- ▶ 인구비중은 전국의 0.94%, 충북의 2.9%에 해당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충북평균(201.5명/km²)의 절반정도인 115.6명/km²임.
- 읍·면별 인구분포를 보면, 옥천읍이 31,051명(50.02%)으로 매우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남면의 경우는 2,081명(3.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읍·면간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별 인구현황 】

구 분	인구수(명)	구성비(%)
옥 천 읍	31,051	50.02
동 이 면	4,226	6.81
안 남 면	2,081	3.35
안 내 면	2,802	4.51
청 성 면	3,653	5.89
청 산 면	5,079	8.18
이 원 면	6,473	10.43
군 서 면	3,167	5.10
군 북 면	3,540	5.71
합 계	62,072	100.0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인구의 순이동값은 전입·전출의 사회동태를 종합한 것으로서 1990년에는 4,932명이 감소하였고, 1996년 1,720명, 1999년에는 856명이 감소하여 지역인구의 지속적인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인구의 순이동 추이 】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순이동(명)	-4,932	-1,669	-3,445	-1,720	-938	-856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연도.

2. 인구구조

- 인구구조를 보면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연소인구(0~14세)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고령인구(65세인구)의 비중이 증대되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연소인구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의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연소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해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활동을 담당하게 될 생산활동인구수(15-64세)는 1999년 현재 43,508명으로 전체 인구의 70.1%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추이(1980~1999) 】

(단위 : 명,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9
연소인구(0~14)	19,860 (21.8)	24,209 (29.0)	16,465 (23.5)	11,105 (17.2)	10,279 (16.6)
생산인구(15~64)	65,778 (73.2)	53,219 (63.8)	46,548 (66.4)	46,396 (71.7)	43,508 (70.1)
고령인구(65세이상)	5,618 (6.2)	6,034 (7.2)	7,097 (10.0)	7,193 (11.1)	8,285 (13.3)

주 : ()안의 수치는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년도.

- 옥천군의 연령별·성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연소인구에서는 남성의 인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산아조절의 결과로 나타남.
- 생산활동인구는 남성인구비중이 51.7%로 48.3%의 여성인구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구직이 용이한 도시로 진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여성인구의 비중이 59.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성별구조를 살펴보면 1999년 현재 남자인구는 31,109명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인구는 30,736명으로 49.7%를 차지하여 남성의 인구비중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 인구구조 】

(단위 :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연소인구(0~14)	5,393(52.5)	4,886(47.5)	10,279
생산인구(15~64)	22,381(51.7)	20,900(48.3)	43,281
고령인구(65세이상)	3,335(40.3)	4,950(59.7)	8,285
전체인구	31,109(50.3)	30,736(49.7)	61,845

주 : 외국인은 제외함.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3. 가구수

- 가구수는 1999년 현재 20,125가구로, 1990년 18,221가구보다 1,904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핵가족화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표적으로 옥천읍, 안내면, 군북면이 이에 해당되며 기타 지역에서는 큰 변동이 없음.
- 총가구수는 충북도내 전체가구수 비중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가구당 인구수는 3.08명으로 충북평균인 3.2명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곳은 옥천읍으로서 9,19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옥천군 전체의 4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비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고, 가장 적은 가구 비중을 보이고 있는 곳은 인구와 마찬가지로 안남면으로 나타났으며, 756가구에 3.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가구당 인구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옥천읍으로서 약 3.34명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북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며,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안내면으로 2.15명을 보이고 있어 중심지역과 기타지역의 불균형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읍·면별 가구현황 】

구 분	가구수(개)	구성비(%)	가구당 인구수(명)
옥천군	20,125	100.00	3.08
옥천읍	9,190	46.16	3.34
동이면	1,446	7.19	2.92
안남면	756	3.76	2.75
안내면	1,301	6.47	2.15
청성면	1,383	6.87	2.64
청산면	1,820	9.04	2.79
이원면	2,163	10.75	2.99
군서면	1,024	5.09	3.09
군북면	1,212	6.02	2.92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4. 산업구조

- 옥천지역의 농가인구는 25,789명으로써 전체인구의 42.2%를 점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사업체 취업자수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33.1%,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이 61.9%를 점하고 있음.

【 산업별 사업체 취업자수 】

구 분	농 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합 계
취업자수(명)	52	18	5,161	725	4,042	5,615	15,613
비 중(%)	0.3	0.1	33.1	4.6	25.9	36.0	100.0

자료 : 옥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

- 광공업현황을 살펴보면 '99년 현재 총사업체수가 163개로서 충북대비 6.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4,706명으로 충북대비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수 비중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액은 752,447백만원으로 충북 생산액의 3.6%의 비중을 차지하여 사업체수나 종업원 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광공업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전국대비 0.0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광공업 현황 】

구 분	사업체수 (개소)	종업원수 (명)	생산액 (백만원)	출하액 (백만원)	부가가치액 (백만원)
전 국	91,889	2,527,053	481,317,280	479,577,899	202,034,382
충 북	2,354	99,319	21,038,107	20,865,690	10,343,233
옥 천	163	4,706	752,447	753,916	282,588
전국대비	0.18	0.186	0.16	1.6	0.05
충북대비	6.9	4.7	3.6	3.6	2.7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 2001년 현재 옥천지역내 제조업체는 총 325개 업체로써 종업원수는 4,965명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고, 절반이 넘는 업체가 개별입지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제조업체 현황(2001. 1) 】

구 분	형 태 별			입 지 별			가 동 별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농 공	창 업	개 별	가 동	건 축	휴폐업	
기업체(개소)	9	305	11	66	90	169	249	36	40	325
종업원(명)	1,173	3,724	68	1,888	630	2,447	4,965	-	-	4,965

자료 : 옥천군, 주요업무보고자료, 2001. 1.

-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벤처기업들 대부분이 기계금속업종과 음식료품업종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금속업종의 경우는 전종업원의 31%를 점하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벤처기업 업종별 현황(2001. 1) 】

구 분	기계금속	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가죽	음식료품	기 타	합 계
기업체(개소)	73	23	21	39	37	63	60	316
종업원(명)	1,177	294	253	360	477	664	567	3,792

자료 : 옥천군, 주요업무보고자료, 2001.1.

- 옥천군내 계획입지로는 5개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782,235㎡ 면적에 70개업체가 입주해 있음.
- ▶ 총 지정면적은 1,000,000㎡(302,500평)이며 이중 현재 782,765㎡가 조성되었고 잔여 조성가능면적은 217,235㎡(65,713평)임.

【 농공단지 현황 】

단 지 명	옥 천	동 이	이 원	청 산	구 일	합 계
면 적(㎡)	282,235	161,029	141,619	65,390	132,492	782,765
입주업체(개소)	22	27	8	4	9	70

5. 재정구조

- 옥천군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세입구조에서 1999년도에 지방세의 비중이 10.4%, 세외수입의 비중은 20.2%, 교부세 32.9%, 보조금 27.1%, 지방양여금은 9.3%로 교부세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그러나 안정적 세입항목인 지방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세출구조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3.2%, 사회개발비는 33.2%, 경제개발비는 35.5%, 기타 6.9%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큼.
- 세출을 보면 1999년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세입 중 자주적 재원은 그 증가율이 불안정하거나 세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출 중 1999년 외환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사회개발비 등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등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옥천군의 재정추이(결산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세 입	99,517	106,248	109,183	89,565
지 방 세	10,027	9,413	9,061	9,341
세외수입	28,203	29,177	24,737	18,136
교 부 세	27,289	31,162	31,425	29,454
보 조 금	22,584	27,285	34,689	24,263
지방양여금	8,413	9,211	8,496	8,370
세 출	77,828	89,753	97,378	79,156
일반행정비	20,060	19,752	18,386	19,963
사회개발비	25,697	33,369	33,687	25,453
경제개발비	29,935	33,918	42,485	28,996
민방위비	510	671	494	539
지원 및 기타	1,625	2,043	2,327	4,204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년도.

- 2001년 현재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21.7%로써 충북내 군지역 평균 22.5%보다도 낮은 편이나 전국 군지역 평균 21.0%보다는 약간 높은 편임.

【 재정자립도 비교(2001) 】

단체명	자립도(%)	단체명	자립도(%)	단체명	자립도(%)	단체명	자립도(%)
합 계	36.5	청 주	77.0	청 원	27.1	진 천	30.2
도본청	27.6	충 주	29.2	보 은	10.9	괴 산	19.4
시군계	36.0	제 천	28.6	옥 천	21.7	음 성	31.8
시 계	49.5	군 계	22.5	영 동	20.5	단 양	17.4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내부공개자료, 2001.8.

6. 도로

- 1999년 옥천군 전체도로연장 391.3km중 50.4%인 197.4km가 포장되어 전국 평균은 물론 충청북도와 비교하여도 포장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도의 포장율은 16.7%로 도로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현황 】

구 분	총 계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군도	
	도로연장 (km)	포장률 (%)	연장 (km)	포장률 (%)	연장 (km)	포장률 (%)	연장 (km)	포장률 (%)	연장 (km)	포장률 (%)
전 국	87,534.3 (65,356.3)	74.7	2,040.5	100.0	12,418.0 (12,187.5)	98.1	17,144.8 (13,215.0)	77.1	38,039.3 (22,459.4)	59.0
충 북	6,042.4 (3,965.9)	65.6	155.0	100.0	914.0	100.0	1,469.4 (1,205.5)	82.0	3,503.9 (1,691.4)	48.3
옥 천	391.3 (197.4)	50.4	27.2	100.0	70.7	100.0	85.3 (64.8)	76.0	208.1 (34.7)	16.7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0.

옥천군의 위상

- ▶ 옥천군은 인구로는 전국의 약 0.1%, 충북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과 충북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광공업체수는 전국의 0.17%, 충북의 6.9%를 점유하고 있어 인구수에 비해 전국과 충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옥천군이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있고,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의 입지적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 사회·문화적 생활수준과 관련되는 지표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급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의사1인당 인구수는 전국보다 높고 충북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자동차수나 전화가입자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경우는 전국과 충북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전화가입자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지표상 옥천군의 위상 】

구 분	전국(A)	충북(B)	옥천군(C)	상대적 위상	
				C/A	C/B
인구(천명)	46,858	1,497	62.0	0.00132	0.0414
경제활동참가율(%)	60.5	60.5	59.3	0.98	0.98
광공업체수(개소)	91,889	2,354	163	0.00177	0.069
주택보급율(%)	92.7	91.4	98.16	1.06	1.07
상수도 보급률(%)	86.4	70.1	52.5	0.61	0.75
도로포장율(%)	74.7	65.6	52.0	0.70	0.79
인구100명당 자동차수(대)	22	24	20.3	0.92	0.85
의사1인당 인구수(명)	686.5	1190.93	1173.49	1.71	0.99
인구100명당 전화 가입자수	42	41	44.29	1.05	1.08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충청북도, 통계연보, 2000.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0.

제2장 옥천의 여건평가

제1절 지역개발의 제약점

1. 지리적 제약

- 전체적으로 산악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임야가 전체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능용지가 부족하여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대청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각종 법적 개발제한으로 경제적인 자원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대청호로 인한 기상변화의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일조시간 부족하여 지역특산물 과수농가의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 증가 등 간접피해가 유발되고 있음.

2. 인문·사회적 제약

- 최근 7년간 연평균 1.49%의 인구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구성도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활동을 담당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의 사회시설, 상하수도 보급률 등이 저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 대전광역시로의 예속과 더불어 인구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공간적 제약

- 대전광역시 도심으로부터 18km정도의 근거리에 옥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교육·문화·경제생활 등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자족경제권의 형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청호의 건설과 동서지형으로 양분되는 산지지형으로 인해 옥동과 옥서지역으로 양분된 지리환경적 구분은 지역균형과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경제 및 교통의 지역내 통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옥천읍의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가 3등분되어 원활한 도시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고속도로의 경우 옥서지역은 옥천읍을 지나가는 IC가 위치함에 따라 인접지역과의 높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옥동지역은 가까운 IC가 없어 고속도로 진입이 어려우며, 남북연결도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서지역간 연계도로의 미비로 인하여 연계성 있는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내부적으로 볼 때 옥천군 전체의 인구나 각종 문화, 기반시설이 옥천읍에 집중되어 있어 옥천읍 이외의 주민은 문화와 여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성, 청산면에 해당되는 옥동지역의 경우는 옥천읍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부재로 인해 주로 보은군으로 예측되어지는 경향이 있음.

4. 산업경제적 제약

- 지역의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의 1차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최근 전통적 제조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산업경제적 상황하에서 급속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수려한 경관자원과 대청호로 인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관광객은 주로 당일 여행이나 자연소비형 관광을 즐기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함.
- 지역내 민간자본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소득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에의 투자가 힘들고, 이는 다시 지역자본축적을 어렵게 하여 지역생산과 소득증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재정상황의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주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역주력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결과 다른 성장거점지역에 비하여 인근 주변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경제적 흡인력이 미흡하며, 지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그리 높지 못함.

- 지역경제내에 있어서 경제주체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보다는 외부지역과의 연계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옥천지역은 자칫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임.

5. 제도적 제약

- 대청호 수질보전으로 인한 호수지역의 각종 환경규제가 주변지역 산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환경문제의 지구촌화와 함께 특히 물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부권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보전 강화로 인해 지역발전의 큰 제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 지속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속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성숙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지역내 유치육구와 개발제한문제간의 갈등요인이 항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

제2절 개발잠재력

1. 지리적 잠재력

- 풍부한 산림자원을 근간으로 산지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해 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대표적 수자원인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주변산악(환산8경)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청정이미지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늦고 산업개발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무한한 개발가능지역과 청정지역이 산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이 산업시설과 관광위락시설의 유치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으로 규제를 받던 군서, 군북지역의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활발한 독자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수질보호와 관계된 많은 규제로 환경의 훼손이 적은 점과 대도시 주변과 교통이 편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청정 농특산품에 대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대전과 인접해 있음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중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나, 대전시민의 휴식공간, 채소 및 식량공급, 근교주거지 제공 등 지역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함.
- 옥천지역은 중부권 주민들의 젖줄인 대청호와 금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자연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양질의 수자원 확보와 같은 환경자원의 보존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된 지역임.

2. 인문·사회적 잠재력

-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 지역의 입지적 여건변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 등이 지역산업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중부권 최대의 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배후에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
- 국토계획상의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19번 국도의 고속화 등은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시켜 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매우 양호하게 하여 각종 사업유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자연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의 경관도 화려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공해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옥천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부각을 통한 무공해 지역특산품 개발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
- 포도, 묘목 등 타 시·군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의
한계점

대청호 수질보호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대전시로의 경제예속과 지속적 인구유출
동서지역간 연계성 미흡과 주민통합 저해
옥천읍 중심의 지역성장과 면지역 낙후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보유
수준높은 역사문화자원과 시민문화
청정무공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여건 양호
대외적 접근성 향상 및
연구개발기능 여건양호

개발의
잠재력



제3장 옥천 관련계획 검토

국토공간상에 있어서 옥천군의 기능과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과 제3차 충청도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수용하는 한편, 인접한 대전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1) 기본목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하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토관리의 원칙을 마련하고 있음.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하여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은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5대 전략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 충북은 내륙신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을 형성하고,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을 육성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옥천지역 관련내용

- 내륙 문화관광 육성을 통한 민족생태공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아래 옥천지역을 자연생태 관광거점으로 지정하여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첨단 영농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영농의 과학화를 주도하여 수도권, 영호남권, 대전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 농특산품을 육성하고 도·농간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과학영농권은 1+2+3차산업 전략을 통한 과학영농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특산품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담고 있음.

2.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2000~2020년)

(1) 기본목표

- 제3차 충북도계획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토중심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한반도의 융합지대로 부상,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민족생태공원의 중심지 「관광충북」,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2) 옥천지역 관련내용

- 옥천지역은 지역개발권역에서 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과학영농권역으로 설정되어 대전권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확산기능을 흡수, 도시근교형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농특산물주산단지 조성과 유통거점지역으로 육성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단양-제천-충주호-수안보-화양동-속리산-보은-옥천-영동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를 건설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결집·테마화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첨단 영농기술이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을 창출하고, 대전·청주권, 수도권은 물론 해외농산물시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과학영농특화지구 중심지역인 옥천에 허브식물을 집중육성하고 관련 연구소설립과 이 외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식물을 연구·보급함.
- 영동-옥천-단양을 잇는 내륙순환관광벨트의 명소이미지화를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호도나무단지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지역관광의 세계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옥천지역에는 바이오 체험농장을 건립함.

- 문향의 도시인 옥천읍내 ‘구읍 삼거리~옥영수여사 생가’ 1km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며, 지용제, 중봉충렬제 등의 지역축제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냄.

3. 대전광역시 장기발전기본계획(1990~2010년)

(1) 기본목표

- 지방자치제가 정착기에 접어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서해안 개발이 적극 추진되면 이 과정에서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지역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수도권외 행정기능을 적극 수용하면서 중부권의 핵심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문화공간의 창조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함.

(2) 옥천지역 관련내용

- 대전광역시권에는 옥천도 포함되며 광역경제권에 대해 금융, 유통, 정보 등은 물론 부품과 중간재 조달, 시장 접근성 등 배후지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함.
- 대전을 포함한 광역경제권내에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체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여 산업간 연계개발의 기초를 튼튼히 함.
- 대전은 주변에 공업중심의 위성도시가 없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대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이후 대전은 경영, 관리, 제조업 지원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변지역인 옥천지역과도 대전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적 분업체계를 구축함.

4. 대전권 광역도시계획(2002-2020년)

(1) 기본목표

- 제4차국토개발에서 설정한 대전광역시권의 위상과 기능배분원칙을 수용하여 통합적 공간체계를 형성하며,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등 주변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함.

- 도시·지역별 산업 및 서비스기능, 광역시설, 교통망 등의 적정배치로 충청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지식·정보거점도시권의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이용으로 자연환경의 접근성을 강화함.

(2) 옥천지역 관련내용

- 대전광역권은 총 6개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옥천군은 영동군과 함께 동부생활권에 속해 있는 바, 옥천권은 물류·유통, 대도시 배후 친환경 전원도시 및 경관보전지역의 역할을 담당함.
- 옥천권 지역을 중심권,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중심권(옥천읍)은 대전 이남 지역을 서비스하는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함.
- 북부권(안내, 안남, 군북)은 친환경 전원주거 및 수변 휴양위락기능을 담당하며, 동부권(청산, 청성)은 레저휴양 및 시설원예, 목축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남부권(이원, 동이, 군서)은 대도시 근교권의 전원주거 및 여가지대로서 물류단지 및 과일·묘목의 특화 단지를 건설함.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계획(2002 ~ 2006)’

- 충청·대전권을 포함한 전국 3개권역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조1000억원의 국비지원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며, 충청·대전권의 전략산업으로는 전자·생물산업(의학, 화학, 동물자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충청·대전권의 투자규모는 국비 3,149억원, 융자 1,200억원 등 총 4,349억원이 투입되며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성과를 사업화시켜 나갈 계획임.
- 충북의 경우는 전자부품(오창)과 보건의료(오송·제천), 충남의 경우는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동물자원), 대전은 생물·의화학 및 정보통신을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함.
- 충북의 투자규모는 국비 742억원, 국비용자 250억원, 지방비 및 민자 350억 원등 모두 1,342억원이 투입되어 4개의 지역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각각 522억원과 252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제품 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예정임.
-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바이오관련산업의 정보, 기술, 인력공유, 기술개발, 창업보육 기능을 담당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며, 제천왕암산업단지에는 전통의약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연구개발을 담당할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를 건립예정임.
- 대덕밸리에는 생물, 의화학, 정보통신의 우수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내 생물산업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메카를 구축함.

제4장 옥천주민의 개발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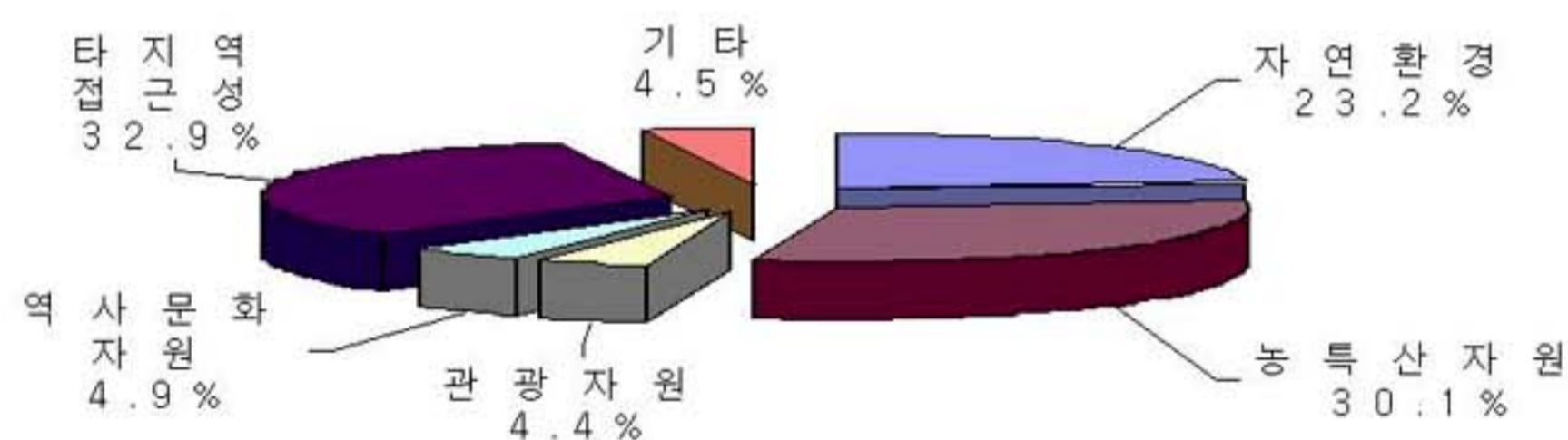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옥천군의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정립
- 조사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 조사기간 : 2001. 9. 9 ~ 9. 19
- 조사부수 : 674매 (2001년 옥천군 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 전산처리 :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유의수준 95%기준으로 한 χ^2 -test 실시

제2절 주민의견

(1) 타지역과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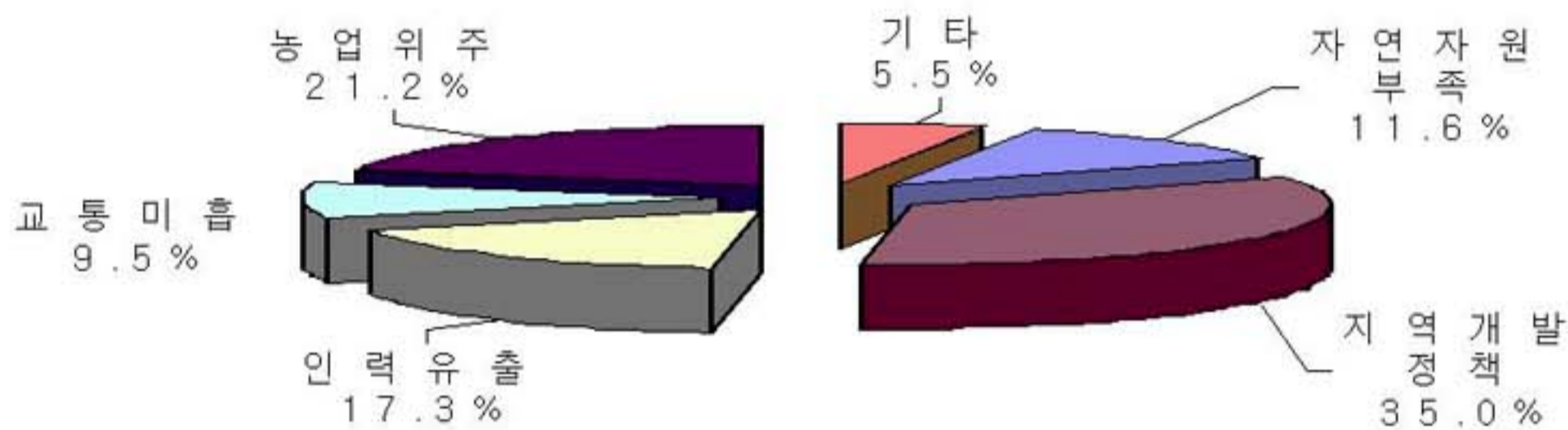
- 옥천주민은 타지역에 비해 옥천지역의 접근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이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농특산자원(30.1%), 자연환경(23.2%)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 타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적정입지로 지역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방안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소득기반 창출전략을 마련함.

(2) 옥천발전의 저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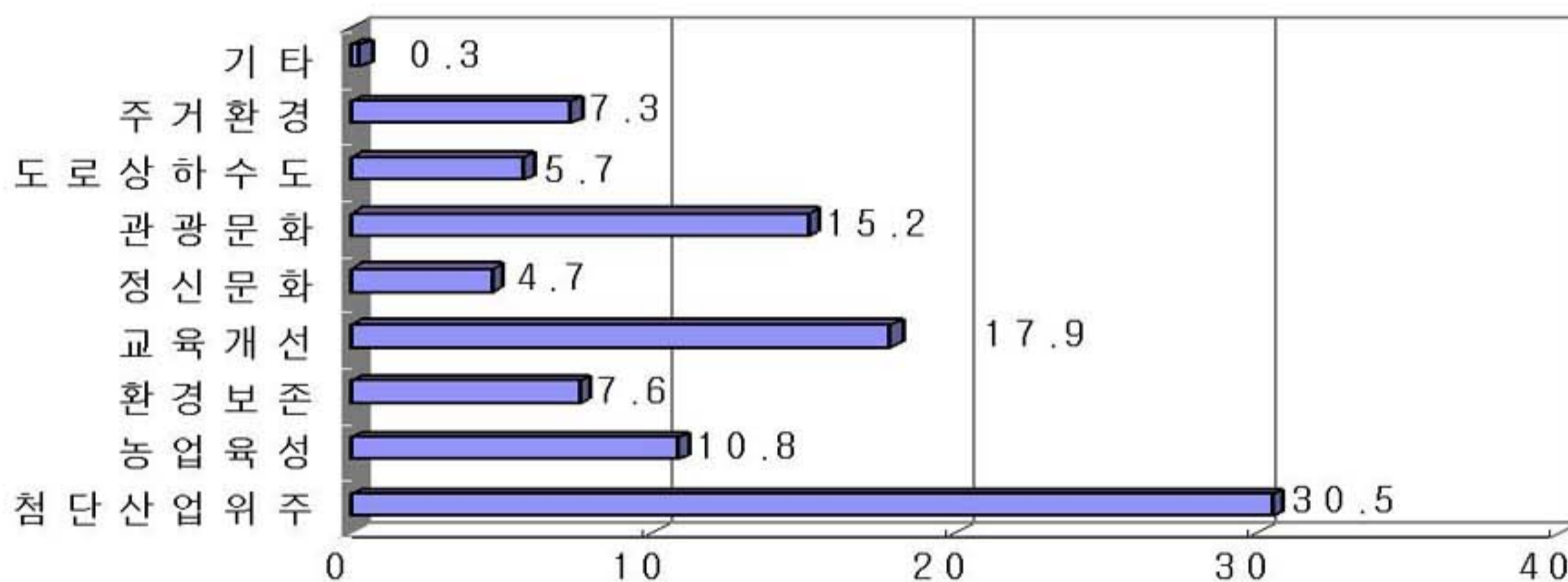
- 옥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35.0%로 가장 높게 꼽고 있어 옥천주민은 정부의 각종 개발제한이 옥천군 발전에 가장 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 외에도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의 산업침체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부지역으로의 고급인력 유출, 자연자원부족 등을 옥천지역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옥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자연자원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함.



-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지만, 옥천지역은 대청호로 인해 개발규제에 대한 강도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환경문제로 인해 개발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적절한 물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BT산업 중심의 첨단산업위주로 개편해야 하며, 지역의 중요산업인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화작물을 BT산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 지역의 인력유출을 줄이고 지역대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BT, 생명산업 관련학과에 대한 기자재 지원, 장학금 수혜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

(3) 옥천발전의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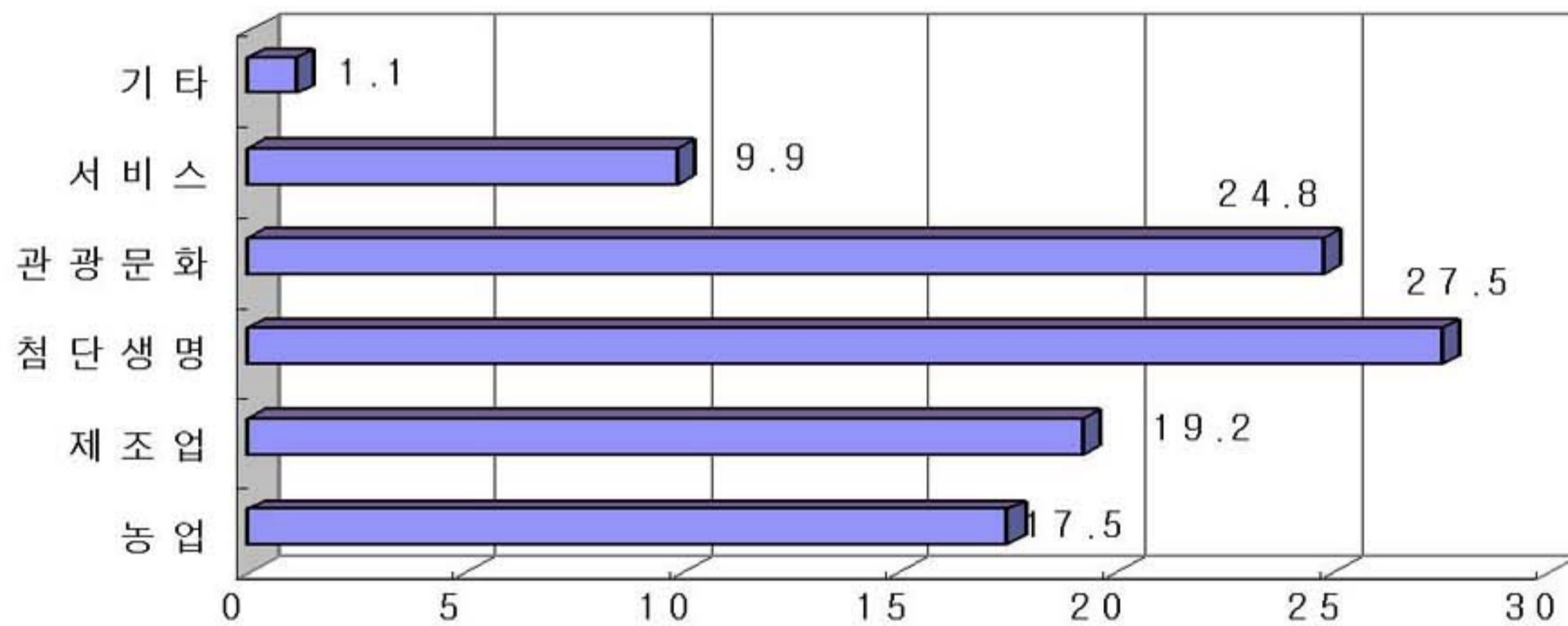
- 옥천이 발전하기 위해서 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으로서는 현재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또한 지역내 대학의 유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17.9%로 높게 나타나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의 대전예속으로 인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음.
- ▶ 이외에도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15.2%로 최근 관광부문의 선호도 증가를 알수 있으며, 농업육성도 10.8%로 옥천이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이와 같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함.
- ⇒ 따라서 지역의 특화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BT산업부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연구기관 설립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담당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 ⇒ 관광부문에 있어서도 타지역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한 경유지의 역할이 아니라 숙박 및 야간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관광지간의 연계네트워크를 구축방안과 각종 숙박시설,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옥천지역 관광지의 지속적 홍보가 필요함.

(4) 산업구조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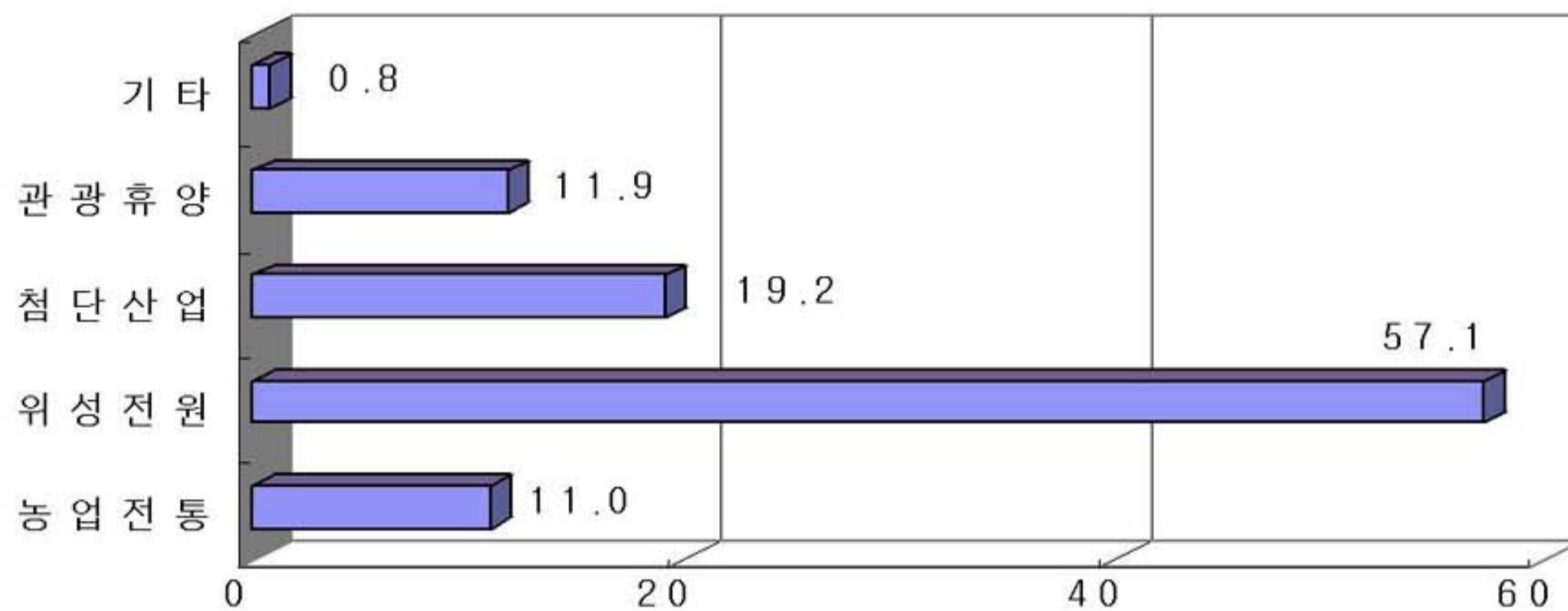
- 옥천의 산업구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첨단생명산업(27.5%), 관광문화산업(24.8%), 제조업(19.2%), 농업(17.5%) 등에 중점을 둔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옥천을 대표할 만한 농특산품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포도(86.8%)와 인삼(6.4%), 묘목(4.69%)라고 응답하였음.



- ⇒ 옥천과 인접하여 최근 벤처산업과 BT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덕밸리와 조성중에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구기술과 인력 등의 산업인프라를 옥천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 특히, 옥천주민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포도와 인삼 등을 생명공학산업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농식품에 응용하여 고기능작물과 기능성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반기술을 마련함.
- ⇒ 지역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집중 발굴·육성하며, 옥천지역 문화재에 대한 우수성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문향의 고을’로서 타지역에 인식시킬수 있는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함.
- ⇒ 또한 이를 지역의 유명관광명소와 연계시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련 DB를 구축함.

(5) 옥천의 미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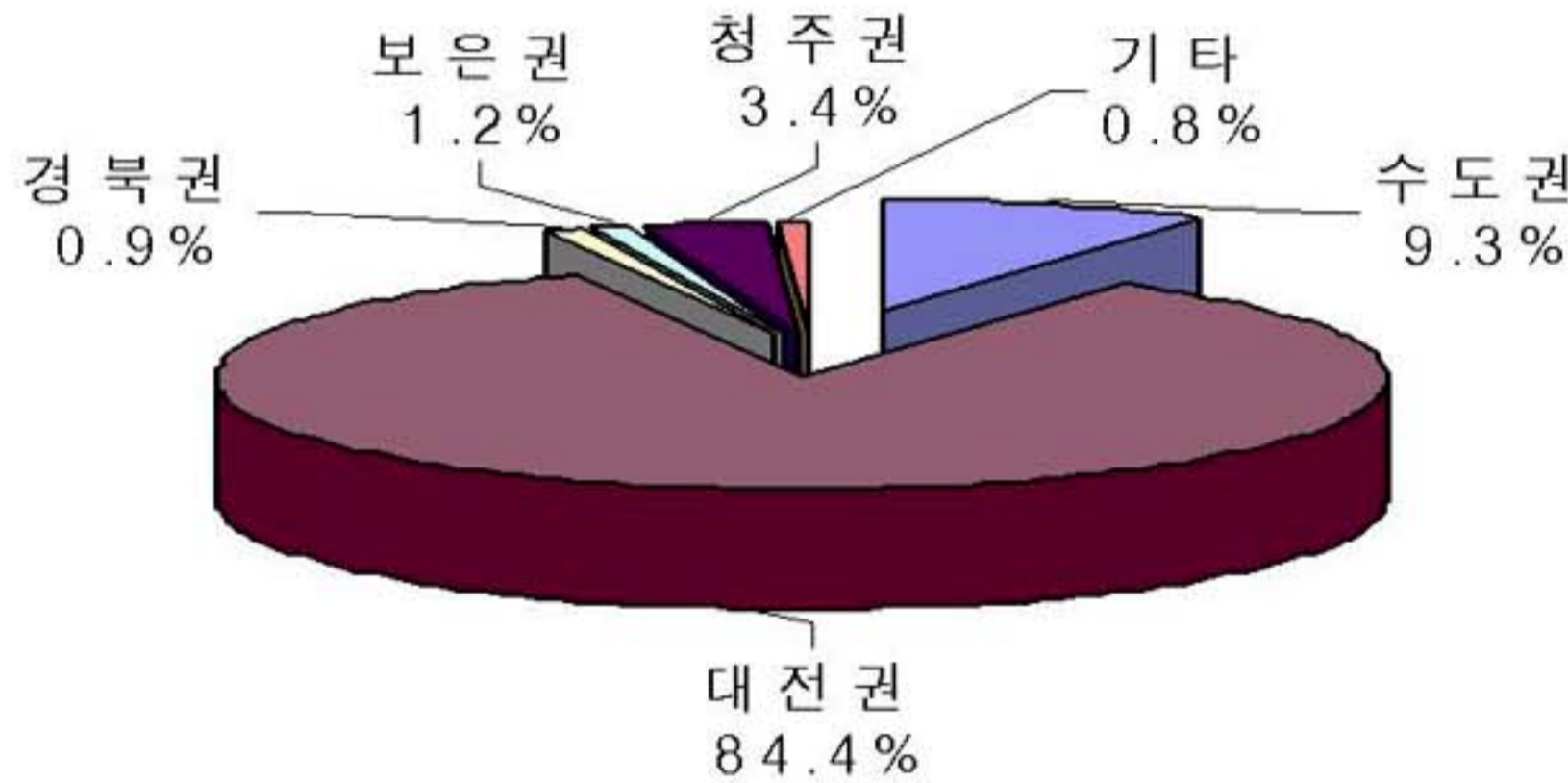
- 향후 21세기에 옥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대도시 근교형 전원지역(57.1%)이라고 응답해 대전권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첨단산업지역(19.2%), 관광휴양지역(11.9%), 전통적인 농업지역(11.0%) 등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 ▶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대도시 근교형 전원지역,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 인접 대전권을 겨냥한 위성전원도시로서의 옥천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 수혜층인 장년층과 노년층을 겨냥한 전원여가공간과 실버공간으로의 이미지를 창출해야함.
- ⇒ 옥천군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전원주택단지 및 실버단지를 건설하고, 주변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설치해 환경의 파괴를 최대한 줄임.

(6) 인적·물적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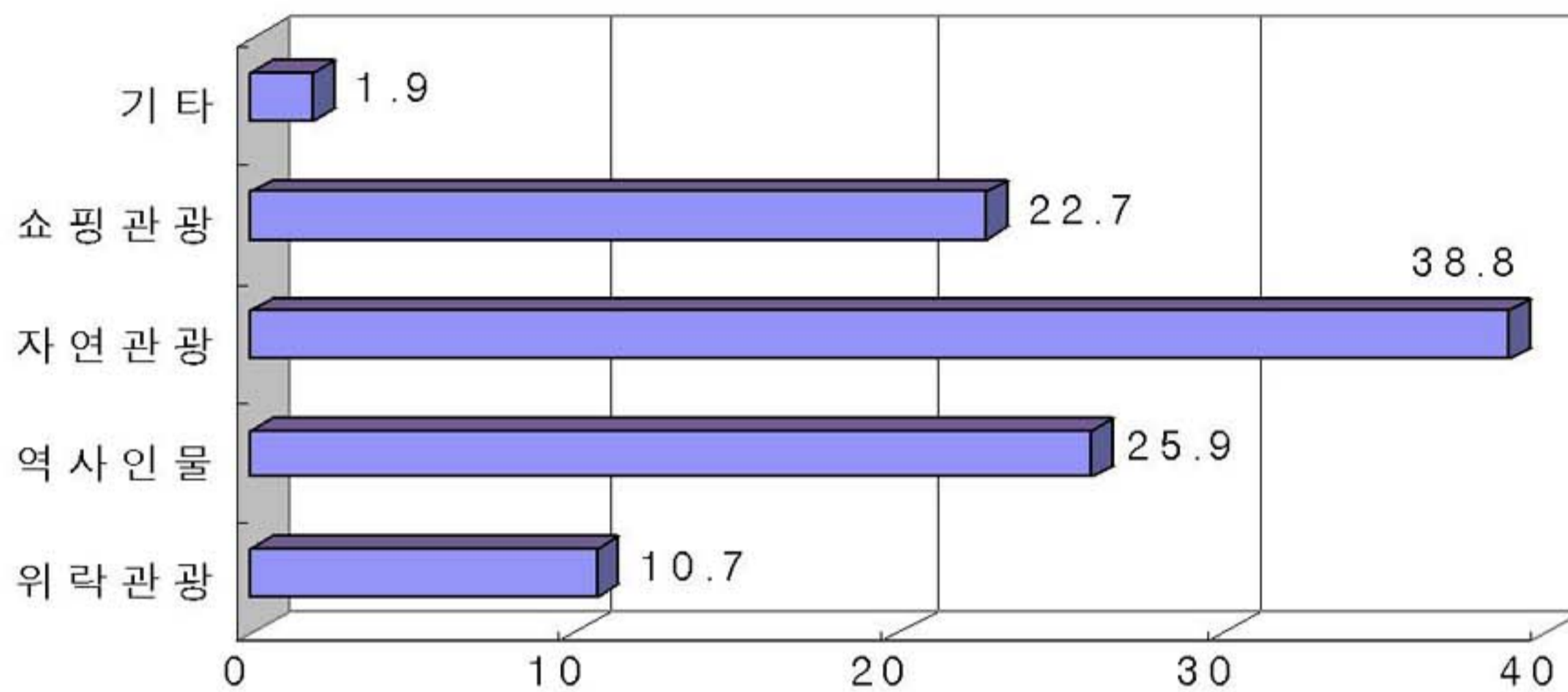
- 옥천이 발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대전권(84.4%)과 연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교류도 9.3%로 청주권의 3.4%보다 낮게 나타나 옥천군의 행정구역상, 공간적, 지리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구매가 일반적으로 대전권(60.7%)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천군이라고 대답한 응답률도 29.5%에 그치고 있어 옥천군의 대전예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 위와 같은 옥천군의 대전예속성에 대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함.
- ⇒ 따라서 최근까지 행정구역 위주의 각종 기능에 대한 강제적 중복권 전환인식을 탈피하고 대전권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살려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대전시와의 사회경제적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대전광역권의 개발수요를 옥천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증진과 주민의 인식전환으로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킴.

(7) 관광육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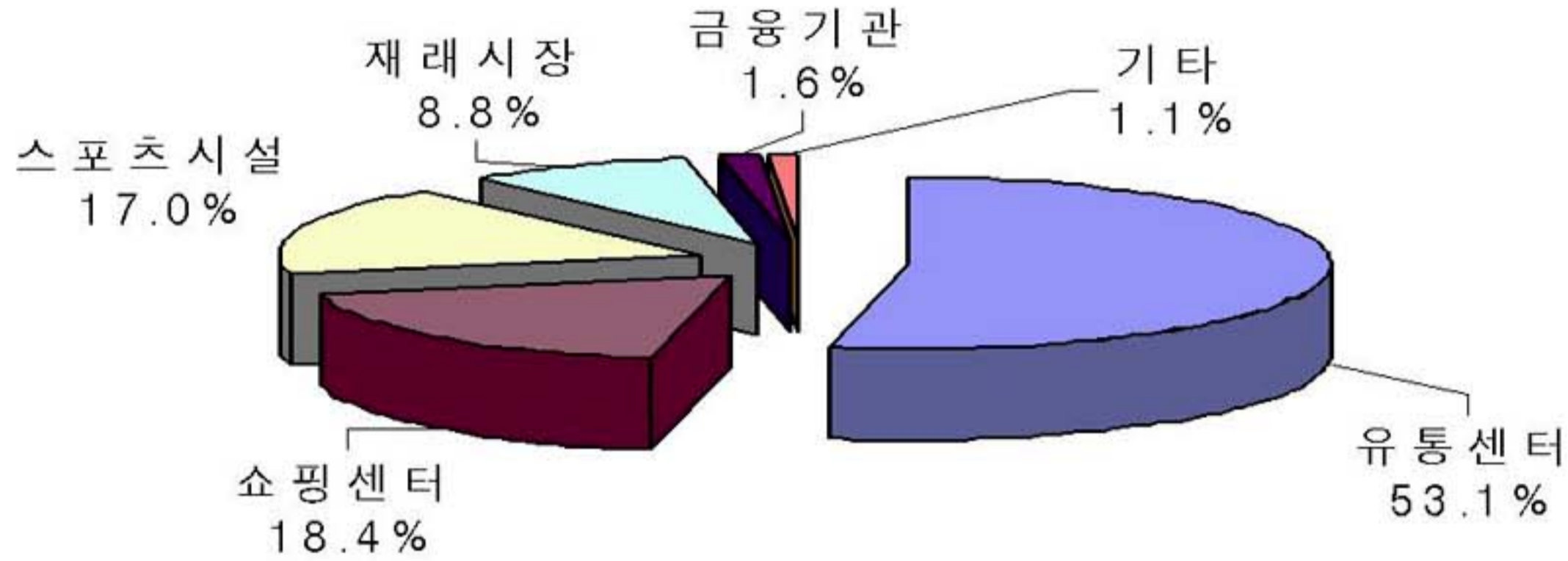
- 옥천지역의 바람직한 관광개발 방향은 대청호와 장용산을 활용한 자연관광중심(38.8%), 증봉충열제, 지용제 등 역사인물중심(25.9%), 농산물 등 쇼핑관광중심(22.8%), 장계관광단지 등 위락관광중심(10.7%) 등의 방향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지용제, 증봉충열제 등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지역홍보효과(62.4%),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22.2%), 지방재정확충(6.0%), 농가소득증대(4.9%)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 옥천지역의 관광개발은 주로 수려한 산악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거듭나고 있으므로 문화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관광수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함.
- ⇒ 이를 위해 현재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며, 이를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옥천문화의 우수성을 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함.
- ⇒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각종 지역축제를 지역내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홍보효과를 확대하여 ‘문향의 고을’ 옥천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함.

(8) 서비스 육성방향

- 옥천군의 서비스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농산물유통센터(53.1%), 대규모 쇼핑센터(18.4%), 레저스포츠시설(17.0%), 재래시장 활성화(8.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 농산물유통센터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인접 대전지역의 배후지로서 농산물공급에 있어 최대한의 이점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쇼핑센터나 스포츠시설도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주로 대전지역의 시설을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 따라서 대전으로의 대규모 물류이동의 전담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고속도로 인접부근에 설치하여 대전지역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 특히, 각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읍·면별 소규모 물류센터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정보의 공유를 위해 물류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희망과 미래

제5장 여건변화와 과제

제6장 비전과 발전목표

제7장 지역공간구조 개편

제
2
편

우리에게 펼쳐지는 21세기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의 중심을 전통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옮겨 놓고 있다. 생존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지역차원의 노력은 지역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옥천지역도 지역내 제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와 또 지방화라는 거시적 환경변화 속에서는 지역도 국제경쟁시스템에 합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5장 여건변화와 과제

제1절 인문사회적 측면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 / 전반적인 의식 및 지식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고령화, 개인중심의 사고증대 등 요인으로 인해 문화와 복지, 여가, 인간성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일변도적 삶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임.
- 인구증가세 둔화와 고령사회 도래 / 인구정체사회의 대두와 함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바, 1999년 현재 옥천지역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13.3%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
- 인구구조변화와 세대구조의 다층화 / 인구성장세 둔화, 급속한 고령화 진행, 의학 발달 등에 따라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78세를 넘어서는 인생 80년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며, 특히 세대구조의 다층화로 주도세대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세대간에 고른 인구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간 감소와 여가시간 확대 / 사회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며, 특히 노동의 유연화는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벤처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치관 다양화 / 여성의 역량이 사회 전반적인 의식속에 발휘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단일목적 지향적인 사회구조는 점차 저공로 다변화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고령층과 함께 상호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임.
-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PVO)의 영향력 증대 / 사회를 구성하는 NGO와 PVO의 수와 기능이 증대되고 정부, 산업, 문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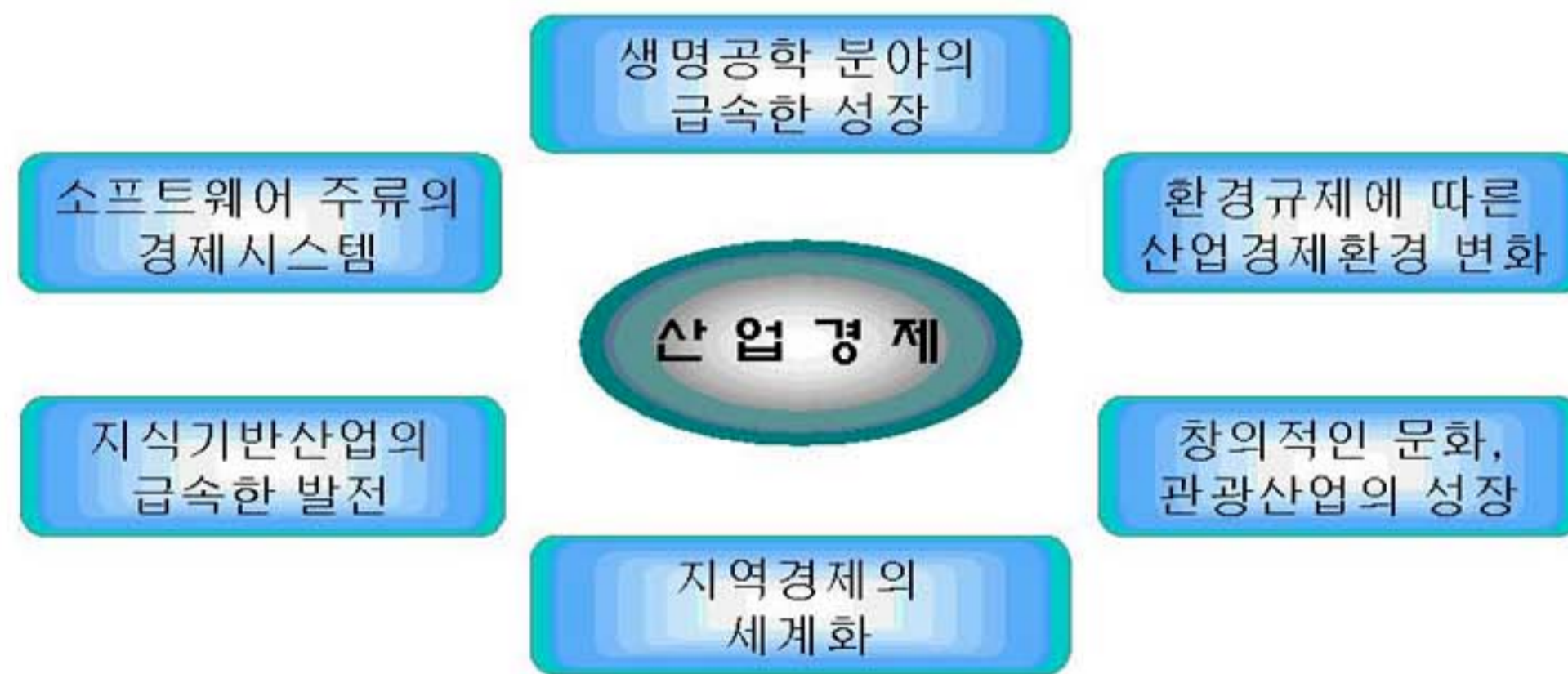


- 옥천지역의 검토과제
- ▷ 고령화시대의 실버인프라 구축
 - ▷ 다양한 가치관 수용시스템 구축
 - ▷ 여가수요 수용을 위한 공간조성
 - ▷ 주민의식 대전환 및 환경·문화가치의 증대
 - ▷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제2절 산업경제적 측면

-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성장 / 200년간 지속되어온 산업화 사회에서 최근 정보화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의 급신장으로 21세기는 건강 및 자연이 중요시되는 생명화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생명산업이 최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
- 소프트웨어가 주류를 이루는 경제시스템 / 산업화 사회의 대량생산체제로 대표되는 획일적이고 대중 중심적인 하드웨어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창조적이고 개인지향적이며 차별화된 가치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
- 지식기반산업의 급속한 발전 /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산업의 기술·지식집약화가 크게 진전되어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의 세계화 / 기존의 중앙집권적 단일체제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와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높이며, 이로 인해 국내의 지역간, 국내외 지역간의 경쟁이 일반화될 것임.

- 창의적인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면서 문화·관광산업은 중요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최대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이 될 것임.
-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경제환경의 변환 /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어 산업경제환경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국제협약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물경제와 환경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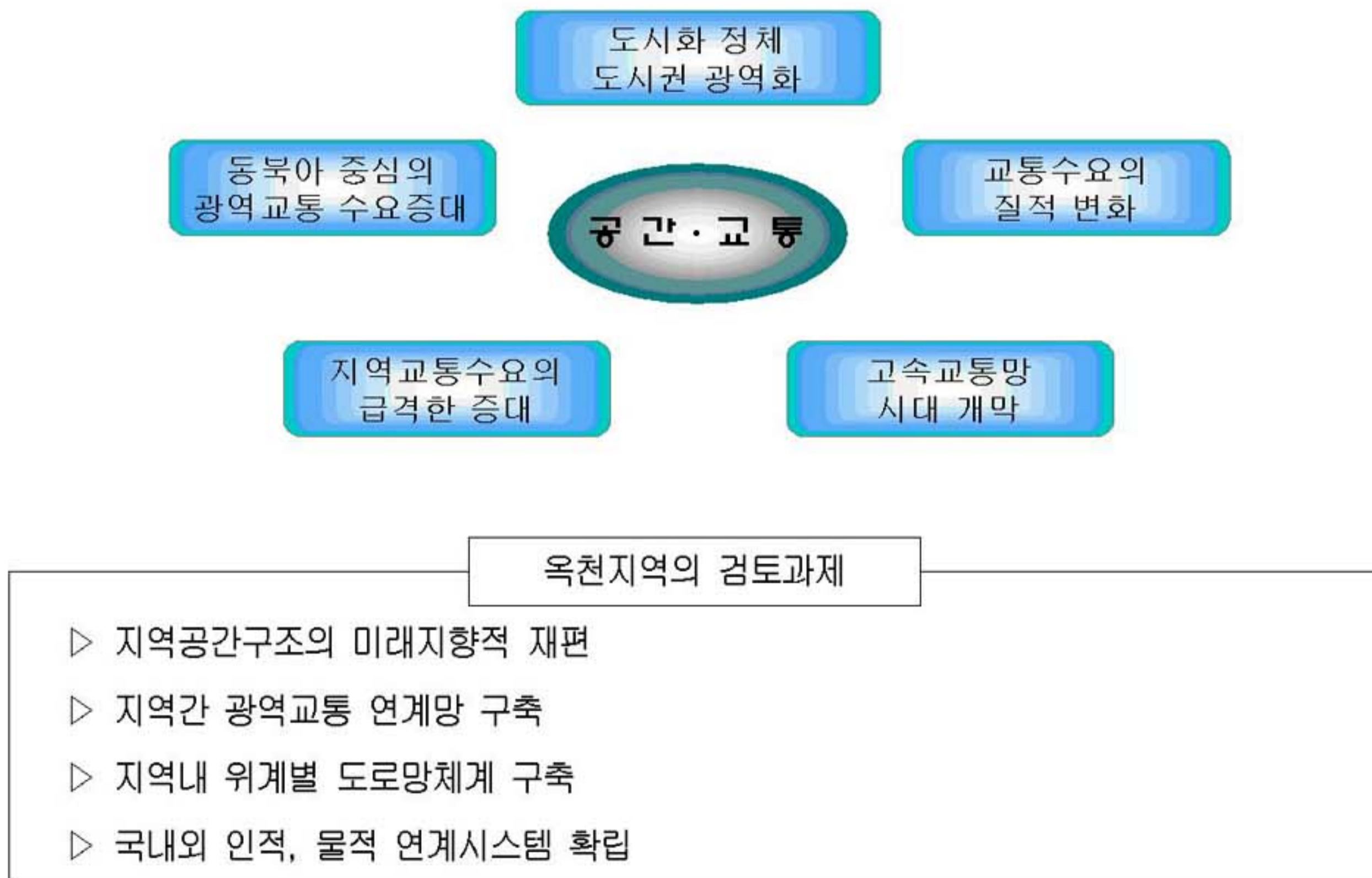
옥천지역의 검토과제

- ▷ 지식정보화시대에 따라 BT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 농업의 산업화와 지식기반산업화

제3절 공간 및 교통 측면

- 도시화의 정체 및 도시권 광역화 추세 / 도시화의 질적 변화와 거주지 선택의 성향 변화 등에 따라 인근 대전시는 고차적 도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중추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옥천지역은 기초적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대전권을 대상으로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광역도시시스템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함.

- 동북아 중심의 광역교통 수요증대 / 2010년에는 동아시아지역이 EU, NAFTA를 제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최대의 교역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동북아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에는 67%로 증가될 전망이다.
- 지역교통수요의 급격한 증대 / 인구의 지방정착 강화와 도시네트워크 형성, 국토의 동서내륙축 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간 교류가 크게 확대되면서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이며, 특히 재택근무가 일반화됨으로써 첨두교통시간대(peak-time) 개념이 퇴색되고, 자동차 보유율은 보다 높아질 것이나 대중교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임.
- 고속교통망 시대의 개막 /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동서연결 교통망의 구축, 옥천 외곽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전국이 고속교통망 시대에 접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옥천지역과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되어야 함.
- 교통수요의 질적 변화 / 사회가 신세대, 실버세대,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다원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교통에 대한 수요도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속성, 안정성, 쾌적성 등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4절 정보통신 여건측면

- 정보산업 주도의 정보세기 도래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측면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중심의 사회에서 정보지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실물개념에서 정보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동적 사회에서 능동적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
- 디지털과 미디어가 통합된 메가미디어 등장 / 전화, 휴대폰, 케이블TV,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실현되어 21세기에는 전화, 컴퓨터, 방송통신과 미디어 등 모든 매체가 망라되어 디지털 기술로 융합된 거대 메가미디어가 등장할 것임.
- 인터넷으로 인한 공간, 시간, 속도개념의 변화 / 사이버공간의 형성으로 물리적 공간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사람중심의 대면관계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대중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속도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모든 소리와 글자, 영상 등 정보가 디지털화 될 것임.
- 인터넷 확산과 새로운 업종 출현 /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원격의료진단, 원격교육, 오락 등)과 초고속 통신망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정보제공업(information provider)이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형태로 급속히 확산될 것에 대비해야 함.



옥천지역의 검토과제

- ▷ 인접 자치단체와의 광역행정관리체제 구축
- ▷ 지역문화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웹서비스 구축사업 실시
- ▷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연계시스템 구축
- ▷ 산업정보의 통합 DB구축을 통한 지식정보문화산업 기반 확충

제5절 국제화 여건측면

- 지역경제통합체 형성 / 세계경제권은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APEC,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ASEM,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인 AFTA, 남미공동시장인 MERCOSUR, 북미자유무역지대인 NAFTA 등의 지역통합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2005년을 목표로 준비중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설립되면 세계의 경제는 크게 EU와 FTAA로 양분화되며, 동아시아권도 자체 무역확대의 추구 등 경제권의 블록화 경향이 가속화될 것임.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지역화 경향의 가속 / 세계경제의 중심이 환대서양시대를 지나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동아시아국가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대미, 유럽, 일본 등에 의존하던 수출정책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세계화 경향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내의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지역화 경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인적교류 및 문화중심의 국제교류 확대 / 국제교류 협력의 중심이 정치경제 분야를 넘어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생활 및 문화분야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세계화의 주체도 국가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이 세계화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지역주도의 국제화시대 전개 / 국제교역에서 국가대 국가가 아니라 경제통합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통합체간 조율과 정책조정이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단위보다 지역단위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범지구적 환경협력체계 구축 /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 인구나 환경 및 개발을 총괄적으로 다룬 리우환경선언과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등을 모태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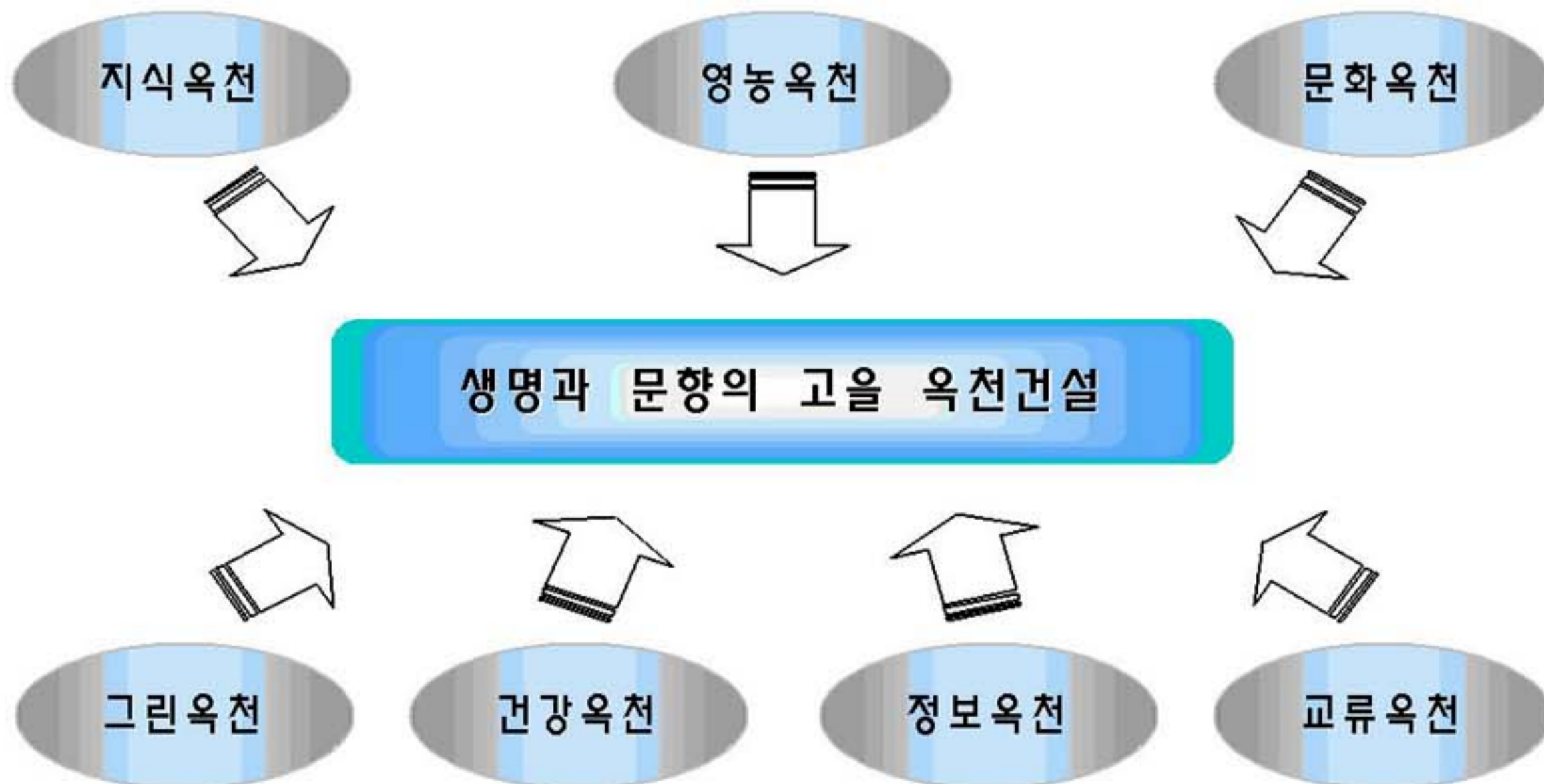
옥천지역의 검토과제

- ▷ 동북아 중심의 개방적 국제협력기반 구축
- ▷ 동북아 지역과의 물적·인적교류 확대와 전문가 육성
- ▷ 중국과의 격차를 위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 국제교류기능 강화와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 ▷ 남북교류 증대에 따라 지역차원의 역할 모색

제6장 비전과 발전목표

제1절 발전목표

- 도시의 기술, 정보, 문화, 서비스기능을 적극 유도하고, BT중심의 산업정책을 전개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함.
- 21세기 지역발전의 키워드가 될 문화부문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향의 고을 옥천의 대외이미지를 확립함.
- 도시적 순기능인 양질의 서비스와 과학기술문명, 농촌적 순기능인 자연자원과 전원적 요소가 결합되어진 선진도시, 선진농촌이 공존하는 선진옥천을 건설함.
- 옥천지역 산업발전의 주축이 될 첨단생명산업의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향토문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생명과 문향의 고을 옥천을 건설함.



제2절 인구지표

- 과거추세에 의한 등차급수 및 등비급수방식에 의해 비추어 본다면 2000년 현재 약 6만 1천명대에서 2010년에는 약 5만 4천명대, 2021년에는 4만 7천명대로 감소하여, 충북의 타 군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인구감소추세는 옥천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군단위 지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해 발생함.
- 한편, 제3차 충청도계획에서는 옥천군의 인구를 2005년에 5만 9천명, 2010년에 5만 7천명, 2020년에 5만 3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인구정책 유도전략과 지역의 인구유입 정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 고속교통망시대의 개막과 도로망 및 교통망체계의 개선, 정보통신의 발달, 전원주거 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 등 요인과 군단위 지자체의 인구유입 정책의지 등으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옥천군 인구추계 사례 】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1년
등비급수	61,080	57,590	54,090	50,590	46,400
등차급수	61,080	57,590	54,290	51,180	47,690
도 계 획	62,000	59,000	57,000	55,000	5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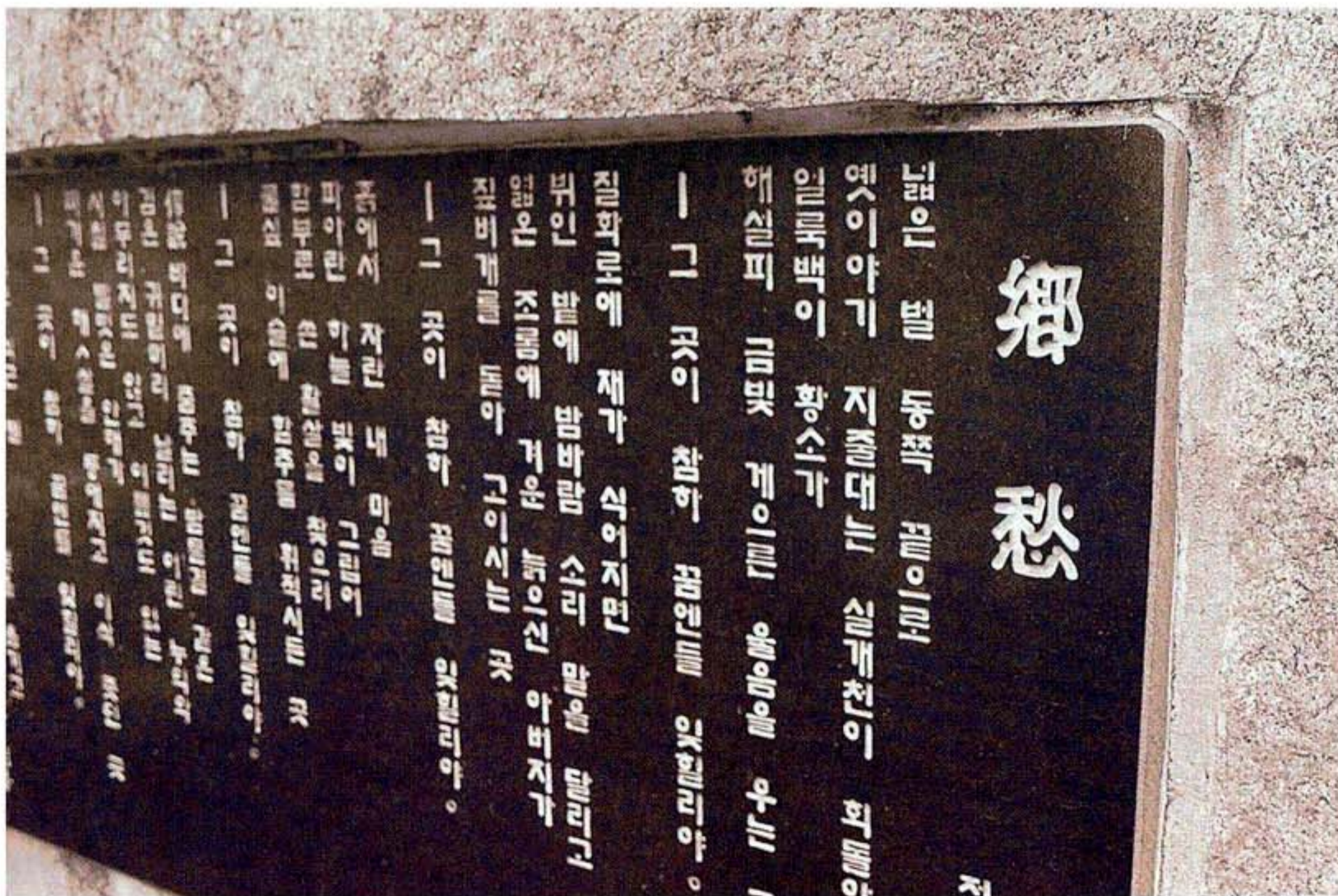
주 : 도계획에서 2000년도 인구는 추계치임. * 표시는 2020년 인구지표임.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장기종합계획, 2001.

-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가치는 인구규모로 나타나게 되며 각종 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지표라 할 수 있음.
- ▶ 즉,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 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등의 각 부문별 정책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자체의 정책의지에 의해서 인구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반조성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폭이 줄어들고, 농업구조의 혁신, BT산업을 중심의 산업구조, 생활환경 향상, 정주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 조류에 따라 본 계획기간의 중반기인 2010년 정도에 가서는 인구가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짐.

【 옥천군의 인구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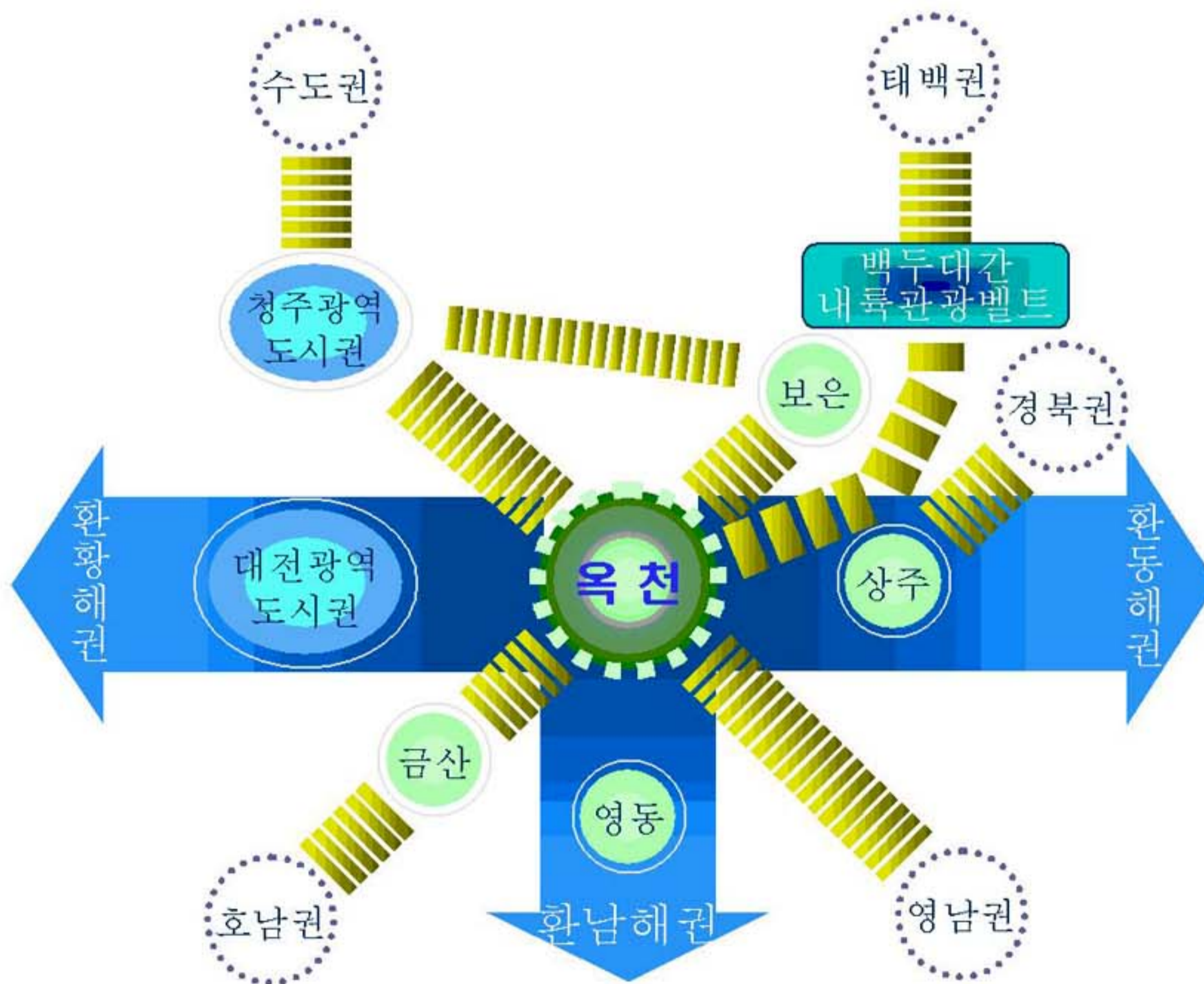
제7장 지역공간구조 개편

제1절 지역발전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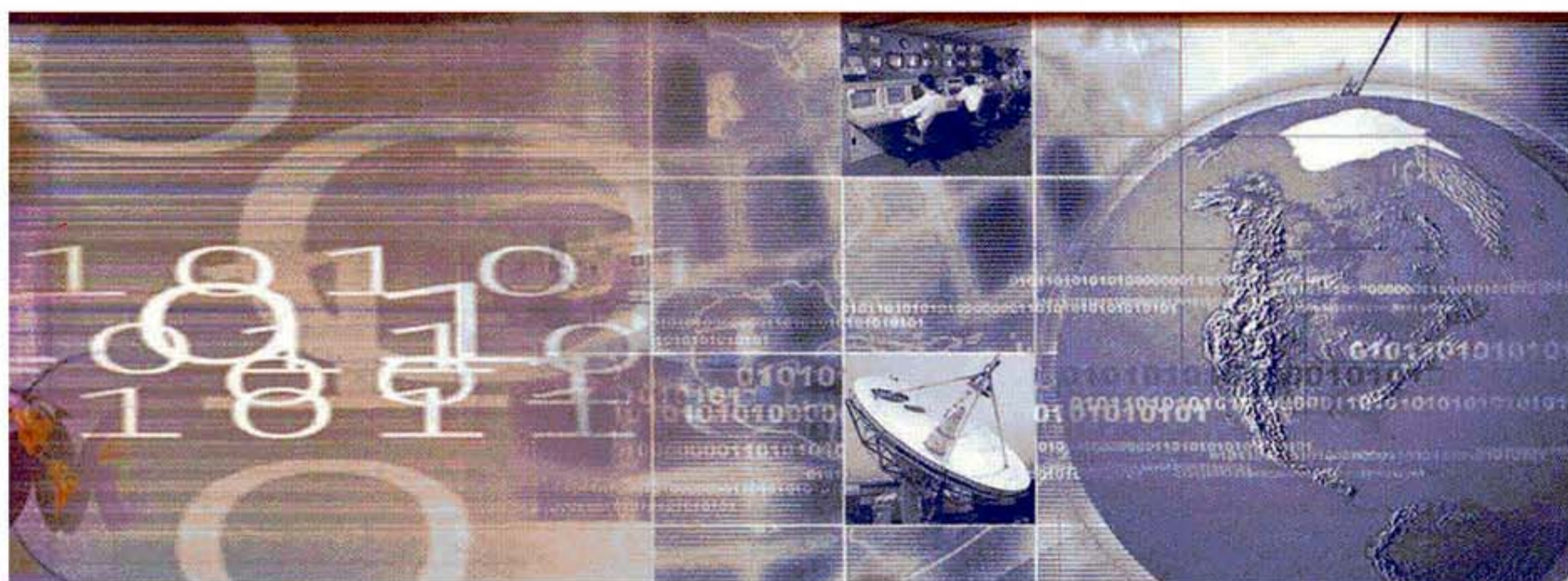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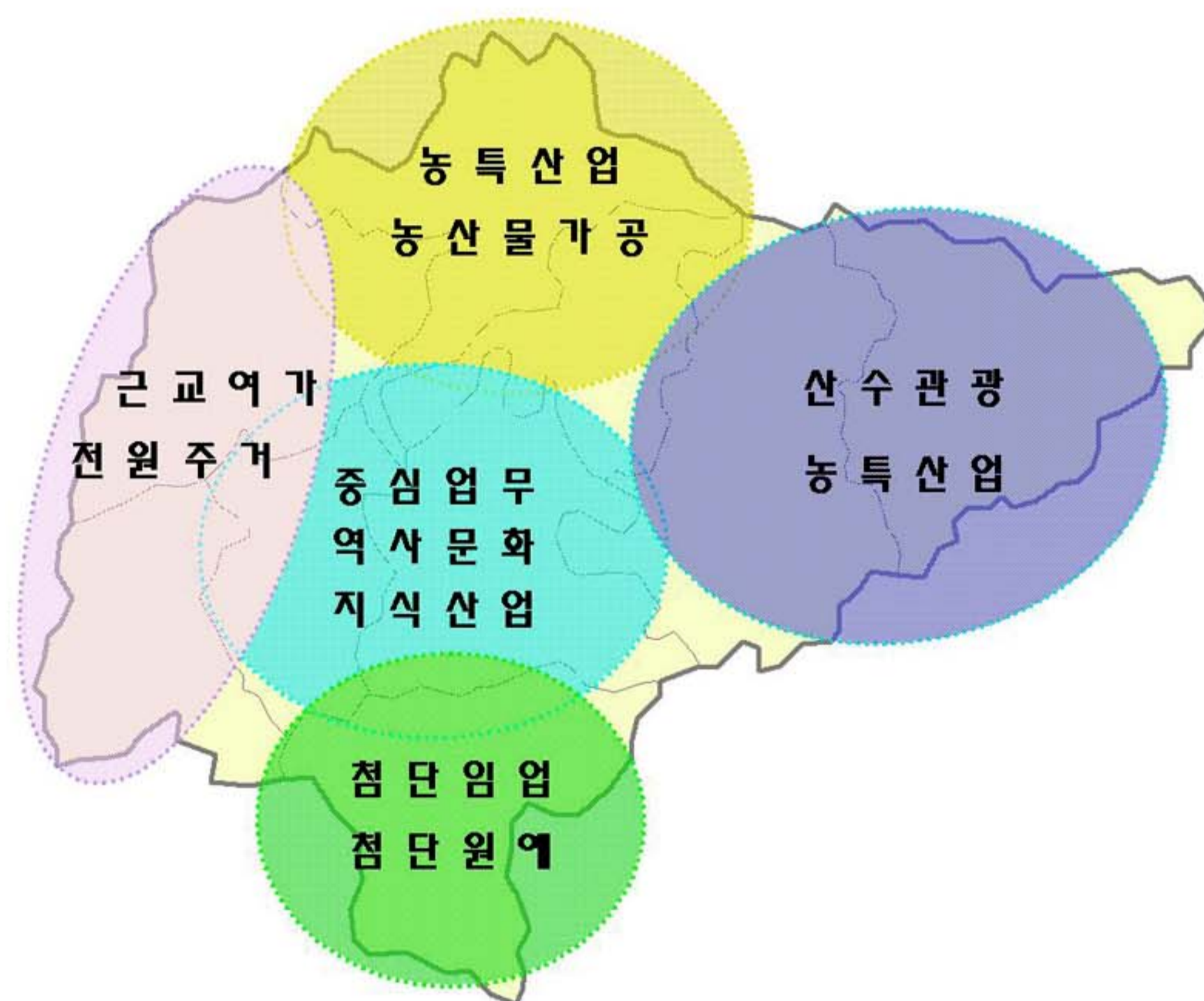
-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도시화(urbanization) 현상으로 도민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발도시의 성장단계를 지나 도시지역이 연속되는 이른바 연담도시의 형태가 이루어질 전망임으로 적극적인 지역발전축을 설정함.
- 경제 및 사회활동의 광역화와 대도시권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도시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지역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자치단체와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는 광역행정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따라서 국토내륙의 중심지역으로서 지역간 연계축을 매개로 수도권, 태백권, 영호남 권에 이어 환동해권, 환남해권, 환황해권 확산체계를 마련함.
- 청주국제공항을 수단으로 하여 국제화 통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시장과의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하여 옥천의 국제화를 도모함.



-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공간적, 물질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적극 수용하여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질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둠.
 - ▶ 연계축 : 경부고속도로 / 4번 국도 / 경부선철도 / 대전도시철도(대전 판암 - 옥천 삼양리)
- 북부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보은군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속리산권 및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내륙관광벨트를 확립함.
 - ▶ 연계축 : 37번 국도 / 19번 국도 / 575번 지방도 / 502번 지방도 / 505번 지방도 / 남북중축고속도로(증평IC-청주국제공항-청주-보은-옥천-전주)
- 인접지역인 금산, 영동, 상주 등과 지역간 상호보완기능을 강화하면서 충남권, 전북권, 경북권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역점을 둠.
 - ▶ 연계축 : 37번 국도 / 4번 국도 / 19번 국도 / 501번 지방도 / 514번 지방도 / 505번 지방도 / 경부고속도로 / 경부선철도



제2절 공간적 기능배분



과제와 전략

- 제 8장 지식옥천 실현
- 제 9장 영농옥천 실현
- 제10장 문화옥천 실현
- 제11장 그린옥천 실현
- 제12장 건강옥천 실현
- 제13장 정보옥천 실현
- 제14장 교류옥천 실현

제
3
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변화조류에 대응하고 지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실천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제 옥천군은 인접 대전권과의 연계성을 지역이 가진 장점으로 변모시켜 지역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첨단생명집적지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절경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생명과 문향의 고장으로서는 군민의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과 자긍심은 타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옥천군이 가진 역사문화, 관광, 산업자원의 가치를 시장화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고향으로서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고자 한다. 생명과 문향의 고을 옥천건설을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보이코자 한다.

제8장 지식육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BT산업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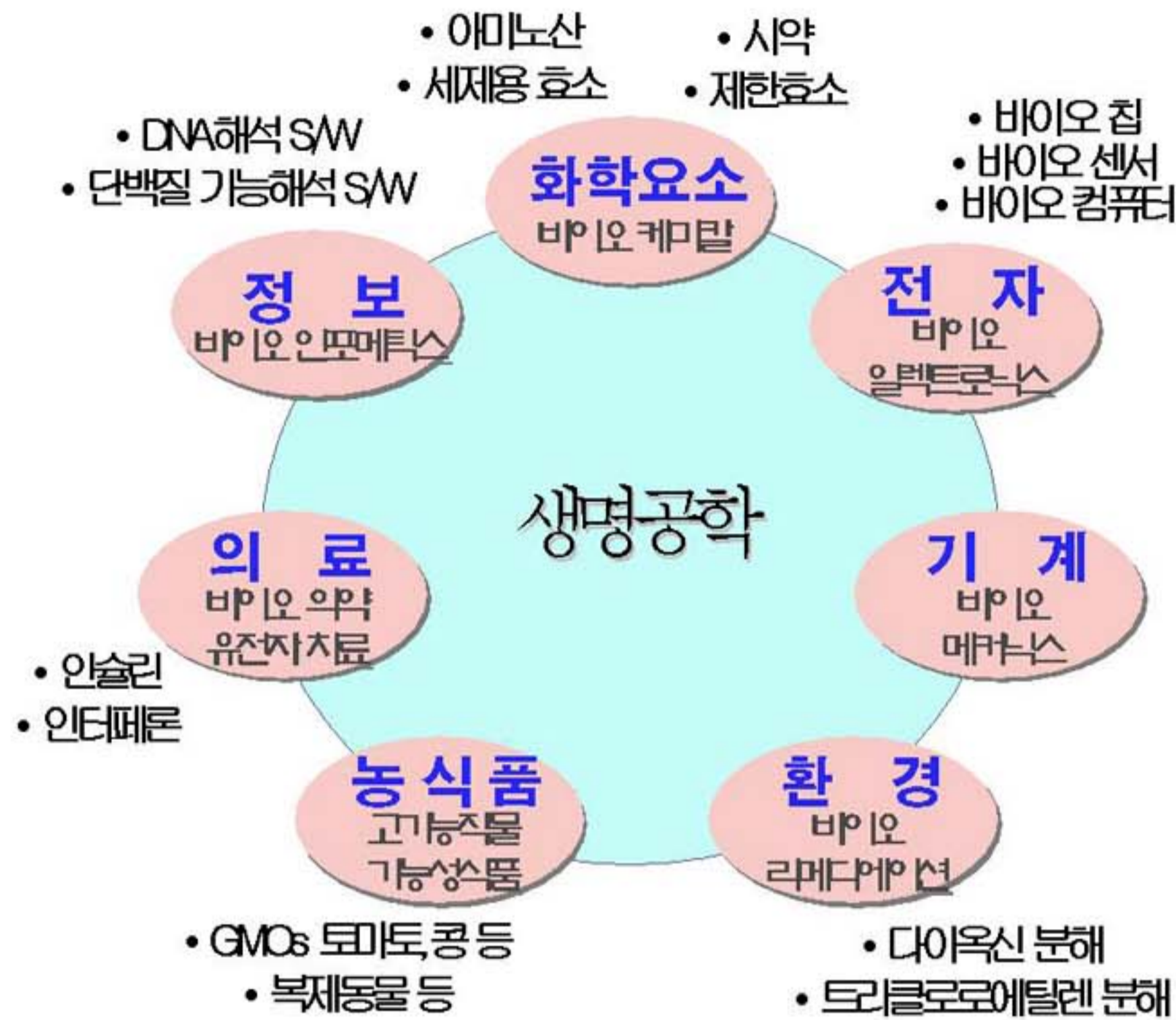
(1) 생명공학(BT)의 개요

- 생명공학기술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총칭함.
- 정보화시대에 이어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이며, 생물산업은 다른 첨단산업(반도체 9.4%, 신소재 6.9%)을 능가하는 연평균 22%(2000~2005)의 고도성장이 예상됨.
- ▶ BT기술과 BT산업 경쟁력이 21C 국가경쟁력 좌우



(2) BT산업의 특징

- BT산업은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그리고 자원에너지 절약형산업으로서 화학, 보건의료, 농업, 환경, 정보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파급·융합되는 기반기술이며 21세기 신기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을 형성하는 산업임.



- BT산업은 교육 및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하며 발전하며, 선진국의 BT산업 중심지는 우수 대학·연구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경향이 있음.
- ▶ BT 관련기업의 경우는 집적을 통해 바이오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각종 연구 기자재나 서비스업 등의 육성이 가능함.

(3) BT산업의 세계시장 동향

- BT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00년 현재 540억불로써 2008년에는 1,250억불, 2013년에는 2,100억불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BT산업 세계시장 동향 】

구 분	미 국	일 본	유 럽	국 내
시장규모	134억불 ('98) 223억불 ('00)	72억불 ('98)	55억불 ('98)	5,100억원 ('98) 7,900억원 ('00)
연평균 성장률 (2000년초 기준)	22%	20%	20%	30%

자료 : 일본 통산성, 일경 바이오연감.

(4) 국내 BT산업의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 BT산업의 전개과정을 볼 때 '80년대 전반은 기술도입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연구개발기,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산업화 태동기로 볼 수 있음.
- 세계 최고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향후전망을 예측해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향후 급속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 이르러 관련업체는 4배, 고용인력은 무려 14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61억불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됨.

【 국내 BT산업 전망 】

구 분	2000	2003	2010
기초원천기술	60	70	80
생산기술	70	80	90
신물질창출기술	40	50	70

주 : 세계 최고수준을 100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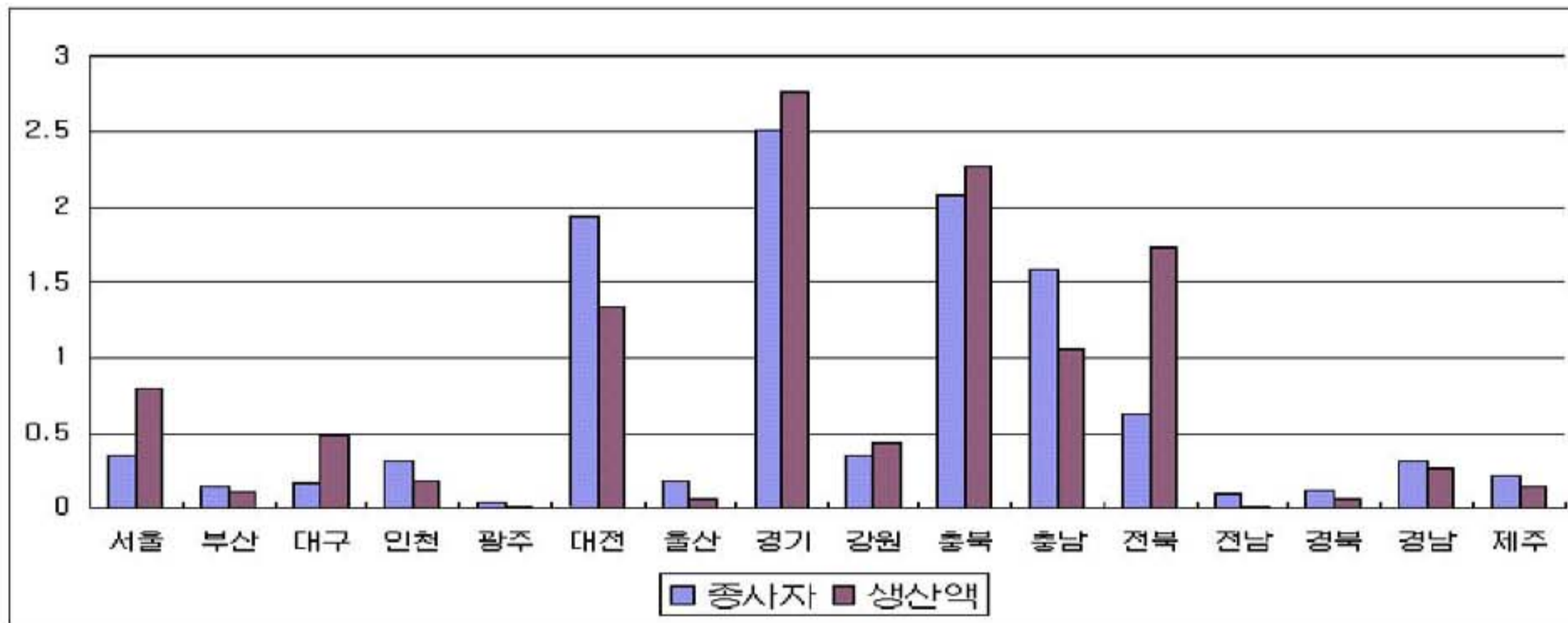
【 BT관련 현황 및 전망 】

구 분	2000	2003	2010
관련업체수 (개소)	300	500	1,200
고용인력 (명)	5,000	9,600	70,000
국내시장규모 (천억원)	9	21	100
해외수출규모 (억불)	7	14	61

자료 : 산업자원부, 2000.

- 우리나라 BT산업은 수도권과 함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바이오 옥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정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바이오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BT산업을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비교우위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임.

【 생명공학 산업종사자 및 생산액의 지역별 분포 】



자료 : 산업연구원, 대전시 생물산업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방안조사 연구, 2000.

(5) 최근의 정부정책

- 최근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 발표하였음(2001. 12).

□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및 고유 생물자원 이용분야 선택집중

- ◆ 고유생물자원 이용분야
 - ▷ 생물다양성 활용기술개발 연구
 - ▷ 고유식품 개발연구 등

□ 권역별 바이오 집적지 구축

- 지역 특화 분야·기술을 중심으로 집적지 육성

- ◆ 지방 BT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도 실천조치 강구
 - ▷ 지방정부 BT 투자 자원 확충
 - ▷ 지방정부의 지역거점 육성시책 강화

○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강화

- ◆ 지방 BT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도 실천조치 강구
 - ▷ 지방정부 BT 투자재원 확충
 - ▷ 지방정부의 지역거점 육성시책 강화

□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시책 강화

○ BT 산업화 진전에 따라 산업현장 수요인력 확충 추진

- ◆ 인프라 부문 서비스 전문/기능인력, 전문 생산인력 양성
 - 전문대 BT인력 육성 강화, cGMP 전문가 양성 등

Bio Korea 중점 추진전략

- ◆ 정부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시책 강화
 - ▷ 정부 BT분야 투자 확대
 - ▷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
 - ▷ 정책분석/평가 시스템 강화

- ◆ 연구개발 및 실용화/산업육성 정책 강화
 - ▷ 미래 대비형 신기술 분야 기반확충
 - ▷ 다학제 융합기술분야 지원강화
 - ▷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및 고유 생물자원 이용분야 선택집중
 - ▷ 독창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벤처·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 ▷ 실용화 시책 강화
 - ▷ 권역별 바이오 집적지 구축
 - ▷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도

- ◆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
 - ▷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시책 강화
 - ▷ 거점 연구조직, 정책기구 및 공공 인프라 확충
 - ▷ BT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 ▷ 국내외 협력시스템 구축 및 협력거점 정비

2. 제조산업의 현황과 전망

(1) 산업구조 변화

- 옥천군의 제조업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999년 현재 전체 사업체수중 음식료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가장 높으며, 종사자수(13.6%)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16.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이 산업의 경우 종사자수의 성장률이 185.7%로 5년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종사자수의 약 30%, 사업체수의 약 8%를 차지해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증가추세의 경우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과 제1차 금속산업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은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경우는 종사자수는 줄어든 반면 사업체수는 큰 성장률을 보임.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과 재생용 가공원료생산업의 경우는 위와는 반대로 사업체수는 증감이 없는 반면 종사자수는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읍·면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옥천읍이 군 전체사업체수의 44.9%, 종사자수의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원면(13.2%), 동이면(11.3%), 청산면(9.2%), 군서면(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남면과 청성면의 사업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종사자수 규모는 이원면(17%), 동이면(12.2%), 군서면(8.1%), 청산면(6.9%)의 순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안남면으로서 타 읍·면과 비교하여 낮은 비중을 나타냄.

【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조변화 】

(단위 : 명, %)

구 분	종사자수				사업체수				성장률	
	1995	비중	1999	비중	1995	비중	1999	비중	종사자	사업체
음식료품 제조업	504	7.6	973	13.6	208	8.0	169	7.0	23.3	-4.7
담배제조업	0	0.0	170	2.4	0	0.0	1	0.0	-*	0.0
섬유제품 제조업	370	5.6	546	7.6	38	1.5	22	0.9	11.9	-10.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155	2.4	32	0.4	47	1.8	14	0.6	-19.8	-17.6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42	0.6	0	0.0	3	0.1	0	0.0	-25.0	-25.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85	1.3	94	1.3	33	1.3	12	0.5	2.6	-15.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62	2.5	133	1.9	5	0.2	13	0.5	-4.5	40.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70	1.1	77	1.1	34	1.3	11	0.5	2.5	-16.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	0.0	0	0.0	0	0.0	0	0.0	0.0	0.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07	4.7	171	2.4	9	0.3	16	0.7	-11.1	19.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5	3.7	226	3.2	11	0.4	19	0.8	-1.9	18.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39	17.3	173	2.4	43	1.7	24	1.0	-21.2	-11.0
제1차금속산업	69	1.0	184	2.6	2	0.1	6	0.2	41.7	50.0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244	3.7	390	5.4	69	2.7	42	1.7	15.0	-9.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43	2.2	1,205	16.8	11	0.4	27	1.1	185.7	36.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60	0.9	0	0.0	1	0.0	0	0.0	-25.0	-25.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1	2.3	350	4.9	18	0.7	8	0.3	32.9	-13.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제조업	650	9.9	28	0.4	12	0.5	2	0.1	-23.9	-2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0	0.0	49	0.7	0	0.0	4	0.2	-*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3	0.3	107	1.5	2	0.1	4	0.2	91.3	25.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0	0.5	58	0.8	2	0.1	2	0.1	23.3	0.0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135	2.0	165	2.3	58	2.2	26	1.1	5.6	-13.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8	0.1	30	0.4	1	0.0	1	0.0	68.8	0.0
합 계	4,594	100.0	5,161	100.0	607	100.0	423	100.0	3.1	-7.6

주 : *의 경우는 1995년 이후 개설된 사업체임.

자료 : 옥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6, 2000.

【 1999년 읍·면별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구 분	사업체수(개소)	구성비(%)	종사자수(명)	구성비(%)
옥 천 읍	190	44.9	2,517	48.8
동 이 면	48	11.3	631	12.2
안 남 면	8	1.9	13	0.3
안 내 면	16	3.8	80	1.6
청 성 면	12	2.8	88	1.7
청 산 면	39	9.2	356	6.9
이 원 면	56	13.2	879	17.0
군 서 면	29	6.9	416	8.1
군 북 면	25	5.9	181	3.5
합 계	423	100.0	5,161	100.0

자료 : 옥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2) 제조업분야 특성분석

- 제조업 분야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화계수의 경우 담배제조업은 18.7로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 변이할당분석 결과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0을 나타내 지역에서의 담배제조업 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전체로는 순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특화계수를 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1.41을, 음식료품 제조업이 1.26을 나타내 지역내 산업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할당 분석결과도 아주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산업임을 알 수 있음.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의 경우는 특화계수가 1.47로 제조업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지역할당효과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음식료품 제조업에 아주 못 미치는 미미한 형태로 나타남.
- 그 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감소와 함께 타지역과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분야 특성분석(종사자수 기준) 】

산업분류	특화계수 (1999)	변이할당분석(1995 ~ 1999)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효과
합 계	0.61		809	809
음식료품 제조업	1.26	-19	495	477
담배제조업	18.65	0	0	0
섬유제품 제조업	0.74	-63	195	13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0.07	-39	-115	-15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0.00	-12	-40	-51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0.88	-25	13	-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0.74	-24	-21	-4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22	-2	11	8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00	0	0	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0.37	-11	-120	-13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8	-4	-6	-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54	-264	-906	-1,171
제1차금속산업	0.61	-2	119	117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0.59	-21	159	13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41	-18	1,069	1,052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00	44	-57	-12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94	-8	207	19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0.04	2	-588	-58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0.30	0	49	4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18	-3	85	8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21	4	30	34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0.46	-21	37	1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47	7	22	30

자료 : 옥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3) 기업체 및 농공단지 현황

- 옥천군 제조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423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중 61.5%가 1~4인 규모의 영세업체로 나타남.

-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49인 규모의 사업체가 전체 제조업종사자의 29.6%인 1,53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1개업체로 나타나 지역의 대기업 입지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 】

구 분	사업 체수		종사 자수	
		구성비(%)		구성비(%)
1 ~ 4명	260	61.5	538	10.4
5 ~ 9명	56	13.2	358	6.9
10 ~ 19명	42	9.9	575	11.1
20 ~ 49명	51	12.1	1,530	29.6
50 ~ 99명	9	2.1	644	12.5
100 ~ 299명	4	0.9	688	13.3
300 ~ 499명	—	—	—	—
500 ~ 999명	1	0.2	828	16.0
1,000명이상	—	—	—	—
합 계	423	100.0	5,161	100.0

자료 : 옥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옥천군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규정에 의해 면적 1,000,000㎡(302,500평), 조성면적 782,765㎡, 조성가능면적 217,235㎡(65,713평)으로 되어 있음.
- 농공단지별 조성현황을 보면 조성면적 782,765㎡에 총 5개의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고, 70개업체 입주기업에 종업원수는 2,0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옥천농공단지가 면적과 투자액, 입주업체 및 종업원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옥천군 농공단지별 조성현황 】

구 분	조성면적(㎡)	입주업체수(개소)	종업원수(명)
합 계	782,765	70	2,055
옥 천	282,235	22	784
동 이	161,029	27	566
이 원	141,619	8	393
청 산	65,390	4	188
구 일	132,492	9	124

(4) 여건변화

□ 지속적인 환경규제로 지역산업발전 제약조건 강화

- 대청호 수질보전으로 인한 호수지역의 각종 환경규제가 주변지역 산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결국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됨.
- 환경문제의 지구촌화와 함께 특히 물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경우는 중부권의 젓줄인 금강의 수질보전 강화로 인해 지역발전의 큰 제약조건이 될 것임.
- 지속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속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성숙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지역내 유치육구와 개발제한문제간의 갈등요인이 항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지역선도산업의 취약과 외부의존형 산업구조

- 지역주력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결과 다른 성장거점지역에 비하여 인근 주변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경제적 흡인력과 영향력이 미흡함.
- 현재 농공단지과 개별입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제적 낙후성을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기업체 유치 육구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임.
- 지역경제 내에 있어서 경제주체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보다는 외부지역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임.

□ 주민들의 개발육구 증대와 개발제한요인간의 갈등 표출

-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육구 및 의지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할 것이며 자치단체장 등 지역정치세력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 지역의 입지적 여건변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와 육구증대 등이 지역산업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지역주민들의 개발육구 증대와 각종 개발제한 문제간의 갈등이 상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옥천지역의 경우는 대전권으로의 흡수효과로 인해 특정 산업부문의 경우 지역 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BT산업의 여건분석

(1) 강점 및 기회요인

□ 국내 BT산업의 중심 대덕밸리 인접

- 국내 BT 기술력 및 산업력은 수도권과 더불어 대전-충북권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충청권 중 옥천지역은 대전 및 대덕밸리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중에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과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유명대학이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BT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BT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KA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중심대학과 국립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하여 충청권역이 BT산업의 중심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옥천지역은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됨.

□ BT산업의 새로운 중심인 대덕밸리가 옥천의 이웃

- 정부는 바이오메카 구축사업안을 마련하여 대전지역에 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벤처타운, 생물산업 전문대학원, 생물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음.
- 또한 대덕밸리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생명공학 관련연구소를 건설하고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추세임.
- 대덕밸리와 옥천은 고속도로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수용능력이나 임대료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옥천이 대덕밸리의 BT 연구기능을 일부 분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대덕밸리는 연구 기능이 중심이므로 각 기업은 BT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나 근처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마련해야 하며, 대전지역 내 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덕밸리 BT산업의 생산거점을 옥천으로 유도하는 것이 용이함.

- ▶ 실례로,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바이오 벤처회사인 (주)바이오니아는 연구부문은 청주지역에 생산부문은 대전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음.
- 생명공학 대기업의 첨단 BT제품 생산부문을 유치할 경우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며, 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이 빈약한 옥천은 산업 및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 실례로, 수원 남부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생산부문은 수원인접지역인 영통권 개발 등 수원 동남부권역과 용인 서부지역을 신도시 규모로 변모시켜 놓았음.

【 대덕밸리와의 지리적 인접성 】



자료 : 매일경제 2001. 9. 27일자.

- 대덕밸리는 곧 바이오 벨리로 전환
 - ▶ 대전시는 유성구 일원에 바이오벤처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사업비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 ▶ 대전시는 바이오벤처타운 내에 공용센터와 벤처타운을 건설하고, 시험공장, 기자재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바이오 관련연구 성과물을 실용화할 계획이며, 오는 2004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임.
 - ▶ 바이오타운이 건립되면 대덕밸리는 생명공학연구원, 대덕바이오커뮤니티, 한솔벤처단지,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등 전국 바이오 벤처들의 1/3 정도인 1백여개의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몰려있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 대덕연구단지내의 대표적인 BT 관련 벤처기업 】

기업	주요 개발 품목	기업	주요 개발 품목
인바이오넷	미생물 균주 응용기술	알엠씨코리아	고순도 제약원료와 정밀화학물질
제노텍	DNA 관련기술	에이티진	유전자 정제 키트
펍트론	초고속 탐색기술	휴젠	단백질을 이용한 주름제거제
엔비텍	환경오염물질 분석기술	바이오니아	생명공학관련 시약과 기자재
제노포커스	초고속 효소개량	이노테크메디칼	의료용 고분자 지지체
넥스젠	환경정화용식물	펍트론	진단 및 의약소재
바이오리더스	의약품 아미노산과 유도체	세노텍	의약품 검색 기술과
이룸바이오텍	체외진단시약	한국미생물공학연구소	기능성 미생물
바이오알엔즈	미생물고분자응집제	안지오랩	치료용 단백질
제노포커스	초고속효소개량기술 패키지	엘피스바이오텍	生化수명연장제
엔바이오엔지니어링	미생물흡착제	뉴로틱스(주)	신경전달물질, 기능성 화장품
인섹트바이오텍	고효율 단백질분해효소	바이오젠	미생물 농약
제일화학	식품첨가물	베스트코리아	생물공정/엔지니어링

자료 : 매일경제 2001. 9. 2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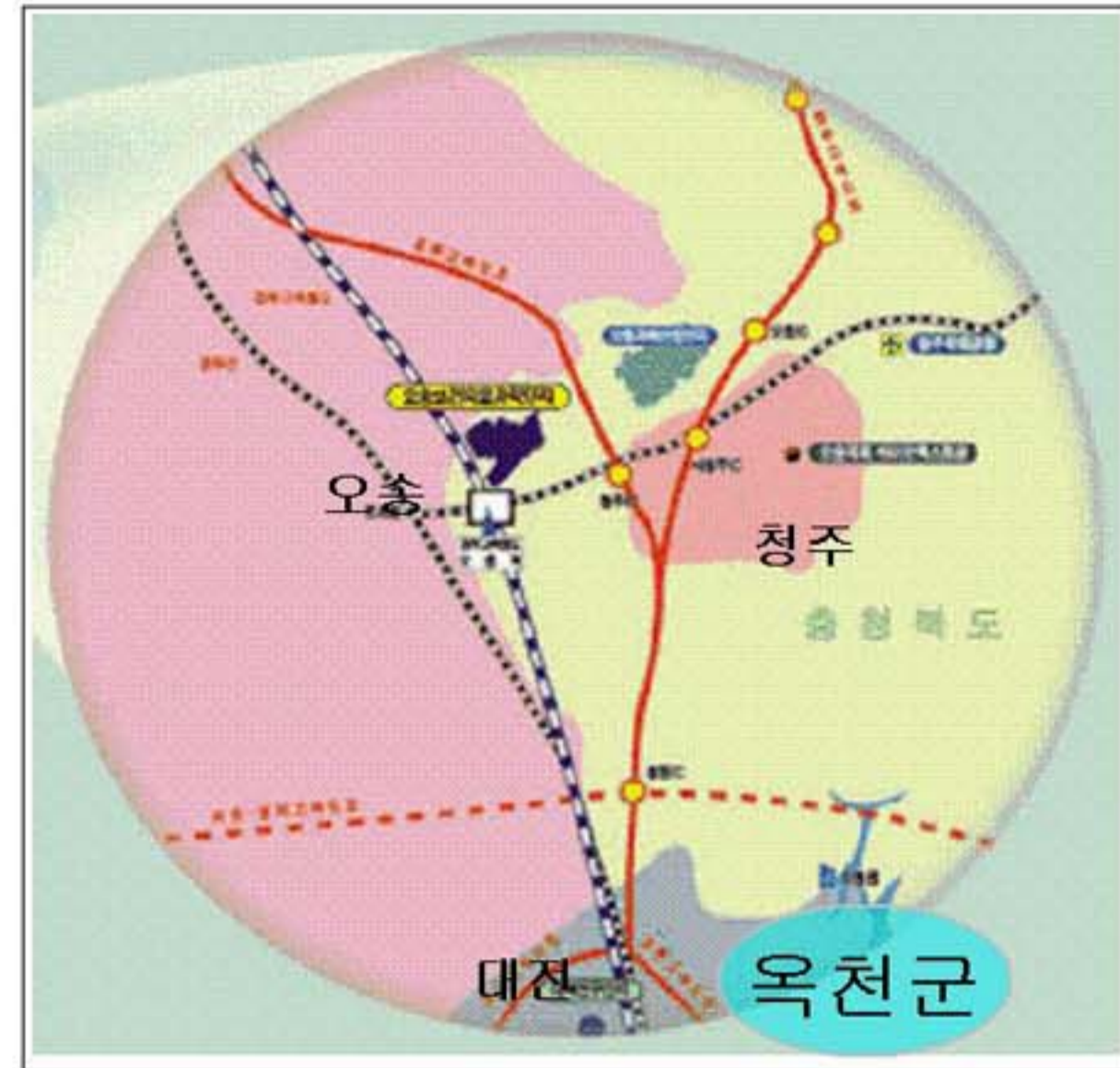
□ BT 산업은 지식산업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옥천지역에 적합

-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옥천지역의 경우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첨단제조업인 BT산업 육성이 바람직함.
- ▶ 실례로, 옥천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춘천시의 경우 현재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 중에 있음.
- 첨단제조업중에서 BT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그리고 자원에너지 절약형 산업이며, 옥천지역의 경우는 지역고유의 경쟁력 있는 농림업자원을 토대로 한 BT산업 육성이 가능함.
- BT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우수생물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옥천군의 경우는 활용가능한 우수생물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고유 희귀생물종은 그 종자 자체가 고부가가치의 자원이라 할 수 있음.

□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

- 충청북도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생명과학산업 육성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핵심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으므로,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오송단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옥천군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관련 BT기술인력들의 공급이 가능하며, 충북 과학대학이 옥천군내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관련 인재들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지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오송단지과 관련된 BT교육시장의 창출이 가능함. BT산업에는 고급 인력 뿐 아니라, 생산 인력, 서비스 인력 등 중저급의 기술 인력의 수요도 높음.



(2) 약점 및 위험요인

□ 지역내 인력의 외부유출현상 심각

- 옥천군 인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옥천읍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의 고급인력을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옥천읍내 인구는 다시 대전광역시로 연쇄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재의 외부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덕밸리와 연계한 혹은 대기업의 BT생산부문을 유치한 BT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산업인력들의 주거생활이 대전에서 이루어질 경우 옥천군이 받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음.
-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관련 기술인력을 교육, 공급하는 방식은 기술인력들이 생활편의면에서 더 유리한 대전권이나 청주권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옥천읍이나 바이오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유입된 기술인력이나 옥천주민이 거주하고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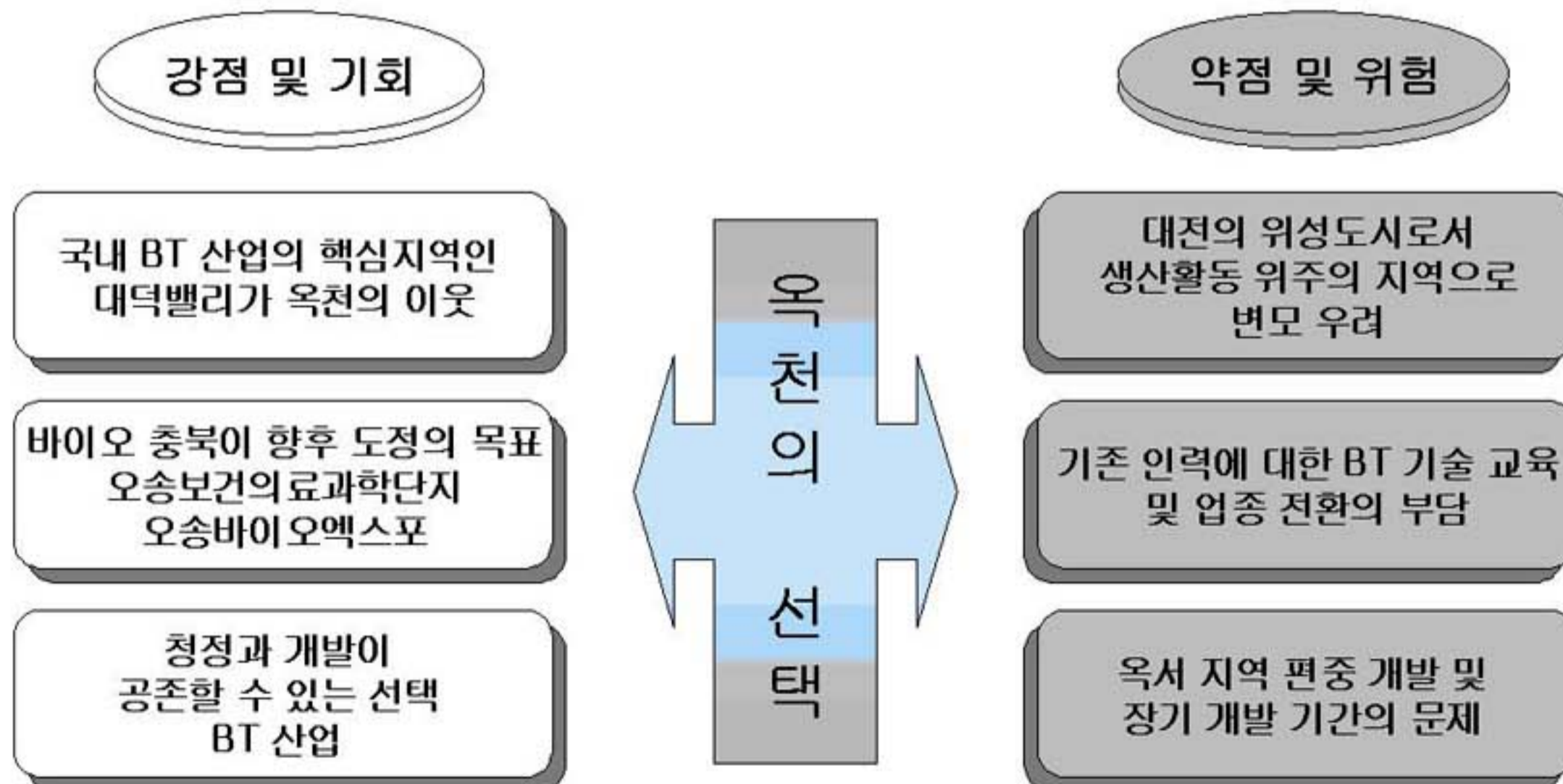
□ 농림업을 BT산업으로 전환·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기술 및 자본 문제

- 기존 농림업인력들은 주로 노령층, 부녀자층으로서 실무기술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첨단 BT기술의 이해와 습득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옥천군에서는 옥천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농림업을 기반으로, 연관된 BT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BT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

- BT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의 상승적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장단기 투자계획 마련 후 우선투자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 및 연구소를 포함한 현재 대부분의 국내 및 충청권의 BT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들은 실무기술보다는 첨단연구에 치중해 있고, 옥천지역에 필요한 실무기술이 소재한 곳은 전국에 드물게 산재해 있음.

□ BT산업활동의 지역편중과 장기개발기간의 문제

- 옥천군은 금강 경계, 혹은 경부고속도로에 의한 교통편이성 차이로 인해 옥동과 옥서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BT산업의 경우 옥서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 대덕밸리 및 오송단지와의 접근성,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산업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옥동지역보다 옥서지역이 유리함.
- BT산업의 특성상 수익에 도달하는 투자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내에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음.
 - ▶ 대덕밸리의 바이오벤처사들이 연구기를 넘어 생산 및 수익기에 도달하기까지, 즉 본격적인 생산부문 시설구축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됨.
 - ▶ 현재 옥천군에는 BT산업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로서 옥천군 기반산업인 농림업을 바탕으로 BT산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자본투자 및 기술 습득에 평균기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BT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3~5년의 단기간에 옥천군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3) 옥천군 바이오산업 육성책의 모델 - 춘천시 사례

- ▶ 춘천시는 북한강, 소양강 등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등으로 개발에 한계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 산악지대가 넓고 많은 강원도의 특징 및 고속도로와의 근접성도 떨어짐.
- ▶ 이것은 춘천시 개발의 2대 걸림돌이었으며, 춘천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투자부문으로 제시(정부의 바이오산업의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시대적인 조류에 걸맞게 바이오산업 분야, 멀티미디어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를 중점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 바이오산업 시범도시로 선정된 춘천시는 ‘춘천하이테크 벤처타운’을 조성하였는 바, 이곳에서는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 및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첨단실험분석 및 시제품 생산장비를 갖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그리고 바이오 응용기술을 활용해 농가에서 재배하는 아가리쿠스 버섯을 이용하여 고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상황버섯을 응용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벤처타운 인근 3,200여평 부지에 바이오 연구개발 제품의 대량생산 지원시설인 벤처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 춘천시의 바이오 열기는 곧 투자로 이어져 다른지역의 경기침체와 벤처거품론과는 반대로 2001년 춘천권에서는 25개 벤처기업이 투자조합과 엔젤투자가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음.



2. 제조산업의 여건분석

(1) SWOT분석

- 일찍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중부권 최대의 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배후에 큰 산업수요도시를 갖고 있는 지역임.

- 옥천지역은 중부권 주민들의 젖줄인 대청호와 금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자연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양질의 수자원 확보와 같은 환경자원의 보존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된 지역임.
- 대청호의 건설로 인해 옥동과 옥서지역으로 양분된 지리환경적인 요인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경제권의 지역내 통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교통수단의 주요 요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 산업경제권 접근 용이 -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지 산재 ○ 중부권 최대의 풍부한 배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권과의 연계가능성 풍부 - 인력수급 등 산업수요기능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환경규제지역의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호수질보존 개발제한 - 대전권 토지이용제한의 영향 ○ 지역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이 인접하여 흡수효과 지대 - 옥동·옥서지역간의 연계기능 미흡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신지식기반 벤처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 가능 - 친환경산업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신산업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의 신산업정책 추진 - 새로운 산업여건변화 수용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자산가치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수자원관리 필요성 증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의 역할증대 ○ 수요대응적 개발로 난개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개발가능용지 산재 - 개발욕구 증대로 인한 난개발 우려
기 회	위 험

(2) 과제도출

- 일찍부터 담배원료공장, 옥천조폐창 등이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구조조정에 의하여 폐쇄됨에 따라 이들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유치전략이 시급한 과제임.
- 옥천지역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면서 대전권이라는 이점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산업이 크게 변화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이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전개가 필요함.
- 인근 대전권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 및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산업정책으로서, 예를 들면 대전권 수요시장을 겨냥한 산업이면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실버산업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

- 옥천지역은 과도한 환경규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지역환경자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 또는 환경보호적인 산업정책(예를 들면 철저한 계획입지정책, 자전거생산공장 유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
- 새로운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므로 신지식기반시대에 충북과학대학과 인근의 대덕밸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제3절 육성방안

1. BT산업의 육성방안

(1)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의 조성

- 지역의 새로운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발전을 고려할 수 없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지식 중심형의 산업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은 산·학·연의 공동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 등의 설치로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함.
-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의 확충 및 주변 산업기술 관련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관련 투자 및 지원 활동이 첨단산업 육성발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함.
- 산·학·연 연계와 인프라 구축 및 산업서비스통합 제공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계획적 수단으로 테크노파크(Techno-park) 개념이 등장함.
- 테크노파크는 기술, 과학과 공원의 복합개념으로 자칫 기계적인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는 공간에 공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개발과 산업의 발전, 지역의 생활 및 위락공간의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음.
- 영국과학단지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음.
 - ▶ 대학 등의 기술개발기관과 기업체가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계
 - ▶ 지식기반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고무시키도록 정책적 배려 및 기획
 - ▶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기술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관리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첨단산업의 확보와 대학도시로서의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주요함.

(2) 테크노파크의 개발사례 및 재원대책

□ 영국

- 1971년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를 시초로 약 46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었으며, 약 1,205개의 회사가 입주하여 22,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입주기업 중 300명 이상 고용하는 몇개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15명 내외의 중소기업들임.
- 개발주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지방정부, 개발기관 및 민간조직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과학단지에 대한 투자비 가운데 1/3은 지방정부나 EU 프로그램 등 공공부분으로부터 제공되고, 대학이 약 11%, 입주기업이 25%, 그리고 외부 민간부분이 25%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산업단지가 세계 최초의 테크노파크로서 1951년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테크노파크 개발분의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되어 실리콘밸리 발전의 기초가 되어 현재 약 130개의 연구공원이 등록된 상태임. 실리콘밸리, 보스턴시 교외의 루트 128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등에서 성공적인 테크노파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개발주체를 보면 주로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졸업생 창업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대학과 기업에 의한 민간주도로 이루어졌고, 풍부한 고급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오랜 조성기간을 통해 입지가 이루어졌음.

□ 국내

- 1970년대 후반, 대덕연구단지가 첨단과학기술 지향의 교육, 연구 및 생활 기능을 모두 갖춘 유일한 테크노파크의 개념으로서 정부계획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최근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6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음.
- 경기 안산, 인천 송도, 충남 천안,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등의 6개 테크노파크는 이미 관리재단의 설립을 마친 상태이며, 실제적으로 TBI(창업보육센터)사업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임.

- 개발은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전국의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3개 테크노파크사업을 심사하여 6곳을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산업기술단지(Technopark)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테크노파크의 단지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산업기술단지의 입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금융혜택에 대한 규정, 조세와 인력의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현재 제정 공포,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결국 입지공급의 원활화(토지), 자금공급의 원활화(자본), 인력공급의 원활화(노동)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3)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의 조성 모형

□ 실현 가능한 소규모 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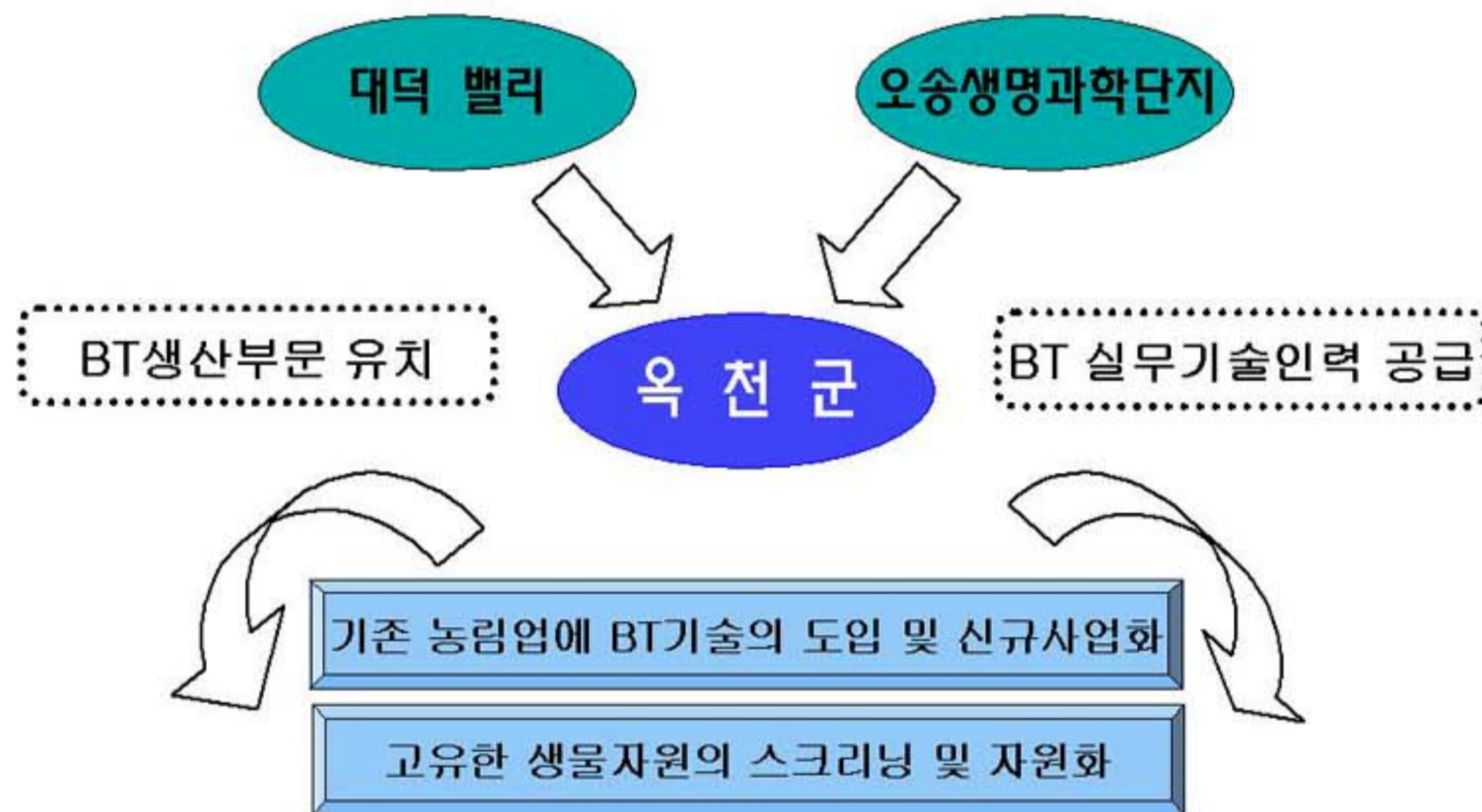
- 타 지역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테크노파크와의 차별화 : 안산테크노파크의 경우 약 15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6개의 테크노파크의 총 면적은 약 100~120 만평에 이르고 있음.
- On-Line적인 집적화 : 테크노파크가 지향하는 지식산업의 21세기는 물리적 공간의 인접을 통한 집적화보다는 Network 등을 통한 온라인 Cyber 교류가 더욱 빈번할 것이므로 대규모의 단지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산업공간과 생활공간,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야 함.
- 육천에 적합한 규모 : 대규모의 테크노파크는 중복투자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소규모 미니 테크노파크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피할 수 있고, 지방의 소도시나 심지어 농촌지역까지 입지가 가능함.
- 우선적으로 1개의 대학과 농공단지 등이 연계된 소규모 재단법인의 형태로 미니 테크노파크 건설을 추진함.

□ 기본 구상

- 육천군은 농가인구가 전체의 42.2%로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의 지역거점형 Bio-Cluster 정책과 연계하여 바이오 농업·식품분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북과학대학 산업과학연구소와 영동대학교의 생물의약·식품지역기술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옥천의 고유 생물·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을 강구함.

- 대덕밸리와 연계 ⇒ BT 생산부문은 유치하여 청정산업단지 개발
-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 ⇒ 대학도시로의 활성화 및 BT 실무기술인력의 공급
- 옥천군의 농특산품을 기반 ⇒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 옥천군 청정자연자원을 기반 ⇒ 고유한 희귀 생물자원을 스크리닝 및 자원화



2. 제조산업의 육성방안

□ 계획입지 유도로 환경친화적인 지역산업정책 추진

- 개별입지의 집단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출의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공장배출 공해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음.
- 개별입지에 대한 건축, 공공시설비율, 환경시설, 입주업종 등 관련 제반시설기준을 계획공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계획단지내 공해방지시설과 복지시설,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공동설치로 기업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제반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용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입주한 기업체에게 분배시킬 수 있는 시설부담금제도를 도입함.

- 산업단지내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하는 기업체의 경우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지역내 인지도가 높고 타지역과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함.

□ 단지별 전문화된 농공단지의 활성화 촉진정책 추진

- 현재 조성 가동중인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력하며 추가적인 농공단지 조성은 사양하고 부도기업체의 발생시 대체업체를 유치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려함.
- 일차적으로 지역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주민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함.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원료지향적인 업종의 선정으로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단지화 함.
- 품질 및 기술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특정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집적화를 유도하여 농공단지별 전문화를 유도함.

□ 지역특화산업단지의 지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 전문단지로 육성될 경우 입주업체들간의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생산·구매·판매 등에 있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 지역혁신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기회가 증대되고, 기술·인력의 유입과 집적효과를 통한 관련 기업들의 입주유인효과가 기대됨.
-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적 개선책으로서 새로운 정책검토가 필요함.

□ 지속적인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의 창출, 도입, 활용, 교류, 수정, 확산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대학, 각종산업지원센터,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추진체들간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기업간 하청 및 협력관계, 구성요소간 협력 및 경쟁관계, 클럽, 포럼, 컨소시엄, 정보통신망 등 유무형의 네트워크임.
- 급속히 변화해 가는 지식기반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인근지역 혁신추진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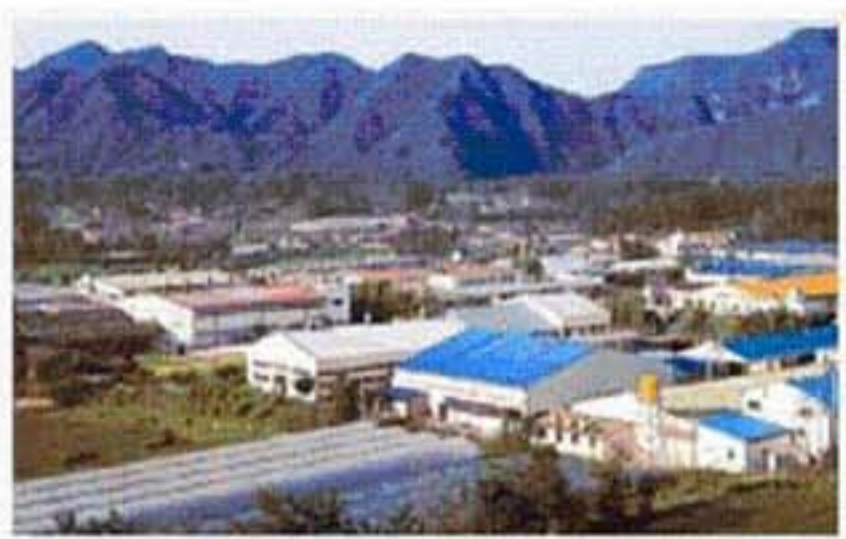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BT산업 세부추진계획

(1) BT산업 지원방안 마련

□ BT산업 벤처전용단지 조성

- 옥천군내 BT관련업체, 생물산업지원센터, 충북과학대학, BT실무기술교육센터 그리고 대덕밸리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연계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함.
- 대덕밸리에서 파생하는 창업기업을 수용하고,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음식료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BT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옥천읍을 중심으로 중규모의 BT관련 벤처기업, 연구시설, 생산시설, 공공교육시설, 의료시설, 금융기관, 문화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배치함.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추진
 - ▶ 산업입지는 대전권에서 옥천읍을 통과해야 만 옥천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 ▶ 벤처전용공단이 대전과 인접되어 있을 때 옥천인구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음



<기존의 농공단지>

BT기술



<청정 BT 산업단지>

□ 옥천군청 생물산업지원부서 신설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에 생물산업지원 담당 신설
- 군 차원에서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수립 및 BT기업 유치 활동
-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 옥천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BVC) 설립하며, 옥천군 고유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농가 및 고유의 식품, 화장품 원료 관련기업들을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유도 육성함.
- 충북과학대학을 확대 이전하고 현재의 부지에 기획 및 관리시설, 행정 부서, 전시실, 회의실, 문헌정보실, 공동연구실, 기기분석실, Pilot Plant (BT원료의 소규모 생산을 위한 설비) 30여개의 생물산업 관련 벤처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함.
- 충북과학대학을 중심으로, BT청정산업단지,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 BT 실무기술교육센터 그리고 지역내 자생 바이오벤처 기업들을 연계하는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로 발전시킴.
- 바이오제품 생산거점지역으로의 도약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덕밸리 바이오벤처기업의 생산부문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충북과학대학의 생명정보과,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활용함.
- 산업여건이 취약한 옥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의 BT 기술력과 기업의 BT 사업화 능력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 기술개발시설, 창업보육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행정지원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규모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시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함.

□ 약초재배마을 및 단지육성

- BT산업의 경우 의약기술을 요하는 생명과학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약초를 재배하는 생물소재산업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약초재배시험장과 연계한 약초재배마을을 조성함.

- ▶ 재배약초로는 최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호깨나무, 마가목, 옷나무, 산수유 등을 식재하고 이를 통해 한방의학산업의 기반을 마련함.
- 군북면 환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옥천재배시험장의 기술을 이전하여 약초를 이용한 음식 및 상품을 개발하며, 약초생산, 판매, 체험시설을 설치함.

(2) BT산업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혁신

□ 충북과학대학 확대 이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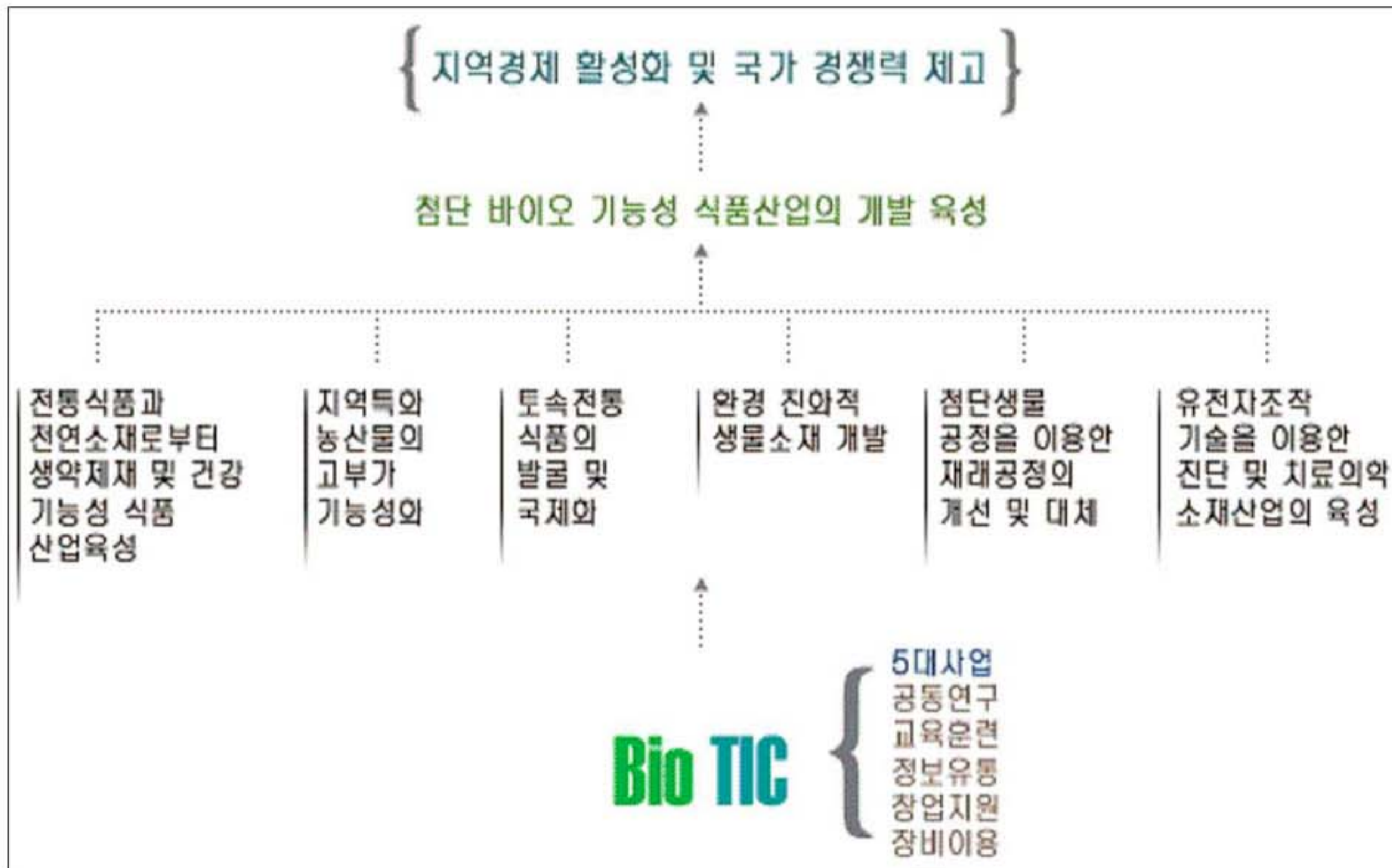
- BT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젊은 인력들을 유도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주효한 방법은 옥천읍을 대학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은 충북과학대학을 확대 이전하여 생명과학 관련 교육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충북과학대학의 확대이전 필요>

-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캠퍼스를 이전하는 것은 바이오 옥천을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며, 고급인력의 지역내 공급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임.
-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폐쇄상태에 있는 옥천조폐창 부지에 대한 대학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영동군의 경우, 영동대학교가 2001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바이오 지역기술 혁신센터(Bio TIC)로 지정받음으로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토 권역별 Bio Clustering 정책에 대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함.
- 옥천읍을 BT 청정산업단지와 연계된 소규모 BT 테크노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기 인프라 구축의 방법으로서 대학 중심도시로 발전시킴.
- 충북과학대학을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내에 'BT 실무기술 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군민에 대한 BT기술 교육 및 취업을 알선함.
- 무엇보다 바이오 관련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충북과학대학이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 영동대학교 바이오 지역기술혁신센터 】



□ BT 실무기술교육센터 설립

- BT 관련학과인 생명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과가 있는 충북과학대학 내에 센터사무실, 담당교수실, 시청각 강의실, 조직배양실, 세포배양실, 기기분석실 등을 비롯하여 기타 생명정보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마련함.
-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바로 21세기 지역발전의 핵심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BT 산업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하여 BT기술 교육을 통하여 인삼, 포도 등의 지역의 특산품과 관련하여 BT산업과 연계 발전 시키고, 대덕연구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청년층을 중심으로 군민에 대한 BT 실무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고급 BT 관련 연구 개발 교육이 아니라 실무기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병원 임상병리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PCR, DNA칩, 유전자재조합 등과 관련한 기초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옥천고, 옥천상고와 BT 연계교육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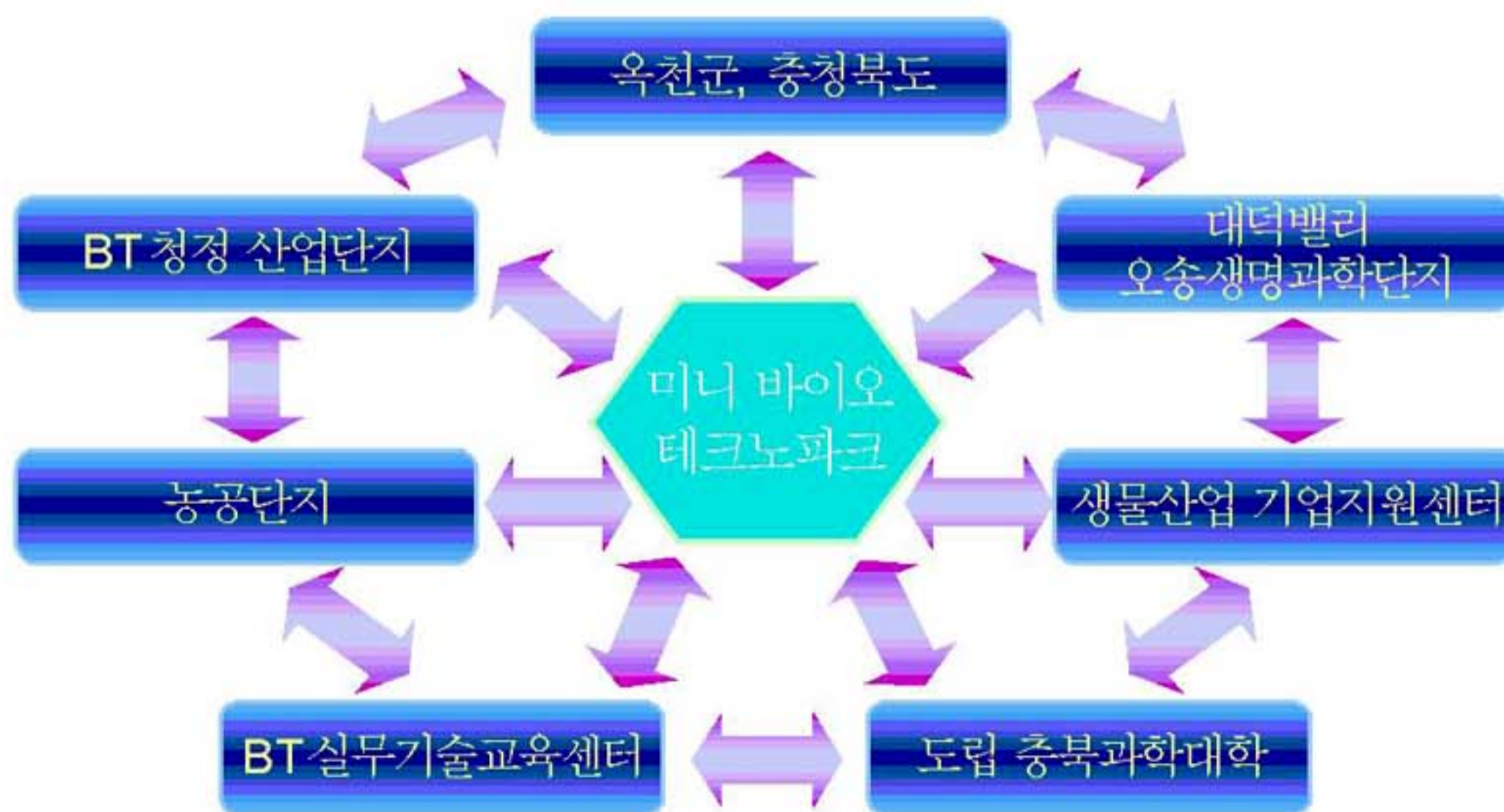
□ BT벤처플라자 건립사업

- 설립예정인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 인접부근에 행정 부서, 대외사업 담당(해외 수출 등) 부서, 창업보육센터, 임상효능연구실과 GMP 생산공장, 회의실 등을 설치함.
- BT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은 옥천 고유의 농특산물(포도, 묘목, 인삼, 버섯 등)을 사업 주제로 하는 옥천태생의 BT관련 신생기업들에 대한 창업보육지원기능을 담당함.
- 설립 예정인 옥천 바이오테크노파크 관련업체 및 신생기업들에 대한, 국제 기준의 효능 및 임상실험 및 공용 생산시설(GMP 규격) 제공, 해외수출 및 마케팅 지원 등 최종 사업화, 상업화 관련 제반서비스 및 시설 지원함.
- 비즈니스 플라자는 군내 농림업 사업자들과 관련된 BT기업들 간의 교류장소로서 현재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옥천간의 교류를 추진함.

□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사업

- 옥천군내 BT청정산업단지, 생물산업기업지원센터, 충북과학대, BT실무교육센터 그리고 대덕밸리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치함.
- 재단위치는 기 설립된 생물산업 기업지원센터(현 충북과학대학 부지)에 입지하되 지원센터의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은 원장, 운영위원회(이사장, 이사회, 감사회), 사업본부(단지조성팀, 기획팀, 총무팀), 행정본부(기업육성팀, 기술지원팀, 전산지원팀) 등으로 구성함.

【 옥천 미니바이오 테크노파크의 인접지역 연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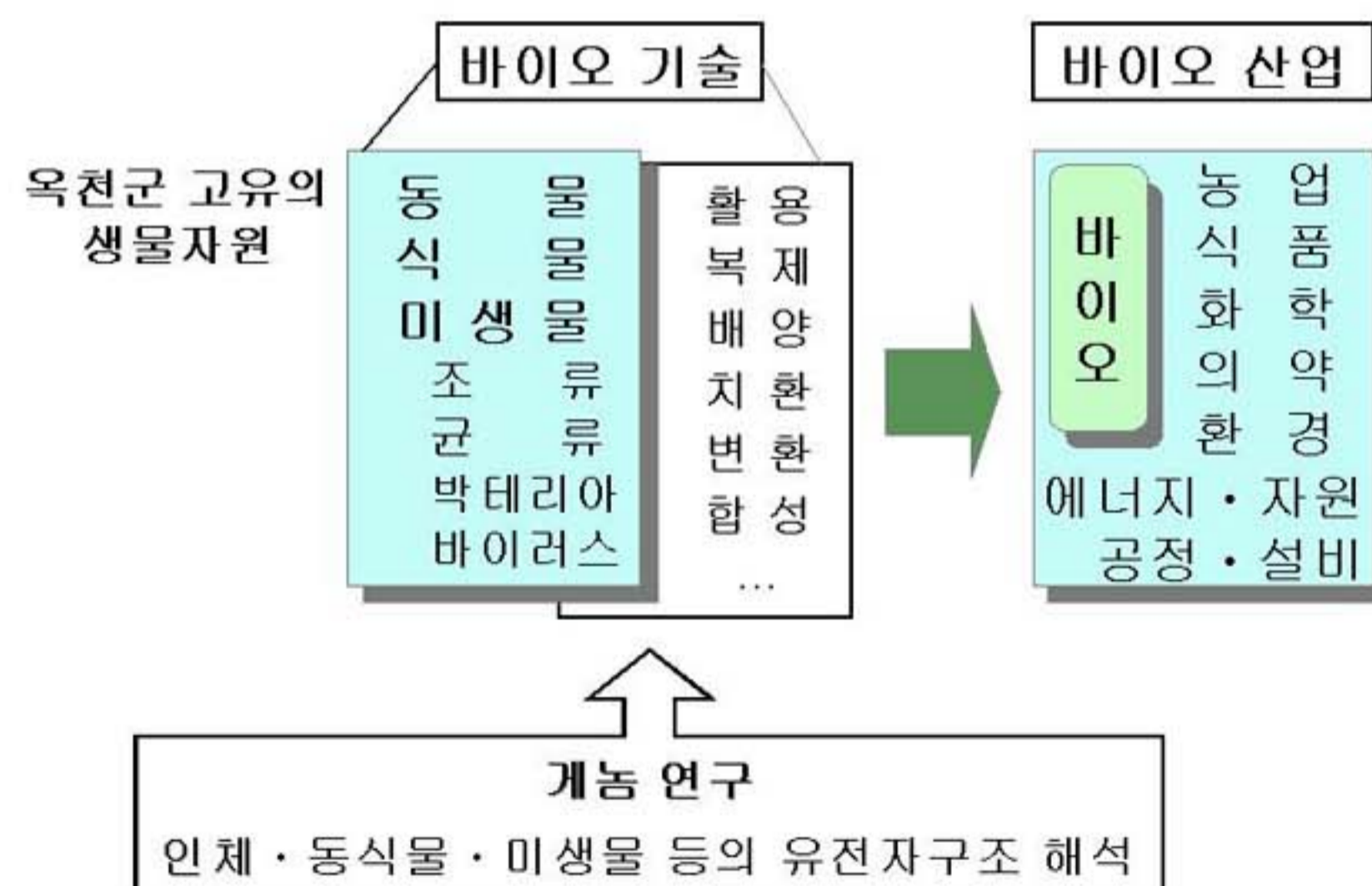


- 궁극적으로 생명산업과 자연공원의 복합된 개념으로서 옥천군을 기술개발과 산업의 발전, 지역의 생활 및 위락공간의 확보 그리고 자연보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역산업의 모델이 됨.
- 권역별 바이오 집적지 구축이라는 중앙정부의 생물산업정책에 발맞추어 대덕밸리와 연계된 국내 최초의 BT 청정생산단지로서 옥천군을 지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3) 지역고유 생물자원의 개발

□ 옥천생물자원연구소 설립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희귀 생물종이 고부가가치자원화 될 것이므로 옥천만의 고유한 생물종은 지역소유의 고부가가치 자원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옥천군내 희귀 생물종 조사 및 유구축, 유전자 조사, 산업 응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효용성이 확인된 생물종에 대한 자원화 및 상업적 계약에 생물종의 수출방안을 마련하며, 고유 생물종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농업기술센터내에 사무실 및 시험연구실 등을 설치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설립예정인 옥천 BT벤처플라자와 연계하여 신규 사업과제를 도출함.
- 관련기관과의 협력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실용산업화, 식용 감자백신 개발, 백합 인공씨구근 대량생산 기술개발



- 옥천의 특산물(포도, 묘목, 인삼, 버섯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하며, 옥천 소재의 약용식물재배시험장(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포도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실시함.
- 포도원액 제조시 폐처리되는 포도씨를 활용한 BT사업
 - 포도씨 오일의 생산
 - ▶ 기존의 이태리 제품(올리타리아)이 유명하며, 국내산은 없고 효능으로는 다량 함유된 토코페롤이 세포노화 방지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섭취시 체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는 기능을 함.
 - ▶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전체 포도씨 오일지방산의 71.6%로 최고수준이며, 발연점이 높아 기름이 타지 않고 고온으로 요리할 수 있어 단시간에 음식을 익히므로 음식 고유의 향과 맛을 살려줌.
 - 포도씨 추출물 관련사업
 - ▶ 특유의 항산화 성분을 분리 추출하여 화장품의 원료나 의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전량 수입 중에 있음.
 - ▶ 적포도씨에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OPC(proanthocyanidins)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C, E, 베타 카로틴보다 항산화 작용과 생체이용률 측면에 있어 수십배 강력함.
 - ▶ 포도씨 추출물은 인체에 빨리 흡수되고 세포로 전달되며, 강력한 천연항산화 물질의 원천으로서 심장질환, 모세혈관질환, 당뇨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상처회복과 면역계 자극을 촉진하며, 스킨케어 원료로도 개발이 가능함.
 - 관련 기업과의 협력 : 영동군 영동대벤처식품(주)에서 현재 연구개발 중임.



□ BT 기술을 이용한 버섯 관련 BT 사업

- 종균배양 기술도입 및 종균 판매기업 설립 : 버섯종균이란 버섯재배용 종자로 사용할 목적으로 순수 배양된 균체와 그 배지를 의미하며, 느타리, 표고, 상황, 영지, 아가리쿠스, 동충하초의 종균생산이 목표임.

- 기능성 버섯쌀 개발
 - ▶ 일반 백미를 멸균처리 후,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의 버섯균사체를 접종하여 30일 이상을 위생관리하에 배양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단백다당체 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기능성 영양쌀을 생산하고 송이버섯쌀 등이 현재 신규 개발중에 있음.
- 균사체 배양기술 도입 : 버섯균사체의 대량생산을 통한 건강식품 제조 및 의약품 원료물질의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영지,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기술이 있음.
- 버섯 유래의 고부가가치 유용 물질의 생산
 - ▶ 버섯다당체, 베타글루칸 관련 신규물질 개발 : 기존 베타글루칸의 물성과 효능을 향상시킨 신규 베타글루칸의 개발을 의미하며, 베타글루칸과 기능성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한 신규 기능성원료 개발 등이 있음.
- 관련기업에 대한 유치 및 협력
 - ▶ 피엔에프바이오텍 : 홍미, 상황버섯쌀, 동충하초쌀 생산판매, 버섯균 활용 기능성소재 개발
 - ▶ 대덕바이오 : 홍버섯쌀, 상황버섯쌀 생산, 판매, 송이버섯 인공 배양기술 연구
 - ▶ HK바이오텍 : 베타글루칸 생산, 버섯균사체 배양으로 천연향료의 생산
 - ▶ 셀바이오텍 : 천연송이버섯 균사체 액체배양 성공 및 항암물질 생산연구
 - ▶ DMJ바이오텍 : 기능성 베타글루칸 생산



BT기술



□ BT기술을 이용한 과수묘목 생산의 대량 생산화

- 식물조직 배양을 통한 대량 생산 : 묘목의 대량 생산화
- 육종기술을 이용한 품종 개량 : 바이러스 무독묘의 생산
- 묘목 산의 기업화
 - ▶ 라한 메리스템의 사례 :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번식 및 생명공학 회사중 하나로 조직을 배양해 기른 바나나 나무를 전세계에 매년 8억개 이상 판매한 바나나 종자에 관한 한 세계 제1의 회사이며, 딸기, 감귤류, 올리브, 망고 등 과일과 화훼류 등도 조직배양에 성공해 지난 20여년간 200여종을 공급해 왔음.

○ 관련 기관과의 협력

- ▶ 임업연구원 : 조직배양에 의한 묘목의 대량 생산 및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연구
- ▶ 파낙시아 : 오가피 및 산삼의 조직배양에 의한 묘목 생산 연구



□ 인삼관련 BT산업 육성

○ 인삼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의 생산

- ▶ 인삼에서 기능성 사포닌 배당체나 단백다당체를 추출농축하여 제품화하며, 인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대량생산이 가능함.

○ 인삼 조직배양기술의 도입

- ▶ 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인삼뿌리 조직세포를 대량으로 액체 배양하며, 연중생산의 가능성과 인삼 사포닌의 조절로 인삼제품의 규격화 및 고품질화함.

○ 관련 기업에 대한 유치 및 협력

- ▶ 진생사이언스 : 인삼을 120℃에서 가열처리해 항산화·혈관확장 효능을 대폭 증강시킨 ‘선삼’ 제조기술을 확보, 항암 치료보조제 및 혈액순환개선제 이용
- ▶ 코인텍 : 인삼 등에서 고순도로 추출한 면역다당체와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한 항암 건강보조식품을 개발, 판매
- ▶ 바이오리진 : 인삼 적변(赤變) 현상을 억제하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여, 이균주를 이용한 무독성비료 생산
- ▶ 엔지뱅크 :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 주는 진세노사이드-Rd 양산 기술을 개발하여 건강보조식품 바이코진으로 생산



【 BT산업 육성체계 】



2. 제조산업 세부추진계획

□ 지역특화전문화단지 도입

- 단순농외소득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발전유도를 위하여 지역중심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함.
- 신규조성되는 단지, 미분양 또는 휴폐업 업체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점차 확산될 것이므로 옥천지역 각 농공단지의 실정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특화전문화단지 육성계획 】

기본 목표	단순농외소득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발전유도
지정 유형	기존 농공단지내 핵심업종 중심 재편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전문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
지원제도(Ⅰ)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특화업종이 3/4이상 되는 단지로서 지정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부지조성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시장개척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시책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 가능
지원제도(Ⅱ)	전문단지로 육성될 경우 입주업체들간의 기술혁신네트웍 구축이 가능하고 생산·구매·판매 등에 있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센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기회가 증대되고, 기술·인력의 타지역 유출억제효과 기대

□ 벤처기업전문화단지 육성

- 지역특성을 살린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전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벤처기업전문화단지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업종 및 기업의 선정, 전문화단지입지선정, 군의 행·재정적 지원가능분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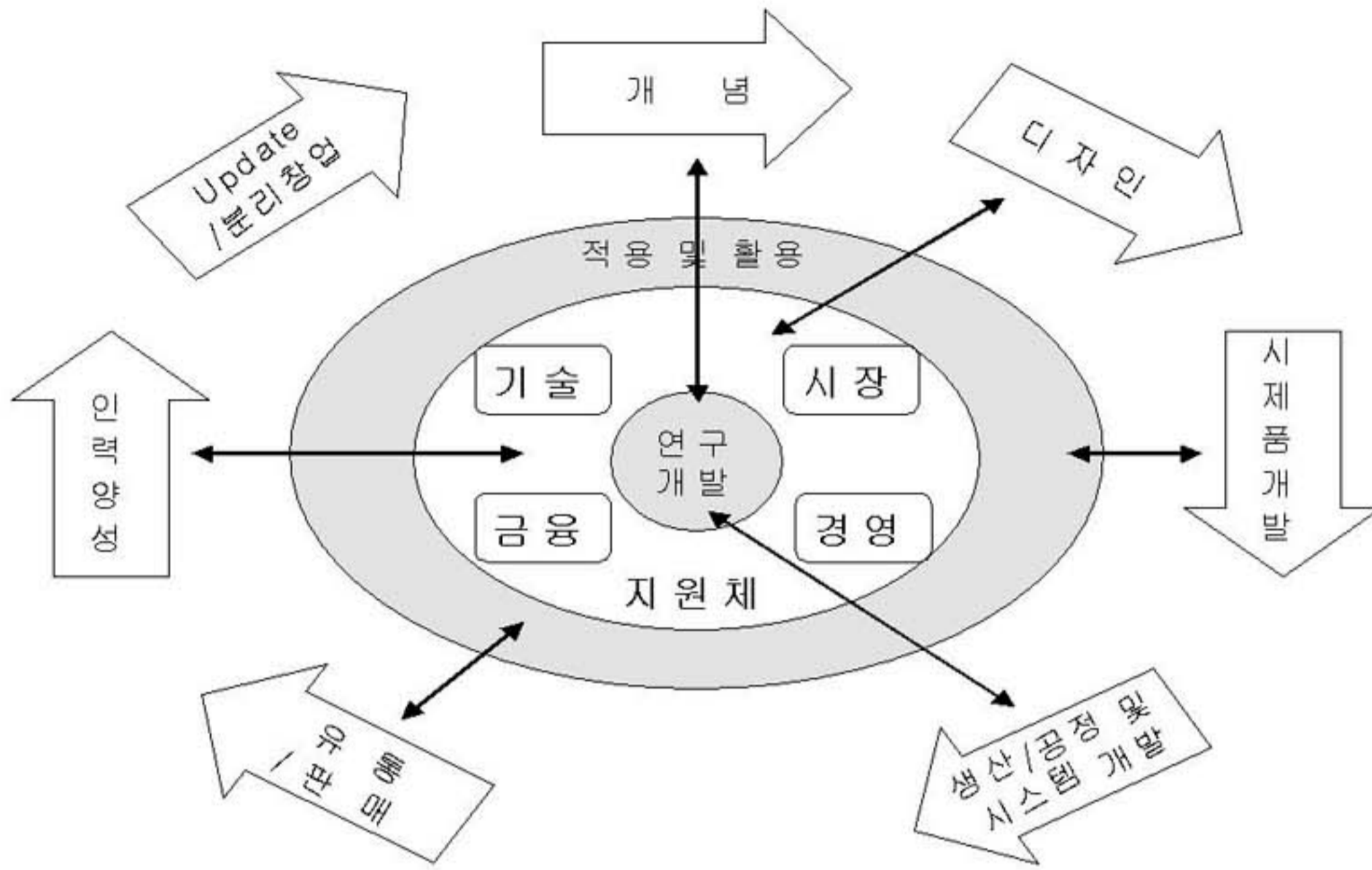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보화 지원 및 전문단지 육성계획 】

정보화기반조성	중소기업에 초고속통신망과 웹사이트 구축, 공동DB, 전자상거래, 온라인 정보교환 기능 향상
디지털산업단지	부품·소재 전문 중견기업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의 디지털 산업단지화
정보화촉진지역	중소기업이 밀집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으로 발전
정보화인력양성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업 컨설팅 및 관련인력 양성
벤처기업의 육성	최첨단 벤처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일괄 서비스센터 설립 지역경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유치전략 마련
정보화 지원단	유관기관간 효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단 구성 운영

□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 지역내 산재된 농공단지, 충북과학대학, 충북인력개발원, 대전·청주권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시대에 지역의 기술집적도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를 실현함.
-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를 실시와 산·학·관 연구자와 기술자의 교류를 촉진하고 기술 교류를 위한 모임 등의 제도화로 이업종·동업종간 교류를 확대하며 주변 산업단지와 기술교류 및 위탁·공동연구를 촉진함.
- 컨소시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내 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의 연구인력까지도 풀로 활용하여 지역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 실버산업시범지구 지정육성

- 고령화시대 노인을 위한 아파트, 노인전용 의료시설, 노인용 의약품이나 기구, 노인용 식품, 노인용 화장품, 노인용 의류, 노인용 스포츠나 게임, 기타 노인 전용 용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소위 실버(silver)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날 것임.
- ▶ 국민 총소비지출 중 적어도 노인인구의 비율과 같은 비중으로 실버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작물이나 미생물의 유전자 조작이 일반화되고 동물이나 인체의 게놈이 속속 밝혀지는 한편 분자생물학 및 세포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질병예방이나 치료, 나아가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음.
- 그동안 장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깨끗한 물과 공기, 적절한 운동과 활동, 규칙적인 식생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 등이 공통적인 장수요소로 입증됨에 따라 여기에 실버생명과학기술과 실버산업의 제품들이 더해진다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산성 있는 노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노화생명과학에 대한 기초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버생물산업에 대해 기업이나 국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폐쇄상태에 있는 옥천담배원료공장(대지 13,900평, 건축연면적 13881평)을 실버산업 단지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실버산업 수요증대와 그 환경>

- ▶ 70회 생일을 고희(古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었으나 오늘날 우리의 평균수명이 75세까지 연장되면서 70대 노인은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음.
- ▶ 의료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개선의 덕택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평균수명은 10세나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15%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임.
- ▶ 수명이 급속히 연장되고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 질 것이며, 특히 무엇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할 것인가, 부모님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가, 노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들은 무슨 종류가 있을 것인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임.
- ▶ 앞으로의 노인들은 연금이 일반화되고 지금도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구매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

【 옥천지식산업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



□ 레포트관련 자전거생산 메카로 육성

- 삼천리자전거가 양산의 생산공장을 이원면 소재 자전거생산업체의 생산라인을 활용해 중고가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한 레포트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함.
- 새로 이전되는 생산라인은 기존의 대일오지공장을 활용하며, 경기용자전거, 산악자전거 등 고급자전거를 생산하고, 중저가자전거의 경우 중국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산공장의 육천이전으로 인해 생산직, 사무직 직원 등의 인구유입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되어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전거 생산의 국내메카로 앞으로 다가올 국민 레저여가문화, 특히 레포트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지역산업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부각될 것임.

□ 에너지 수급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 최근 우리나라 가정연료는 주로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방식이었으나, 최근 도시지역은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이 향상됨은 물론 청정연료로서 대기오염을 감소에 일조하고 있음.
- 아파트단지과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스의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 프로판 가스의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육천지역의 경우는 1999년 현재 프로판가스 12개소, 5,621톤이 판매되고 있으며, 부탄가스는 3개소, 4,334톤이 판매되고 있고 도시가스는 공급시설이 없고 LPG 저장고는 3개소가 위치해 있음.
- 환경의 중시로 인해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도 청정연료의 선호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육천지역에서도 도시가스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급방안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현재, 충청도내에는 청주시, 충주시의 2개시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오는 2005년부터는 진천·음성 산업단지과 제천시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육천읍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설치에만 약 50-70억원이 소요되는 등 초기투자비용이 1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앞으로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므로 풍력 및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함.

지역산업진흥과 특성화 전략

실버산업 육성	▶	실버산업지구 조성(구 담배원료공장 부지)
레포츠산업 육성	▶	자전거 생산기지 조성(이원면 일대)
농공단지 육성	▶	지역특화 전문화단지로 육성(옥천,동이,이원,청산)
친환경 산업정책	▶	개별입지 억제 및 계획입지 유도
지역기업 지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
장기에너지수급대책	▶	대전도시가스 연결사업 중장기 검토

제9장 영농육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현황과 특징

(1) 대외적 여건

□ 농산물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인한 농업의 존립 위협

○ WTO 농산물 협상 타결

- ▶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했던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인 개선이라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되어 뉴라운드 농업협상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됨.
- ▶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작성하여 양허안에 기초한 포괄적 초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농업협상의 향후일정과 내용 】

일 정	내 용	비 고
2002 ~ 200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보조금 감축률·방법 ▶ 시장접근물량 증량폭 ▶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요건 	세부원칙 수립 협상에 대응
2003년말 (5차 각료회의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보조금 감축계획안을 담은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5차 각료회의이후 ~ 2004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관세감축협상(양허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지위 여부 관심 ▶ 쌀 재협상과 시기 중복
2005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협상 결과 각료회의(6차) 승인 	
2006년 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결과 이행 	

○ 중국의 WTO 가입

-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농산물 국제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 쌀과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과 일본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지역통합과 무역자유협정의 확산
 - ▶ 지역내 국가들이 상호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일 자유FTA, 한·칠레 FTA를 논의하고 있음.
 -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에 관세 인하나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국간 무역이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함.
- 농업지지수준의 점진적 감축과 유전공학을 이용한 기술혁명의 도래
- 각국의 농업개혁은 가급적 시장왜곡 현상을 줄이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이나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유지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함.
 -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품종혁신, 물질혁신, 번식혁신이 추진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 농업의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란 기본적 기능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및 농촌경관유지, 농촌활력 및 전통문화 유지 등 비계량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국가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중요함이 인정되고 있음.
 - ▶ 자원보전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또는 친환경농업(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녹색체험관광(Green Tourism) 등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음.

(2) 대내적 여건

- 농업투자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악화
- IMF 이후에 농업투융자재원이 크게 줄어든 반면, 채무상환 등 고정지출의 성격을 갖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 순사업비가 계속 감축되고 있음.
 - 농업투융자사업의 감축은 농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농가경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농가경제의 기반이 침하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 1994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99.5% 수준이었으나 2000년 80.5%, 2005년에는 75%로 소득격차가 벌어질 예정임.
- ▶ 농가교역조건은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1999년 89.5, 2000년 86.0, 2001년 83.5로 떨어지면서 도농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도시와 농촌간 생활환경 비교 】

구 분	항 목	도 시	농 촌	비교시점
소 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	2,386천원	1,922천원	2000년
인 구	65세 이상 노인구	4.4%	11.9%	1995년
	인구증감률(1980~2000)	1.37%	-3.36%	2000년
영 양	1인1일당 총식품섭취량	1,122g	990g	1995년
주 거	입식부엌 설치비율	87.1%	74%	1995년
	수세식화장실 설치비율	84.2%	43.8%	1995년
기 반 시 설	상수도보급율	92.0%	71.2%	1998년
	하수처리율	66%	5%	1997년
교 육	고졸이상 비율	40.8%	24.2%	1995년
의 료	의사1인당인구	739명	1,609명	1999년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의 위축과 농촌사회의 공동화 진행

- 1990년대 연평균 4.9%씩 감소하던 추세가 계속되어 2001년에는 농가인구의 비중이 5%가 될 것으로 예상됨.
- 60대 농가인구는 년 17.3%, 70세 이상은 2.2%씩 증가하여 농가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은 1999년 32%에서 2010년 45%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농산물 수급·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 증대

-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과 농산물가격의 정체 기조아래 약간의 생산변동에도 가격등락이 심하게 나타남.
- ▶ 수입농산물가격의 국내농산물 가격의 상한을 형성하는 ‘농산물 가격의 천정화(天井化)’ 현상이 나타나는데, 쌀(80kg 기준)의 경우 한국 167,720원, 미국 28,540원, 중국 26,430원, 태국 18,28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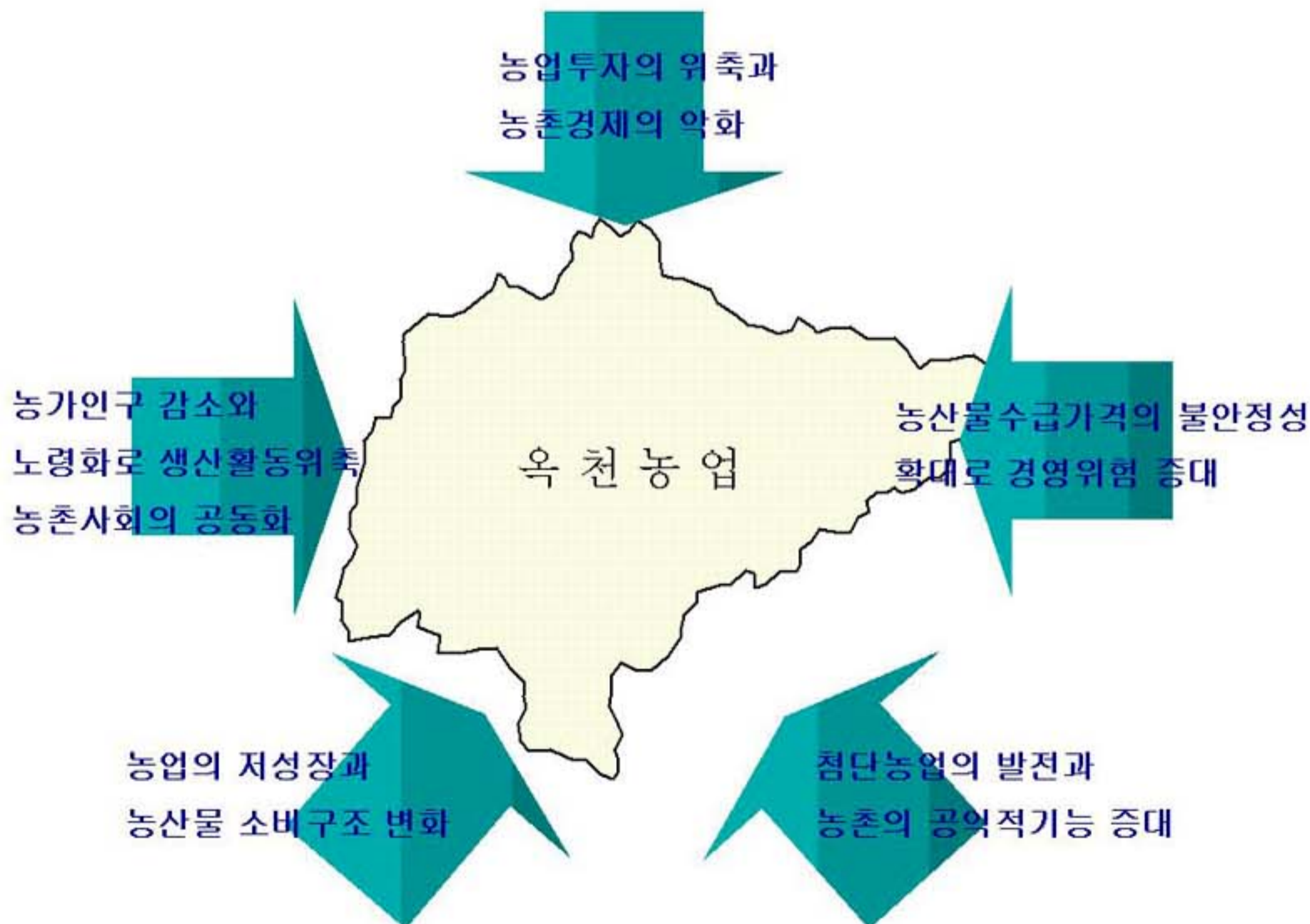
□ 농업의 저성장과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과실, 과채류, 양념채소류의 감소와 더불어 쌀 등 곡물생산의 감소로 인한 생산정체에 의한 농업의 저성장 시대가 전망됨.
- 농수산물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식품소비의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유통경로의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되어 대형소매기구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소매유통 변화에 따른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의 변화가 예상됨.
- ▶ 전자상거래 및 기업적 전문유통주체에 의한 유통 중요성 증대

□ 첨단농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

- 생명공학(BT), 식품, 농자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친환경농업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농업의 본래적 기능 이외에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억제,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임.
- 정보통신(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농어촌의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임.

【 농업부문의 대외적 여건변화 】



2. 전반적인 추세와 향후전망

□ 농업인력의 고령화

- 농가와 농가인구는 젊은 인력의 감소가 심하고, 특히 신규 농업인력의 진입이 저조하여 영농후계자 부족과 함께 농업경영주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됨.

□ 농업경영 규모의 미미한 확대와 경지규모의 양극화

- 3ha 이상 대규모 경영농가의 비중과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함(1990년의 5ha이상은 3.0~5.0ha에 포함).
- 농가의 영농형태는 '90년대 중반까지 시설원예작물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른 작물에 비하여 가격이 안정적인 논벼와 일반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방향으로 진전됨.
- ▶ 벼농사가 전체 농가의 56.9%, 축산 5.2%, 과수농사 1.4%

□ 농산물의 전반적인 과잉과 농업의 저성장 기조

- 1990년대에 농업성장을 주도한 과실, 과채류, 양념채소류 등의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음.
- 쌀은 벼재배면적의 확보와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안정되고 있는 반면 소비가 줄어들어 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채소류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요가 정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까지 농업성장률은 -0.8%로 감소할 것이며 저성장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 농업소득 불안정과 농가소득 증가의 둔화

- 농업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농가소득 정체는 주로 농외소득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데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것임.

□ 농촌생활환경과 복지기반의 미흡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물리적 정비수준이 도시지역보다 현저히 낮으며 영유아보육시설 및 교육여건도 취약함.

- 보건의료 수준은 시설·장비·인력면에서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한된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교통 절대거리면에서 접근성이 불리함.
- 농촌지역은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52.2%나 차지하여 문화복지기반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화 기반의 경우 PC 보급률이 58.4%이고, 초고속통신망도 면단위지역은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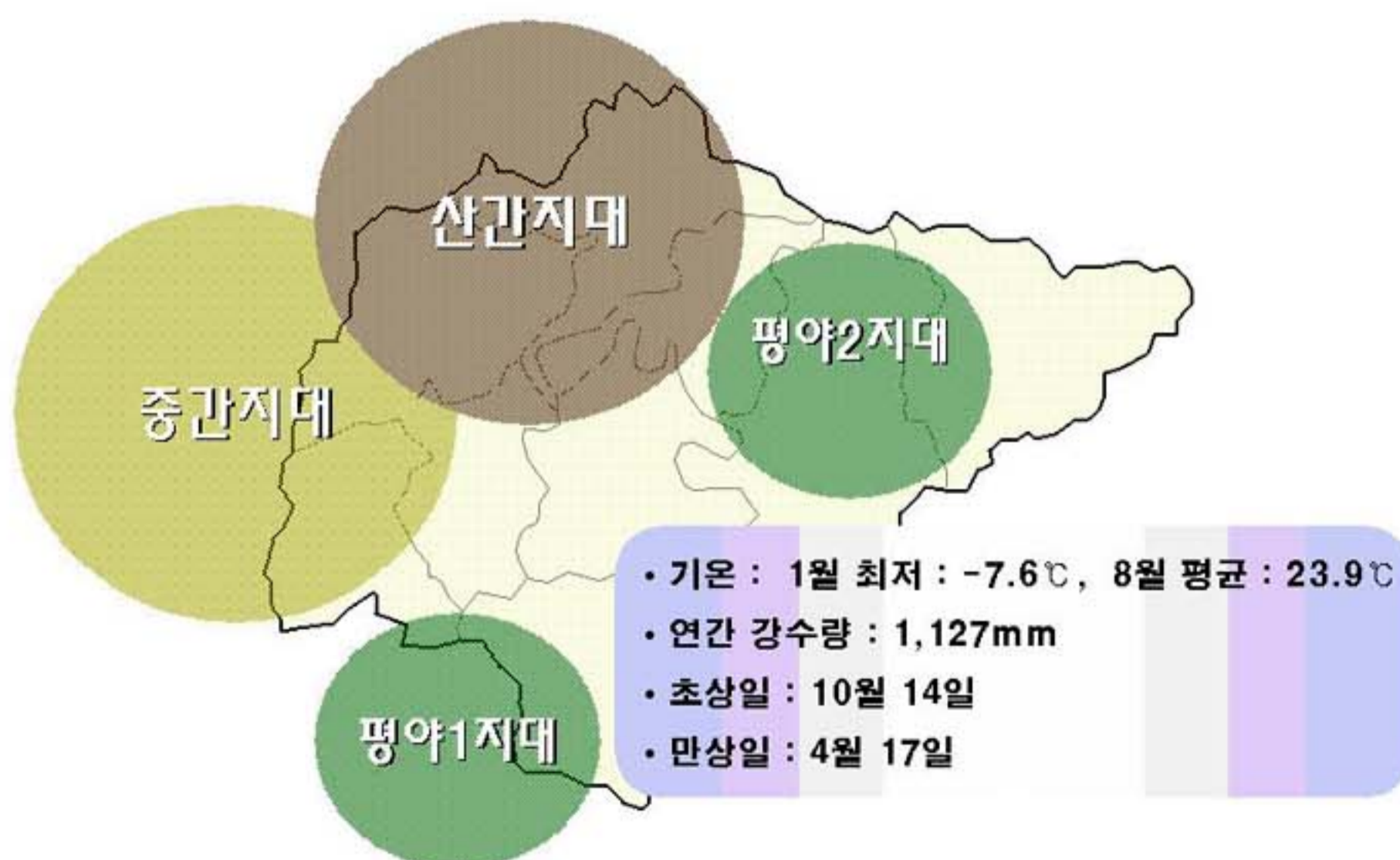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농업생산 여건

(1) 자연적 여건

- 옥천은 옥천읍을 중심으로 원형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협곡에 끼여 있는 화강암지대의 침식분지로 이루어진 산간지대로 촌락은 옥천읍을 중심으로 강청, 지탄, 연주, 지전, 심천 등 평야지역에 주로 발달됨.
- ▶ 옥천의 지리적 특성은 소백산 서부지맥의 준산간지대로 표고, 지형을 감안하면 중간지대(옥천읍,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산간지대(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평야 1지대(이원면), 평야 2지대(청산면)로 구분할 수 있음.
- ▶ 중부내륙에 위치한 대륙성기후 지대로 한서의 차가 비교적 큼.

【 옥천지역의 농업생산여건 】



- 충북농업기술원과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분류를 보면 남부중간지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주산품은 포도, 시설채소, 느타리버섯, 배, 인삼 등이 있음.

【 주요 생산작목 】

구 분	핵심 지역		주 산 지 역	
	1990	1998	1990	1998
작 목	팥, 참깨, 들깨, 밀, 메밀, 인삼, 담배, 복숭아, 포도, 시설화훼	보리, 팥, 메밀, 인삼, 담배, 복숭아, 포도, 버섯	콩, 고추, 수수, 상추, 양잠, 자두, 한육우, 토끼	콩, 참외, 수수, 옥수수

자료 : 충청북도,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 2000.

- 주요 주산지 시군별 재배면적과 점유율, 특화계수를 살펴보면 전국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설포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복숭아, 포도, 인삼, 뽕은감, 담배 등의 순위로 특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및 특화계수 】

(단위 : ha, %)

작 목	1999				2000			
	전국순위	재배면적	전국점유율	특화계수	전국순위	재배면적	전국점유율	특화계수
논 벼	97	3,674	0.3	0.7	98	3,623	0.3	0.7
겉보리	24	79	0.7	1.4	24	91	0.8	1.7
콩	45	610	0.7	1.4	38	722	0.8	1.7
팥	17	175	1.4	2.9	16	171	1.4	2.8
옥수수간식용	21	204	1.2	2.3	18	182	1.3	2.6
일반배추	53	65	0.4	0.8	-	-	-	-
노지고추	61	437	0.6	1.2	60	445	0.6	1.2
참 깨	28	510	1.0	2.1	21	512	1.2	2.3
약용작물	60	72	0.5	1.0	55	77	0.6	1.1
배	36	172	0.7	1.3	37	177	0.7	1.4
복숭아	5	461	3.6	7.1	5	509	3.7	7.3
노지포도	8	828	2.8	5.6	9	805	2.9	5.7
시설포도	2	194	18.0	36.2	2	205	18.4	36.7
뽕은감	9	148	2.1	4.3	10	146	2.0	4.0
인삼	6	472	3.2	6.5	6	486	3.4	6.8
담배	20	494	1.7	3.5	18	559	1.9	3.9

자료 : 국립품질관리원, 2001.

-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콩의 재배면적이 122ha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 복숭아, 인삼, 걸보리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

(2) 농업생산 여건

- 총경지면적은 '95년과 대비할 때 2000년에는 7% 감소하였으며 이중 논은 3% 감소, 밭은 10% 감소하였음.

【 총경지면적의 증가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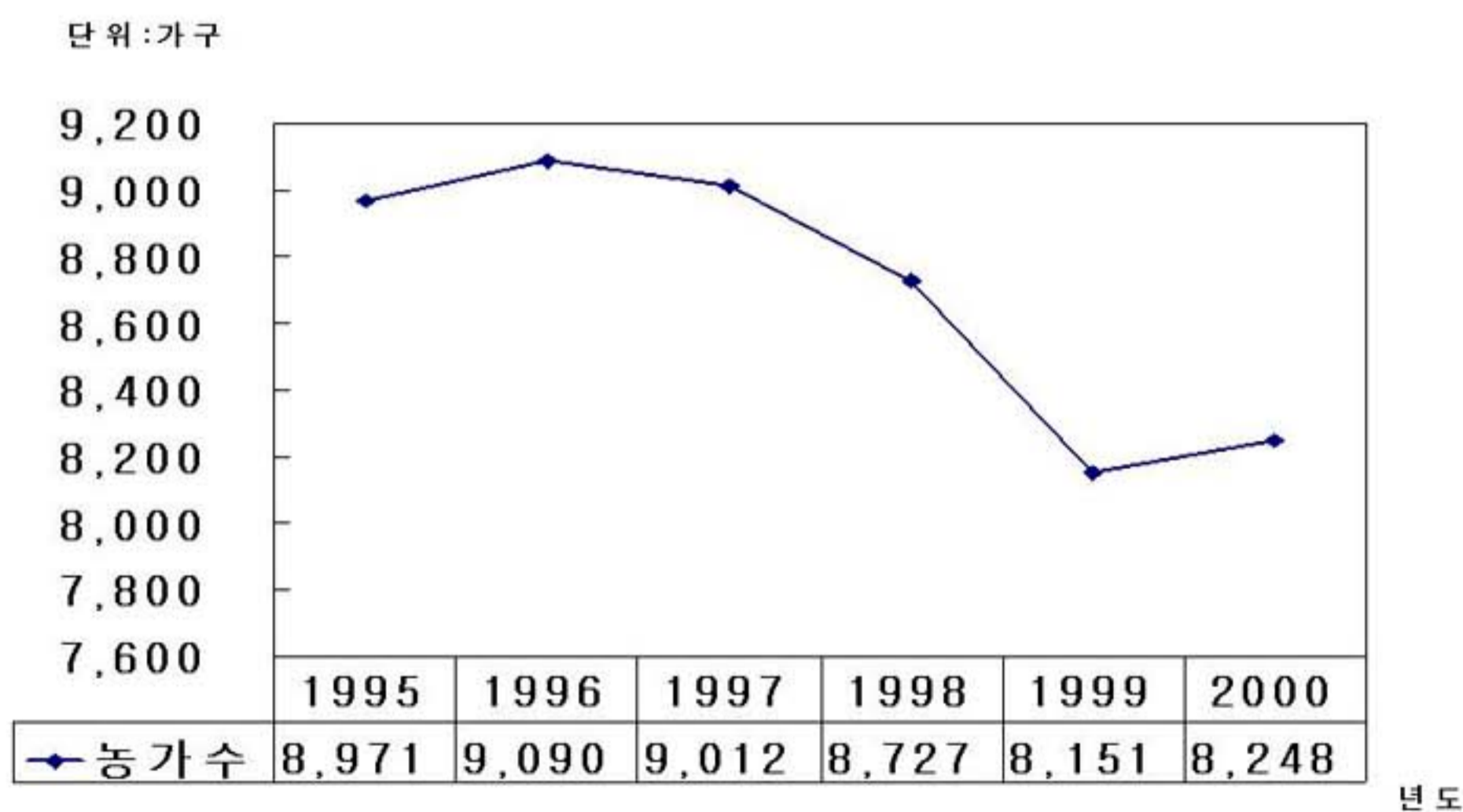
(단위 : ha)

1995		2000	
논	밭	논	밭
3,752	4,278	3,623	3,829
8,030		7,452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 연도별 옥천군 농가수는 1996년 9,090명을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1998년부터 급속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8,248 가구에 불과함.
- ▶ 이와 같은 추세는 옥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전히 지역내에서는 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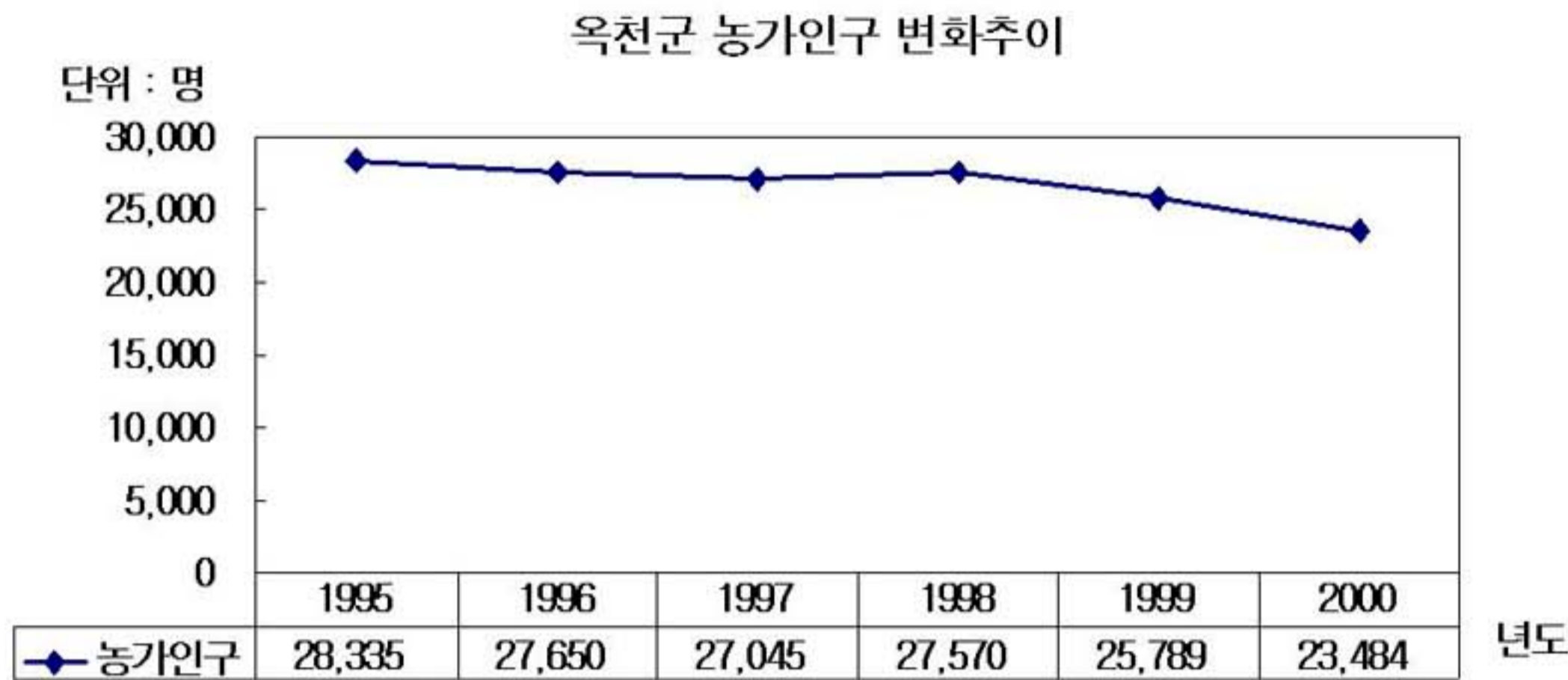
【 농가수 변화추이 】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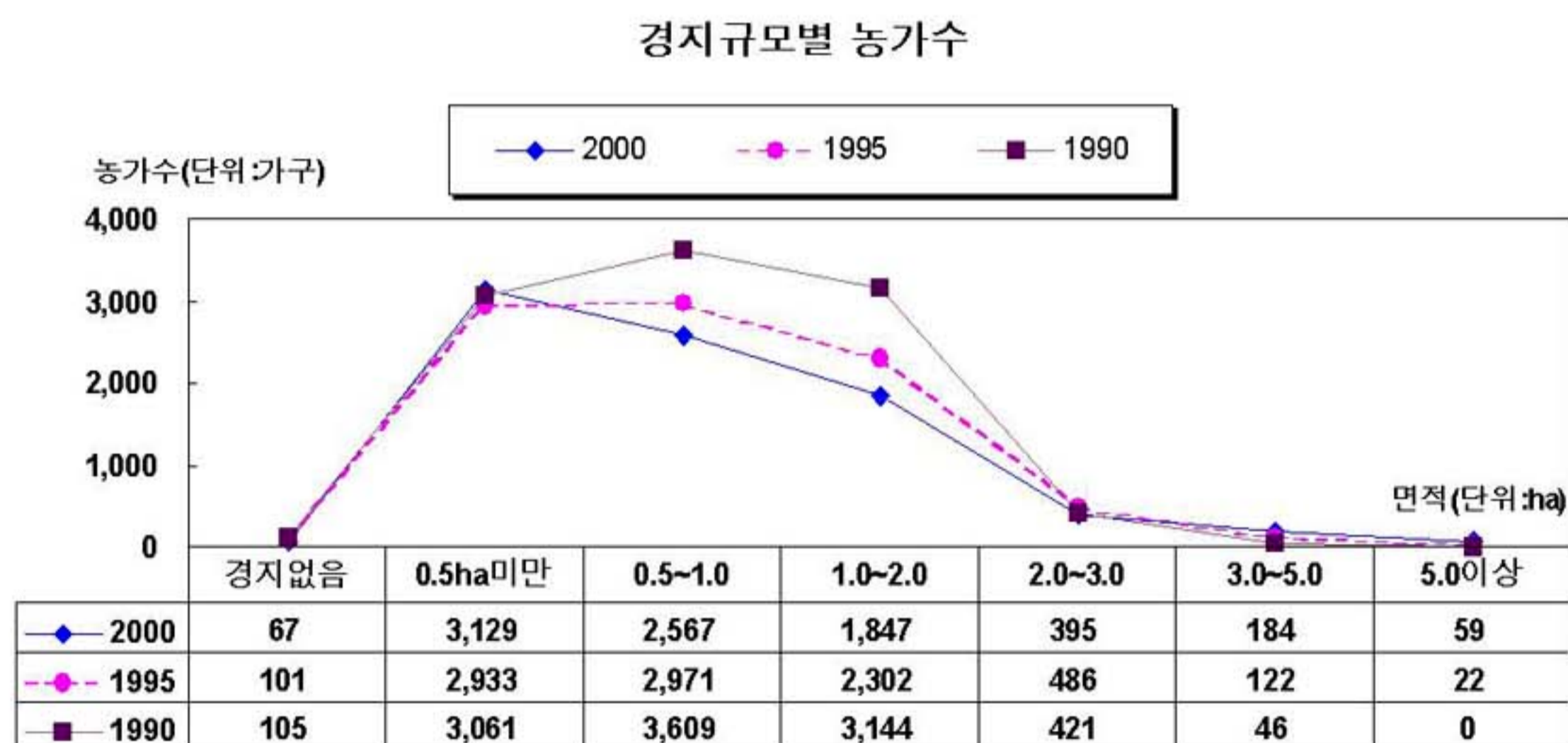
- 연도별 농가인구는 1999년까지 25,000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0년에 들어 약 2,000명이 감소하여 2000년 현재 23,484명으로 나타남.

【 농가인구 변화추이 】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 가구당 경지면적은 '95년과 2000년을 대비할 때 0.5ha미만의 농가는 4% 정도 증가한 반면, 3.0ha이상의 농가는 64% 증가하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주 : 1990년의 5.0ha이상은 3.0 ~ 5.0ha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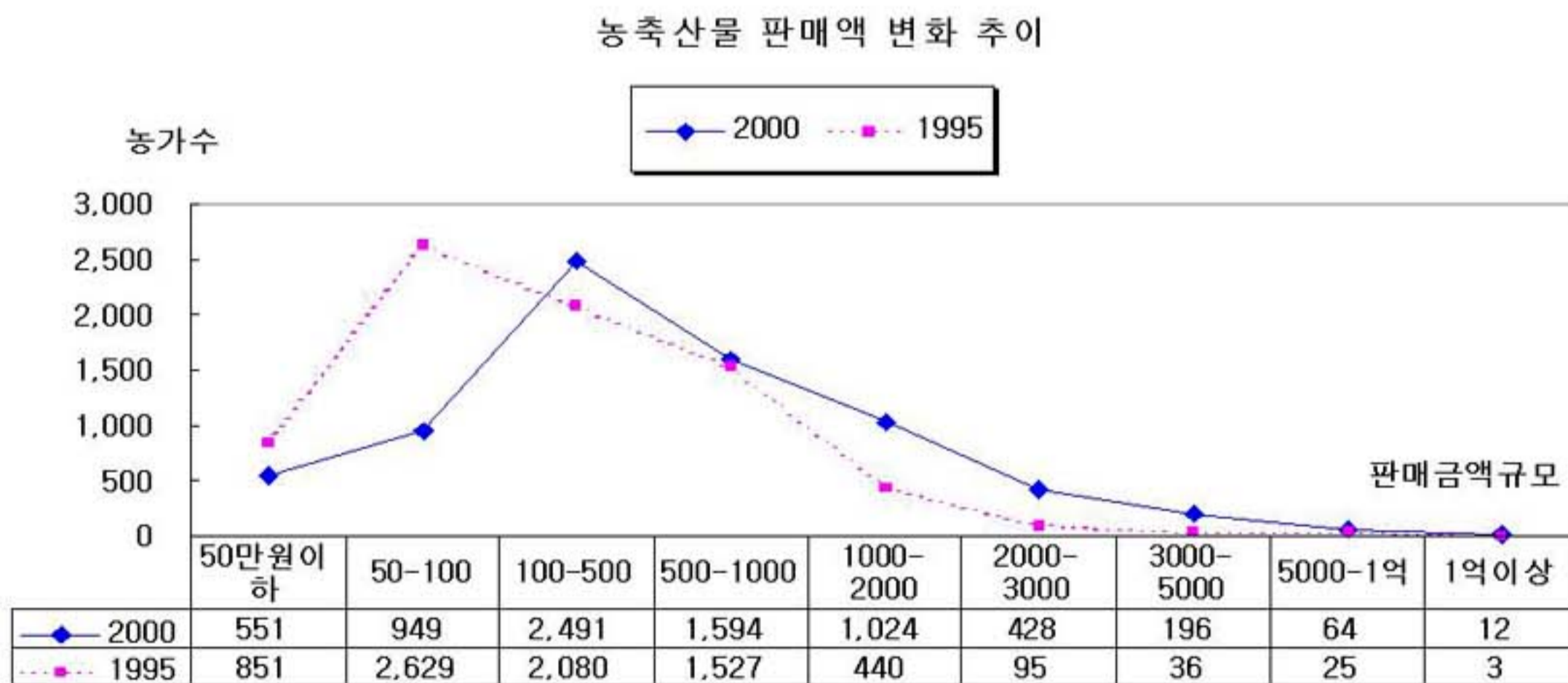
- 영농형태는 1995년과 대비하여 2000년에는 논벼는 10% 증가하였고, 그 외 과수(4%), 채소(2%), 특용작물(25%), 화훼(93%), 일반밭작물(8%)은 모두 감소하여 영농형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 농축산물 판매금액을 보면 1995년에는 92%가 2천만원 이하였으나 2000년에는 76%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농가의 판매금액은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2천만원 이상은 16%가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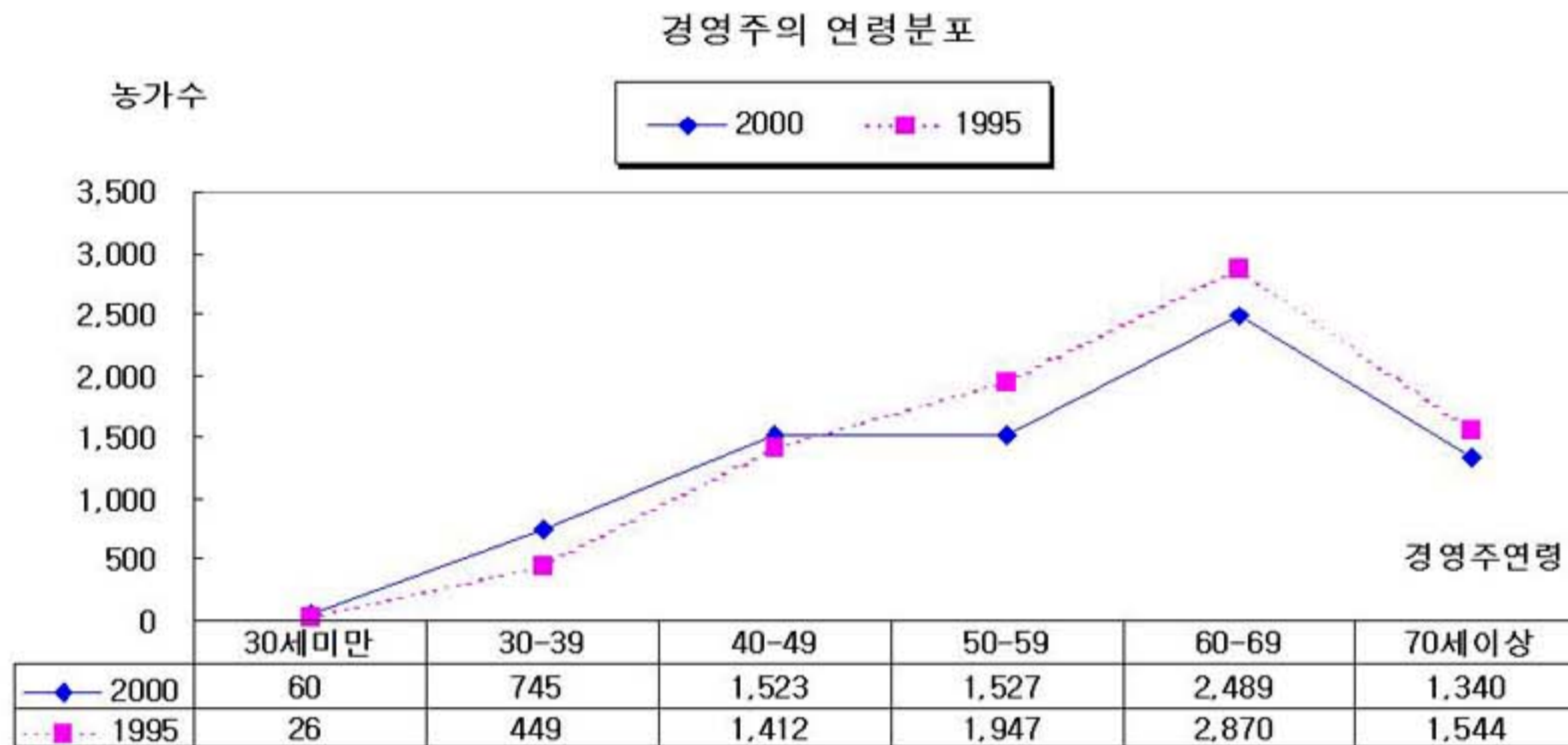
【 농축산물 판매액 변화추이 】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세미만이 1995년에는 22%였으나 2000년 들어 17%로 감소하였고, 50세 이상은 1995년 73%에서 2000년 83%로 증가하여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1995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30세 미만은 57%, 40세~49세까지는 4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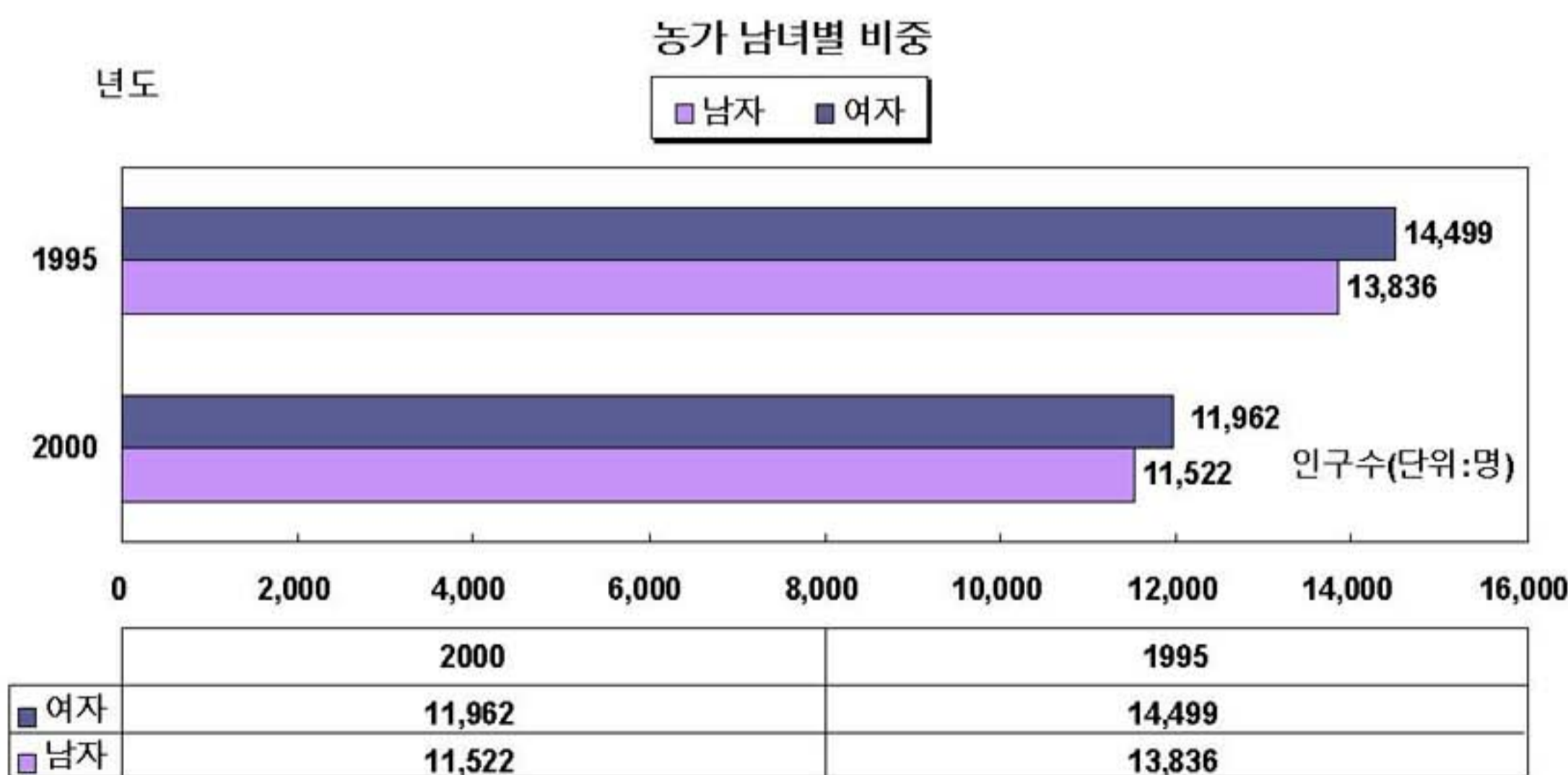
【 경영주의 연령분포 】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 농가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48.8%였으나 2000년에는 49.1%로 옥천군은 남성이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농가인구수는 17%가 감소하였음.

【 농가 남녀별 비중 】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통계청, 농업총조사분석보고서, 2001.

2. 농업생산 현황

- 농산물은 미곡 이외에 맥류, 서류, 두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산물은 사과, 포도, 인삼, 배 등이 있으며, 특히 포도생산은 유명하며 대전, 서울 등의 대도시에 전량 반출되고 있음.
- ▶ 지역별로 시설원예와 과채류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논에는 시설딸기를 병행하고 밭에는 마늘, 버섯, 인삼, 채소 등 시설재배에 의한 생산이 증가함.
- 특용작물의 면적과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들깨, 인삼, 느타리버섯 등은 생산량 증가추세에 있음.
- 과실류의 면적과 생산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배, 복숭아, 포도가 증가하였고, 사과는 감소추세에 있음.
- 임야면적은 전 면적의 67%(충북 69%)로 청성면, 청산면, 안내면, 군북면 등의 면적이 대체로 높으며, 임산물 생산은 종실, 버섯, 산나물, 약용 등이 주를 이룸.
- 내수면 어업은 대청호에서 빙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상수원 수질특별 대책지역고시” 개정에 따라 어업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됨.
- ▶ 군북면 이백·자모·증약리는 2권역으로 완화되었으며, 청성면 능월·도장리와 안내면 오덕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됨(환경부고시, 제2001-148호).

3. 지식농업으로의 성장기반과 과제

(1) 지식농업으로의 성장기반 여건

□ 청정농업기반의 확충

-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규제 및 제한으로 청정농업기반이 확충되어 21C 고부가가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생물소재농업 등의 발전여건이 양호함.

□ 생물다양성으로 인한 녹색체험관광지의 핵심지역으로 부각

-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타지역에서 보기 힘든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잘 보전된 산림, 수자원에 의한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녹색체험관광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역의 청정이미지 또한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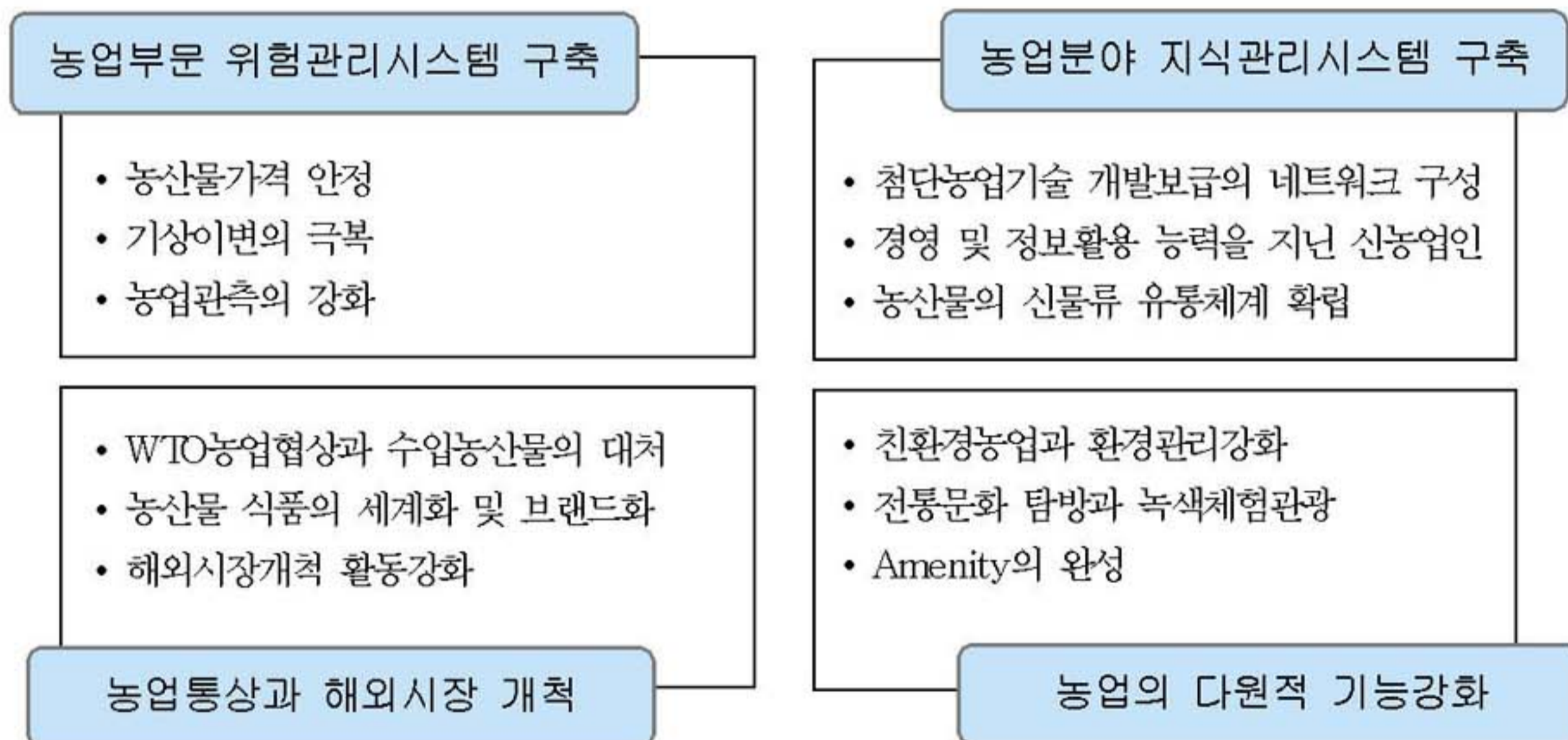
□ 기능성 바이오식품의 개발기반 성숙

- BT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 포도, 감 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저농도 음료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지식정보시대에 적합한 아이디어 농업의 기반 구축

- 발상전환농법(폐면이용 버섯재배), 틈새농업(잔디 판매), 벤처농업(동충하초 개발), 기능성농산물의 발굴(마) 등의 창조적 농업인이 많음.
- 창조적 지식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신지식농업인이 농업·농촌화를 주도하고 있음.
- ▶ 옥천배 수출, 느타리버섯 무농약재배, 배꽃가루은행에 고품질 벼 생산, 꽃감, 포도, 전통발효식품 등을 발굴 상품화시켜서 수익화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선도적 농업인이 많음.

【 21세기 농정의 주요과제 】



(2) 지식농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제

□ 농업의 디지털화와 지식기반산업화

- 디지털경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농업 자체가 디지털경제의 희생물이 되고 디지털 격차의 함정(Digital divide trap)에 빠질 수 밖에 없음.

- 전통적인 영농구조에서 벗어나 BT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농업의 고기능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영농구조의 다각화와 복합산업화를 도모함.
- 농업정보시스템 및 출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 상향식 자율농정에 기반

- 농정목표를 국민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확대하며, 농정대상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정수단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농업정보사업을 구축함.

【 당면과제와 농업의 역할 】

당면과제	패러다임 변화	농업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역할 증진을 위한 농업으로 전환 • 새로운 농업을 발굴하는 신어그리비즈니스 육성 • 시장·소비자·환경친화·농촌개발에 맞는 농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정책 신드롬으로부터 해방 •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서비스를 통한 창의적 농업으로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시장지향·소비자 지향적 농정으로 전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 • 농업인 : 기업가정신과 전문적인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견실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 • 농촌 : 다양한 산업이 유치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

자료 : 민승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 농업벤처, 제16차 충북경제포럼 세미나, 2000.

4. 지식농업의 미래상과 발전지표

(1) 지식농업의 미래상

옥천지역의 비전 / 농업·농업인·농촌	
□ 농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응용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 ◦ 농업은 생명산업·정보산업·과학산업·장치산업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발휘 ◦ 부존자원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현지, 지역 산업으로 재성장
□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인이 선택하는 매력 있는 직업 ◦ 새로운 첨단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응용되는 지식농업시스템 구축
□ 농 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 부양 등 사회적 기능 증가 ◦ 국토환경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전하는 역할 담당 ◦ 전통·지역문화 계승발전, 정치·사회의 안정기반이라는 사회문화적 재인식 확보

(2) 2020년 지식농업의 발전지표

주요지표	2001	2005	2010	2015	2021	연평균 증가율
농가소득(만원)	20,494	25,296	21,223	38,538	49,613	4.3%
농업소득	9,694	9,815	12,114	14,953	19,250	
농외소득	6,456	10,118	12,489	5,415	19,845	
이전수입	4,345	5,363	6,619	8,170	10,518	
농가인구(명)	23,484	20,356	17,645	15,295	2,884	-2.9%
농가호수(호)	8,248	7,809	7,393	7,000	6,555	-1.1%
경지면적(ha)	7,452	7,339	7,234	7,137	7,031	0.3%
논	3,623	3,678	3,733	3,790	3,858	
밭	3,829	3,661	3,501	3,347	3,172	
친환경농가수(호)	814	1,171	1,479	2,100	3,278	9.9%
목표율	9.9%	15%	20%	30%	50%	

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ASMO 99」 모형을 이용한 전망치 참고.

자료 : 충청북도,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2000. 5.

제3절 육성방안

1. 기본방향

(1)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 관련계획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2000-2010)

- 농업의 고차산업화, 농촌여성 직업갖기
 - 농업 관련 물적, 인적 교류 센터화
- 전국 최고의 지역특화산업, 품목단지 개발
- 과학영농지구
 - 지역대표성 특화자목의 저장, 가공, 산지유통시설 및 투자확대
 - 환경친화적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 가공 및 유통사업
 - 수출경쟁력이 큰 가공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 우수경영체에 대한 원료수매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 산림의 생태공원화
 - CIP 개념에 의한 충북산림생태공원 조성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첨단 산림산업의 육성
- 친환경적 관광명소화 전략
 - 그린워터파크의 조성
 - 옥천, 영동은 수변자원을 이용, 휴양할 수 있는 수변휴양관광지대

남부권 공동발전방안(2001-2010)

- 잘 보전된 환경을 바탕으로 건실한 경제를 조화
 - 쾌적한 환경
- 전국 최고의 지역특화산업, 품목, 단지개발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품목의 집중개발
- 농업의 고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
 -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 세계적 명품 농산물 육성과 수출전략 상품
 - 향토색이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명품화 실현
 - 가속화 되고 있는 농산물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확보
- 농업관련 물적, 인적교류 센터화
 - 농산물 유통, 그린투어리즘, 농업기술교류, 교육훈련 등 물적, 인적교류의 중심지화
 - 유통효율 증진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생산자조직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신지식 농업인 발굴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
 - 단계별 신지식농업인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식농업인력 육성

옥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1992-2001)

- 농공병진의 근교산업지대 형성
- 정주권 형성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과학영농특화지구
 - 농공전문대학 설립
 - 무공해성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단 조성
- 가공산업 및 유통산업
 - 물적유통의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간 교통과 통신망체계 확립
 - 대규모 집-배송센터 건립
- 산림의 생태공원화
 - 산간형 종합휴양관광단지(생태지구) 조성
- 친환경적 관광명소화 전략
 - 그린워터파크의 조성
 - 옥천, 영동은 수변자원을 이용, 휴양할 수 있는 수변휴양관광지대

(2) 지식농업의 육성방안

□ 첨단지식농업·친환경농업의 육성

-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체는 핵심역량 위주의 창의적인 지식활동으로 지식집약화를 도모하고 창출된 지식을 배분·활용할 수 있는 지식공유기반을 마련함.
- 산·학·연·관을 네트워크하여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을 첨단산업이자 바이오산업으로 재편성함.
- 이와 관련하여 종자·사료·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용자재나 농산물가공을 포함한 Agri-Business, 벤처농업, 농산물전자상거래를 촉진함.
- 환경농업은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므로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국 유기농산물 무역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흙, 물, 생태계를 살려내어 건강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함.

□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녹색체험관광 육성

- 농촌지역의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및 향토문화유산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함.
- 직거래와 도농교류(都農交流)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소득의 증대 및 농촌경제의 산업구조를 개편함.

□ 개척심과 자긍심을 지닌 농업인 육성

-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시장기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지역에 알맞는 작물 개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함.
- 농업인 스스로의 연구를 통하여 농업을 다른 직업보다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게 만들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임.
-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농림부의 제3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 등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 물관리자동화시스템 확립 등 장기용수공급체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물부족 상황에 대응함.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전통농업과 첨단과학의 접목과 농업의 디지털화

- 농업을 첨단산업 및 기업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토지의 중요성이 감소될 것을 고려한 정책의 전환
-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무인농장의 등장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옥외농업의 축소에 대처
-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농업정보시스템구축과 하부구조를 확충으로 지식기반농업의 실현

□ 우량품질의 안정적 생산 지원

- 고품질 우량종자의 개발·보급으로 고급화 위주의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고, 품질 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함.
-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 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 밥맛 좋은 고품질 쌀생산 추진, 벼병충해 및 산림병충해 방제, 원예작물재배지 토양소독, 우수종자 및 육종의 보급과 생산 등을 추진함.
- ▶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도시근교형 겸업농지대화를 추진하고 첨단영농기법을 통한 고품질 쌀생산 유도

□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 토지의 제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사업시행여건이 좋고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하며, 고소득어종의 발굴과 안정적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생산량 증대 위주의 방식을 취함.
- 주요사업으로는 경지정리와 논·밭기반정비사업, 과실생산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농업기계화 및 기계화농작로 확포장, 내수면자원 조성,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물 개보수, 산림자원 육성 및 조성, 임도시설 확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특수가축 및 생산지원, 한우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 등을 추진함.

□ 지역특화사업 확대 추진

-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후, 내수와 수출위주의 작목으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기간 이후 부문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별 차별화 방식을 채택하며, 농업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 안남면, 안내면 일원에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등 임산물 및 특용작물단지를 조성·육성하는 한편, 고랭지 시설채소 하우스단지를 육성함.
- ▶ 이원면, 동이면 일원에 세계수준의 묘목생산단지를 건설하고 유통시스템을 확충하며, 복숭아, 포도, 배 중심의 과수특산단지와 화훼 및 원예단지를 육성함.

□ 영농기술개발사업 전개

- 농업인들이 영농·영림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지식농업기반을 확충할 창조적 기술개발과 지원체계를 마련함.
- 과수 새기술 시범, 과학영농시설 시범, 축산 새기술 시범, 원예특작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기술사업도입을 추진함.

□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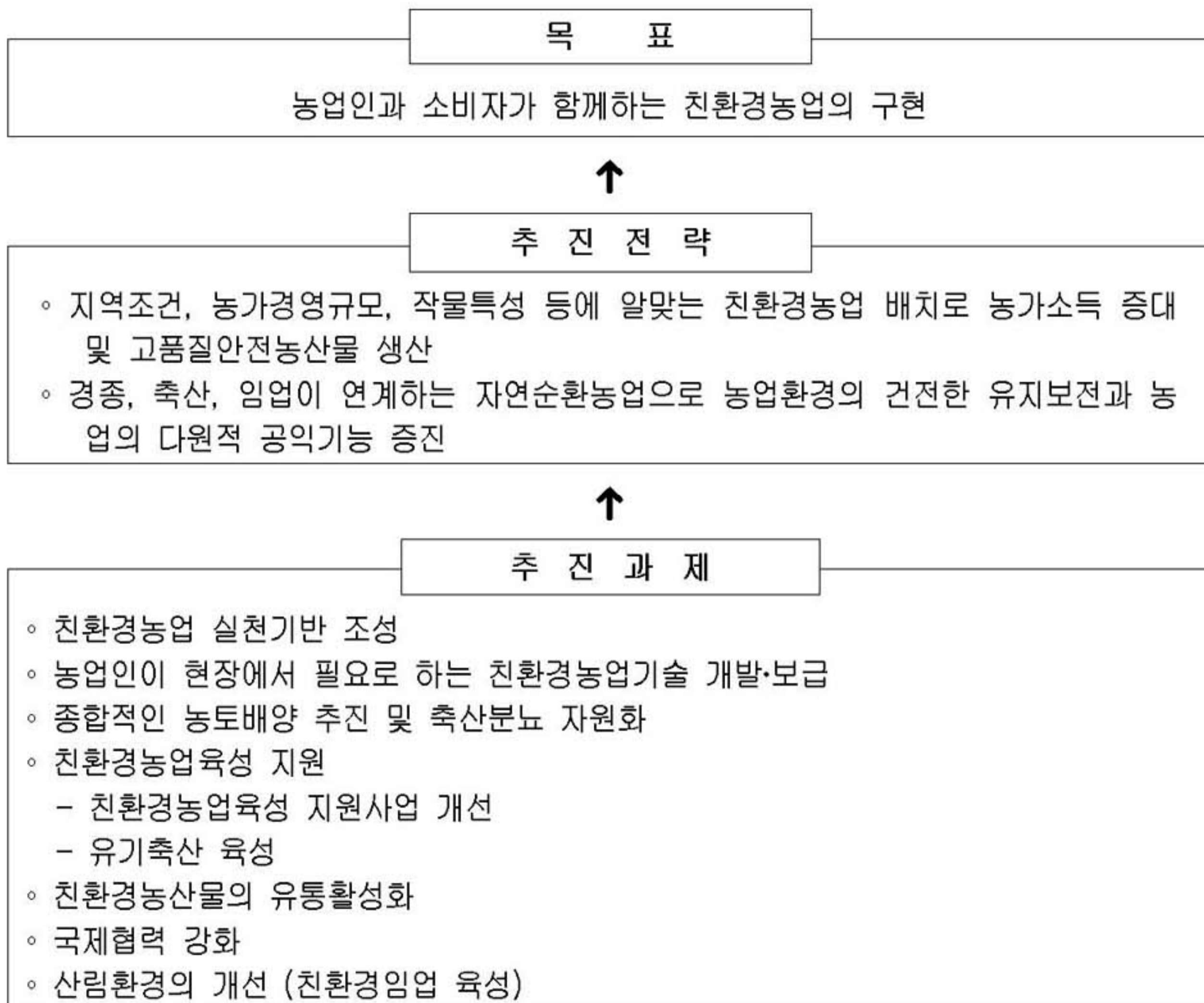
- 농업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과학적 영농도입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활용대책을 마련함.
- 농업관측사업 및 PC보급을 확대하고 농업생산 관련 홈페이지 및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며 정보화도우미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함.

2. 친환경농업과 생물소재농업 육성

- 증산위주의 고투입농업에 의한 농업환경오염의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구축
-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여건에 맞게 생산체계 조정과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에 적극 대응

□ 친환경농업의 육성

-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친환경핵심기술인 INM(작물양분종합관리)·IPM(병충해종합관리)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저투입 농업을 확산시킴.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01~2005)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영농여건·작목형태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책을 마련함.
 -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무농약·유기 등 친환경농업 추진목표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향상시킴.
 -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체계적으로 보급함.
 - ▶ 청정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술보급과 친환경적 유기질 퇴비생산을 지원함.



□ 생물소재농업 육성

- 생명공학과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부응하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고, 생명공학산업의 기초소재가 되는 물질의 지역특산화를 추진함.
- 옥천지역 고유의 유용생물자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대량확보 및 장기적 보존방안을 마련하며, 지역자체적으로 생산가능한 의약품 및 신기능 물질 소재를 지역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바이오그린 21’사업 추진

- 농림부·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바이오그린 21’사업과 충청북도 생물건강산업 육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
- ▶ ‘바이오그린21’은 2010년 농업생명공학 선진국 진입(세계5위)을 목표로 농촌진흥청과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대규모 국정사업으로 i) 독창적 농업 생명공학기법 개발, ii) 분자 육종기술 접목을 통한 주요작물별 신품종개발, iii) 단순노동형 1차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식기반형 최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생물건강산업 육성은 생물·건강산업이 처해있는 국내외적인 여건과 충북도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옥천군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생물·건강산업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3. 신지식농업의 육성

- 농업을 사랑하고 희망을 지닌 농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유지
-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는 경영가적 자질을 갖추어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여 자립영농기반을 확립

□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

-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시켜 자립경영을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 농업인을 육성함.

▶ ‘농업·농촌기본법(제13조)’상의 전업농

- i) 2001년 이후 농림부장관,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단체 주최 우수쌀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쌀전업농이나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상 1,000m²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쌀재배 전업농 우선 지원
- ii) 2.0ha이상 3.0ha미만인 자로서 1회 최소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3ha이상 경영규모 확대가 가능한 자
- iii)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후계농업인(승계조치후 지원)
- iv) 농지이용증진 사업지구내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 v) 영농규모사업 시·군계획에 의한 동일영농권내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 vi) 선정시점 이후 자력에 의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한 전업농 육성대상자 - '95년 이전 일반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지원한 농지를 승계 또는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한 전업농 육성대상자
- vii)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 농업인의 농지매입 희망자 또는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 집단화가 가능한자, 전업농규모 도달가능성이 높은 자,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자가 지정한 자
- viii) 기타농지 매입희망자 - 집단화가 가능한 자, 전업농규모 도달 가능성이 큰자
- ix)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 한자

□ 농업인 후계자 및 여성농업인 양성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유지함.
-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점차 노령화·부녀화됨에 따라 농업의 생산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을 발굴하고 양성함.
- 산·학·연의 공동협력체계 구축하여 체계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관련 기관과의 컨설팅 및 지도체계를 확립함.

□ 선도개척농업인 양성

- 벤처농업,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작물의 재배 등 신개념의 농업과 전통농업의 조화를 꾀하면서 농촌 및 농업에서 선구자 역할과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농업인을 양성함.

4. 신유통체계 확립과 수출지원체계 구축

- 공정거래질서가 유지되는 농산물시장의 확립과 물류비용의 절감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외화가득률이 높고 농가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대량 생산체계 확립과 금융지원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증대 도모

□ 농산물유통기반 사업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신속성이나 안전도 보장 등 제도적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물류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히 인정하는 표준제도를 시장에서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을 구축함.
- 농산물 포장재지원, 표준규격화 지원, 이원묘목유통센터 운영, 농산물 집산단지 건립 등 각 읍·면별로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

□ 농산물 판매촉진사업 전개

-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사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시장교섭능력을 배양하고, 계약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재배 및 약정출하, 대도시 농산물센터 구축, 우수 농산물 홍보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인터넷을 통한 특산물 홍보 등 농특산물에 대한 다각적 홍보방안을 마련함.

□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전개

-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등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국가별로 우수 농축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꾀함.
- 농업인과 옥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수출에 있어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의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기호에 적합한 상품개발을 지원함.
 - ▶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 ▶ 식품영양표시 지원, 수출품목 선정 및 육성, 해외시장개척 지원활동 강화

5. 新Agri-Business산업 육성

- 발상전환농업, 틈새농업, 벤처농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벤처캐피털을 형성하며, 생산자단체의 정보화 기능의 강화 및 이를 위한 지원 증대
- 농업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장과 사업을 창조하고 마케팅 활동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과 생활이 일체인 농업 활성화

□ 농산물 상품화사업 추진

-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농산품을 선택하여 생산하며, 지역의 이미지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
- 사업추진시 바이오, 디지털 등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중시함.
- ▶ 프랜차이즈 등 : 가맹점업 육성방안 강구, 틈새농업 및 발상전환농업 지원

□ 농업가공산업 육성 지원

- 농산물에 대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판로와 수요를 개척하며,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 농협, 옥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농가공산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생산의 효율화와 시장 창조활동에 중점을 둠.
- ▶ 판매화, 포장재 규격화 지원

□ 벤처농업인 양성

- 전통적 농업에 바이오, 디지털 등 신기술을 적절히 적용하며, 이와 같은 바이오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벤처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함.
- 농업인을 주체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개성이 있는 농업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경쟁력이 있는 소규모 농업주체들을 벤처형으로 전환함.

□ 이원묘목유통센터 육성

-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과수묘목 판매장과 묘포장을 현대화·집산화할 수 있는 대규모 묘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

- 대규모 과수묘목 주산단지 조성하며, 조경수, 잔디 등 조경관련 산지공판장 및 판매장을 개설하고 물류시설을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관광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함.
 - ▶ 이원묘목유통센터 국제화사업 추진
- 충북과수종합연구센터 조성
- 충북과수종합연구센터를 조성하여 대추, 포도, 감, 사과, 배 등 지역특화품목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 최근 각 지역별로 특화품목의 가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포도, 대추, 배 등 농산물을 옥천농협을 중심으로 하여 가공특화시키며, 인접 대전 및 청주지역의 판로를 개척할수 있도록 함.
 - 현재 옥천농협 가공농장이 비교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판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지역의 대표적 가공공장으로 육성하고 옥천 포도, 보은 대추, 영동 포도, 감, 사과, 배 등을 전문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함.

6. 농촌활성화와 복지기반 확충

-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높이고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복지향상 도모

- 농가 소득보전사업 추진
- 농촌의 환경 및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민과의 소득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 소득보전사업 타당성 및 지원기준 용역사업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지역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함.
 -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함.

- ▶ 논·밭농업직접지불제 / 농가소득 안정과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과 밭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 영농시스템을 확립함.
- ▶ 농작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함.
- ▶ 조건불리지역 농가보조 / 산간오지나 대청호수질보전에 따른 선천적,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보조·지원사업을 도입함.

□ 녹색농촌체험활동(그린투어리즘) 사업 추진

- 마을단위로 지역주민과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을 청정하게 관리하며, 기반시설의 공공투자과 수익성 사업은 주민공동참여하에 소득을 창출하며, 농촌의 특성을 살린 기존 유형별 모형을 참고로 하여 적합한 개발목표 및 투자방향을 설정함.
- 녹색농촌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함.
- ▶ 청산면, 청성면 일원에 산림의 자원화를 통한 생태관광 및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녹지휴양공간을 제공함.

□ 생활환경개선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도시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농촌과 산촌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복지농산촌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둠.
- 면지역의 중심생활권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집중투자하고 관련 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함.
- ▶ 생활환경개선사업 /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농가주거환경개선, 전원별장지대 조성
- ▶ 산촌종합개발사업 / 농촌소득원개발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 ▶ 청산면, 청성면, 동이면, 이원면 일대에 적지를 선정하여 전원별장지대를 조성하는 한편, 펜션산업을 유치하여 전원주택단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산림경영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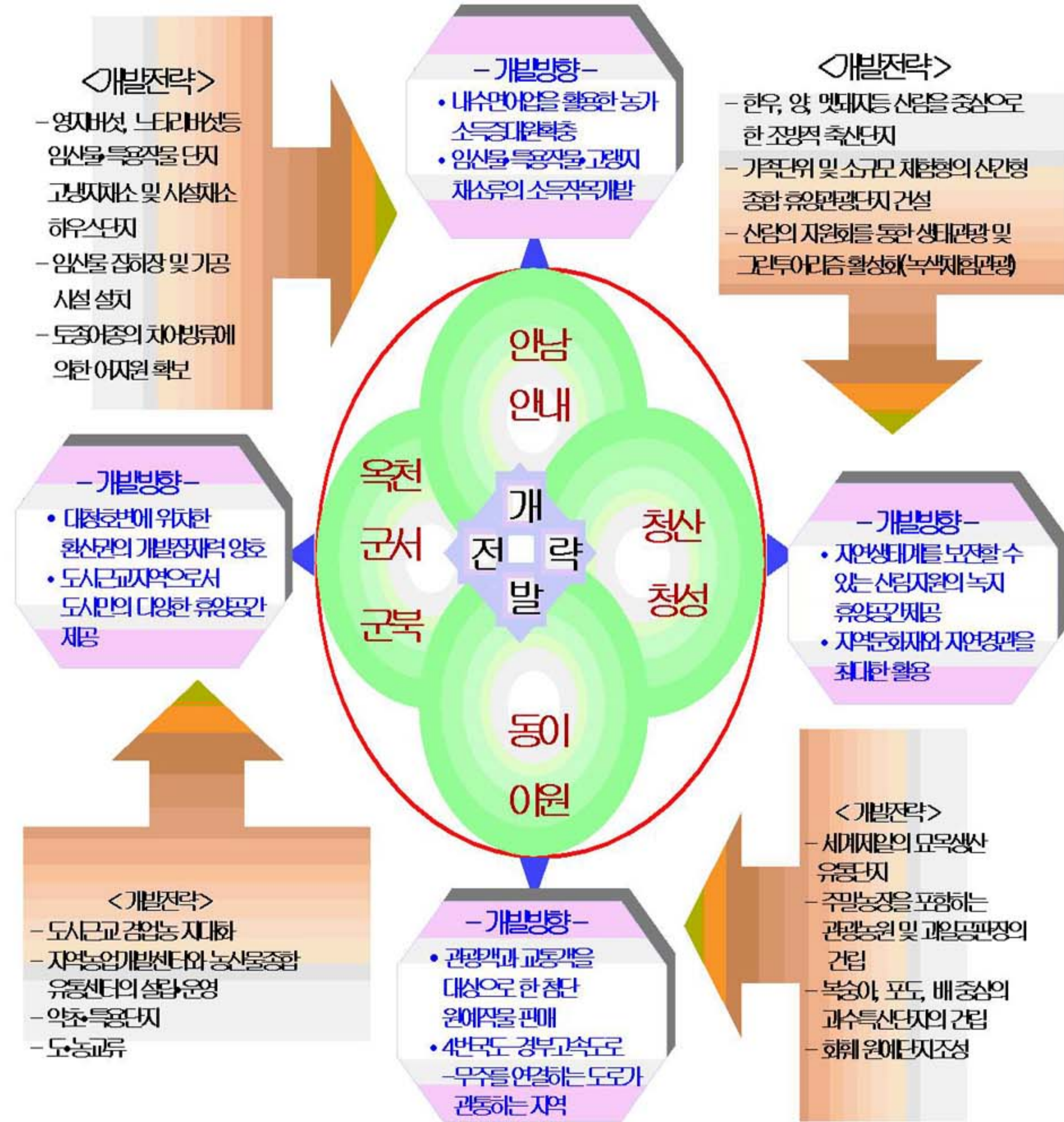
- 최근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수요증대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 등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옥천군의 산림면적은 약 38천ha로 점유율이 약 65%정도에 이르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림경영 기반구축 등과 관련하여 산림의 기능 및 이용목적에 따른 효율적 자원관리체계의 정립과 산지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 임지별 관리방향 정립 / 원칙적으로 모든 임지는 산림의 여러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임지별로 주기능과 부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관리함.
 - i) 생산임지 / 임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집약적으로 경영 사유림경영에 대한 보조·용자·세제 및 기술 집중지원 임업진흥권역을 중심으로 협업·대리·복합경영 활성화
 - ii) 공익임지 / 산림환경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보전·관리 강화 산림휴양 및 생태계 다양성확보 등을 위한 보전지역 확대 옥천군 주도의 산림관리와 법정제한산림의 국유림화 추진
 - iii) 준보전임지 / 산업용지 공급 및 농림어민 소득기반 확충 개발미확정 임지는 산주자력으로 산림경영토록 지원 조경수, 분재, 특용수종 등 단기소득수종 위주의 경영지원
- ▶ 산지이용구분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 i) 생산·공익임지의 타용도 전용 엄격 제한 / 보전임지 전용은 공공용·산업용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산지전용수요는 준보전임지에서 능동적으로 공급하며, 보전임지의 적정면적을 보전관리
 - ii) 보전임지 전용기준 차등화 / 낙후 면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지역은 산지보전을 강화하는 등 특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 iii)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임업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산지이용절차 간소화와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을 잘 가꾼 산주가 직접 이용코자 하는 경우 전용기준을 완화
- ▶ 산지·산림의 기능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정립
 - i)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법정제한림의 기술적 자원관리 강화 / 법정제한산림 실태조사 및 유형별 산림자원관리계획 수립
 - ii) 군내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유형에 따라 합리적 관리 / 산림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산림의 기능 유형구분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내 산림을 목재생산, 국토보전, 자연환경, 보건휴양 등 4~5개 유형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관리체계 확립

【산림기능구분 예시】

유형구분	대 상	시 업 방 법
국토보전림	산림재해 방지, 수자원 보전, 생활환경 보전 등 국토보전을 우선해야 할 산림(토사유출 방지, 수원함양 보안림 등)	사방시설의 설치, 복층림, 혼효림 조성
자연환경 보전림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해야 할 산림(천연보호림 등)	원칙적으로 자연생태의 유지관리
보건휴양림	산림레크레이션, 자연관찰에의 이용 등 보건휴양적 이용을 우선해야 할 산림(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 설치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추진
목재생산림	목재생산 등의 산업활동을 행해야 할 산림(토지생산력이 큰 산림)	수요에 응한 목재생산을 위한 사업(인공림 확대, 장별기 사업)

-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휴토지의 산림전환
 - i) 방치하고 있는 한계농지와 부실초지 등을 산림으로 전환하고, 유휴농지의 산림전환 시 농지전용절차 완화와 비용경감 등 지원 강화
 - ii) 산림으로 전환된 지역에 대한 산림이용구분조사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



제10장 문화육천 실현

제1절 현황 분석

1. 지역문화부문 현황

(1) 문화시설 현황

- 옥천군은 1999년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성회관, 여성회관, 공설운동장, 문화원, 향토자료전시관,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마을회관, 도서관, 전시실 등의 시설은 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미흡한 실정임.
-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체육관, 예절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특별활동실을 만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교양증진과 심신단련을 통한 건전한 인격체육성을 목표로 함.
- 관성회관은 대강당, 소회의실, 제1,2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지역 문화공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행정타운 내 입지한 여성회관은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지역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교육사업으로는 교양강좌, 취미교실(합창단, 서예), 기술교육(옷수선, 요리, 간병인)과 일반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운영(가출여성, 학대받는 여성, 성폭력피해여성 등), 예식장운영, 파출부알선 및 상설알뜰매장운영을 통한 이익금의 불우이웃 돕기 등의 사업을 실시함.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은 시청각실, 도서실, 회의실, 향토자료관과 강당을 갖추고 지용제, 증봉총열제, 각종 강습회개최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음.
-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장계관광지)에 향토자료전시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에는 각종 역사유물과 생활 및 민속유물 1,500여점이 전시되어 있음.

- 이외에도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옥천읍 문정리에 2,000명 수용인원(야외관람석)의 야외공연장이 위치해 있음.

【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

구분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화랑	군민회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공공도서관
계	1	7	5	11	1	25	6	8	5	31	12	3	1	21
청주시	1	1	5	5		1	6	1	1	3	2	1		1
충주시		1		2		3					1	1	1	3
제천시		1		4		2		2	1	1	1			4
청원군					1	4				5				2
보은군		1				3					1			1
옥천군		1				2				1	1			2
영동군		1				2		2	1		1	1		1
진천군						2		1		7	1			1
괴산군						3		1		11	1			1
음성군						2				1	1			2
단양군						1		1	1		1			2
증평출		1							1	2	1			1

- 주 : 1) 일반공연장은 관성회관, 전시관은 옥천자료전시실과 옥천향토전시관을 뜻함.
 2) 야외공연장은 타 지역간 비교를 위해 제외하였음.
 3) 위의 기준은 통계연보에서의 공연시설 구분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 충청북도, 문화비전21, 21세기 문화가 충북을 바꾼다.

(2) 문화재 현황

- 옥천군내에는 현재 으뜸치를 제외하고는 보물이 1점 존재하는 상태여서 현재 문화재 중심의 관광패턴에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증평출장소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총 24건으로 유형문화재에 14건, 기념물 9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한건도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진천, 단양, 음성, 증평출장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건수임.

【 시·군별 지정문화재 현황(2001.12.31) 】

구분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중요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계	455	131	12	56	2	16	1	23	21	295	183	9	93	10	29
청주시	52	18	2	6	1	4			5	32	20	3	9		2
충주시	54	16	3	8	1	3			1	37	23	2	12		1
제천시	41	9		6				1	2	32	19	1	10	2	
청원군	40	7	1	3				1	2	31	18	1	10	2	2
보은군	46	17	3	6		1	1	4	2	27	19	1	6	1	2
옥천군	29	2		1				1		24	14		9	1	3
영동군	46	11		5				2	4	31	16	1	12	2	4
진천군	30	5		1		3		1		22	10		11	1	3
괴산군	57	17		5		2		8	2	31	23		8		9
음성군	21	8		6					2	10	7		3		3
단양군	34	22	3	10		3		5	1	12	8		3	1	
증평출	6	0								6	5		1		

자료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옥천군내 국가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2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원면 금강상류의 어름치와 보물 제1338호인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238	1972. 5. 1	어름치	이원면 금강상류
보물	1338	2002.3.12	옥천용암사삼층석탑	옥천읍 삼청리

자료 : <http://gun.okchon.chungbuk.kr/>

- 군내 지방문화재중 유형문화재는 총 14건으로서 이중 불교관련 문화재로는 용암사의 마애불,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두암리 3층석탑 등이 있으나 이또한 타지역의 문화재수와 비교하면 빈약한 편임.
- 석탄리의 지석묘와 입석 등 관내 선사유적은 금강을 주변으로 매우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음.

- 관내 유교관련 유적으로는 이지당, 옥천향교, 청산향교, 사마소, 경현당, 경율당 등 유형문화재와 후율당, 양신정, 사육신 백촌 김문기와 우암 송시열유허비 등 기념물 그리고 망북비, 독락정, 덕양서당 등 문화재자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풍부하여 패키지상품화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76년 민속자료로 지정된 동이면 청마리의 탐신제당은 삼한시대 이래 전해오는 민속으로 상품화하여 전국적인 민속예술행사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함.

【 도지정문화재 현황 】

종 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유형 문화재 (14건)	10	75. 8. 20	옥천지석묘	동이면 석탄리 685-2
	17	76. 12. 23	용암사마애불	옥천읍 삼청리 산51-1
	42	77. 12. 7	옥천이지당	군북면 이백리 33
	97	81. 12. 29	옥천향교	옥천읍 교동리 320
	98	82. 12. 29	청산향교	청산면 교평리 267
	120	82. 12. 17	옥천두암리삼층석탑	이원면 이원리 624
	121	82. 12. 17	옥천청석교	안내면 장계리 산7-1
	156	87. 3. 31	옥천석탄리입석	동이면 석탄리 944
	157	87. 3. 31	옥주사마소	옥천읍 상계리 57-2
	158	87. 3. 31	옥천경현당	이원면 구룡리 53
	171	92. 10. 23	사서공(전식)영정	동이면 금암리 76
	183	96. 1. 5	중봉조현신도비	안남면 도농리 926-1
	192	98. 6. 26	경율당	안남면 종미리 523
	193	98. 11. 20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옥천읍 삼청리 산 51-4
기념물 (9건)	6	76. 12. 23	옥천척화비	옥천읍 삼양리 산4-2
	13	76. 12. 28	옥천후율당	안내면 도이리 181
	14	76. 12. 23	조중봉묘소	안남면 도농리 63-1
	29	78. 12. 11	옥천양신정	동이면 금암리 76
	44	79. 10. 4	충의공 김문기유허비	이원면 백지리 841-1
	45	79. 9. 29	옥천 송우암유허비	이원면 용방리 134-2
	105	96. 1. 5	창주서원묘정비	이원면 이원리 216-7
	115	2000. 12. 22	가산사 영정각, 산신각	안내면 답양리 543
	123	2002. 4. 26	육영수 생가지	옥천읍 교동리 313
민속자료 (1건)	1	76. 12. 28	옥천 청마리제신탑	동이면 청마리 872-1
문화재 자료 (3건)	15	96. 1. 5	이기윤망북비	동이면 평산리 733
	23	98. 6. 26	독락정	안남면 연주리 617
	24	98. 6. 26	덕양서당	안남면 도덕리 467

자료 : <http://gun.okchon.chungbuk.kr/>

- 충북에서는 2000년 현재 각 시·군별로 총 17건의 향토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옥천지역에는 중봉충렬제와 지용제가 옥천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됨.
- 매년 5월경 옥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지용제는 옥천문화원과 지용회가 주축이 되어 현대 시문학의 거성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을 계승하고 문향(文香)을 사랑하는 후예들의 전국적인 문학행사임.
- 지용제에서는 지용포럼, 지용백일장, 지용취호대회, 시낭송, 무용, 열린음악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뒷풀이로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음.
- 지용제와 연계하여 매년 8월경에는 옥천군과 연변 조선족 발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중국 연변에서 연변지용문학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과 문학공연을 시행함으로써 지용세계화를 위하여 연변 조선족과의 문화와 음악교류를 갖는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옥천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9월 중순경 개최되는 중봉충렬제는 임진란 때 국가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에서 7백의병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조헌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임.
- 충렬제에는 중봉선생 추모제향, 기의추모제, 햇불행진 및 축등행렬, 의장대시연, 차전놀이, 씨름대회, 농악경연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중봉충렬제에는 5천2백만원, 지용제에는 3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문화제에 지원되는 총액규모는 8천4백만원으로 충주의 우륵문화제나 제천 의병제의 단일행사에 지원되는 규모보다도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충렬제는 물론 지용제의 경우 전국단위의 행사규모라고 볼 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충렬제 행사시 라·제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관성정을 이용, 전국 국궁대회 등을 유치하여 보다 폭넓은 문화발전과 지역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옥천의 진산 마성산 기슭에서 옥주문화동호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마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재 9~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별 향토문화제의 시기별 편중성을 분산하는 효과를 도모토록 함.

【 충북 시군별 향토문화제 개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행 사 명	주 관	기 간	지원액(비중)
합 계	총 17건			6,754(100.0)
청주시	국제인쇄출판박람회	청주시	9.22-10.22	5,350 (79.2)
충주시	우륵문화제	충주예총	9.27-10. 3	100 (1.5)
	수안보온천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5.19- 5.21	38 (0.6)
제천시	의병제	제천의병제위원회	10. 1-10. 8	125 (1.9)
청원군	청원문화제	청원문화원	9.27-10. 1	151 (2.2)
보은군	속리축전	보은문화원	5. 9- 5.12	40 (0.6)
옥천군	중봉총렬제	옥천문화원	10.12-10.14	52 (0.8)
	지용제	옥천문화원	5.12- 5.13	32 (0.5)
영동군	난계국악축제	(사)난계기념사업회	9.23- 9.26	270 (4.0)
진천군	생거진천화랑제	진천문화원	10.22-10.23	102 (1.5)
괴산군	괴산문화제	괴산문화원	10. 2-10. 4	50 (0.7)
음성군	설성문화제	음성문화원	10.10-10.12	115 (1.7)
	무영제	예총음성지부	9.23	21 (0.3)
	품바축제	예총음성지부	9.20-10. 1	40 (0.6)
단양군	소백산철쭉제	단양문화원	6. 1- 6. 4	118 (1.7)
	온달문화축제	단양문화원	9.29-10. 1	98 (1.5)
증평출	증평문화제	증평문화원	9.29- 9.30	52 (0.8)

자료 : 충청북도, 도정백서, 2000.

2. 관광부문 현황

(1) 관광자원 현황

- 옥천지역은 다른지역 관광자원과의 광역적 접근체계 미흡,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심화, 대청호와 그린벨트 등에 따른 개발가능지의 한계, 부족한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의 제반여건이 관광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그러나 광역적 접근체계의 개선, 풍부한 수자원과 구릉지의 발달, 지가(地價)의 상대적 저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 지역주민의식의 성숙 등 관광개발을 위한 잠재력이 풍부함.

- 따라서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기반 확충,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 관광문화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운영체계의 합리화 등이 관광부문의 발전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개발된 옥천군의 관광자원은 빈약한 형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광명소는 장용산휴양림과 장계관광지, 금강유원지를 꼽을 수 있으나 대체로 다른 지역의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임.
 - ▶ 장용산자연휴양림은 대전에서 군서간 곤룡재 터널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옥천군의 관광특산물로는 포도를 비롯한 각종 과일, 도자기, 목공예 등이 있으며, 토속음식으로는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등이 있음.
-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는 안내면 장계리에 위치한 장계관광지가 있으나 단순오락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및 관리의 미흡과 숙박시설 등의 미비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관광지 지정현황 】

명 칭	위 치	면 적(km ²)	주 요 시 설	지정일자
장계지구	안내면 장계리	0.199	놀이시설, 편의시설 연회시설, 향토전시관	1986. 6. 7



(2) 지역관광자원의 특징

- 옥천군은 전체면적 537.1km²중 11.8%인 117.5km²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1.6%인 1.89km²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83.75%인 449.85km²가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과 이용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 옥천의 관광지는 숙박시설 등의 미흡으로 인해 지역내에서 관광하며 머무는 관광객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인근지역 관광을 위해 통과하며 들르는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지역경제적 측면이나 이미지 창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함.
-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의 구축이 미흡하여 관광이나 지역축제 등이 지역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활발한 외부홍보가 필요함.
- 대규모의 대청호 및 옥영수 생가 등 개발잠재력이 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관광자원의 경쟁력이 미약함에 따라 옥천지역이 최종목적지로 관광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여행객은 드물고 대부분이 타지역 여행을 위해 스쳐 지나고 있는 실정임.
- 하천, 계곡 등의 자연자원과 유희지 및 산간오지의 개발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어 지역자체의 청정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관광산업의 특징 >

- 1999년 관광산업은 세계GDP의 11.7%(3조5천억달러), 무역거래량의 8%, 서비스 수출의 35%이상을 차지하는 세계3대산업(석유, 자동차산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음.
- WTO는 국제관광객수가 연평균 4% 이상 증가하여 2000년에 7억명, 2010년에 10억 5천만명, 2020년에는 16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여행산업은 세계노동력의 10.6%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로는 전세계 GNP의 10.2%를 담당하고 있고, 납세액만 해도 한해 6천550억달러로 최대 소득세 원천을 구성하며 순익도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
 - ▶ 소비자 가계지출의 11%, 자본투자 10.7%, 정부지출의 7%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복합구조의 산업임.
- 21세기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막연한 관광지개발중심 의식에서 지역경제효과를 중심으로 보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함.
 - ▶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은 관광지, 자연자원, 이벤트 등 다양하며, 관광지개발이 만능이 아니라 지역에 와서 돈을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최선임.

3. 문화관광여건의 평가와 과제

□ 지역문화수요의 변화

- 세계화, 지방화의 가속화로 지역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및 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전화되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의지 또한 증대됨.
- 옥천은 이미 지용제를 통한 ‘문향(文鄕)의 고장’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정립되어 있으며, 중원문화권, 백제문화권, 안동문화권 등 주변 문화권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임.
- 근로시간 감소 및 여가문화증대와 소득증대로 인하여 문화수요층이 급증하고 있는 바, 옥천은 대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형 문화산업의 적지로 판단됨.
- 그러나 대전의 대도시문화권에 의한 교육·문화의 예속으로 문화창출 및 수요인력이 대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문화관련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휴양관광시설의 부족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나 각종 개발제한에 따라 투자의욕이 낮은 상황임.

□ 국민관광 수요의 지속적 증가

- 가처분소득의 증가, 자동차 보급의 확대, 여가시간 증대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여가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스트레스와 문화적 갈등,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여 자연을 찾는 욕구가 증대되고,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관광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가족단위 관광, 동호회 중심의 답사관광,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른 숙박관광, 야간관광 등 일상생활과 연계된 관광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문화·관광의 사회적 비중 증대 및 관광행태의 다양화

-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끼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관광활동이 증대되고 있음.
- 장년·노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원시적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한 녹색·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친자연적·친환경적 여가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이는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

- 대중화·보편화된 관광지보다 전문화·개성화된 관광지를, 정형화된 관광상품보다 특화관광상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명승고적이거나 자연감상 등의 소극적 형태의 여가개념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동시 추구, 지적이고 창조적인 야외 취미활동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형태로 관광행태가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와 연계된 관광개발의 활성화
-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공동투자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의 발굴·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는 반대로 ‘지역개발이 곧 관광개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간의 경쟁적 개발이 유발되어 비슷한 형태의 질 낮은 관광지나 관광상품이 양산되는 부작용도 우려됨.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여건분석

(1) 대외적인 여건

□ 기회

-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정책 시행
- 지용제를 통한 ‘문향(文鄕)의 고장’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정립
- 세계화, 지방화의 가속화로 지역의 자율성 증대
 - ▶ 사례로 연변 지용제를 통한 해외문화교류의 확대 추진
- 중원문화권, 백제문화권, 안동문화권 등 주변 문화권으로의 접근성 용이
- 근로시간 감소 및 여가문화증대로 인한 문화수요층의 저변 확대
- 대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형 문화산업의 적지

□ 위협

- 교육·문화의 예속으로 인한 대전 대도시문화권으로의 문화역류
- 문화창출 및 수요인력의 대도시권 이탈
- 지역고유의 전통민속문화의 보전 미흡(고령화)
- 고속교통망 발전으로 인한 단순 통과지역으로서의 역할
- 대청호 주변 기상변화로 인한 간접피해 급증
 - 과수농가 일조시간 부족, 호흡기질환 등

(2) 대내적인 여건

□ 장점

- 지용문학제의 전국단위 축제로의 도약
- 육영수생가 복원후 지용생가와 연계 강화
- 민속문화의 보고인 청마리 탐신제 활성화
- 중봉총렬제를 통한 군민화합의 분위기 고조
-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어울마당 운영 활성화
- 동이면 석탄리 일대 선사유물 테마공원 조성
- 대청호주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연자원 보호
- 대청호 및 환산8경과 연계한 산악수변 위락지역의 적지
- 폐교를 이용한 청마초등학교 전국가족 장승깎기 대회확산

□ 단점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활력 감소
- 문화관련 행정인력 절대 부족
- 휴양관광시설의 부족 및 시설 낙후
- 각종 개발제한에 따른 투자의욕 상실
- 개발제한으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파괴 극심
- 유·무형 문화자원 절대 부족 /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전무

2. 추진과제 도출

【 옥천군 문화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기 본 방 향	추진과제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변의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화 ◦ 역사와 수변 및 산악환경이 결합된 환산관광패키지 개발 ◦ 대청호 지류지역의 수변문화산책로 조성
문화자원의 상품화 및 지역민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신라·백제 전적지공원 조성 ◦ 지역내 산성과 봉수를 연계한 탐방로 조성 ◦ 석탄리 중심의 선사유물 테마공원 조성 ◦ 유교, 전설, 인물, 도예 등을 주제로 한 테마형패키지 개발
지역내 향토축제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용을 매개로 한 '근대 시문학의 성지'로 이미지 제고 ◦ 중봉충렬제를 청주성싸움과 연계 ◦ 청마리 탐신제의 지속적인 보존방안 강구
인근 주변문화권과의 광역연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용을 벽초와 팔봉을 연계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성지화 추진 ◦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권을 상호연계하는 불교문화 탐방로 조성 ◦ 영동 난계예술제 및 보은 오장환 문학제와의 상호 연계축 개발 ◦ 금강변 선사문화권의 연계개발 도모
문화육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 옥천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예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옥천문화벨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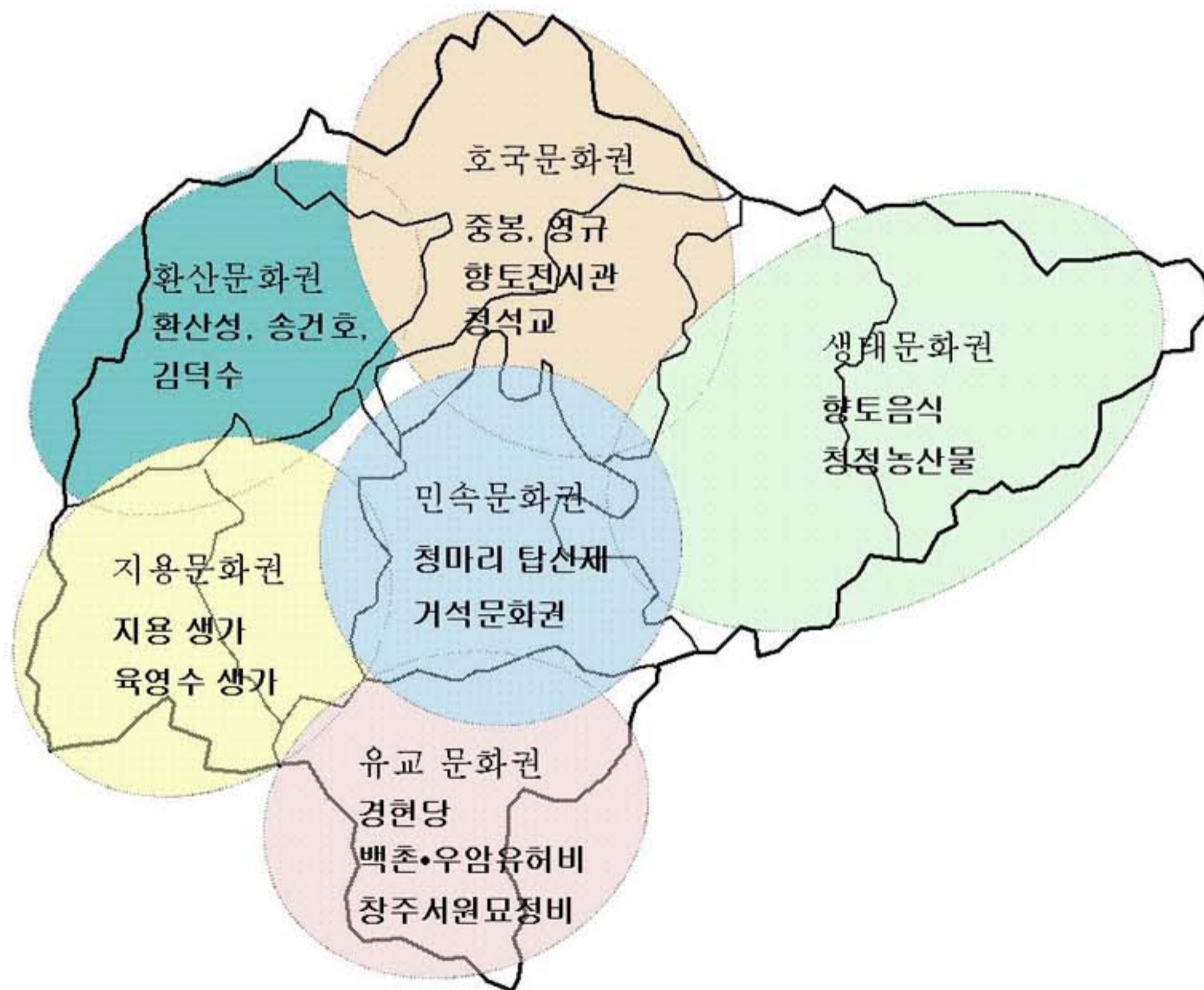
제3절 육성방안

1. 문화진흥 육성방안

- 장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의 고양과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수요의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시설을 생활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정 배치하여 지역내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함.
-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특히 종합정보통신망 등 첨단통신망을 갖춘 지역정보센터로 육성함.
- 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주민복지차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PC보급과 운용프로그램의 무료교육의 실시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토록 함.

- 문화예술종합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시민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역중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문화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함.
- 전설기행, 유교기행, 산성기행, 선사문화기행, 문학기행, 요지(窯址)기행 등 문화홍보를 위한 테마형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역내 문화자원의 상품화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
- 중봉총렬제, 지용문학제 등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함은 물론 대외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함.
- 인근 보은의 법주사, 영동의 영국사 등 주변문화권과 옥천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내륙권 예술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지역특산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함.
- 문화재정을 확충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옥천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내 문화시설에 대한 진흥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문화옥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체제 확립함.

【 옥천군 문화권역도 】



2. 관광부문 육성방안

-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관광의 조화를 개발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함.
- 관광자원, 관광시설, 관광서비스, 관광상품 등의 관광개발 목표를 관광객의 관광욕구 충족, 관광자원의 가치증대, 문화 및 환경보전,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소득 증대에 두고 계획을 수립함.
- 관광자원의 개발방향은 집중개발과 분산개발, 거점개발과 네트워크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함.
- 기존의 관광시설지역에 대한 정비·확충과 민간 주도적 개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성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둔 관광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관광자원은 자연현상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함.
-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선진국의 질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친절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둠.
- 문화유산, 문화이벤트, 축제이벤트, 공연, 행사, 문화관광지의 관광에 필요한 교통, 숙박, 쇼핑, 음식 등의 문화정보를 안내해 주는 안내홍보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문화관광 관련 안내자료 마련 및 배포, 관광안내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정보 체계를 개발·확충하여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임.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화

□ 환산관광패키지 개발과 순환도로 확충

< 환산관광패키지 개발 >

- 역사와 수변 및 산악환경이 결합된 환산관광패키지 개발을 통해 고리산과 대청호를 연계한 복합관광지로 개발함.
- 환산은 덕유산의 주산으로 무주, 금산, 대전을 거쳐 식장산을 증맥하여 용출한 영산으로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였으며 봉천봉, 옥녀봉, 감투봉, 형제봉, 문필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산 정상에는 고리형으로 둥글게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산성이 있는데 환산성이라 불리며, 현재는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석축량으로 볼 때 대략 5m 정도로 추정됨.
- 1971년 단국대학교 조사단의 환산일대 조사에 의하면 곧 삼국사기 김유신조에 나오는 고리산이 곧 환산이며, 동북쪽의 환산봉수지는 남으로 50리에 있는 월이산 봉수를 받아서 북쪽 30리의 회덕 계족산 봉수에 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환산 남쪽, 동쪽에 대청호 맑은물이 담수되면서 호수를 형성해 환산정상에 오르게 되면 강과 산이 어우러진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산행길이 되고 있음.

- 대청호 주변의 경관수려지역인 군북면 추소리, 이평리, 석호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환산관광패키지 관광순환도로를 개발함.
- ▶ 군북면 이백리~이평리까지는 군도개발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있고, 군북 북원리~석호리~이평리까지는 일부구간의 도로는 개량되었으나 대부분 미개량 도로임.
- ▶ 미포장부분의 도로를 개량하여 군북면 이평리 지역의 대청호에 교량을 가설함으로써 군북면 이백리 4번국도에서 군북면 국원리 37번국도의 연계가 가능함.
- ▶ 37번 국도의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구읍~군북면 소정리 구간의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환산을 중심으로 한 군북면 이백-추소-이평-석호-국원-구읍 연결도로에 자전거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도로의 개량을 통해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와 자전거 길, 수변문화산책로를 개발하여 대청호 주변을 관광도로로서 이용함.

2. 문화자원의 상품화 및 지역민 참여유도

- 전설기행, 유교기행, 산성기행, 선사문화기행, 문학기행, 요지(窯址)기행 등 문화홍보를 위한 테마형 패키지를 개발함으로써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내고향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
- ▶ 이경우 지역내 향토사학자와 문화해설사의 활용으로 문화홍보를 함께 추진함.

□ 신라·백제 전적지공원 조성

- 최근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신라와 백제의 경계적 위치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조사하고 전적지공원을 조성하여 삼국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휴식처를 제공함.
- 권위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전승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토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군민과 청소년의 덕성함양은 물론 휴식처로 이용함.
- 2003년 완공예정인 37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와 연계추진하며 군서면 월전리, 동평리(동평산성), 옥천읍 가화리 삼성산(관산성), 군북면 이백리 갯골, 환산 등 적지를 선정하여 조성함.
- 전적지 공원에는 당시의 격전상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여가장소로 활용함.

□ 선사유물 테마공원 조성

- 석탄교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대청댐 유희잔여 토지에, 주변지역의 산재한 선사시대 유물과 문화재를 이전복원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유물관리와 함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
- 문화재 이전으로 지역의 역사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징물 조성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지구로 발전시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꾀함.
- 동이면 석탄리 대청댐유희지 일원에 도지정유형문화재(지석묘, 석탄리입석)와 비지정문화재를 이전복원하며,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옥천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킴.

- 이전복원대상 유물(석탄리 주변을 중심으로 9점)
 -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10호 지석묘, 유형문화재 156호 석탄리 입석
 - ▶ 비지정문화재 : 석탄리 안터2호 고인돌, 안터3호 고인돌, 수북리 선돌, 석탄리 선돌, 안터 선돌, 용호리 선돌)

□ 구읍 문화타운 조성

- 구읍 일대는 육영수생가, 지용생가, 근현대문화유산이 보존된 지역으로써 그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옥천(文化沃川)’의 중심권역으로 발전시킴.
- 구읍 삼거리~수북리(지용로), 옥천지용생가~옥천향교~육영수여사 생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적 감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해방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현대사속에서 과거 추억과 향수를 갈망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전국규모의 문화타운 ‘추억을 찾는 거리’를 조성함.
 - ▶ 50년대 (6·25, 빈곤, 남북갈등), 60년대 (4.19혁명, 5.16혁명, 보릿고개), 70년대 (새마을운동, 근대화, 유신, 통기타), 80년대 (민주화, 국제화, 지방화)
- 세대별 특징과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테마별 거리와 체험장 등을 설치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상점, 음식점 등도 함께 운영함.

□ 육영수(陸英修)여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 육영수 여사는 1925년 옥천읍 교동리에서 출생하여 옥천죽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화여자고등학교를 거쳐 1945년에는 옥천여자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그 후 26세 되던해 1950년 부산에서 당시 중령이던 박정희와 결혼하여 후에 영부인이 됨.
- 영부인시절 ‘양지회’라는 봉사단체를 통해 불우한 근로여성, 환경미화원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어린이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했고 1970년 7월에는 서울 남산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도 하였음.
-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소박하고 성실한 내조로서 나머지 삶의 시간을 사랑과 봉사로 살아간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어려운 60, 70년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음.
- 옥천읍 교동리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터에 생가복원과 아울러 기념관 건립 및 주변정비를 함께 실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

- 육여사 생가가 복원되면 주변의 지용생가와 함께 이렇다할 문화자원이 부족한 이 지역에 훌륭한 문화이미지 구축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옥천인물선양과 계승사업 추진

- 옥천출신의 문화예술 관련인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옥천인물선양과 계승사업을 추진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증봉충렬제나 지용문학제 및 인근의 오장환문학제, 난계국악축제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옥천인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점차 독자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감.
- 초기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나 후원자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되, 행사가 일정규모이상 정형화되었을 경우에는 점차 지역차원의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
- 계승사업 예시
 - ▶ 군북면 추소리 태생 류승규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토대로 지용 및 농민문학가 이무영의 계보를 잇는 사업을 마련하여 ‘문학의 고장 옥천’으로서 이미지를 높임.
 - ▶ 군북면 증약리 태생 송암 송건호 선생의 언론문화 계승사업을 추진하여 옥천지역의 뚜렷한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며, 중앙차원의 ‘청암언론문화재단’과의 교류망을 확보하고 언론문화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 군북면 막지리 태생 김덕수 선생의 사물놀이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영동의 난계음악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충북 남부지역을 국악 현대화의 메카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봉수탐방로 조성

- 삼양리토성, 서산성, 화학성, 조천성, 저점산성, 굴산성, 마니산성, 이원리토성, 성터산성, 사양성, 관산성, 마성산성, 환산성, 노고성 등 나계산성 패키지를 개발하고 월이산, 환산, 덕이산을 잇는 봉수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화자원을 패키지 상품화함.

□ 역사문화패키지 개발 및 육성

- 유교문화 / 옥천향교, 청산향교, 경현당, 이지당, 양신정, 후율당, 옥주사마소, 사서공전식 영정 등 유교문화패키지

- 전설문화 / 청석교와 모기, 청성면 독산, 김옥균과 명월암, 안내면 탐산골, 척화비, 묘비의 비 등 전설기행패키지
- 인물기행 / 조중봉묘소, 김문기 유허비, 송시열 생가터 및 유허비, 육여사생가 등 인물탐방로 구축
- 도예문화 / 사정리 청자 및 백자요지, 장찬리 백자요지, 자모리 요지 등
 - ▶ 군북면 소정리 도예촌 체험장 및 안내 토기와 특공예품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3. 기존의 지역축제 활성화

- 중봉총렬제, 지역문학제 등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민 단합과 대외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남부권 지역문화벨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중봉총렬제 연계사업 육성

- 중봉총렬제에 각 읍·면별 특색있는 민속놀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함.
 - ▶ 임진왜란시 영규대사의 승병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규합하여 마침내 금산싸움에서 7백의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신 중봉선생을 추모하는 축제로 금산싸움과 관련하여 이웃한 금산군과 임진란때 최초의 승전지로 전하는 청주성싸움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연계한 조헌 역사탐방로의 설정이 가능함.
 - ▶ 중봉학술강연회 및 추모제를 통한 중봉사상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함.
 - ▶ 중봉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인근 군부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과 군(軍)이 하나되는 행사의 기획도 가능함(군악대, 특수부대 태권도 시범, 의병전쟁 모의체험의 장 등).

□ 청마리 탐신제 활성화

- 청마리 탐신제당의 장승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민속문화패키지를 접목시킴으로써 민속문화 보존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예술행사로 발전시킴.

- ▶ 탐신제(塔神祭)는 보통 탐제(塔祭)라고 하여 마을을 지키고 평안을 빌며 질병과 악귀를 쫓아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인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민속신앙으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마한때부터 큰 나무를 세우고 귀신을 섬긴 것이 짐대(솥대)의 유래라 전함.
- ▶ 이러한 유습은 오늘날에도 마한의 옛 땅인 충북 남부지역과 전라도에 남아 전해 오고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옥천에서만 발견되고 있고, 이 마을이 민속의 원형을 그대로 잘 전승 보존되고 있음.
- ▶ 제당(祭堂)의 형태는 마을입구에 지름 5m, 높이 5m정도 크기의 잡석을 원추형(圓錐形)으로 쌓아올린 탑과 그 옆에 긴 나무장대 위에 새모양을 만들어 세운 솥대가 있고 바로 위에 장승(長牲)이 나란히 있음.
- ▶ 제사일은 매년 한번, 정월보름에 지내며 이 때의 경비는 동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이 장승과 솥대는 윤달이 든 해에 새로 만들어 세우게 됨.
- ▶ 이때는 마을의 제일 고령자를 모시고 동민들이 산에 올라가 솥대와 장승을 만드는데 적합한 나무를 노인이 선정하여 주며 이 나무를 신목(神木)이라 하고 신목이 결정되면 신목 밑에 떡시루를 놓고 제사를 지낸 후 참여자 전원이 음복을 하고 신목을 베어 운반하는 등 온 마을의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는 장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음.
- 청마리 탐신제를 현재 타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진행되는 장승제와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장승제의 본고향으로서의 옥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현재 폐교를 이용하여 매년 8월 중 개최되는 청마장승짜기 행사도 더욱 발전시킴.

□ 지용문학제 연계사업 육성

- 지용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용을 매개로 한 문향의 고장으로 옥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옥천이라는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지용제가 지역민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국단위의 문학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함.
- ▶ 소설의 벽초 홍명희 선생(괴산)과 비평의 팔봉 김기진 선생(청원)을 시의 정지용과 연계함으로써 근현대문학의 발상지 및 성지로 개발함.
- ▶ 예총 옥천군지부, 옥천문화회, 민예총 옥천지부, JC, 옥천 사진작가협회, 보이스카웃 등 지역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지용문화거리축제를 활성화함.

- ▶ 초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지용문학캠프를 열고 지용문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지용문학의 전국단위화로 문향의 이미지를 알림.
- ▶ 지용문학포럼 및 지용문학상 개최를 통한 전국의 문학인들의 문학순례 성지화를 추진함.
- 지용문학축제를 지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외문학축제 기반을 조성함.
- ▶ 중국 연변지용제를 활성화하는 바, 지용문학상 시상 및 예술제를 개최하며 지용시비의 건립을 추진하고, 지용회원의 확충 및 후원회 조직운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등을 실시함.
- ▶ 일본 교토 동지사대학에서 지용축제를 추진하는 바,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낭회를 개최하며, 동지사대학내 지용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재일교포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지용문학제 추진을 협의함.
- 지용생가주변에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문학인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문학관 건립을 통해 문학관계인 세미나 및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지용관련 자료전시관을 설치 운영함.
- 문향으로서 옥천의 역사인물과 향교와 서당 등 지역내 유학관련 시설과의 연계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상설문인학교를 설치함으로써 문향으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함.

4. 역사문화자원의 연계화

□ 불교문화패키지 연계개발

- 용암사 마애불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은의 법주사와 영동의 영국사를 연계한 보물급 불교문화 탐방로의 주연계축을 형성하며, 이를 위해 용암사, 가산사, 귀절사, 두암리 3층석탑 등 불교문화 패키지를 개발함.
- ▶ 552년 신라 진흥왕 13년에 의신조사(義信祖師)가 이곳 산세에 신비함을 감탄하여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용암사 뒤편 장년산 암벽에 양각한 이 마애불의 높이는 300cm에 달함.
- ▶ 이같이 탑을 산 위에 세운 예는 신라 하대부터 유행하였던 양식으로 탑의 조성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됨.

-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1976년 12월 21일)로 되어 있는 마애불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영동의 영국사와 보은 법주사와의 연계망을 통한 보물급 석조문화재 탐방패키지를 활성화함.

□ 예술문화제패키지 연계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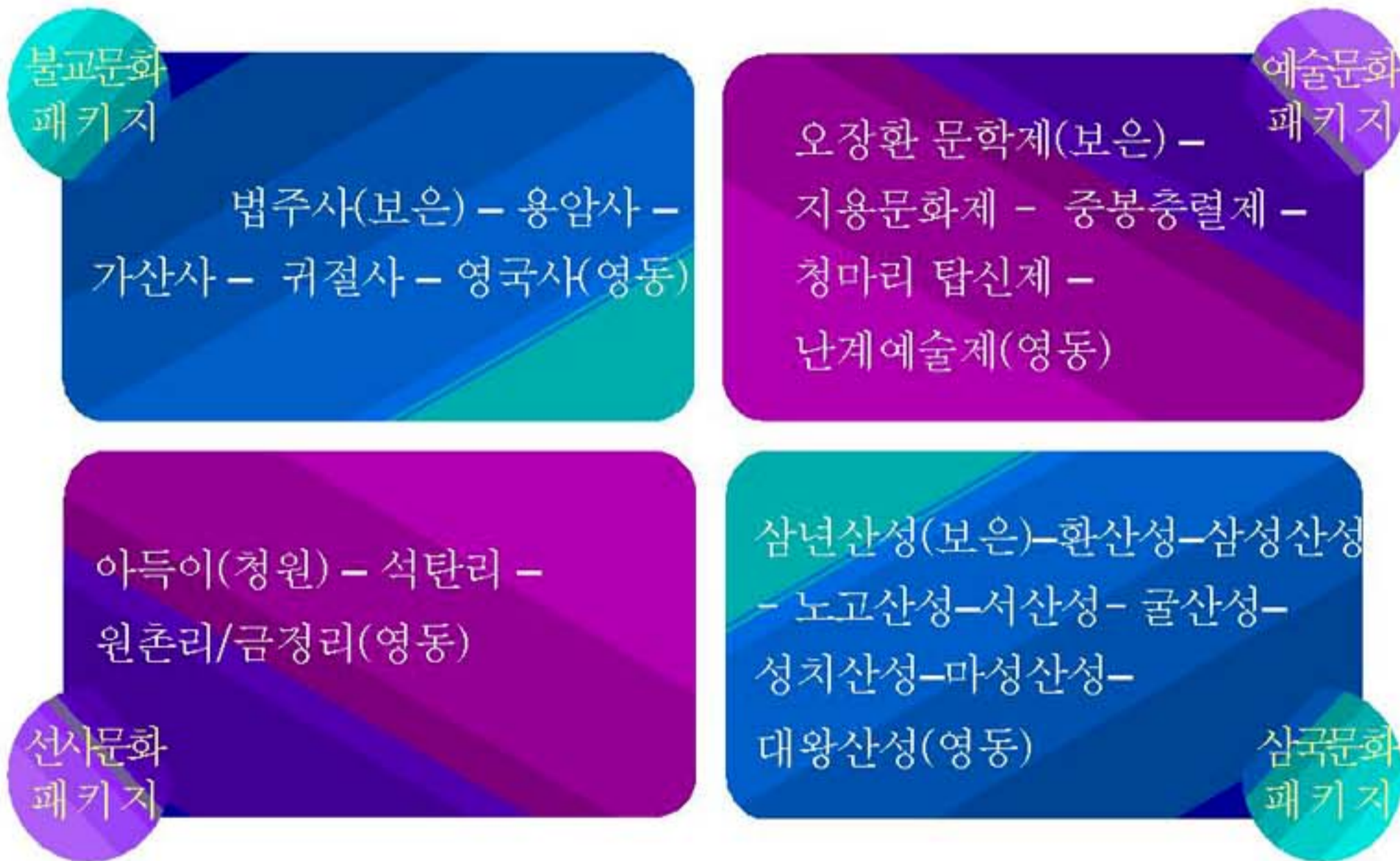
- 영동의 난계예술제 및 보은의 오장환문학제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지용문화권역과의 광역연계권역을 설정함으로써 보은, 옥천, 영동을 잇는 남부권 예술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함.
- 또한, 지용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지역특산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함.

□ 선사문화패키지 연계개발

- 동이면 석탄리 안터주변을 인근 청원 아득이 유적, 영동 원촌리, 금정리 유적과 연계함으로써 특색있는 선사유적테마공원으로 개발함.
- 석탄리 안터1호, 삼청리, 적하리, 도농리, 정방리, 산계리, 장수리, 묘금리, 교평리, 수북리, 문정리, 남곡리, 세산리, 청정리, 도덕리, 종미리, 도촌, 용촌리, 화성리, 장수리, 구룡리, 평계리 등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과 선돌의 연계탐방로를 선사문화 패키지화함.

□ 삼국문화패키지 연계개발

- 환산성, 삼성산성, 노고산성, 서산성, 굴산성, 성치산성, 마성산성 등 산성탐방로 연계패키지를 보은의 삼년산성 및 영동의 대왕산성 등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환산성 중심의 3국시대 역사를 재현하는 충북의 대표적인 역사탐방로로 발전시킴.
- 격전지의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와 백제 두 나라간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나제문화행사’를 개발함.



5. 문화진흥 지원체제 확립

□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 옥천지역 독자적인 문화재정의 확충, 문예진흥기금의 확보 및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내 박물관·미술관·문학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진흥조례 제정을 검토함.
- ▶ 인근 대전권의 문화계와 교류협력을 통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등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
- ▶ 장계관광지내에 위치해 있는 향토자료전시관의 1층 역사실, 2층 민속실, 지하층 농경문화실에 대한 전시시설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족중심의 장계관광지 이용객 등이 반드시 거쳐감으로써 지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

□ 옥천문화벨트 형성

- 옥천문화원과 옥천향토사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내 예술문화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민이 중심이 된 문화인력의 저변확대를 추진함으로써 행정·학교·문화단체 등이 연계한 지역고유의 문화벨트를 형성함.
- 지역민들의 전통문화계승과 문화유산을 소상히 알고 보존하기 위해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문화부문 전문지식인을 양성하여 문화홍보요원으로 활용함.

6. 관광산업 육성전략

□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

- 관광 S/W : 시스템 요소간의 협력과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광상품개발, 매력적 이미지의 창출과 홍보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핵심요소는 상품, 운영, 정보, 제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품 S/W : 여행상품, 기념품 및 이벤트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패키지 여행상품, 관광코스, 답사프로그램, 토산품, 민속공예품, 지역특산품, 축제 및 이벤트기획 등에 대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
- 운영 S/W : 관광지 운영, 마케팅, 지역이미지 및 관광객들의 관광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관광지 예약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 상품기획, 홍보, 판촉, 민·관공동 마케팅,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정보 S/W : 정보제공, 안내 및 해설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하여 가이드북, 안내지도, ARS 및 인터넷 정보제공, 안내 및 해설서비스, 통역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제도 S/W : 세제, 금융, 규제 및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관광진흥기금 이용, 관광진흥법, 문화재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

구 분	주 요 내 용
상품 S/W	·산행, 피서, 건강, 배움, 종교, 체험테마 등의 관광코스 개발 ·테마수학여행,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야간관광 활성화 ·사찰, 향교, 고택, 야생화, 나비 등 산림군락지 순례 등 테마별 상품 개발
운영 S/W	·관광마케팅 체계 구축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카드 개발
정보 S/W	·인터넷 육천쇼핑몰 개설, 육천관광정보망 구축 ·관광안내소 설치(문화원과 연계)
제도 S/W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 토산품 및 특산품 개발

- 관광산업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경험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담긴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함.
- 토산품과 기념품은 유형에 따라 관광지별로 제품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을 모색함.
- 토산품과 특산품은 표준화된 상품개발과 디자인, 품질, 포장,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기능보유자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지의 정체성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 관광 쇼핑거리 조성

-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적정입지를 선정하여 관광지의 특성 및 타지역과 구별되는 쇼핑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점의 간판이나 전시장 디자인, 유통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관광쇼핑거리 및 쇼핑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관광특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와 심벌마크, 로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며, 이벤트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상징탑, 레이저빔 및 깃발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만들.
-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산악과 수변경관,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어우러진 품위 있고 매력적인 관광쇼핑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문화의 광장, 먹거리타운 등과 연계 조성함.
- 경부고속도로 선형공사 완료 후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 우측공간을 이용하여 만남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대화의 장소로 이용하면서 문향의 고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함.

□ 관광안내표지판

- 관광안내표지판을 관광객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발하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작기법으로 제작·관리가 쉽도록 함.

-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주요 도로별 또는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픽요소를 도입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고속도로 옥천IC와 타지역과의 접경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관광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국도 연결노선, 역, 터미널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인지도와 접근성을 제고시킴.

□ 관광정보안내소

- 관광정보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 이용의 편리성, 안전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금융·행정·통신 등에도 첨단시설을 도입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시킴.
- 관광지 소개책자, 교통정보, 각종 숙박시설,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정보망을 확충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통거점화하여 관광안내소, 관광종합터미널 등을 통한 연계가 용이하도록 함.

□ 금암지구 폐도를 활용한 수변레저공원 조성

-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금강의 수량으로 인한 레저활동의 적지인 금암지구의 적하리 부근에 레저시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이용객의 휴양시설로 이용함.
- 동이면 적하리의 금강2교-3교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수상스포츠 레저시설과 자연생태 체험공원,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함.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며 군민과 수상레저 동호인에게 다양한 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명티 공유지 개발

-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명티지역 공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림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개발가능한 사업(학교, 골프장, 자연휴양림)을 유치함.
- 청산면 명티리 일대는 계곡이 깊고 상수도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묘지와 사유지가 적으며,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소지가 적어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함.

- 산촌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조성시 인위적인 개발 색채를 줄이며 인근 대전과 상주지역의 도시인구를 감안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연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인의 휴식과 보건휴양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자연생태관광지 조성

-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옥천지역에만 자생하는 동·식물이나 희귀한 기념물을 소재로 소규모 전시관이나 기념관, 화훼원, 식목원, 자연학습장, 텃밭(주말농장), 동물사육장, 나비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채취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관광학습장이 되도록 함.
- 주변 농촌주민의 민가 등 주변시설을 적극 활용한 가족중심, 체험중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동이면 일원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공간으로서 자연생태관광지를 연출함.
-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관광객들 및 지역민들의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휴식공간, 대전지역 도시민들의 휴식지로서의 효과가 기대됨.

□ 곤룡재 청소년수련관 조성

- 군서면 일대 구룡지로 형성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청소년 심신수련을 위한 수련관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여가공간을 조성함.
- 청소년수련관을 교육 및 정서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레크레이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민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은 물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로서 번지점프, 골프장 등의 시설과 레저타운 시설을 건립하고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간 연대감을 형성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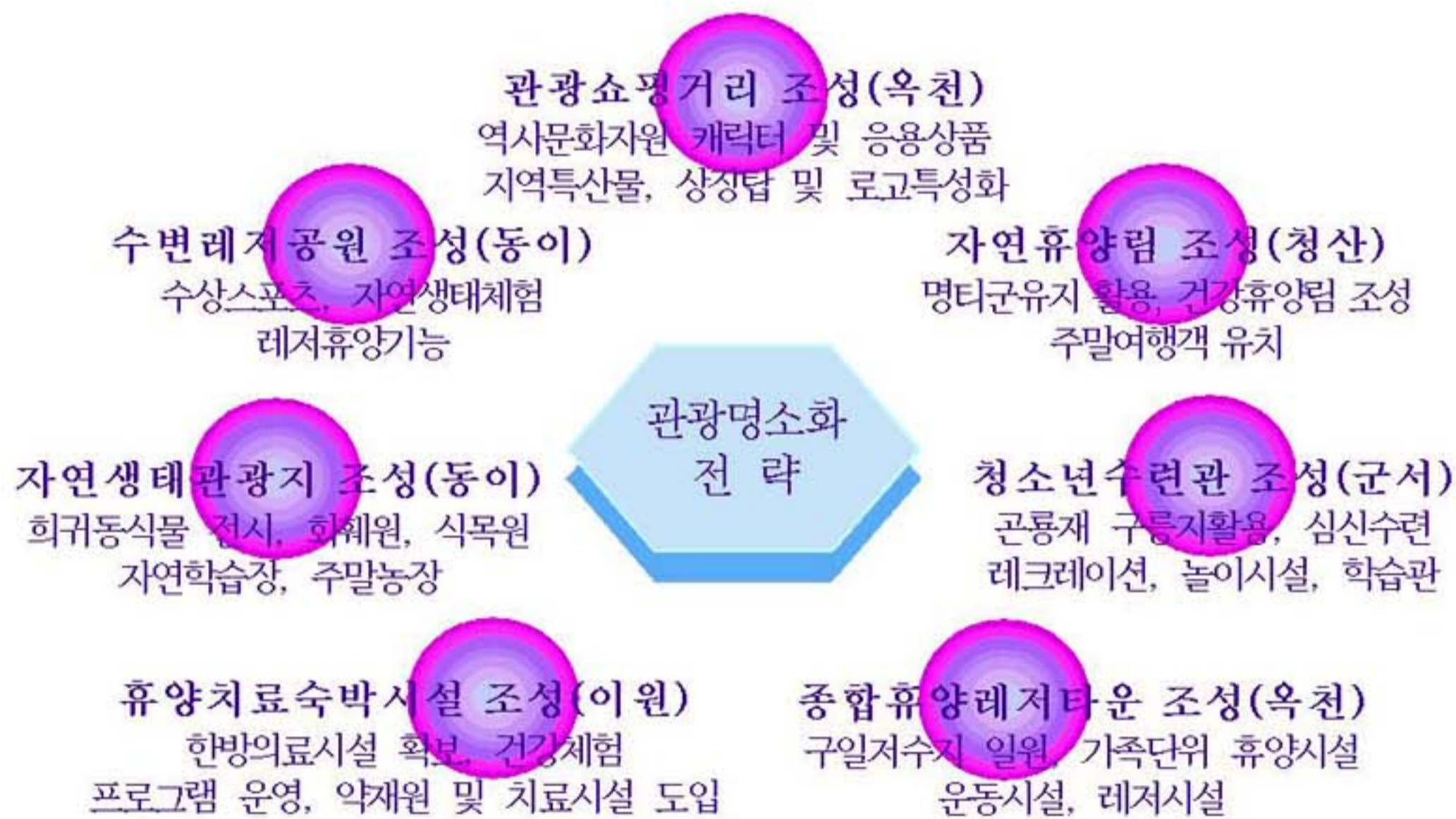
□ 구뎀티 휴양치료 숙박시설 조성

- 최근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한방과 동양의학에 기반을 둔 휴양치료 숙박시설을 도입함.

- 이원면 건진리 구덤티 일원에 건강체험현장, 휴양시설, 치료시설과 시험연구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일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함.
- 옥천지역의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휴양지내에 약재원과 치료시설, 휴양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민은 물론 외부관광객의 이용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함.

□ 구일 종합휴양레저타운 건설

- 축조된지 오래되어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상실되고 있는 구일저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서 지역민과 근교 대도시인 대전지역의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합휴양레저타운을 건설함.
- 구일 저수지 주변에 대하여 가족단위 연수시설,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낚시터 등의 레저시설을 설치함.



□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관내에 산적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인근 대도시권 주민의 1일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함.
- ▶ 주관광벨트 / 옥천문화타운(가칭) ↔ 지용문학공원 ↔ 옥천향교 ↔ 옥영수 생가 ↔ 선사유물테마공원 ↔ 피실나루터 ↔ 조중봉 묘소 ↔ 후율당 ↔ 유상지석 ↔ 장계관광지 ↔ 청풍정 ↔ 이지당 ↔ 라·제전적지 ↔ 장용산휴양림 ↔ 곤룡터널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개발

- ▶ 보조관광벨트 / 용암사 ↔ 송우암 휴허비 ↔ 김문기 휴허비 ↔ 월이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보조벨트 개발
- 옥천문화타운(가칭)에 기 조성된 관성회관 및 야외음악당을 근간으로 수영장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확장, 예술회관, 중봉기념관, 뿌리공원, 생활체육관 등을 조성함.
- 지용탄생 100주년을 기점으로 지용생가 일원을 매입하여 지용문학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문향을 고을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킴.
- 육영수 생가복원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기성세대에게는 격동의 시대에 육영사업 등을 통해 국모로서 존경받던 육영수 여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한국근대화의 향수를 제공함.
- 지역내 산재한 선사유물 및 학계에 보고된 선사시대 농경문화 유적을 복원하여 내륙강안에서 발달한 선사문화 체험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근마을을 문화마을 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민박시설을 제공함.
- 대청댐 주변을 이용한 관광루트 개발을 위해 피실나루터를 조성하여 철선을 이용한 도강시설이나 잠수교를 설치함.

제11장 그린옥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현황과 특징

- 환경오염 현황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중 하나인 배출시설의 경우 1995년 259개소에서 1999년 342개소로 전체적으로는 5년간 연평균 약 5.7%의 증가율을 나타냄.
-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수질오염 부문으로 연평균 약 9.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 가장 영향이 적고 증가율 또한 적은 것은 소음·진동 부문으로 옥천군이 대청댐의 상류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들 시설의 입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옥천군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추이 】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1995	259	95	84	80
1996	257	91	83	83
1997	260	91	87	82
1998	299	102	111	86
1999	342(5.7)	109(2.8)	134(9.8)	99(4.4)

주 : 1999년도의 ()는 1995~1999년 5년간의 평균증가율임.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옥천지역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총배출시설은 증가한데 비하여 이에 대한 단속업소의 수인 단속률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의 감독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음.

- 행정조치 결과를 총단속업소에서 차지하는 위반업소의 비율인 부적률로 보면, 약간 상승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무단오염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경고조치는 제외)의 비율로 표시되는 조치율은 매년 감소경향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배출업소들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의 적발강도가 느슨하거나 또는 사전에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행정조치가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환경오염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

(단위 : 건, %)

구 분	배출시설 (A)	단속내용		행정조치				
		단속업소(B) 단속률(B/A)	위반업소(C) 부적률(C/B)	계 조치율(D/C)	개선명령 (D1)	조업정지 (D2)	폐쇄명령 (D3)	기타 (D4)
평 균	199.4	545.4(273.5)	25.2(4.6)	17(67.5)	10	4.6	1.2	1.2
1995년	179	875(488.8)	30(3.4)	20(62.5)	11	5	-	4
1997년	178	549(308.4)	16(2.9)	13(25.0)	8	3	1	1
1999년	243	314(129.2)	27(8.6)	19(27.3)	9	8	1	1

주 : 합계란은 1995~1999년간의 평균이고 위반업소에서 경고는 제외하였으며, 조치율 = ((D1+D2+D3+D4) / C) × 10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년.

- 옥천측정지점의 수질추이를 보면, 용존산소는 1995년 최고치를 보이다가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유입수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보급 등 수질개선 노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SS(부유물질량)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옥천 수질측정지점의 수질추이 】

(단위 : mg/l)

구 분	DO	COD	BOD	SS
1991	9.2	1.6	1.6	1.6
1993	9.0	2.1	1.4	3.5
1995	10.9	2.7	1.3	3.5
1997	9.4	2.7	1.1	3.9
1999	9.9	2.7	1.0	10.0

- 옥천군에서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원에 조성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위생매립 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10여년 간의 사용기간을 남겨두고 있으나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처리장내에 소규모의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옥천폐기물 종합처리장 현황 】

처리장 명	위 치	매립면적(m ²)	매립용량(m ³)	사용예정기간	소각시설용량
옥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원	28,595	438,073	14년 (1998 ~ 2012)	1톤/시간

- 옥천군 내 하수처리시설은 1일 18천m³를 처리하는 옥천하수처리장 등 4개소로 처리 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의 옥천하수처리장과 장기폭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동이·안내·안남 처리장이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역은 옥천하수처리장의 서화천 등이나 모두 금강수계이며, 대청댐의 집수구역 내에 위치함.
- 그 밖에 옥천군에는 동이면 적하리에 있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있고 처리용량은 320m³/일 규모이며, 옥천하수처리장과 같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옥천군 하수처리시설 현황 】

처리장명	위 치	건설기간	시설용량 (m ³ /일)	처리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합 계			18,550			
옥 천	군북면 이백리	1991.12 ~ 1994.5	18,000	표준활성슬러지	소옥천천	금강
동 이	동이면 평산리	1991.5 ~ 1992.12	210	장기폭기	소도천	금강
안 내	안남면 현리	1991.11 ~ 1992.12	180	장기폭기	안내천	금강
안 남	안남면 연주기	1991.5 ~ 1992.8	160	장기폭기	안남천	금강

- 환경부고시 제 1999-205호(1999년 12월 31일)에 의한 충청도내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은 옥천군의 전지역이 수질환경기준 I 등급의 수질보전을 요구하는 “청정지역”임.
- ▶ 청정지역은 수질환경기준 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임.

2. 향후 전망

- 옥천군지역의 환경을 전망하면 자연환경적 여건과 토지이용, 경관 등 전반적인 환경은 개선될 것이나 일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증가로 인한 국지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배출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자연환경적 여건은 생명의 숲 가꾸기 및 새천년 손자숲 가꾸기사업의 확대 실시와 자연환경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식물의 현존량 및 생산량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자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오염으로 인한 쾌적성 저하 등 생활환경적 여건은 일부 지역에서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옥천군 지역은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함.
- 수질지표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약간씩 개선되고 있어 II급수 수준에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부유물질량(SS)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하·폐수에 대한 고도처리가 필요함.
- 특히, 대청댐 수계는 장기간의 폐쇄수역인 점을 감안하여 부영양화(Eutrophication)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스템(Advanced Treatment System)의 도입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는 청정연료의 사용확대, 오수처리시설의 확대보급 등 투자가 증대되고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되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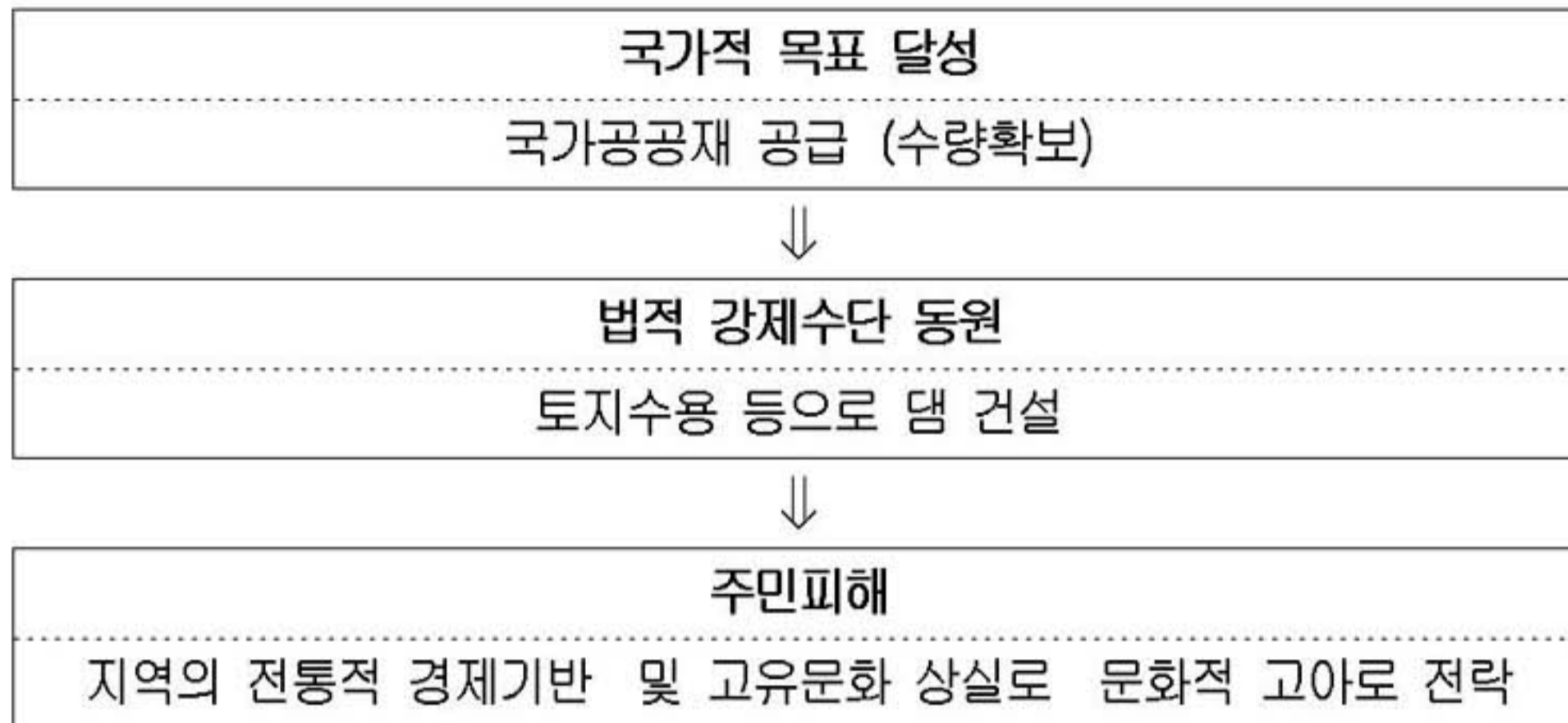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여건분석

-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원활한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수량확보 정책으로서 국가전략 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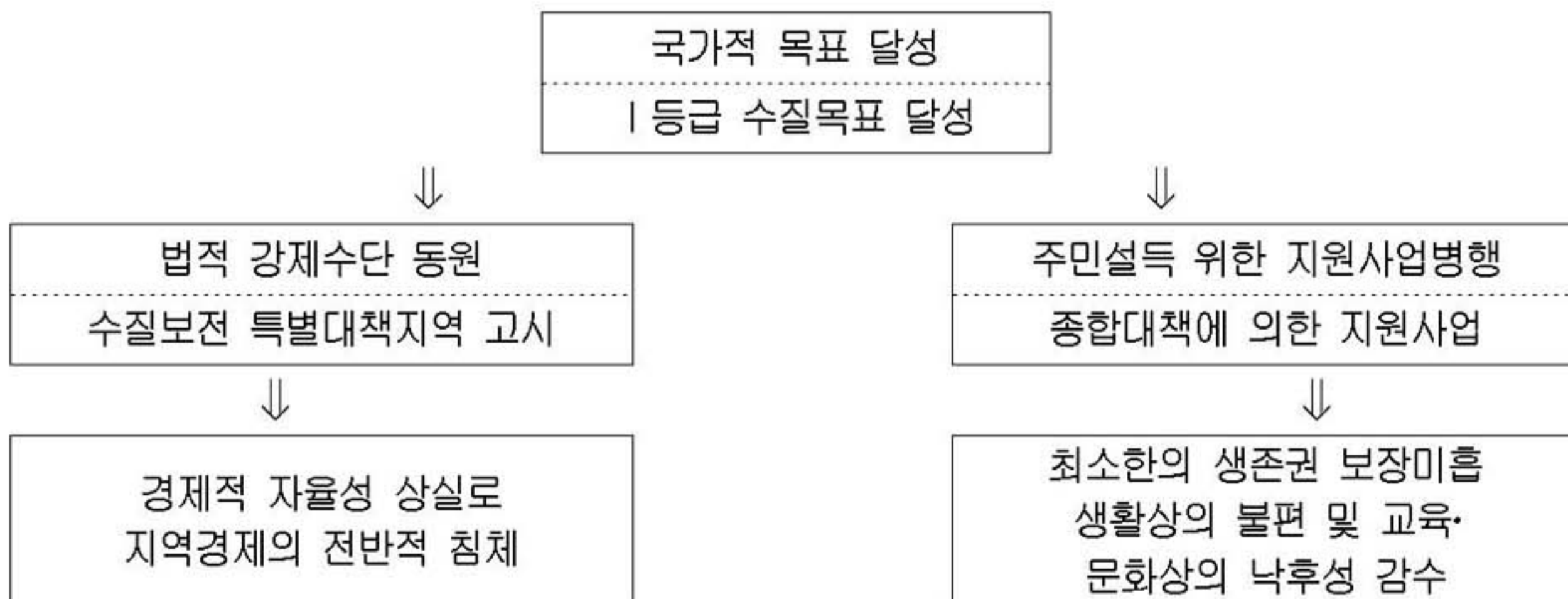
- ▶ 다목적댐 등 국가공공재의 공급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수용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기반의 상실과 지역의 고유문화 상실이라는 주민피해를 가져옴.

【 수량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모델 】



- 확보된 수량에 대하여 I 등급의 수질환경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상품(물)을 공급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채찍과 당근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음.
- ▶ 채찍정책으로서는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이며, 당근정책으로서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고시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대책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주민 설득을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질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모델 】



-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추동 등 15개동과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의 3군 1읍·10면지역, 271개 리지역으로 총면적 700.67 km²(I 권역 386.94km², II 권역 313.73km²)임.
- ▶ 그중 중복지역은 636.53km²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7%에 이르는 449.79km²가 특별대책지역 I(안남·안내·군북면)~II 권역(옥천읍·군서·이원·동이·청성·군북면)으로 지정되어 있음.
-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01-148호 : 2001. 10. 15)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개정고시(환경부고시 2000-120호 : 2000. 10. 10)에 의거 청원군 문의면 동등리 무심천수계의 0.43km²와 옥천군 특별대책지역 면적 457.62km²에서 안내면 오덕리 7.67km²(I 권역),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 7.15km²(이상 II 권역)가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자모리, 이백리 18.04km²를 I 권역에서 II 권역으로 조정되었음.

【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복지역 지정현황 】

(단위 : km²)

구 분	면 적	I 권 역	II 권 역
합 계	636.53	322.80	313.73
청원군	87.89	문의면 (남계리, 동등리 일부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
보은군	98.85	회남면, 회북면 (갈치리 제외)	-
옥천군	449.79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2. 추진과제 도출

- 옥천군 지역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청호로 인한 피해와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으로써 그 피해는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생산량 감소,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건강악화 등 사회비용 증가, 홍수·침수·교통사고 등 재해발생 증가, 도로연장 확대 등 물류비용 증가 및 생활불편, 생활터전 수몰로 인한 고유문화 상실 등이 있음.
- 그리고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산업입지의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법적 규제와 오수처리 의무화 등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임.

- 따라서 이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등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를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청정한 수질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논리 또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지리적 여건은 물론 조건불리지역 (Disadvantaged Area) 이론을 연구·검토하여 이를 댐 및 주변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전체 옥천군 면적의 83.7%의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법적 규제에 적합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정산업 유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함.
- 그리고 법적 규제로 인하여 수질오염 부하량의 많은 제조업은 입지가 곤란하나 대청호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임으로 감안하여 이를 관광 및 농업·임업 등의 산업과 연계하여 경관산업(Landscape Industry)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연구, 발전시켜야 함.
- 이를 위하여, 지방의제 21에 의하여 작성된 「늘푸른 향수 옥천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뛰어난 경관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임.



제3절 육성방안

1. 기본방향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과 환경재(環境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적·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연구·건의함.
- 옥천군 면적의 83.7%가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지역임을 감안하여 생태산업 또는 청정산업화를 추진함.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Planning Principle ahead of Development)을 모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 도입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의 난개발을 사전예방함.
-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계획승인, 개발, 운영, 환경지도까지 일련의 전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환경행정 체계를 확립함.
-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하여 이미 오염·훼손된 부문을 개선·복원하며, 백두대간의 주능선과 연결되어 있는 동부의 청산·청성지역은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함.
- 금강 본류로 이어지는 보청천, 금구천, 안내천, 이원천 등 주요 수계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를 비롯한 자연환경자원을 최소한으로 소비하는 자원저소비형 순환사회를 실현함.
- 자연환경(깨끗한 공기, 맑은 물 등)과 생활환경(주거, 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 문화성, 미래성을 확보하며,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 옥천환경사랑모임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연구하고 친환경사업을 전개함.
- 폐쇄수역을 형성하고 있는 대청댐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폐수의 처리시설에는 COD 및 질소·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하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한 후, 배출되는 처리수를 식물을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토록 계획함.

- 오수처리시설의 보급은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또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농촌형 고도처리방식을 도입,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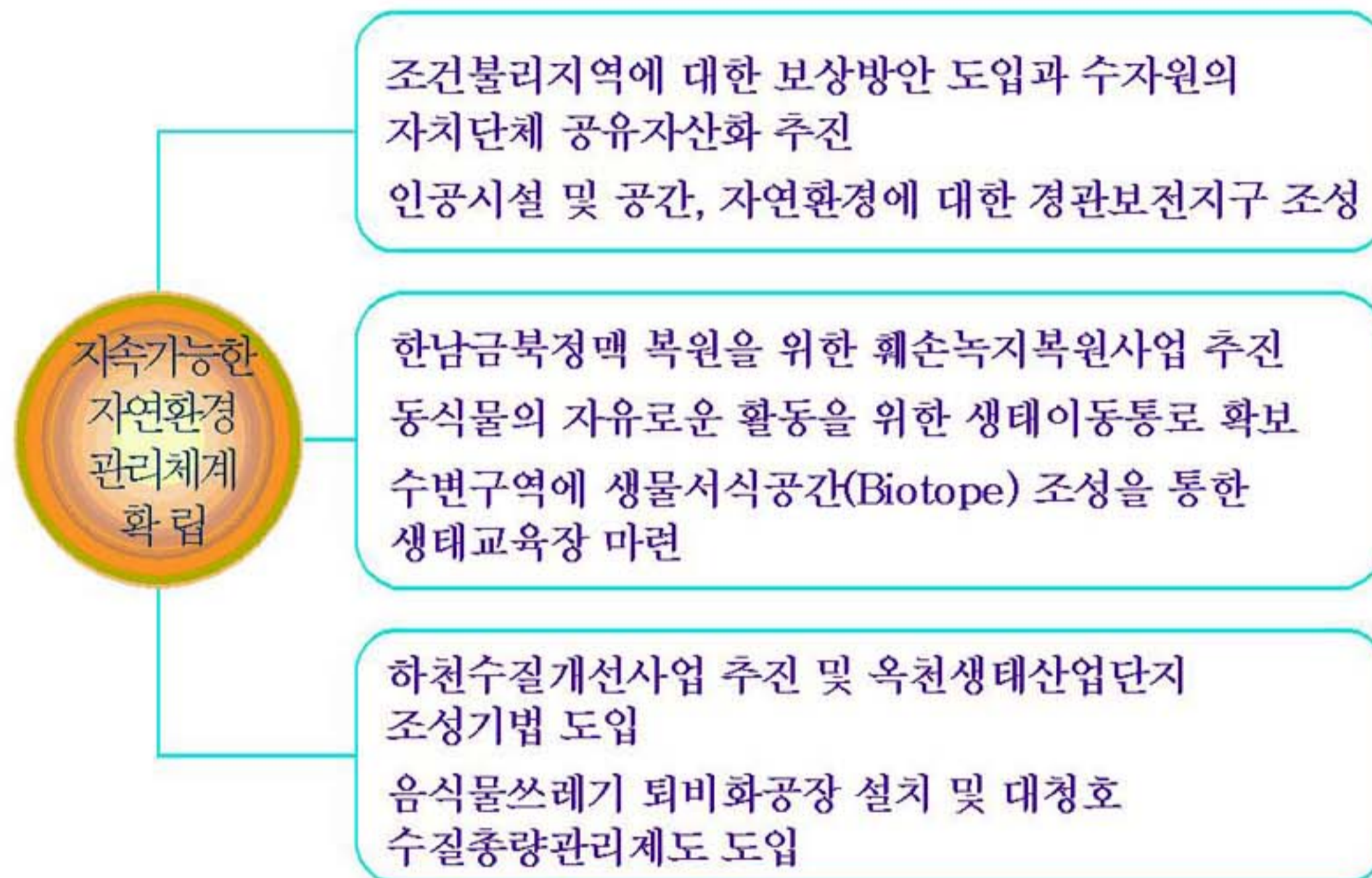
2. 육성방안

-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정부의 법적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함.
- 법적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시정할 개선방안에는 댐 등 후천적 조건 불리지역의 이론적 근거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함.
-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에는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옥천군)의 공유자산화를 추진하고 법적·제도적·행정적 절차를 연구, 건의함.
-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는 수자원의 편익을 제공받는 하류지역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
- 대청댐에서 하류지역에 제공하는 수자원 중 농업용수 등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국가의 부담을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한강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함.

- 금강수계는 수도권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한강수계와 달리 하류지역의 인구규모, 기업체수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약하므로 한강수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생태산업은 기존의 입지기업을 중심으로 원료, 제조방식, 폐기물의 종류 등을 감안, 업종별 단지화를 계획하고 청정산업은 배출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무방류화(Zero Charge System)를 추진함.
-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법적 규제를 적합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정산업을 유치하되, 예를 들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필요한 약초나 약재를 계약재배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명산업 원료단지를 조성함.
-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있는 팔음산(762.3m), 천금산(764.9m), 금적산(652.0m), 장용산(656.0m) 등 고봉은 자연공원 또는 생태보전지구로 보전, 관리함.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복원하고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녹지훼손을 점검, 복원계획을 수립함.
- 자연공원 또는 생태보전지구내 또는 주변지역에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적 여건과 농업, 임업 및 관광산업을 연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관보전지구를 조성함.
- 옥천읍 오대리 등 금강본류가 굽이치는 수변지역에 군민의 휴식공간이면서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는 뮤직분수, 무지개 분수 등의 인공시설물과 자연환경을 조화로이 배치한 수변공원을 조성함.
- 금강 본류로 이어지는 예곡천, 장련천, 금산천, 계산천 등 주요하천에 대하여 재해방지와 수질 및 경관을 보전하여 지역관광자원과 환경자원으로 관리함.
- 토지이용에 있어서 생태·자연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nalysis) 등을 통하여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하여 제조업 등 산업시설을 입지시킴.
-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의 입주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을 강화함.
- 수질보전이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임을 감안, 공장폐수, 축산오수 등 산업부문에서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재이용 또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 시행함.
- 장기적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의 완전 소각, 부식성폐기물의 퇴비화, 재활용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을 추진하여 최종 매립량을 최소화 함.

-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설치한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PVC 등 물질은 선별, 제외하고 순수한 가연성 물질에 한하여 소각토록 관리·감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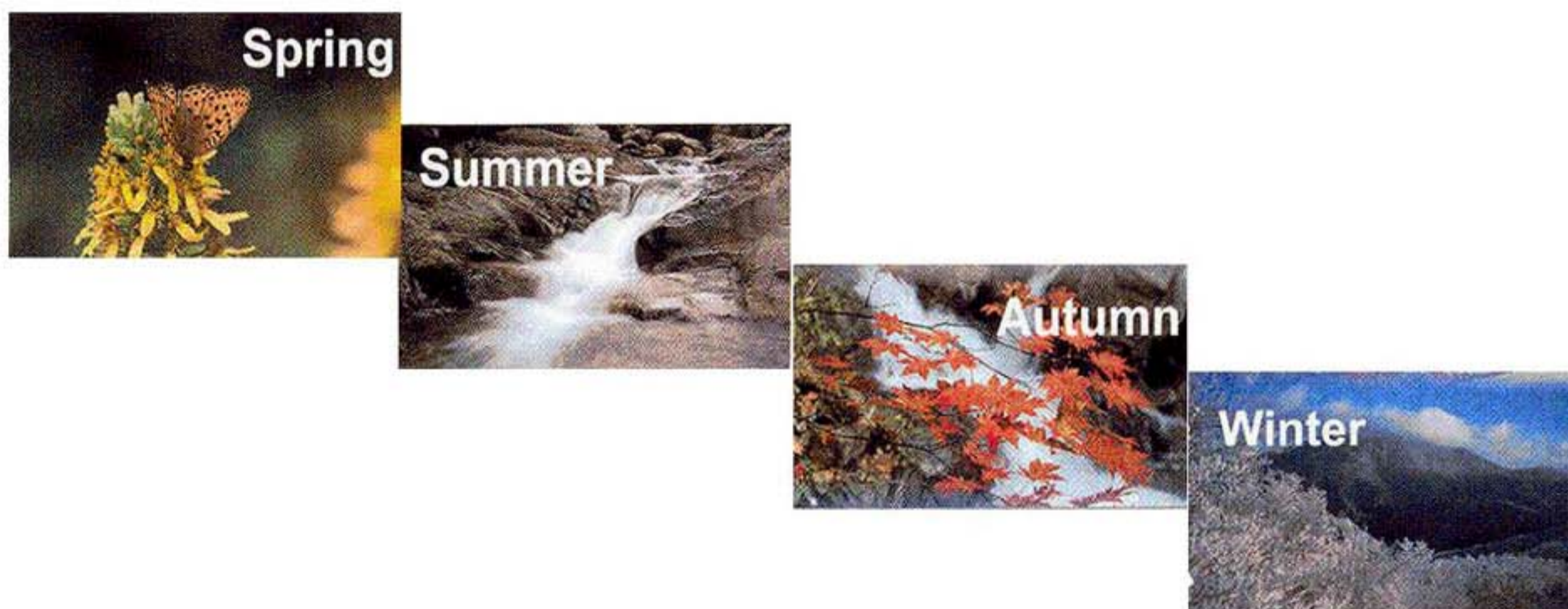
제4절 세부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연구사업 추진

- 옥천군에서는 조건불리지역 농업과 환경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추진하거나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는데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도입, 시행하고 조건불리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보상을 추진하여야 함.
-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직접소득지불형태는 농업생산요소의 이동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지불,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안정지불,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소득지불, 농업부문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과피를 줄이기 위한 직접지불이 있음.
- OECD국가들 중 조건불리지역 농민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EU,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임.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일반적으로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의 두가지 부문에 대하여 직접지불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보조, 투입재에 대한 보조, 경작지에 대한 보조금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일정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직접지불제 형태를 취함.
- ▶ 하류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은 유기농업, 저투입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입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1년부터는 벼농사에도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환경농업시대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정책결정으로 판단되며, 선진국인 EU국가와 스위스, 미국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아시아의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임.
- 정부의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재정여건, 행정비용, 기존 농업정책과의 모순성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 지역 농가는 환경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게 화학비료와 농약을 농촌진흥청이 제시하는 표준사용량 이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작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음.



<후천적 조건불리지역 옥천>

- 옥천군은 전체면적 83.7%의 해당지역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입지 등 제반 토지이용측면에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임.
- 환경적 측면에서 조건불리지역을 보면, 선천적 조건불리지역과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의 두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조건불리지역 농지를 포함하여 자연환경적 여건, 교통 등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이른바,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임.
 - 예를 들면, 충북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대간 및 주변지역과 같이 소백산·월악산·속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단양-옥천-영동간 297km의 내륙순환관광벨트로써 맑은 물, 깨끗한 공기와 같은 국가공공재(National Public Goods)를 공급하는 기능지역이면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
 - ② 수도권과 대전·충남북 지역에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과 관련한 상류지역으로서 옥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말함.
 - 댐의 건설 이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비옥한 토지로 인한 풍요로운 경제여건과 훈훈한 인심, 값진 문화유산 등 살기 좋은 지역이었으나 이후에는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옥천지역은 일조량 부족,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엄격한 법적 규제에 의한 산업입지 곤란, 불편한 내륙의 교통여건, 전통적 고유문화를 상실하는 등 이른바 후천적으로 조건이 불리하게 된 지역임.

【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부문과 수단 】

구 분	지 원 부 문	지 원 수 단
조건불리지역 농업	농업생산물, 투입재, 경작농지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및 하류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유기농업·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선천적 조건불리지역과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대책을 보면 전자는 내셔널미니멈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 후자는 환경악화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법적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 국립공원지역, 산간오지지역 등 직·간접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규제가 가해지는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영농비용의 증가를 보전해주며, 유기농업·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내셔널 미니멈(사회보장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함.

- 옥천지역과 같이 다목적댐 등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제한 등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적 법적 규제, 농업생산량 감소, 재해발생빈도 증가, 환경·물류·사회비용 증가, 고유문화 상실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건의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 환경에 대한 지원부문 및 방법 】

구 분	지 역	지 원 부 문	지원방법
선천적 조건불리지역	국립공원, 산간 오지지역 등 간접 규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공익적 기능 ◦ 영농비용 증가 ◦ 유기농업·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 ◦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보장 	재정지원
후천적 조건불리지역	다목적 댐 등 직접 규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제한 등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규제 ◦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생산량 감소 ◦ 홍수·침수·교통사고 등 재해발생 증가 ◦ 오수처리 의무화 등 환경비용 증가 ◦ 도로연장 확대 등 물류비용 증가·생활불편 ◦ 안개일수 증가로 건강악화 등 사회비용증가 ◦ 생활터전 수몰로 고유문화 상실 	피해보상

주 : 내셔널미니멈(National Minimum)이란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회보장(생존권: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후보장, 공적부조 등), 사회자본(공익권: 도로, 주택, 공원 등 생활관련 도시시설 등), 사회보건(환경권: 공공위생, 식품위생, 공해방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한편 시빌미니멈(Civil Minimum)은 현대도시에 있어서의 시민생활기준임.

- 외부효과가 큰 국가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각종 법적규제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피해를 받고 있는 이른바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는 재정보전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함.
-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및 보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는 기후변화, 법적 규제, 재해·환경비용·물류비용·사회적 비용 증가 등 댐 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문화적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특별교부세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포함하는 환경교부세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생존권 보장적 측면 위에 악화일로에 있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유인한다는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법적 규제, 재해·환경비용·물류비용·사회적 비용 증가 등 댐 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문화적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 추진

- 댐의 상류지역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종 환경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산업 등 법적 규제에 의한 기회비용임.
- 댐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는 경작농경지의 감소,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감소, 수몰로 인한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량 감소,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 전파 및 통신장애, 교통사고의 다발 등 다양함.
-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에는 하류지역의 이수를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전기요금 등 제반 경상적 경비를 포함함.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호소의 수자원은 환경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함.
- 호소수 등 수자원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는 하천 및 호소의 소유는 국유로 하되 저수된 수자원의 소유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안임.
- 공유수면의 관할 자치단체 공유자산화가 실현되면 수자원의 품질에 따른 가격이 결정되는 등 수질을 둘러싼 시장기구로의 내부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보전이 가능해짐.
- 본 사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상설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추진함.
- 본 사업은 수자원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이론정립과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학술연구사업으로 추진하되, 군내에는 사업을 추진을 위한 「특별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이 조직은 다목적 댐이 건설되어 있는 14개 지역(안동, 임하, 소양강, 충주, 합천, 대청, 남강, 주암, 부안, 섬진강, 횡성, 용담, 밀양, 탐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댐 수익환수(收益還收) 및 수리권(水利權) 확보를 위한 전국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실비를 지원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물론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함.

□ 『늘푸른 향수옥천 21』 추진

- 산자수려한 호반의 도시 옥천군의 환경을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반 군정과 긴밀히 연계한 종합적 환경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푸른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어지며 언제나 정겨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늘푸른 향수옥천 21』을 추진함.

『늘푸른 향수옥천 21』 실천사업

<p>대청호</p> <p>애향심갯기 운동 대청호 사랑모임 구성 환경교육장 프로그램 개발</p>	<p>삶의질 향상 실천요령개발 및 실천사례 발표 모임구성, 대청호 및 하천구간별 할당 생태자원조사, 대청호 바로알기 지표설정</p>
<p>수질</p> <p>물 받아서 이용하기 하천돌보기 모임 구성 물관리체계 확립 금강문화행사 추진</p>	<p>절수방법 및 실천사례 발표, 물낭비 감시 하천관련조사, 하천돌보기 사업 선정 관측시설 운영, DB운영 하천문화행사,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 개발</p>
<p>자연생태</p> <p>토종생물 정보전시 녹색담장 만들기 자연생태수변공원 조성</p>	<p>토종생물종을 4계절별로 전시, 평가, 시상 공공기관 녹색담장 교체, 민간시설 도입 유도 수변공간에 오염정화식물 식재, 수변공원조성</p>
<p>폐기물</p> <p>감량화 추진 재활용 확대 청정소각장 운영</p>	<p>감량화방법 개발, 실천사례발표, 시상 재활용방법 개발, 홍보, 처리시스템 구축 유해폐기물 조사, 선진사례 조사 및 홍보</p>
<p>도시계획</p> <p>환경신문고 적극활용 안전한 녹색교통환경 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수변경관 명소화</p>	<p>128 신고전화 이용방법 및 홍보 에너지절약, 불법주차 방지, 자전거이용 확산 현황조사, 모델개발, 농외소득원 확대 물놀이 프로그램 개발, 관광형 수변공간 조성</p>

- 『늘푸른 향수옥천 21』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제28장의 권고에 따라 작성된 옥천군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계획으로서 이 계획에는 대청호, 수질, 자연생태, 폐기물,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실천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 대청호 분야에는 애향심 갯기, 대청호사랑모임 구성, 환경교육장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추진 등의 실천사업이 있음.
- ▶ 수질분야에는 물을 받아서 이용하기, 하천돌보기모임 구성, 물관리체계 확립, 금강 문화행사 추진 등의 사업이 있음.
- ▶ 자연생태분야에는 우리 생물정보 전시, 녹색담장 만들기, 자연생태수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있음.

- ▶ 폐기물 처리분야에는 감량화 추진, 재활용 확대, 청정소각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폐농업폐기물 감량화 등의 사업이 있음.
- ▶ 도시계획분야에는 환경신문고 적극 활용, 환경체험 관광상품 개발, 안전한 녹색교통 환경 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수변경관 명소화 등의 사업이 있음.

□ 경관보전지구 조성

<경관산업의 의의와 경관보전지구>

- 경관산업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잠재적 모든 환경적 여건을 총 동원하여 이를 관광산업 및 농업, 임업부문과 연계·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산업부문임.
 - ▶ 경관산업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로, 주택, 건물 등 인공적 공간과 산, 들, 나무, 꽃 등 자연환경적 여건을 여러가지 개념의 경관적 요소를 산업화하거나 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부문임.
 - ▶ 경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보전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경관산업은 기존의 관광산업과 농업부문 및 자연환경적 제반 요소를 연계, 발전시키는 종합적 개념의 산업부문으로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관광산업과 상이함.
 - ① 경관산업은 기존의 관광산업에서 선호하는 골프장, 스키장, 호텔, 방갈로, 식당, 놀이공간 등 인공적 시설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시멘트, 벽돌, 철구조물, 플라스틱류 등 인공적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친자연적임.
 - ② 경관산업은 자연환경의 기반 위에 농업·임업·관광산업 등 지역과 산업을 연계하는 복합개념의 산업부문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 호기심과 문화적·심미적(審美的)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③ 경관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특산물을 연구, 개발하거나 새로운 영농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술성·문화성·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 경관보전지구는 자연환경이 수려하면서도 일반적 영농경영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관련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산업 부문임.
- 옥천군에서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장용산, 관모봉, 도덕봉, 국사봉 등을 대상으로 관광산업과 환경산업을 연계시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관보전지구를 지정, 관리함.

- ▶ 도로 등 관광객의 접근성은 물론 토질, 경사, 일조량 등 자연여건과 주변 산림의 수종, 입목상태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확 후 용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
- ▶ 자연환경이 수려한 삼림과 계곡, 하천 등 자연여건과 전답 등 농경지를 연계하여 개발지역을 선정하되, 장기계획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함.
- 경관보전지구는 국내외 허브식물, 목화 등 일반작물, 작약 등 약초식물, 매실 등 유용식물을 식재하되, 식물의 특성을 연구, 분석하여 개화시기, 농산물의 출하시기, 꽃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종면적과 식물의 종류를 계획함.

【 경관보전지구에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 】

구 분	식 물 명	특 징
약초식물	작약, 목단, 석류, 치자, 도라지, 생강, 감초 등	약초이용 및 심미적 아름다움
허브식물	장미, 라벤더, 로즈마리, 박하, 야래향, 치자, 라일락, 풍란 등	향기 및 심미적 정취감
유용식물	매실, 앵두, 살구 등	열매 이용 및 꽃의 아름다움
일반작물	목화, 보리, 밀, 토란, 자주감자 등	농작물 채취 및 심미적 정취감

- ▶ 재배된 허브식물과 약초식물 등은 농협, 생산자조합 등과 협의하여 구매하거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제약회사와 직거래루트를 개발함.
- ▶ 관광객의 접근성, 토질, 경사, 일조량 등 자연여건, 수종, 입목상태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식물의 파종, 수확 후 용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식물을 선정함.
- ▶ 식물은 약초식물과 과실 또는 일반작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재배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파종 및 식재계획을 수립함.

<일본 토미다(富田)농원의 사례>

- 경관산업 및 경관보전지구의 사례는 일본 북해도 내륙의 한 농촌지역에서 일본 국내와 외국에까지 지역개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토미다(富田)농원임.
- 토미다 농원은 소라찌군(空知郡) 나카후라노쵸(中富良野町)에 위치하며, 약 25ha의 농장에 라벤더 6ha, 화훼 3ha, 해바라기 0.5ha, 일반 허브식물 0.2ha를 경작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표적 관광농원임.
- 토미다(富田)씨는 1937년 라벤더 씨앗 5kg을 유럽에서 수입하여 파종, 1958년부터는 향료용 라벤더를 재배하였으며, 일본철도회사(JR)에 의하여 전국으로 소개되면서 관광객이 줄을 잇기 시작함.
- 1982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라벤더오일을 생산, 독창적인 후라노 지역 고유의 라벤더향수가 탄생하였고 1990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라벤더 향수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하였으며, 현재는 라벤더향의 화장품, 샴푸, 린스, 향, 차, 아이스크림 등 60여종의 라벤더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음.
- 매년 7월쯤 1달 정도의 축제기간에 농원을 찾은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스런 꽃밭 앞에서 사진을 찍고 향기롭고 싱그러운 각종 꽃의 향기에 취하는데, 2000년도 1년간 토미다농원을 찾은 관광객은 약 110만명, 매일 3천명이 찾아온다는 계산임.
- 토미다씨가 재배하고 있는 라벤더의 종류는 북해도 농업시험장에서 개발한 4종으로 오까무라사끼(丘紫)가 가장 향이 진하고 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미다농원이 자랑하는 이벤트는 동시에 개화하는 여러가지 색깔의 꽃을 1백여 미터의 폭과 3백여 미터의 길이로 조성한 융단식 꽃밭언덕임.

【 일본 토미다(富田) 농장의 융단식 꽃밭 언덕 】



□ 훼손녹지 복원계획

- 훼손녹지의 복원이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옥천군을 통과하는 한남금북정맥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도로 등 개발로 인하여 단절 또는 훼손된 구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임.
- 훼손녹지의 복원사업은 녹지축이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산의 정상 또는 허리부분이 훼손된 지역을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대규모 사업임.
- 복원방식은 작업공간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박스형이나 육교형(Over Bridge)으로 건설하되 안전성, 경제성, 경관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함.
- 훼손녹지 복원사업은 단순한 동식물의 생태서식공간 또는 이동통로를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백두대간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임.

□ 생태이동통로 확보계획

- 산은 동식물의 서식공간이면서 동물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자유로운 서식과 활동을 위하여 생태적 이동통로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 등 녹지공간은 도로, 댐 등 인공적인 구조물의 건설로 인하여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고 있는 실정임.
- 산 등 녹지공간의 옆을 훼손하여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계곡 등 수변생태공간이 단절된 곳은 수로, 터널, 수로용 파이프, 측구 등으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생태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함.
- 생태이동통로 확보사업은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가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교적 소규모의 지하공간 확보사업임.
- 계획구역 내 비교적 높은 산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점 생태이동통로는 대부분 원형관으로 되어 있으며 관경은 100~150cm 정도임.
- 계곡의 상하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물을 임시로 저수하는 저류조 부분을 완경사로 처리하여 동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

□ 생태교육장 조성

- 농업용저수지 또는 하천 주변의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조성하고 어린이 또는 관광객에게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함.
- 생물서식공간에는 버들, 연꽃(수련, 애기수련, 홍련, 가시연꽃 등), 미나리, 부평초 등 오염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성을 확보함.
- 생물서식공간에는 자라, 방개, 미꾸라지 등 물고기와 잠자리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관찰의 대상으로 함.
- 생태교육장의 주변에는 자연을 소재로 하는 관찰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망원경 등 관찰을 위한 과학용 기구를 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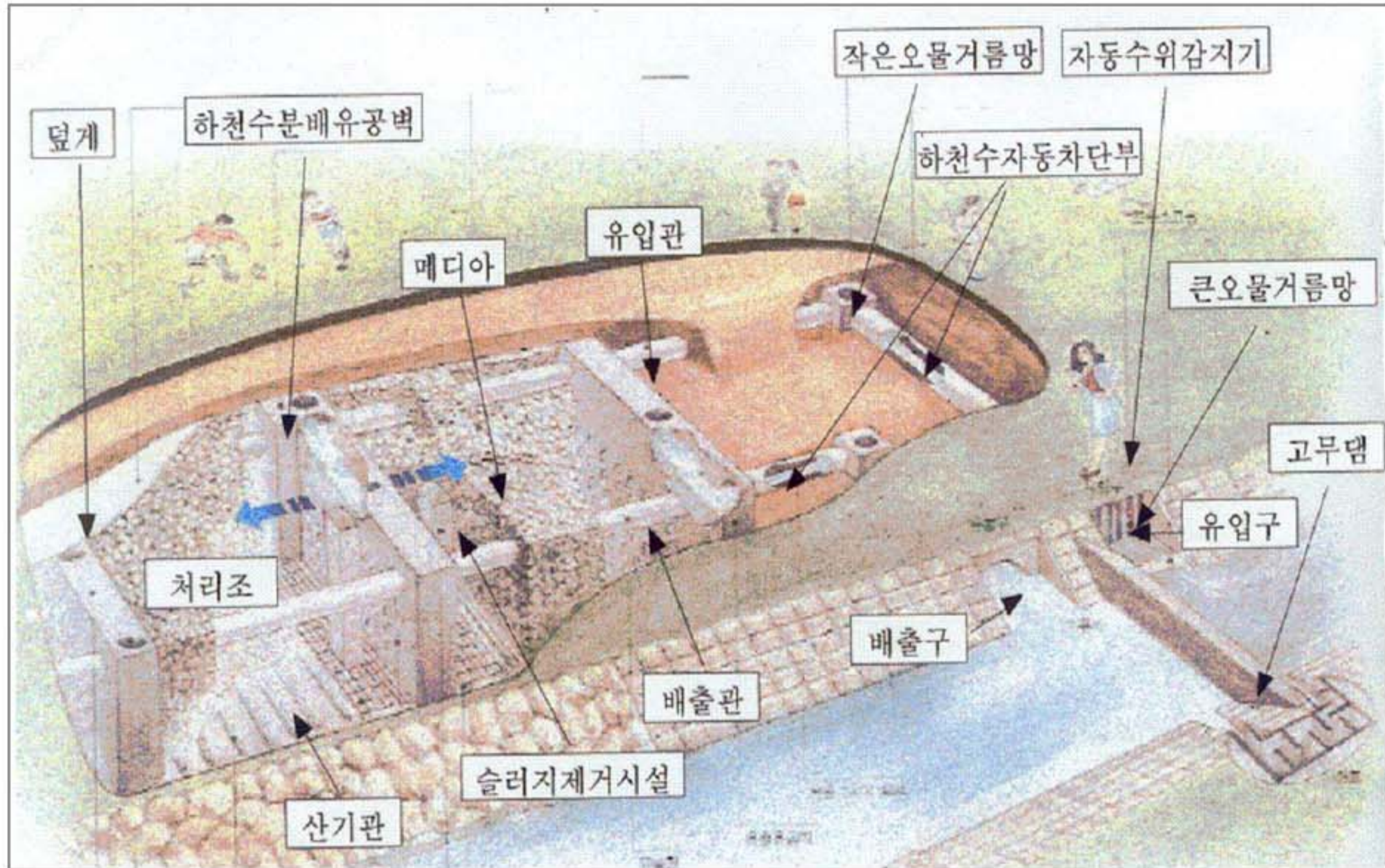
【 오염정화 식물 및 청정수 보호어종 】

구 분	내 용
오염정화 식물	버들(갯버들, 키버들 등), 연꽃, 미나리, 부평초, 부레옥잠 등
토종생물	자라, 방개, 미꾸라지, 붕어, 새우, 잠자리 등
청정수 보호어종	산천어, 가재, 열목어, 버들치, 미유기, 뱀장어, 종타리, 새우 등

□ 하천수질 개선사업

- 옥천군은 대청호의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하천의 수질개선이 지역의 청정이미지 개선, 자연경관 보전 및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임.
- 옥천읍을 흐르는 금구천 등 주변지역에 오염원이 많은 대표적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함께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천수질 개선계획을 수립함.
- 하천의 주변지역, 천변도로나 축산농가 등에서 유입되는 부영양화 영양물질 등 비점오염원의 제거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하천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함.
- 하천 자연정화시설은 하천의 상류에 작은 보(洑)를 건설하고 스크린에 의한 오물거름망을 통하여 자연유입되도록 하며 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수위감지기를 설치함.
- 시설의 내부에서는 유입된 하천수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 반응에 의하여 자연정화되는데 주기적으로 미디어를 교환하거나 축적된 슬러지를 제거하여야 함.

【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시설 개념도 】



자료 : 환경부, 대청호유역 수질보전종합대책(안), 1999. 12.

-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산간 농촌지역에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함.
- 농촌지역에서는 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된 배출수를 최종방류 이전에 경제적이면서도 운영관리가 용이한 식물을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을 통과하도록 계획함.
- 2002년 1월 1일부터 신축건물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오수처리시설의 연차적 보급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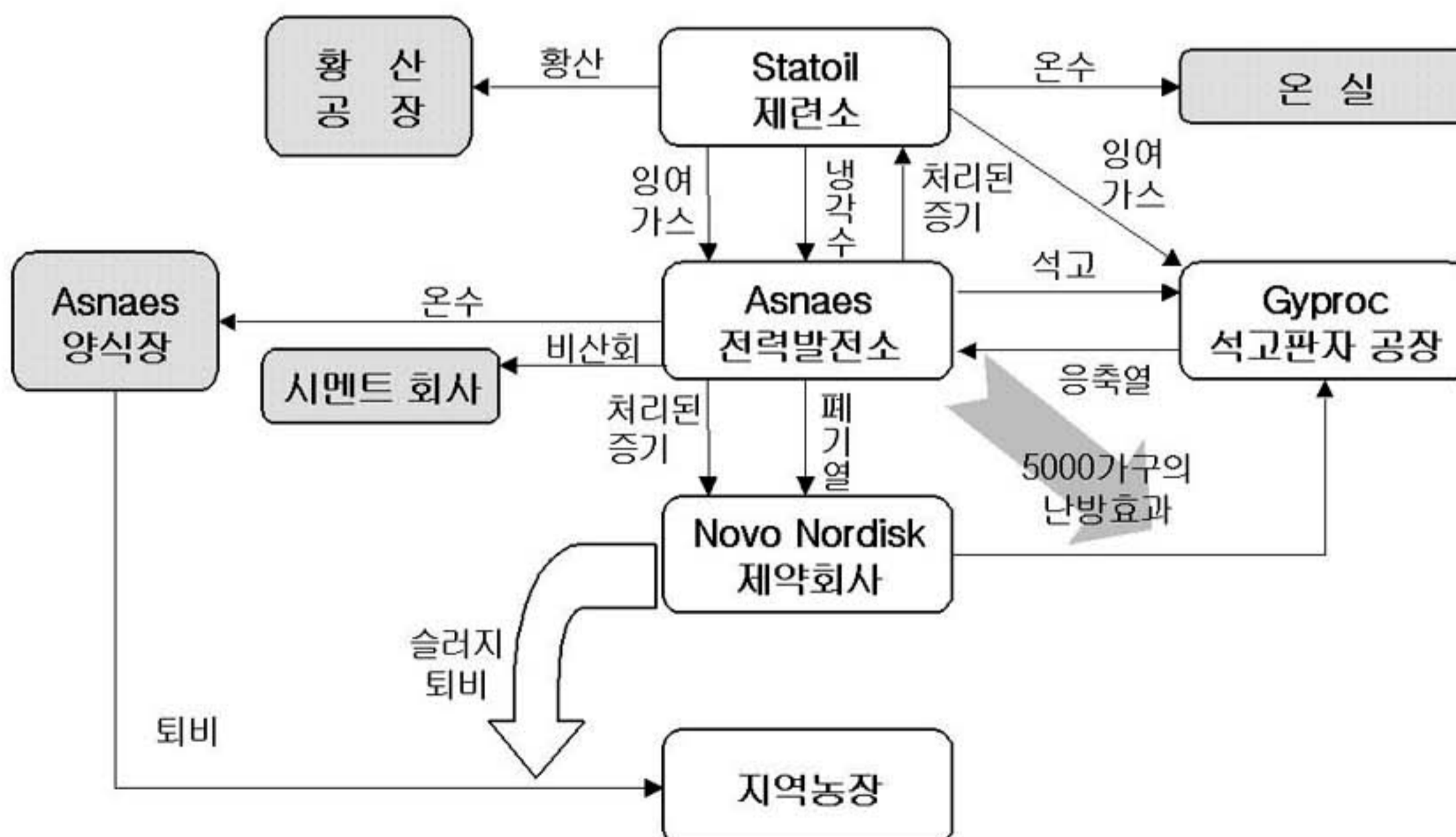
구 분	보급 내 용
1997년 7월 1일 이후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효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을 위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1999년 1월 1일 이후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효거리 4km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등에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2002년 1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모든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

□ 생태산업단지 조성기법 도입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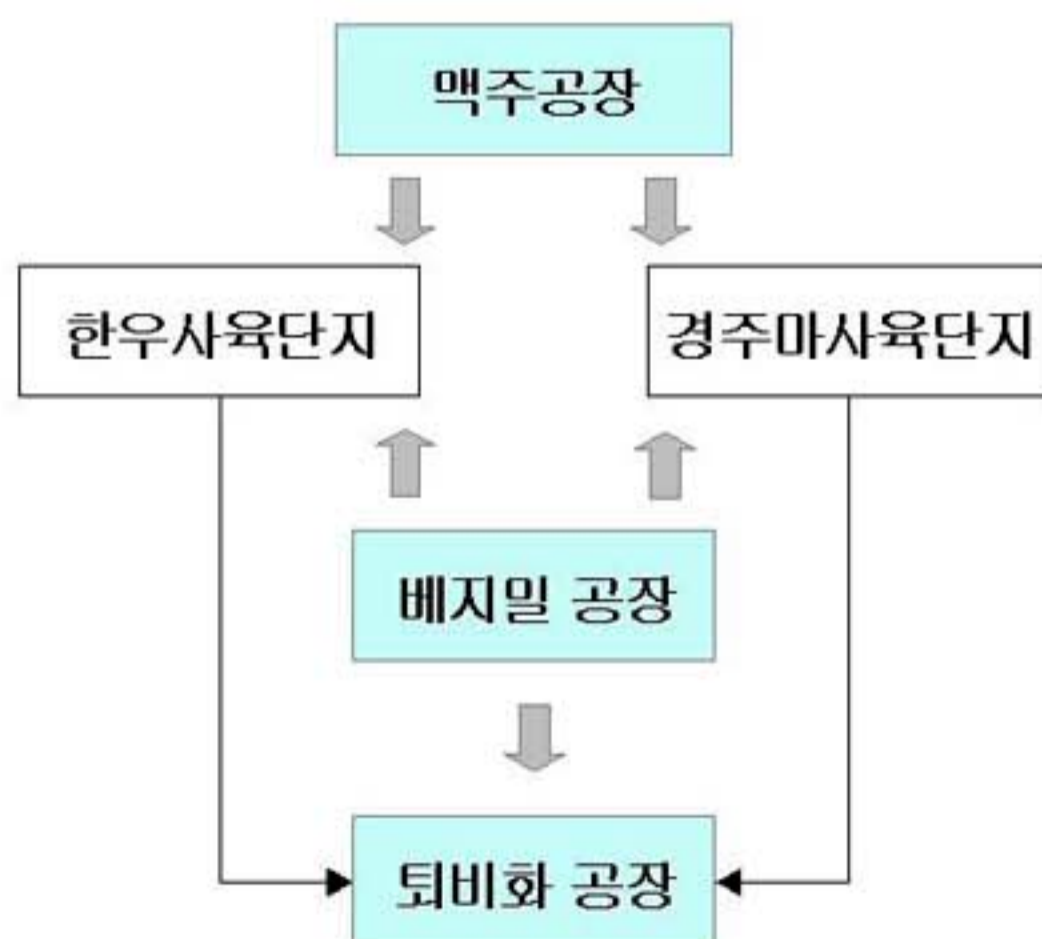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 개념을 도입해 환경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실정이며, 산업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꾀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음.
- 산업생태학이란 생태학의 원리를 산업활동에 적용, 공생적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분야로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산업활동을 생활시스템으로 통합·연계시킴으로써 종합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산업공생이란 자연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모방한 생산관계를 형성하여 기업 상호간 경제적 상호이익을 거두면서 동시에 환경개선효과를 달성하는 관계를 말하며, 산업공생이 이루어지면 한 공정 혹은 한 기업의 폐기물은 다른 기업이나 공정의 원료로 이용되는 통합된 산업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음.
- 산업생태학에 기초한 생태산업단지의 최초 사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동쪽으로 약 120km정도 떨어진 칼룬트버그라는 작은 해안가 마을의 산업주체간 공생에서 출발하였는데,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산업단지는 산업공생의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미 각국의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함.
- 칼룬트버그의 공생과정을 요약하면, 우선 Statoil 제련소는 배출하는 유황부산물을 황산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는 농업용 온실로 공급되며, Asnaes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스팀은 Novo Nordisk 제약회사에 의해 이용되고, 제약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양식어민과 농민에게 비료로 제공되고 있음.

【 칼룬트버그의 기업간 생태적 공생관계 】



- 생태산업단지는 산업공생 관계를 유지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가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킴.
- 이것은 지속가능한 산업을 지향함으로써 질 높은 친환경적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생태계를 보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
- 청정지역인 옥천군에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될 생태산업단지 조성기법을 도입하여 생태지향적 토지이용 및 산업입지정책을 추진함.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의 생태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을 정도의 단지규모가 설정되어야 함.
- 산업공생을 위한 유치업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산업단지내 기업들의 폐기물 발생 및 재이용을 고려하여 업종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 예를 들면, 청정지역에서 풍부한 깨끗한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맥주공장과 베지밀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맥주의 원료로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호프 찌꺼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한우단지나 경주마 사육단지를 주변지역에 조성함.
 -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맥주공장과 베지밀 공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식성 폐기물과 함께 퇴비화공장에서 퇴비를 생산, 주변의 농가에 비료로 공급함으로써 고소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임.
 - ▶ 이들 맥주공장이나 베지밀 공장은 깨끗한 물이나 콩 등 원료를 구매하기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고 축산단지나 퇴비화단지는 근거리에 조성 또는 입지시켜야 부식성 폐기물 등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조성가능한 생태산업단지의 사례 】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설치

- 옥천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군북면 추소리의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함.
-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20~30%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퇴비화사업을 추진함.
- 공공처리시설의 위치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위생매립하고 있는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에 조성하되, 2001년 말 현재 옥천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톤 규모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1일 10톤(8시간 가동기준) 규모로 설치함.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 】

사업명	설치장소	사업기간	처리용량	처리방법	사업비(억원)		
					국비	도비	군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처리시설	군북면 추소리	2003.1 ~ 2004.6	10톤/일	호기성 퇴비화	20		
					6	6	8

주 : 처리용량은 1일 8시간 가동기준임.

□ 수질총량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사업

-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청호권역인 옥천군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행정구역별로 추계하여 허용오염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함.
- ▶ 대청호 권역의 시·군·구는 2004년, 기타 권역의 군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
-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별·오염지표별·지역별·수질오염물질의 양(오염부하량)을 장기적으로 추계하여 그 저감대책을 수립함.
- 오염원별 분석에서는 공장, 주택, 축산농가 등 오염원과 토양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 → 처리 → 방류되는 오염부하량을 지역별로 추계함.
- 오염지표별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인 BOD, COD, T-N, T-P로 구분하여 오염부하량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별로 발생량과 방류량을 추계함.

제12장 건강옥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현황과 특징

(1) 상수도

- 1999년 현재 옥천군의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먼저 급수인구는 1개읍 8개면의 총 인구 62,072인 중 32,565인으로 급수율은 52.5%로 전국평균 86.1%는 물론 충청북도 70.1%와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 1일 급수량은 343ℓ로 충북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평균 388ℓ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상수도 현황 】

구 분	전 국	충 북	옥 천 군
총인구(인)	47,543,000	1,497,494	62,072
급수인구(인)	40,948,000	1,050,000	32,565
시설용량(톤/일)	26,590	542,520	21,000
1인1일급수량(ℓ/인·일)	388	346	343
급수량(톤/일)	15,886	363,315	11,186
보급률(%)	86.1	70.1	52.5

자료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전국통계연감, 2000. 옥천군, 통계연보, 2000.
<http://www.nso.go.kr>

- 옥천군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읍지역의 상수도보급율은 86.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보급지역을 제외한 3개 면지역은 개별 지하수를 이용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면지역도 미미한 실정으로 상수도의 보급을 제고가 시급한 실정임.

【 읍·면별 상수도현황 】

구 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인1일급 수량(ℓ)	급수전수
옥 천	31,051	26,726	86.1	-	9,117	341	4,747
동 이	4,226	1,410	33.4	-	488	346	376
안 남	2,081	-	-	-	-	-	-
안 내	2,802	-	-	-	-	-	-
청 성	3,653	-	-	-	-	-	-
청 산	5,079	1,703	33.5	-	476	279	436
이 원	6,473	2,040	31.5	-	675	330	528
군 서	3,167	307	9.7	-	334	-	2
군 북	3,540	379	10.7	-	96	253	101
계	62,072	32,565	52.5	21,000	11,186	343	6,19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1.

- 옥천군내 농촌지역 주민의 47.5%인 29,507명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우물 및 샘 등에 의존하고 있고 생활용수 공급원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168개소로 시설의 대부분은 60-7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설치되어 대부분 노화되고, 관리소홀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옥천군민의 26.2%에 해당하는 16,267명이 우물 샘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

구 분	인 구(명)				간이 상수도(개소)			
	계	간이	소규모	우물샘등	계	간이	소규모	우물샘등
총 북	426,402	110,837	73,151	242,414	2,215	722	1,493	-
옥 천	29,507	6,800	6,440	16,267	168	44	124	-

자료 : 충청북도, 충북환경백서, 2000.

- 1999년 현재 상수도시설현황을 보면 옥천광역상수도과 청산상수도에서 하루 21,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실제 급수량은 시설용량의 약 53%에 해당하는 11,186톤이 공급됨.

【 상수도시설현황 】

구 분	시설규모	급수지역	위 치
옥천광역상수도	20,000톤/일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710번지
청산상수도	1,000톤/일	청산면	청산면 교평리 291-2번지

자료 : <http://gun.okchon.chungbuk.kr/>

(2) 하수도

- 1999년 현재 옥천군의 공동하수처리현황을 보면 총인구 62,072명 중 32,088명으로 나타나 51.9%의 하수도보급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청북도의 하수도보급율 61.4%보다 9.5% 낮은 수준임.

【 하수도보급률 】

구 분	총인구(인)	공동하수처리(인)			보급률(%)
		계	물리적(1차)	생물학적(2차)	
충 북	1,497,494	920,171	-	920,171	61.4
옥천군	62,072	32,088	-	32,088	51.9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1.

- 옥천군의 하수도보급현황을 살펴보면 32,088명의 하수처리인구를 모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충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생활하수는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하수도보급현황 】

구 분	총인구(인)	하수처리인구(인)			보급율(%)
		계	하수종말처리	마을하수처리	
충 북	1,497,494	920,171	918,479	120	61.4
옥천군	62,072	32,088	32,088	-	51.7

자료 : 충북환경백서, 충청북도, 2000, 232쪽 재작성

(3)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노인·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 등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9년 현재 15세이하 5.7%, 65세이상 13.3%, 장애인 3.0%,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생계 및 주거급여대상자 2,728명으로 4.4%를 차지함.
- 1999년 현재 옥천군은 전체인구 62,072명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8,285명으로 전체의 13.3%이고, 노령자의 15.4%에 해당하는 1,354명이 독거노인으로 노령자와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 노령자를 위한 시설로는 경로당이 205개소로 이중 옥천읍 48개소, 동이면 19개소, 안남면 13개소 등임.
 - ▶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지역노인봉사대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여가시설지원, 밑반찬배달사업, 경로우대할인점을 들 수 있음.

【 노인인구현황 】

(단위 : 명)

구분	65세 이상 노인 수			주 거 형 태 별									100세이상 노인 수		
				일반가정			독거노인			시설보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804	3,602	5,202	7,422	3,171	4,251	1,354	421	933	28	10	18	2	-	2

자료 : 옥천군 사회복지과 자료, 2001.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으로 전체수급자는 1,429가구에 2,728명으로, 책정기준은 1인 월소득 33만원 이하로 가구의 재산이 31백만원~38백만원이하로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61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나누어짐.
 - ▶ 1999년 현재 옥천군의 경우 생계 및 주거급여가 2,728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비는 3,622백만원으로 이중 국비로 76.1%의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
 - ▶ 기타 교육급여는 220명, 장제급여 60명, 해산급여 20명을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지원 별	지원 기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4종		3,810 (100.0)	3,041 (80.0)	380 (10.0)	380 (10.0)
생계 및 주거급여	소득,가구원수 -차등지급	2,728명	3,622	2,899	361	362
교육급여	입학,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50천원/년	220명	145	16	15	14
해산급여	1인 18천원(추가9천원)	20명	4	2	1	1
장제급여	근로능력무 500천원 근로능력유 200천원	60명	30	24	3	3

자료 : 옥천군,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1.

-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시설보호 등 1종 대상자와 2종대상자 2,023가구에 3,386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2종 수급권자들이 입원진료시 전체 진료비의 20%를 용자해주는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가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국민기초 수급자	시설보호	국 가 유공자	월 남 귀순자	인 간 문화재	광 주 민주화	이재자	의사상자	
가 구	2,023	1,046	539	44	-	-	-	-	-	394
인 원	3,386	1,631	539	132	-	-	-	-	-	1,084

자료 : 옥천군,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1.

- 1999년 현재 옥천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전체인구 중 3.0%에 해당하는 1,851인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이 가장 큰 비중인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신지체, 청각언어 순으로 나타남.
- ▶ 특히,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약 2배이상 높게 나타나 남성의 장애 비중이 더 높음을 알수 있음.

【 등록장애인 현황 】

(단위 : 명)

등급 \ 유형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정 신 지 체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851	1,077	42	142	190	317	46	31	6
남	1,268	780	23	97	121	195	29	19	4
여	583	297	19	45	69	122	17	12	2

자료 : 옥천군,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옥천군의 사회복지시설은 1999년 현재 총 4개시설에 정원 805명중 71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고, 종사자 정원 81명중 현재 종사자는 73명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를 위한 혜택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차 LPG연료사용허용,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화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할인, PC통신요금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구 분	수 용 자(명)				종 사 자(명)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계	남	여		
계	805	716	413	303	81	73
영 생 원 (정신질환시설)	300	272	64	108	20	21
부 활 원	180	175	101	74	14	17
청 산 원 (장애인시설)	220	208	114	94	34	26
영실애육원 (아동복지시설)	105	61	34	27	13	9

자료 : 옥천군, 사회복지과 자료, 2001.

-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문화공간과 사회교육시설로서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 옥천군에는 새마을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옥천군여성단체협의회 630명의 회원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가 있음.

(4) 보건의료

- 옥천군의 의료시설은 1999년 현재 총 38개소로 대부분이 옥천읍에 편중되어 있어 기타 면지역에서 의료시설 이용이 매우 불편함.
- ▶ 청산에 의원 2개소와 한의원1개소, 이원에 의원1개소와 각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각각 1개소씩 입지함.

【 의료기관현황 】

(단위 : 개소)

계	병 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소	병상수							
38	1	115	23	7	7	-	1	8	21
(4)	(-)	(-)	(3)	(-)	(1)	-	(-)	(8)	(18)

주 : ()는 면지역을 나타냄.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의료인 분포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의사 35명,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7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48명과 68명, 약사가 1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의료시설 당 인구는 1,633인, 병상1개당 280인, 의사1인당 1,267인으로 나타남.

【 의료인 분포현황 】

(단위 : 명)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 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계
35	7	7	-	116	1	62	228

주 : 1. 의사-의료종사자포함, 2. 약사-개인약국의 약사는 미포함.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수혜자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쳐 46,797명으로 옥천군민의 75.4%에 해당함.

【 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 】

(단위 : 명)

합 계		직장의료보험		지역조합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	피부양자	피보험자	피부양자	피보험자	피부양자	피보험자	피부양자
14,486	32,311	3,235	6,856	9,537	20,738	1,714	4,717

자료 : <http://gun.okchon.chungbuk.kr/>

2. 전반적인 추세와 향후전망

(1) 전반적인 추세

□ 고령화시대의 실버인프라 구축

-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해 온 40-50대가 그동안 축적한 막강한 경제력으로 중장기 계획년도인 10-20년 후 소비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버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것이 예측됨.
- 노인복지 및 의료관련 실버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실버주택건설업, 노인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업, 관광여행업, 노후설계와 자산관리업, 인생상담업, 노인창업가이드업 등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가치관과 다원사회 수용시스템 구축

- 획일적인 기준과 단일목표를 지향하던 종래의 사회구조에서 각 세대와 개인의 개성과 특성들이 표출되는 다원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이들의 욕구를 지역발전의 추진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의 감소

- 소득수준 향상과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등에 따라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의 확충과 질적수준 제고가 과제임.

□ 환경에 대한 의식의 증대

-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촌마을이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와 물의 자급자족, 폐기물 순환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여성복지서비스체계 확립

-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기회 제공과 이를 위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21세기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개발로 지역자원으로서의 여건과 풍토를 조성함.
- 전통적 남성우월주의 및 성차별적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제도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과 전담행정조직을 정비함과 동시에 소외계층과 모자가정의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도 갖추어 줌.
- 이외에도 사회보장 수혜와 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확보, 건강증진과 재활에 이르는 일괄의료체계 구축, 인생의 각 단계에 부응하는 주택교체의 원활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이 과제임.

(2) 향후전망

□ 상수도

- 상수보급율은 2005년에 충북 상수도보급율 수준인 약 67.5%로, 2010년에는 전국 상수도보급율 수준인 82.5%, 2015년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군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사용의 증가로 1인 1일 급수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각 목표연도별로 2ℓ 증가하는 것을 산정하여 계획함.

【 생활용수 수요전망 】

구 분	1999	2005	2010	2015	2020
인 구(인)	62,072	60,500	59,800	60,200	62,000
급수인구(인)	32,565	40,838	49,335	58,695	62,000
급수량(㎥/일)	11,186	14,089	17,119	20,485	21,762
1인1일급수량(ℓ)	343	345	347	349	351
보급율(%)	52.5	67.5	82.5	97.5	100

□ 하수도

- 하수도보급율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의 증가를 과거추세연장법으로 추정하고 이를 하수도보급률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 목표년도별로 약 15%의 상승한 수치를 계획지표로 계획함.

【 하수도부문지표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하수도보급률(%)	52.4	66.9	81.9	96.9	100.0

- 오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오상수도 용수수요전망에서 추계된 계획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 생활용수 오수량은 간이상수도 급수량을 제외한 상수도 보급지역의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수관으로의 지하수유입을 고려하여 오수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하수량을 오수량에 가산하여 계획오수량을 산정함.
- ▶ 2020년 옥천군 상수도급수지역에서는 총오수량 20,021.0(m³/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999년 오수량의 두배에 해당하는 양이며, 생활하수의 경우는 1인1일 급수량의 약 80%인 17,409.6(m³/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지하수유입은 현재의 약 2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목표년도 오수량산정 】

구 분	1999	2005	2010	2015	2020	비 고
용수량 (m ³ /일)	11,186	14,089	17,119	20,485	21,762	
생활하수 (m ³ /일)	8,948.8	11,271.2	13,695.2	16,388.0	17,409.6	1인1일 급수량의 80%
지하수유입 (m ³ /일)	1,342.3	1,690.7	2,054.3	2,458.2	2,611.4	하수량의 10%
총오수량 (m ³ /일)	10,291.1	12,961.9	15,749.5	18,846.2	20,021.0	

주 : 상수도 공급지역 용수량 기준으로 산정

□ 사회복지

- 1999년 현재 옥천군의 4개의 사회복지시설(청산원, 부활원, 영생원, 영실애육원)이 있으나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자 1,851명중 정신질환 시설인 영생원과 장애인시설인 청산원에 의해 일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복지시설의 건립이 필요함.
- 인구수가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등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자수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

- 옥천군의 의료시설계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계획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계획지표에 의한 목표년도 의사수는 74인, 치과의사수는 18인, 소요병상수는 372개로 추정되며, 의사 1인당 인구수를 837인으로, 병상당인구수를 166인으로 제고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 의료시설계획 】

구 분	단 위	1999	2005	2010	2015	2020
의 사 수	인/만인	5.6	7.2	8.8	9.4	12.0
치과의사	인/십만인	11.3	16.0	20.6	25.2	30.0
병 상 수	상/천인	3.6	4.2	4.8	5.6	6.0
보 건 소	개소	1	1	1	1	1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상수도

- 충청북도 차원에서 앞으로의 급수수요와 시설소요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추진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함(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1999-2007).
- ▶ 도시화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수원이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어 상수도환경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 옥천군과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도건설계획은 남부권계획으로 2001-2006년까지 사업비 1,012억원을 들여 하루 8만톤을 생산하여 옥천, 보은, 영동과 금산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아주 열악한 옥천군의 상수도보급율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개선과 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광역상수도 건설계획 】

사업명	시설용량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급수지역
남부권	80(천톤/일)	2001-2006	1,012	보은, 옥천, 영동, 금산

- 현재까지는 생산원가의 42.2%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책정으로 값싸고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였으나 이는 공급자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자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 투자재원의 부족과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시설확충의 지연과 시설의 노후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와 투자는 물론 상급지자체와의 협력 등이 필요함.
- ▶ 배수관 확장, 노후관 개량, 노후계량기의 교체로 누수 방지(2000년도 유수율 77.9%) 및 상수도 보급률의 향상
- 2000년 현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42.2%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물론 물소비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책으로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함.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더불어 누수방지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상수도사업소의 경영합리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며,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함.

【 상수도요금현황('99년 결산기준) 】

(단위 : 백만원)

생산원가	급수수익	손실액	현실화율(%)	인상요인(%)
2,865	1,208	1,657	42.2	137.7

자료 : 옥천군, 상수도사업소.

2. 하수도

- 현재 추진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특별대책과 금강수계대청호상수원보호 종합대책 등에 의거 수혜지역의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향후 하수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비지원 등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 ▶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는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민간위탁운영관리를 계획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분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보완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
 - ▶ 현재 옥천, 동이, 안남, 안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이원의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민간위탁운영하는 계획중에 있음.
- 하수관거정비
 - ▶ 하수관거는 침수방지,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개거식합류관거로 비위생적이며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 옥천군의 하수관거는 총연장 76,398m이며, 합류식으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점차 분류식하수관거로 전환하여 확대설치하여야 할 실정임.
 - ▶ 옥천군하수도재정비계획에 의하면 1개읍 8개면의 총9개의 행정구역에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하수처리방식은 우수를 원활하게 배수시켜 침수 및 재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분뇨처리방식이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생활양식이 변화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가 수질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합류식하수관거에서 분류식하수관거로 전환함.
 - ▶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의 공기가 소요되고, 완공된 뒤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운영관리비가 필요함.
-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면지역이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마을로서 하수처리시설까지의 하수관로매설의 어려움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정화시설의 보급함.

3. 사회복지

- 옥천군내 장애인은 총 1,851명으로 정신질환 및 정인지체자의 생활안정 보호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원의 확충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센터의 건립이 요구됨.
- 장애인의 의료·훈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자칫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재활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재 농촌지역의 장애인들은 그런 시설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4. 보건의료

- 옥천군은 의료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의료시설 당 인구를 포함한 시설수준이 낮은 요인은 의료기관의 농어촌 배치에 따른 근무기피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 의료시설의 농촌지역 입지에 따른 제반혜택을 고려한 계획이 요망됨.

제3절 육성방안

1. 기본방향

(1) 상수도

- 기존 상수도 공급지역은 급수시설을 확충시키며,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의 확대 보급을 유도하고,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 단위의 간이상수도를 확대 보급토록 하며, 각 마을 및 부락단위로 수원 및 정수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함.
- 간이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은 이용수원의 오염방지와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되 자연적인 특성 및 현재 급수이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개발함.

-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개발이 불가능한 오지지역은 자가펌프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수돗물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누수관을 교체함.

(2) 하수도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오수와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체계를 확립하여 단계적 시설확충으로 하수도 보급을 향상시킴.
-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지역은 자연배수식으로 유도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계배수를 검토하여 계획함.
- 하수배수방식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방류수역의 수질문제를 고려하고 지형 및 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하수배송방식을 채택함.
- 농촌취락지역 및 축산단지의 오수는 정화시설의 설치로 지하수 및 농경지,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공업용수는 자체처리시설을 의무화하여 자체적으로 정화한 후 방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기함.

(3) 사회복지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비하여 육아시설은 기능을 보강하고 보육시설은 민간부문과 직장단위 참여를 유도하며, 여성회관 등 여성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여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취미·여가활동 등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노인연령층 증대와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에 각 마을단위의 노인회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 노인정,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뒹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편안한 위락공간을 조성해 줌(기존 농가주택 활용).
-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단순생계 유지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무료강습 등을 실시하며, 취업대책을 마련함.

(4) 보건의료

- 옥천군의 진료체계는 옥천읍을 중진료권(2차 의료기관)의 중심으로 하고 기타 면지역을 소진료권으로 하여 각각의 기능과 특징에 부합되는 의료시설을 배치하며, 면단위로 자체 진료권을 형성하여 주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의료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는 옥천군의 의료시설 부족량과 잠재수요량을 도출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무의촌 및 의료취약지대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 및 재정지원을 강화함.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1차 보건·진료기관 강화를 위해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보강,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기능강화, 기본의료시설의 완비, 이동진료소 등을 활용한 정기적으로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의료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함.

2. 육성방안

(1) 상수도

- 수도요금의 인상은 주민부담으로 작용하나 이로 인한 물절약으로 주민부담을 상쇄할 수 있고 또한 중수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도요금을 2004년까지 현실화함.
-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개량사업, 취·정수시설개량,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며, 우수율제고를 위해서 배수관, 계량기교체, 탐사 등을 실시함.
- 취·정수시설, 송·배수관확장, 배수지의 시설확장사업의 실시로 상수보급율의 향상시키고, 공업용수 신증설을 위하여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확장사업을 실시하며, 물아껴쓰기운동을 추진함.

(2) 하수도

하수처리장건설계획

- 생활하수는 무처리 방류시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인 옥천군의 직접적인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상수원인 대청호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하수처리장은 초기건설비가 막대하고 유지관리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이 되므로 상급자치단체와의 지원요청 등 장기적인 건설계획을 세우고, 옥천군 자체적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저비용의 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움.
- 하수도시설의 계획연장에 대한 시설연장비율은 하수관거 보급지역에 대해서 목표년도까지 100%로 시설완비하며, 배수계획구역내 배출하수량은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함.
- 옥천읍에 있는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우수관으로 이용하고 연차적으로 우수관망을 신설하여 분류식 하수관망체제를 구축하고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 등에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원칙으로 하며, 농공단지, 공업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별도의 자체처리장 계획을 수립함.

(3)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전달체계확립을 위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육구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함.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보호필요대상자 관리,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자활역량 제고기반 조성, 자활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사회복지시설계획 등을 마련함.
-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아동 안전보호대책 마련, 건전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비행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함.
- 여성복지정책으로는 모자가정의 현황파악 및 보호, 농촌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복지회관 및 여성시설의 시설확충과 여성 자원봉사를 실시함.

(4) 보건의료

- 단위사업으로 ‘평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365 건강생활실천’ 활동 전개, 모자보건사업 강화,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적 종합대책 수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사업 확충, 건강관리정보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확대개선,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함.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상수도

-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각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20%, 30%, 40%, 47.2%를 인상하며, 이 계획에 대한 현실화율은 2002년에는 약 63%, 2004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이로 인한 급수수익도 2004년에는 2,86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짐.

【 상수도요금인상 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 상 율		20%	30%	40%	47.2%
급수수익	인상예상액	242	362	483	570
	급수수익	1,450	1,812	2,295	2,865
현실화율		50.6%	63.2%	8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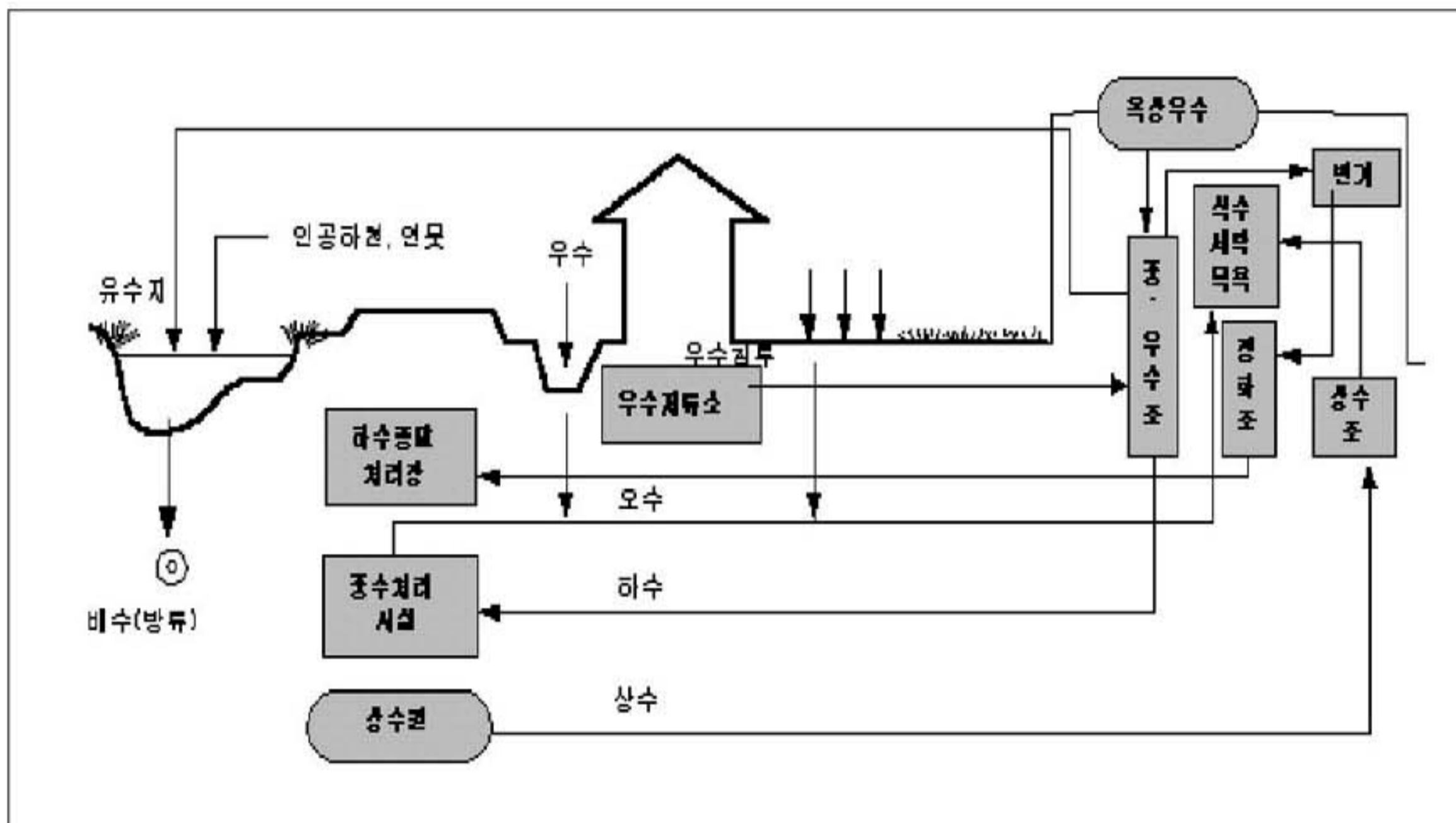
- 맑은물 공급사업(노후관개량사업, 취·정수시설개량, 수질검사), 우수율 제고(배수관, 계량기교체, 탐사), 시설확장사업(취·정수시설, 송·배수관확장, 배수지), 공업용수 신증설사업(취·정수시설, 송·배수관확장) 등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함.
- 물소비억제를 위한 계몽활동 전개
 - ▶ 그 동안 추진하던 댐 및 상수도 건설과 같은 공급위주의 정책이 이제는 수자원개발의 적지감소,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물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 공급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물 수요자체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 홍보물의 배포, 캠페인, 공공건물과 가구에 절수기 무료 설치

2. 하수도

□ 중수 및 우수의 이용을 통한 절수방안 제시

-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향과 하수종말처리장신축과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등의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하수처리시설 자체를 환경친화적 시설로 전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바꿈.
- 생활용수를 재처리한 중수나 우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절수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수질오염의 방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임.

【 중수 및 우수이용 시스템 구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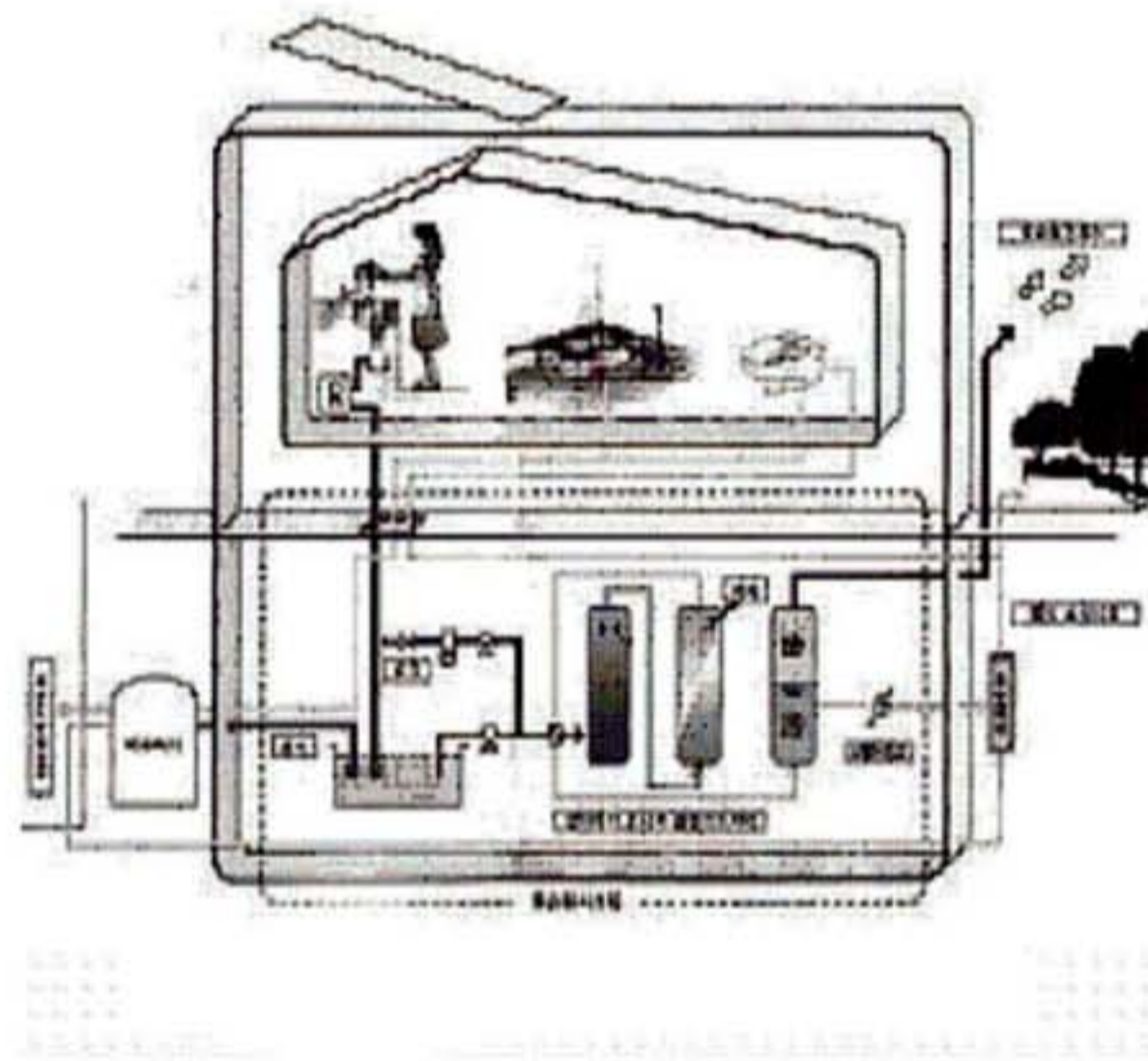
-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저렴한 상황에서 중수와 우수의 이용은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들고 사후 유지관리 비용의 입주자 부담으로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수도요금이 현실화되고 물 부족이 심화될 2005년과 2010년 중장기에는 적용이 가능함.
- 단독주택 단위에서의 중수이용은 건설비용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일 때 실효성이 있고 실개천의 수경요소와 연계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주택신축시 잡용수 공급시스템을 계획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규모나 읍과 면지역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빗물이용, 중수이용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양쪽을 조합시켜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함.

- 우수와 중수는 수자원의 유효이용, 강우시 하수도나 처리시설의 부담 경감, 도시형 홍수의 방지, 주택단지의 공원 및 광장의 살수, 인공개울 등에 대한 조경용이나 녹지의 살수용으로 활용하여 윤택한 주택환경 연출과 도시기후의 완화에도 기여함.

<중수사용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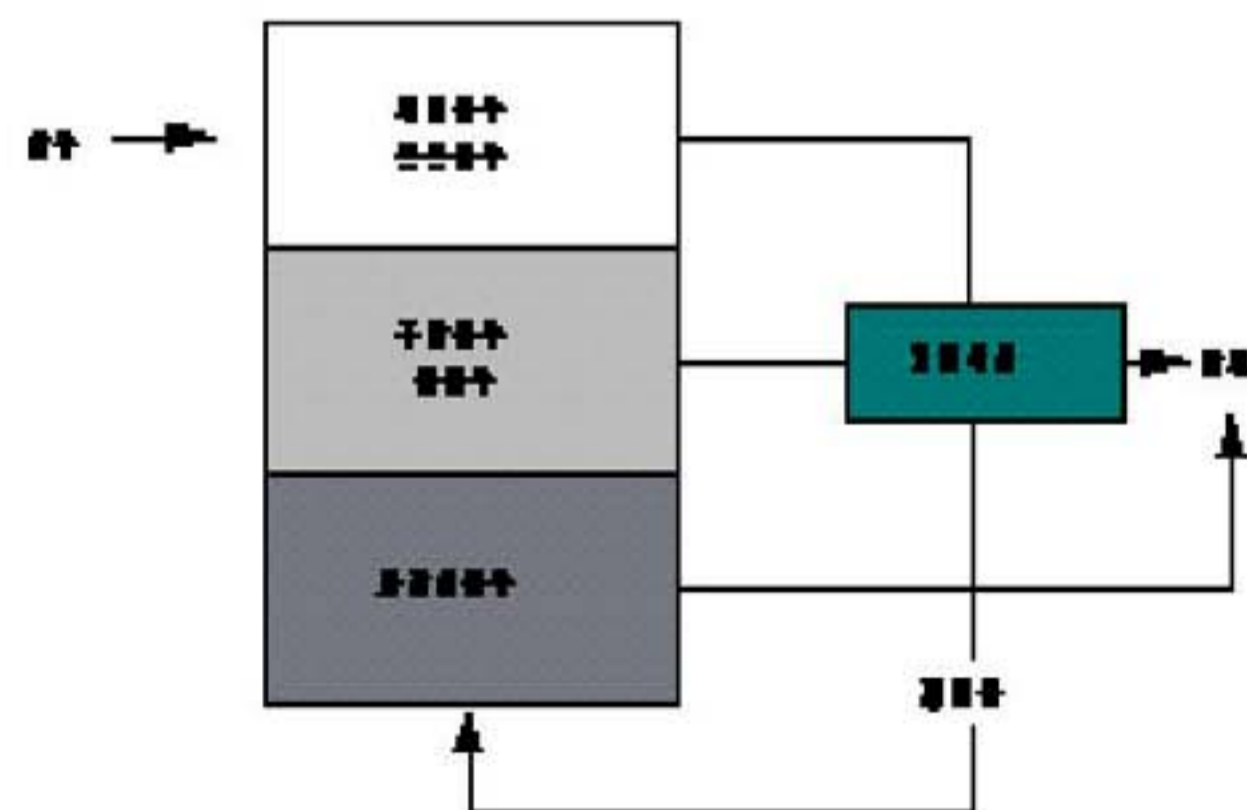
① NEXT 21(오사카)

촉매를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인 아쿠어 루프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에서 발생한 오수를 단지 내에서 재처리하여 화장실 용수나 식재용 용수로 사용함.



② 산본 주공5단지

생물처리형식으로 중수처리에 사용되는 원수는 각 세대의 화장실(욕실)에서 배수되는 세면수, 욕조수 및 욕실청소용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처리된 중수는 세대내 양변기 세정수로 사용함.



<우수 사용사례>

- ① 샤프퀵 주거단지(독일 튜빙엔) / 2층 지붕면에서 우수를 측벽 홈통으로 집수하여 주거단지내 실개천을 통해 연못에 우수를 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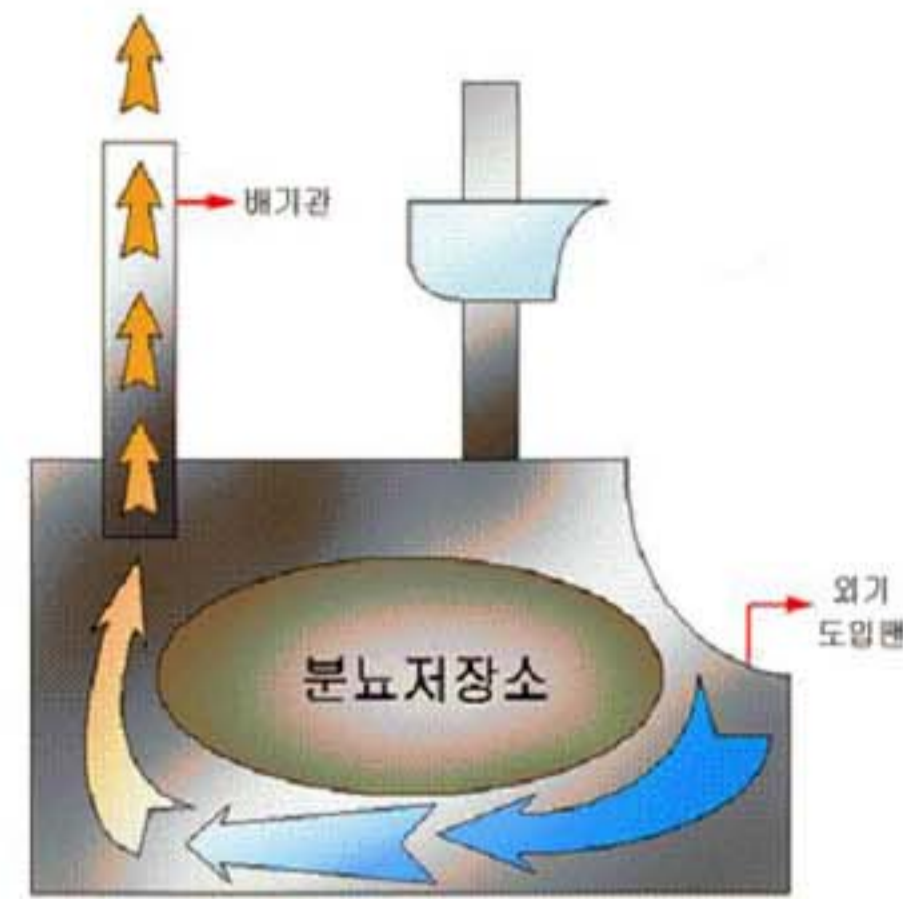
- ② 마테르아노우(큐우슈우) / 건물의 내리는 비를 지하의 수조에 받아 주차장 옥상 녹지에 관수용으로 사용

- ③ 킬하세(독일)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하수는 주변의 다른 단지와는 달리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단지내에 있는 생태연못으로 바로 흘러 들어감. 생태연못주변의 갈대밭을 지나면서 갈대뿌리 끝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1차 정화된 생활하수는 다시 연못에서 다시 한번 자정작용을 가지게 됨. 단지내의 연못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게 되며, 이 연못의 물은 단지내 주택의 허드렛물로 다시 공급됨.



□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공급

- 농촌지역에서 신축되는 주택에 하수관,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는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합병정화조시스템을 도입함.
- 자연발효식화장실의 한계점으로는 단독정화조(300-350만원/set) 또는 합병정화조를 이용할 때보다 추가비용(발효화장실 200-250만원/set)이 들어가며, 맵고 짠 음식쓰레기를 즉시 처리할 수 없고, 국물은 버리고 고형쓰레기만 씻어낸 후 처리하는 특성이 있음.
- 분뇨와 하수를 분리하여 분뇨와 유기물 쓰레기는 자연 발효시켜 퇴비로 이용하고, 생활하수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1차 정화하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각 클러스트별 협기여상(8톤이하)정화조인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를 통과한 방류수는 단지 내 실개천과 저류지를 거쳐 자연정화과정을 거치게 함.



□ 합병정화조의 공급

- 정화조의 규격은 1가구(1가구당 5인기준)이용 규모는 1ton, 2가구는 2ton, 3가구는 3ton으로 하며, 개별주택에 설치되는 정화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2가구이상 8가구 이하(8ton이하)는 협기여상식 정화조, 9가구 이상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가구규모에 따라 정화조를 공급함.
- ▶ 정화조의 작용에만 의지해서는 오·폐수의 완벽한 정화(환경기준 방류수 수질 20ppm 이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실개천과 저류지의 연계를 통한 자연정화과정을 유도함.

□ 식물을 이용한 생활하수처리

- 우수와 중수 등을 용수로 하여 생태계와 유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조성된 실개천은 저류지와 비오톱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각 가정에서 유출되는 하수의 정화와 함께 정서적으로도 안정적 영향을 미침.
- 지형의 중력을 이용하여 순환하도록 조성하며 실개천 주변녹지에는 자연의 내처럼 버드나무 등 키 큰나무, 갈대 등 수생식물·초본류를 선정하고 생태적 배식기법을 적용하여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함.

3.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

□ 보건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 실시

- 2002년 중 군민에 대한 보건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함.
 - ▶ 조사 1단계로는 사회복지 대상인구의 총량 및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2단계로는 전수결과 확인된 사회복지 대상인구들의 구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함.
- 본 계획기간 중에도 매 5년에 1회씩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사회복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 각종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2005년까지 군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여가시설 등을 목록화하여 안내할 수 있는 옥천복지종합지도를 제작 보급함(매 5년마다 제작 보급).
- 2005년까지 군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정보를 종합전산 네트워크화하여 이를 군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 지역복지종합시스템은 사회복지시책과 각종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안내, 자원봉사 지원정보는 물론 평생교육, 생활문화, 생활체육, 레저정보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며, 읍면과 각종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군민의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계획에 맞추어 복지행정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며 복지시설간 업무전산화 및 정보망을 구축함.

□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적 운영·관리

-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및 노인인구 증가로 각 대상별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 각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낭비 및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 ▶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경우 1개 시설 설치 후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확대함.

(2)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 보호필요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함.
- ▶ 지역별 가구규모와 특성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혜택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망 구축 및 국세·토지 전산망과의 연계방안을 구상함.

□ 저소득층 최저생활의 보장

- 최저생계비에서 가족 소득을 공제한 보충급여를 지급하며, 장애·치매 등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급여의 실시, 자립을 위한 전문교육과 프로그램의 마련 등 생계·의료·교육 및 주거 보장 등 기본생활을 보장함.

□ 자활역량 제고기반 조성

- 자녀학비 확대 지원을 위해 대학생의 학자금 용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교육비를 보조하며, 사업자금 용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자한도액을 확대함.
- 자녀기술교육 확대방안으로서 자활대상자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 적합한 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이수후 취업을 알선함.

□ 자활지원체계 구축

- 근로가능자는 일정기간동안 생계비를 받은 후 자활공동체 사업 및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자활에 대한 의지를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고(노동부 연계), 노동부 고용안전망과 행정전산망 등을 연계한 구직정보를 제공함.
- 2010년까지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자활지원 사업을 전개함.

(3) 노인복지정책 강화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농촌지역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복지서비스 체계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함.
- ▶ 보건소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안부전화드리기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함.
- 홀로 사는 노인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통보시스템 구축함.

□ 활기찬 노후생활여건 마련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사회복지사를 경로당에 주 1회씩 파견하여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를 지원함.
-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바둑과 장기, 판소리, 민요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건강체조와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복지 주택 등을 건설하고, 설치 자금 융자 및 설치자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 등을 중앙에 건의함.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대부분의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과 자녀 별거 노인의 급증과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해 가정내 노인보호인력의 부재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치하여 독거노인 등에 대해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생활 전반에 관해 보조하며, 점차적으로 일반노인까지 확대운영(유료)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제공하는 방법을 택함.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목욕차량을 도입하여 일정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계획

- 핵가족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요구는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옥천군의 양로시설은 1개소도 없는 실정으로, 무연고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과 노인의 복지증대에 필요한 각종편익을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함.
-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수급대상폭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사회조직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자활후견기관을 민간자율조직으로 육성함.
- 여성단체의 봉사활동 중 일환으로서 치매, 중풍 등 보호필요노인과 저소득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1회 5가지 반찬전달, 쉼터, 세탁, 청소, 건강관리, 말벗, 시장보기 등을 실시하며,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및 경로당환경정비(도배, 장판, 도색 등) 등도 실시함.

(4)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사회적 장애를 보완해 주는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바, 선천적 또는 유년장애로 인해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장애연금의 도입이 필요함.
- 소득세 인적공제 및 장애인차량의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게 주택특별공급 및 장애노인의 보호·수발을 위한 간호휴직제도 도입을 건의함.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재가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 나들이를 계획해도 이동 수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화목한 생활과 복지를 증진함.
- 재가장애인들의 취미생활 지원과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대상 취미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을 계발·발전시켜 재활의욕을 높이는 등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함.

-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지역의 각종 사업에 장애인의 참여도를 높임.
-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 빈곤의 세습방지와 자활을 위해서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함.
 -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활보조기구의 품질을 개선하며, 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전산화함.
 -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능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한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림.

(5)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

- 소년소녀가장 세대자립 지원
 -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통해 자활의지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여 보호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계획기간 내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보호대책을 마련
 - 전문아동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와 아동학대의 불건정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폭력 문제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여 운영함.

□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및 각종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며, 상담실에는 청소년 상담원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
- 청소년 상담을 위해 상담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모집과 교육을 통하여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을 운영함.

□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기회를 대폭 확대시행하고, 청소년 야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민간이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함.
- ▶ 청소년의 애향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 호국 유적지 순례, 우리 얼 익히기 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함.
- ▶ 청소년의 진취적 사고와 환경친화적인 생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능력발휘를 위해 음악제, 연극제, 체육대회 등을 포함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함.

□ 청소년 비행예방

- 청소년 유해활동 및 유해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민간감시단을 운영토록 권장하며, 청소년 취약지역, 취약시기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관련 단체의 활동강화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함.
- 청소년 폭력 및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고발 및 건의창구를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설치·운영하며, 문제학생들에 대한 교정사업을 추진하여 비행을 예방하여 나감.
-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블루존”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의 상점주인,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주변지킴이” 활동을 강화하도록 교육청과 연계사업을 추진함.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주변의 친구나 가까운 이웃, 나아가 사회에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봉사정신을 배양하도록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창단운영함.
-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단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지도하기 위해서 관련단체를 통해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함.

(6) 여성복지정책

□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지원대상을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의 인문계 고교학비 및 대학학비 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함.
-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취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훈련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함.

□ 농촌여성의 복지증진

-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여성층의 확대로 인해 여성들의 농민역할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촌여성의 인력개발 및 복지대책이 시급함.
-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나 농업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문화시설에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과목을 설정하여 3-6개월 코스의 직업훈련을 실시로 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취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킴.
- 마을단위 부업지원 사업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성 사업으로 농특작물 재배, 농수산물 가공, 수산물 양식, 약초 재배 등의 사업을 선정 추진함.

□ 여성의 능력 개발

-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창조적 여성 의식 함양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하며, 이를 위해 군민의식, 소비자 교육, 가정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주제로 한 여성대학을 연 1회나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함.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성 정보화 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함.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또는 각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여성자원봉사단을 창단하며,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각 단체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함.
-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자원봉사 협의회를 결성하여 공동실천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 및 단체간의 적합한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활동을 전개함.

4. 보건의료

□ 평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옥천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민평생건강센터를 읍면의 보건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지역민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군민들에게 개인별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 평생동안 건강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며, 연령대별로 적합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 및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함.

□ 365 건강생활실천 활동 전개

- 건강생활에 대한 기초지식, 규칙적인 생활습관, 주요질병 예방법 등을 수록한 건강생활수칙을 제작, 보급하여 평소에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지도·계몽함.
- 연령별, 계층별, 질병별,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보건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건강교육을 실시함.
- 연차별, 단계별로 10대 역점 건강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군민에게 주지시키고, 보건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함.

□ 모자보건사업 강화

- 모자보건수첩을 개발 보급하고, 임신, 출산, 유아기의 예방 접종과 병력, 치료 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초등학교 입학시 제출하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제고함.
- 농촌지역 및 오지에 주거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외래의 산전진찰과 검진을 실시하여 모성건강증진 및 태아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암, 골다공증 등 여성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사업을 전개함.

□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적 종합대책 수립

-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5대 주요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한 예방활동,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감시체계를 구축함.
- 평생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주치의 제도를 통해 포괄적인 예방·보건서비스 제공함.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사업 확충

- 방문간호인력을 중심으로 한 방문보건의료팀 구성을 통해 노약자 및 거동불편환자를 진료하고 방문보건사업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

□ 건강관리정보체계 구축

-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보건소 정보체계를 근간으로 개인별 건강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료기관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료선정, 표준화,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군 자체적으로 건강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며, 군민건강지표조사를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확대 개선

- 질병구조,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특수질환 전문관리중심의 민간정신 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을 건립함.

- 보건의료기관 기능별(일반, 정신, 한방, 치과, 요양병원 등)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 전반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해 시설의 이용률 높임.
- 고객지향, 수요자 중심,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 365 전일진료제와 진료예약제 실시
 - ▶ 365 전일진료제와 진료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긴급 의료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진료체계와 의료관행의 정착으로 주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킴.
 - ▶ 읍면별로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가 중심이 되어 한 달에 1회 기준의 정기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 면단위지역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질병치료와 재활원조를 위하여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산간 오지 등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의료차량을 통한 순회진료 활동을 강화함.
 - 건강상담, 의료기관 안내, 건강위해요인 감시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지소·진료소 포함)를 거점으로 하여 보건소와 면단위, 읍지역의 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통합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옥천군과 민간부문간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협조 및 보완체제 유지함.
 -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사회부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재정립함.
 -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간의 유기적 협력 지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의료시설과 기술의 공동이용, 의료정보의 공유, 의료진료의 연계성을 강화함.
 - 구급활동을 위한 119차량의 증대와 응급의료센터 활성화로 신속한 구급차량 현장도착과 응급실 체류방안을 확보하며, 군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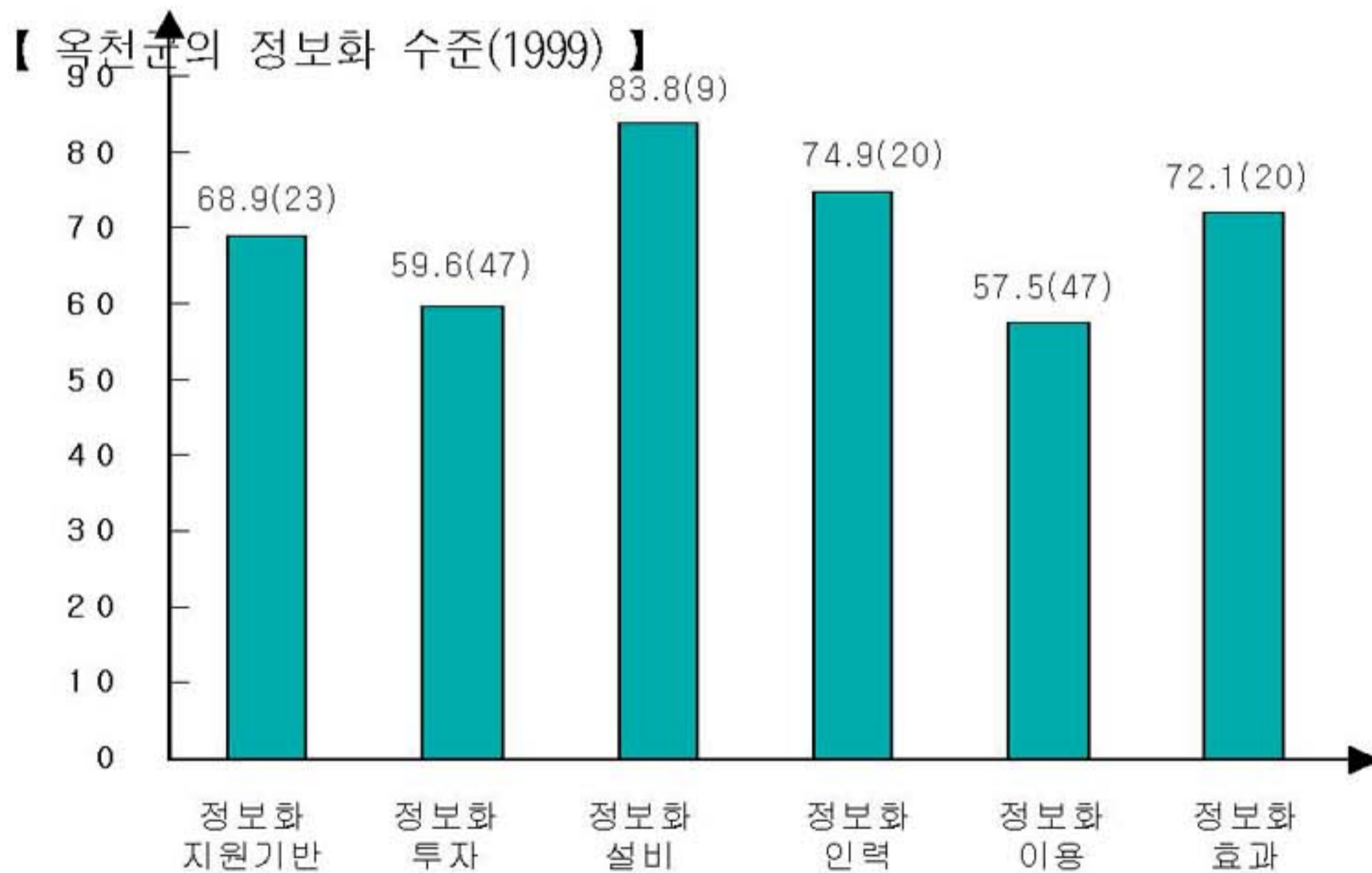
제13장 정보옥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정보통신 현황

(1) 정보화 수준

- 옥천군의 정보화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투자 및 정보화 이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보화 설비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옥천군은 정보화 지원기반, 설비 및 인력과 정보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중·상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정보화 투자기반과 이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남.
- 옥천군의 정보화 설비, 정보화 인력, 정보화 효과 등을 보면 한국에서 정보화가 잘 된 군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임.



(2) 정보화 지원기반 부문

- 정보화 지원기반 부문의 수준은 옥천군이 52개 비교대상 시·군 중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 지원기반의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정보화효과화 지원기반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66.8	28	인제군	72.3	15
상동구	62.6	38	보은군	64.8	34
광진구	76.1	9	옥천군	68.9	23
동대문	55.7	49	예산군	65.1	33
성북구	58.1	46	당진군	66.7	29
강북구	70.0	20	장수군	54.8	50
강남구	100.0	1	목포시	78.2	7
부산진	53.8	51	나주시	57.2	47
동래구	74.8	10	영암군	60.1	43
해운대	70.6	18	신안군	69.6	21
대전중	56.5	48	김천시	65.3	31
울산북	66.9	27	군위군	68.4	24
안양시	53.6	52	의성군	73.5	13
동두천	72.7	14	영양군	61.4	41
오산시	50.0	53	성주군	70.3	19
김포시	85.6	3	칠곡군	71.6	17
화성군	61.8	40	마산시	60.3	42
광주군	68.2	25	김해시	83.1	5
포천군	62.7	37	거제시	74.2	11
양평군	71.9	16	양산시	69.0	22
춘천시	84.5	4	창녕군	78.4	6
태백시	65.6	30	남해군	65.2	32
홍천군	62.5	39	하동군	68.1	26
횡성군	76.4	8	산청군	73.9	12
영월군	64.1	36	함양군	59.3	44
정선군	64.6	35	제주시	89.3	2

(3) 정보화 투자부문 수준

- 정보화 투자부분의 수준은 옥천군이 52개 비교대상 시·군 중에서 47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 투자 수준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화 투자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80.2	5	인제군	75.8	8
상동구	66.8	26	보은군	52.3	52
광진구	76.0	6	옥천군	59.6	47
동대문	64.4	36	예산군	65.0	32
성북구	72.2	11	당진군	64.2	38
강북구	100.0	1	장수군	68.3	22
강남구	85.4	2	목포시	56.1	50
부산진	71.7	15	나주시	70.2	17
동래구	64.0	39	영암군	69.7	18
해운대	68.5	21	신안군	64.3	37
대전중	66.5	28	김천시	65.4	31
울산북	62.9	43	군위군	58.4	49
안양시	72.5	10	의성군	75.7	7
동두천	81.7	3	영양군	60.1	46
오산시	66.7	27	성주군	65.0	33
김포시	54.6	51	철곡군	71.3	16
화성군	63.9	40	마산시	63.3	42
광주군	67.0	25	김해시	61.2	44
포천군	58.7	48	거제시	63.6	41
양평군	69.3	19	양산시	67.2	24
춘천시	72.0	14	창녕군	65.9	29
태백시	61.0	45	남해군	68.8	20
홍천군	50.0	53	하동군	64.6	35
횡성군	72.0	12	산청군	73.2	9
영월군	81.2	4	함양군	72.0	13
정선군	65.9	30	제주시	67.6	23

(4) 정보화 설비부문

- 정보화 설비부문의 수준은 옥천군이 52개 비교대상 시·군 중에서 9위를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정보화 설비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66.6	41	인제군	80.8	16
상동구	72.5	30	보은군	61.7	49
광진구	77.7	20	옥천군	83.8	9
동대문	63.5	44	예산군	62.2	48
성북구	53.7	52	당진군	66.7	39
강북구	69.8	35	장수군	67.9	37
강남구	97.8	2	목포시	73.2	26
부산진	82.7	11	나주시	73.5	25
동래구	92.7	3	영암군	71.8	33
해운대	77.5	21	신안군	59.5	51
대전중	70.2	34	김천시	66.0	42
울산북	100.0	1	군위군	63.2	45
안양시	75.5	22	의성군	60.6	50
동두천	84.7	8	영양군	72.6	29
오산시	62.6	47	성주군	74.7	23
김포시	85.0	7	철곡군	72.2	31
화성군	69.4	36	마산시	63.1	46
광주군	82.5	12	김해시	77.9	19
포천군	82.1	14	거제시	50.0	53
양평군	67.8	38	양산시	86.4	6
춘천시	64.3	43	창녕군	90.0	5
태백시	81.1	15	남해군	73.7	24
홍천군	66.6	40	하동군	90.3	4
횡성군	78.4	18	산청군	82.1	13
영월군	72.9	28	함양군	73.2	27
정선군	71.9	32	제주시	83.1	10

(5) 정보화 인력부문

- 정보화 인력부문의 수준은 옥천군이 52개 비교대상 시·군 중에서 20위를 차지하는 비교적 양호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음.

【 정보화 인력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64.1	41	인제군	61.1	45
상동구	94.4	3	보은군	72.1	26
광진구	56.4	50	옥천군	74.9	20
동대문	67.1	32	예산군	91.3	5
성북구	73.9	23	당진군	67.1	33
강북구	74.2	22	장수군	65.8	37
강남구	59.0	47	목포시	98.6	2
부산진	72.9	24	나주시	84.4	8
동래구	77.7	15	영암군	92.2	4
해운대	100.0	1	신안군	80.5	10
대전중	63.1	43	김천시	58.5	48
울산북	77.9	14	군위군	64.1	40
안양시	66.6	36	의성군	77.1	17
동두천	70.7	28	영양군	65.4	38
오산시	69.7	30	성주군	59.9	46
김포시	63.9	42	철곡군	54.4	51
화성군	72.6	25	마산시	70.3	29
광주군	68.9	31	김해시	50.0	53
포천군	72.0	27	거제시	77.4	16
양평군	75.9	19	양산시	79.7	12
춘천시	56.6	49	창녕군	64.3	39
태백시	74.9	21	남해군	79.6	13
홍천군	76.0	18	하동군	61.5	44
횡성군	85.4	7	산청군	87.8	6
영월군	80.0	11	함양군	67.1	34
정선군	67.0	35	제주시	81.7	9

(6) 정보화 이용부문

- 높은 수준의 정보화 설비 등에 반하여 정보화 이용부문은 상당한 낮은 수준이어서 효율적인 정보화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정보화 이용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55.6	50	인제군	71.6	26
상동구	79.3	17	보은군	60.4	42
광진구	83.0	12	옥천군	57.5	47
동대문	68.3	29	예산군	50.1	52
성북구	72.5	25	당진군	65.4	34
강북구	85.0	9	장수군	61.8	40
강남구	91.1	4	목포시	94.9	3
부산진	60.3	43	나주시	88.0	7
동래구	100.0	1	영암군	52.8	51
해운대	74.8	22	신안군	58.1	46
대전중	56.1	49	김천시	74.1	23
울산북	80.9	15	군위군	63.9	37
안양시	78.8	18	의성군	63.1	39
동두천	76.2	20	영양군	63.3	38
오산시	58.6	45	성주군	61.5	41
김포시	82.2	13	철곡군	83.9	10
화성군	80.4	16	마산시	73.7	24
광주군	64.7	36	김해시	83.6	11
포천군	75.6	21	거제시	56.2	48
양평군	82.1	14	양산시	65.3	35
춘천시	89.7	5	창녕군	67.0	31
태백시	66.0	32	남해군	97.0	2
홍천군	65.5	33	하동군	70.5	27
횡성군	76.8	19	산청군	70.2	28
영월군	59.5	44	함양군	50.0	53
정선군	68.2	30	제주시	85.9	8

(7) 정보화 효과부문

- 정보화 예산, 투자 등에 반하여 정보화 인력부문과 마찬가지로 20위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정보화 효과부문 비교 】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지역명	정보화 수준	순 위
종로구	67.8	26	인제군	59.6	43
상동구	66.0	34	보은군	69.2	22
광진구	91.6	3	옥천군	72.1	20
동대문	63.6	38	예산군	66.3	33
성북구	67.9	24	당진군	58.4	45
강북구	66.6	29	장수군	67.5	27
강남구	85.3	6	목포시	78.4	11
부산진	73.0	17	나주시	73.2	16
동래구	84.8	7	영암군	57.6	47
해운대	67.3	28	신안군	58.5	44
대전중	57.6	48	김천시	55.6	51
울산북	76.4	13	군위군	60.9	42
안양시	72.9	18	의성군	65.9	35
동두천	86.3	5	영양군	69.4	21
오산시	50.0	53	성주군	57.7	46
김포시	100.0	1	철곡군	82.0	9
화성군	65.8	36	마산시	62.0	39
광주군	66.4	31	김해시	97.8	2
포천군	61.8	40	거제시	66.4	32
양평군	69.1	23	양산시	76.0	14
춘천시	84.2	8	창녕군	72.6	19
태백시	75.0	15	남해군	64.5	37
홍천군	60.9	41	하동군	57.1	49
횡성군	66.5	30	산청군	67.8	25
영월군	53.3	52	함양군	56.6	50
정선군	77.1	12	제주시	88.2	4

2. 향후전망

□ 정보화기반조성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정보환경 조성

▪ 정보이용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균등이용을 실현하며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새로운 사회의 지식인으로 도약

-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정보화 군 조성
- ▶ 군민의 신 지식화
- ▶ 군민 정보이용가능성의 극대화
- ▶ 정보 자원의 공유 극대화 추진
- ▶ 추진체계 정비 및 확충

□ 행정정보화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옥천군의 행정정보화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정부 구현'의 비전 제시

▪ 군민과 행정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 군민의 요망에 대하여 One-Stop, Non-Stop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됨으로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군민과 옥천군간에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투명한 군정 추구

- ▶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현
- ▶ 고감도 행정운영 효율의 실현
- ▶ 고감도 행정 대민서비스 전개
- ▶ 효율적인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

□ 문화생활정보화

고품질의 군민정보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회는 일반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부분이 정보기술로 대체되어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삶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 일반주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조성하고, 일반주민의 정보화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특히 정보화의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주부,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역업체 등과 상호연결된 정보통신망 정비와 사용자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극대화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공간, 시간적 제약 없이 쉽게 정보화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이용센터 등의 확충 필요 ▪ 군민의 생활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문화·관광, 사회복지, 의료보건, 교육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주민 생활과 관련된 DB와 생활문화 콘텐츠의 이용 극대화를 통해 풍요로운 디지털 생활문화의 정착 필요

- ▶ 군민생활의 복지 향상
- ▶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
- ▶ 고도 복지사회 실현
- ▶ 군민의 문화공간 제공
- ▶ 사이버생활문화 구현
- ▶ 오프라인의 문화·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웹서비스구축사업

□ 산업정보화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정보산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군 산업정보화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으로 옥천군을 생명산업지역으로 육성·발전 ▪ 산업정보의 One-Stop서비스 실현과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및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체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조성 ▪ 옥천군의 산업정보화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첨단벤처기업이나 첨단영농조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보화 지원과 지역특화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보화 지원

- ▶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정보산업화 지역 구현
- ▶ 산업정보통신망 강화
- ▶ 중소기업 정보화 서비스 실현
- ▶ 첨단 벤처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 ▶ 농업개발 부문의 GIS구축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정보화 기반조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와 생활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지식인으로서의 교육과 활용 여건을 마련함.
- 정보전달 수단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E-mail을 보급함으로써 ‘통합메세징시스템’을 응용하여 전자정부(E-government)의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지식인으로서의 도약이 가능함.
- 정보이용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균등이용을 실현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
- 각종 정보기술 및 멀티미디어를 위한 정보를 수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 정보화 추진할수 있는 관리주체를 육성하고 CIO제도 도입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함.

2. 행정정보화

- 고감도 행정운영효율의 실현
 - 통합DB를 구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료의 중복 수집, 가공, 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함.
 - 정보화를 전제로 하여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재설계하며, 정보공유로 불필요한 업무와 중복된 처리를 제거함.

- 군민들의 각종 민원업무처리를 단일창구에서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함.
- 공개가능한 모든 공공DB와 상용망을 연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행정정보를 군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현

-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핵심 행정업무들의 단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연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
- 전자정보유통의 이용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을 재구축하며 행정업무 재설계를 통한 행정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관리자정보시스템(EIS)을 구축함.

□ GIS DB의 구축

- 행정업무의 80%가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정보화의 차원에서 GIS DB를 구축함.
-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충청북도 지리정보 DB의 자료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개발의 범위를 설정하며, 1:1000 축척의 레이어와 지도항목에 대한 상세한 속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응용시스템의 구축

- 옥천군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응용시스템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작목의 선정을 위한 응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함.
- 지역의 형편성을 감안하여 환경관리, 재난관리, 도시 및 자원관리, 교통부문에 나누어 시스템을 개발함.

□ 행정정보화 계획의 범위

- 효율적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춘 2단계 추진계획
 - ▶ 1단계(2001-2005년) : 옥천군 행정정보화는 그동안 다른 정보화 부문에 비해 기본적인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왔으므로,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보완·연계를 통하여 국가정보화 사업과 지속적인 연계 개발을 하며, 분야별 단위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둠.
 - ▶ 2단계(2006-2010년) : 행정자치부 행정종합시스템과 국가정보화사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 최고관리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단계적 구축 활용을 통하여 옥천군과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정보흐름에 중점을 둠.

3. 문화생활정보화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군민의 풍요로운 생활문화공간의 제공하고 옥천군민이 자유로운 디지털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생활의 관련부분을 DB화하고 생활관련부분의 통합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추구함.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옥천군의 웹사이트를 보완하여 군민의 정보제공, 의사소통, 동호회의 형성, 전자거래가 될 수 있는 생활종합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함.

□ 사회복지정보화

- 복지기관, 복지수혜자, 자원봉사자 등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이 되도록 함.
-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보건소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진료, 처방, 의약품관리, 원격진료시스템을 가능하도록 체계적 통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사이버 생활문화를 영위할 수 있게 함.

□ 보건·의료정보화

-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사회 구현과 옥천군민 삶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원의 확보와 신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원격진료시스템과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밖에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함.

- GIS 및 위치측정시스템(GPS)의 기술접목을 접목한 응급의료센터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DB구축으로 긴급상황에 대처함.
- 의료보험, 식품위생, 지역보건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대 국민 의료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옥천군 차원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정보화의 준비가 필요함.

□ 문화생활정보화

-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문화공간,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기본시설정보, 이용안내정보(약도, 교통편, 공연·전시·행사일정 등) 등을 멀티미디어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
-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인력개발, 복지사업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지역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관리·운영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문화정보화의 중요성 및 홍보확산을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문화정보화운동(Culture Net)의 일환으로 전국의 문화관련기관·단체 24개소를 선정, 보유정보의 DB 구축, 표준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초고속통신망의 연결, 홈페이지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정보화

- 교육정보화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정보기술 활용교육의 강화,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조성, 학술·연구정보 기반구축, 학술정보유통체계 구축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전산망구축, 지역교육청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구축, 지역정보교육모델학교 시범운영, 열린학교 시범사업 그리고 교육정보화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함.
- 각급 학교, 도서관, 교육청을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환경하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4. 산업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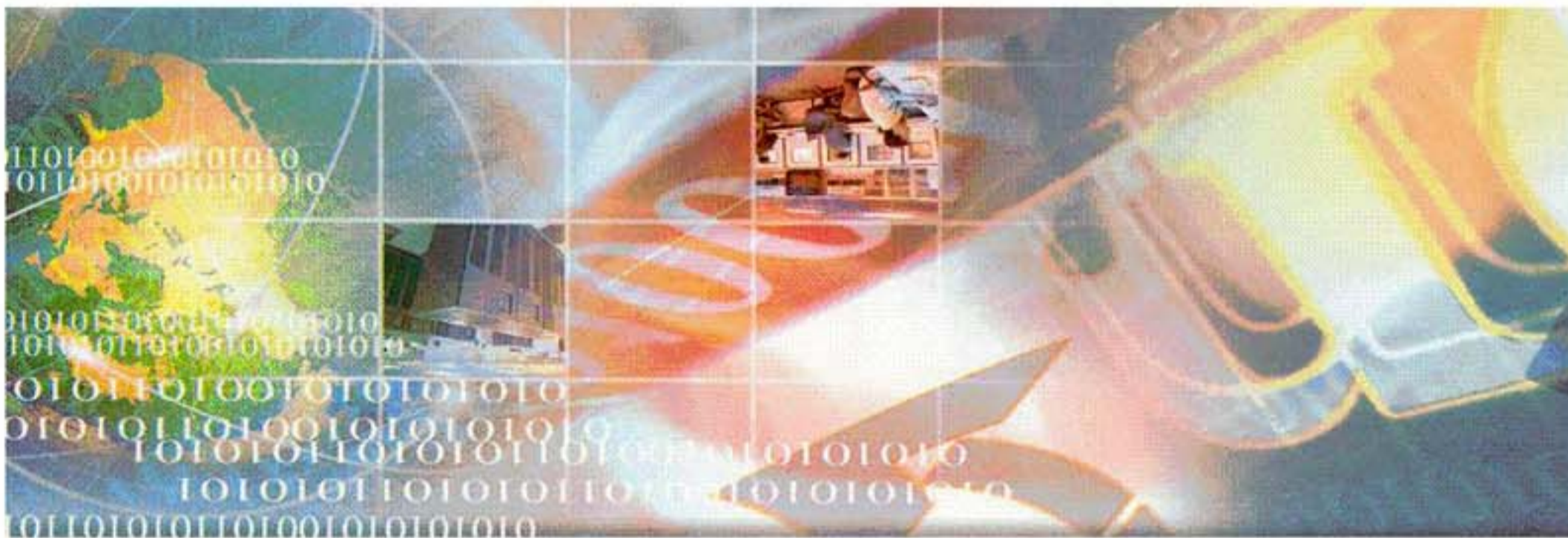
- 중앙부처나 타 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정보화 관련사업들의 내용, 옥천군 산업정보화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옥천군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내용과 추진 일정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둬.
-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별 산업정보화분야의 세부실행계획들을 고려한 계획과 예산의 긴밀한 연계에 중점을 둬.
- 지역산업정보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하며,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한 필요 지원사항의 파악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함.
- 옥천군에 적합한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연계성을 고려함.

□ 농업개발 부문의 GIS구축

- 농업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서 농업관련 GIS의 공통레이어와 농로, 저수지, 관개시설물, 농수로 등의 고유레이어를 바탕으로 농작물 풍수해에 대한 대책 수립, 경지정리를 위한 설계, 농업관련 시설물 조회, 농업관련 시설물 건설계획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시스템을 구축함.
- 작물적지선정시스템으로서 농업관련 GIS의 공통레이어와 농지경사도, 연평균 강수량도, 최고기온분포도, 최저기온분포도, 연도별 농작물작부상황도, 풍수해 상습피해 지역분포도 등의 고유레이어를 바탕으로 하여 작물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작물결합의 형태결정, 파종면적 결정 및 생산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농업정책정보, 기상정보, 농산물시황정보, 작물정보, 농업자재정보, 원예정보, 기술정보, 특수농업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DB를 따로 구축하여 GIS의 기능을 보완함.
 - ▶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농업인의 직접적 이용을 위해 지자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관광산업관련 정보시스템

- 옥천군의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지역의 핵심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정보화를 통하여 주민소득의 직접적 향상을 꾀함.
-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가상현실을 응용한 방법으로 디지털화하여 문화·관광수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오프라인의 문화·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웹서비스 구축사업을 실시함.
- 관람예약시스템, 숙박예약시스템, 시설물 사용에 관한 예약시스템 등 관광부문에 상거래 관련기능을 부여함.



제3절 육성방안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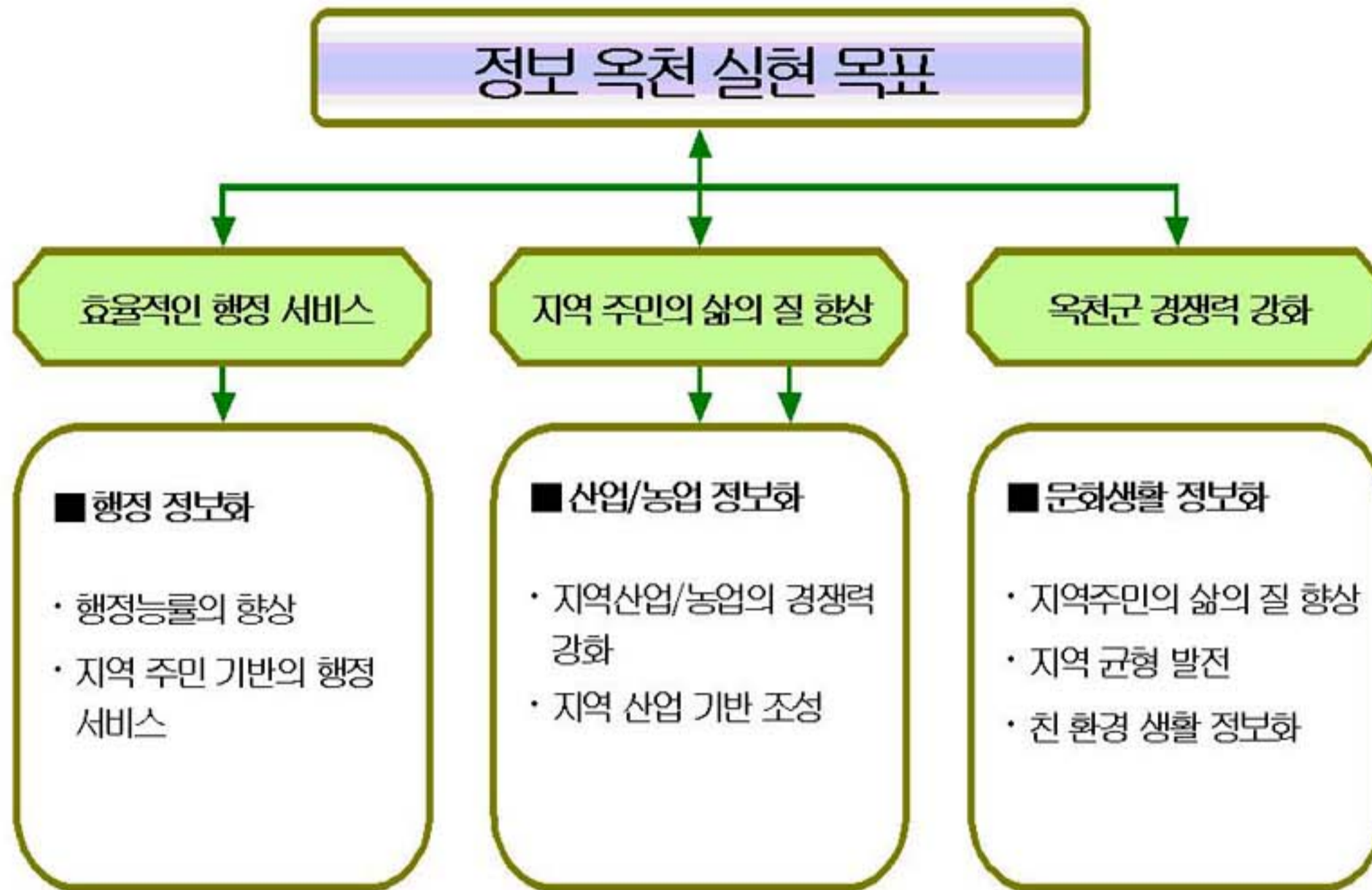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능한한 포괄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옥천군의 정보실현 계획을 수립함.
- 「정보화촉진기본법」 과 「CYBER KOREA 21」 등의 정부 정보화 추진사업에 부응하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인프라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계·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과 인간친화형 정보문화의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 실현 수립계획이 필요함.

- 옥천군의 정보실현 목표는 정보화 비전에 부응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 정보사회상을 제시하고, 지역 정체성을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고장으로 위상을 정립함.
- 옥천군의 정보실현을 위한 내용은 “지역 정보화의 실현”으로 요약됨.
 - ▶ 정보환경에서 군민의 수동적인 입장이 주체적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생활, 지역산업에서의 정보의 역할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급이 필요시되며, 옥천군 행정의 종합화, 표준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여 군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시점임.

(2) 추진 목표

- 수준 높은 정보인프라의 구축으로 지역민에게 풍부한 정보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의 연계성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지원으로 행정과 군민간의 정보교류 촉진 및 행정참여 촉진을 시행 할 수 있음.
- 행정업무처리의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정보시스템 활용을 제공하고 행정업무가 서로 상호연계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One-Stop, Non-Stop 서비스로 행정정보화를 실현함.
-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정보화계획과 연계한 정보통신기반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의 행정처리, 산업경제, 주민의 문화생활 분야에서의 정보화를 실현하며,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능력을 강화함.
- 지식정보문화산업 기반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옥천군의 산업정보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옥천군 종합정보처리과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문화생활 정보화 추진기반시설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 전산교육 실시와 농촌마을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 정보옥천 실현목표 】



2. 육성방안

(1) 비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도정보사회상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예견되는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은 억제하고 긍정적 측면은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함.
-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거환경지, 행정·교통·유통의 중심지역으로써 누구나 살고싶은 고장, 지역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고장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둠.

(2) 추진전략

- 중앙부처나 타 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관련사업들의 내용, 옥천군 산업 정보화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옥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파악함.
-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들의 산업경제 관련 정보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옥천군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둠.

-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보화 분야의 세부실행계획들을 고려한 계획과 예산의 긴밀한 연계에 중점을 둠.
- 지역정보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하며,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한 필요 지원사항의 파악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함.
- 옥천군에 적합한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둠.
-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옥천군의 환경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관련 사이트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행정정보화

□ 행정업무 재설계(BPR)사업 추진

- BPR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가치와 만족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것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개방적 시스템의 개발로 업무처리의 단축, 비용절감,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업무 흐름속도를 높여 국민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기본원칙 : 프로세스 재설계 원칙
 - ▶ 업무를 과업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구성하며, 처리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처리를 하며, 정보 생성 부서가 정보처리하고 자원은 집중화함.
 - ▶ 병렬처리 업무는 진행과정에서 연결하고 조정하며, 정보는 발생하는 곳에서 한 번만 처리함.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중심 조직에서 성과중심 조직으로 편성해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동요와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함.

- 군청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BPR은 기대하는 성과만큼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사전계획과 함께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 리엔지니어링은 조직이 아니라 조직내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과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조직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된 다음 재구축해야 함.
- 구조조정, 목표관리제, 중장기계획 등 군정목표와 연계하여 군정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추진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직 내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BPR 실행절차 및 정보기술 도구
 - ▶ 경영비전과 프로세스의 목적설정(우선순위와 최종목표 설정)
 - ▶ 경영혁신대상 프로세스 선정(개선할 프로세스 정의)
 - ▶ 기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평가(문제점 및 개선기준 설정)
 - ▶ 필요한 정보기술 파악(프로세스 접근방법 토의)
 - ▶ 새로운 프로세스 시범운영(조직, 기술적인 면 고려)
 -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가, OPEN 시스템개발로 시너지효과창출

□ CIO 제도의 운영 정착

- 지역정보화 관련업무는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에 각각 정보화사업에 리더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CIO(최고정보책임자)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옥천군의 경우 CIO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로는 CIO도입의 취지를 실현시키기 어렵게 됨.
- CIO는 행정기관의 정책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정보부서와 현업부서들간의 업무 변화와 조정에 관해 통제·지도·감독 역할의 수행권한과 권한과 자격을 주어야 함.
- CIO 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CIO는 정보기술과 행정 및 정책과정 모두에 지식을 갖추고 이를 결합해 사업전략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함.
- CIO의 역할과 기능
 - ▶ 정보부서와 현업 부서들 사이에서 조직의 변화와 업무의 조정에 관해 통제·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전략적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집단의 일원으로서 정보화요원과 조직 최고책임자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함.

- ▶ 조직내 업무별로 바람직한 정보관리형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에 준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정보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기존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기술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역할과 기능을 보강함.
- CIO제도가 정착되면 정보화조직과 현업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에 의한 정보화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며,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효율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
- 또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행정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정보기술도입과 행정개혁의 연계추진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수렴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화상회의민원시스템 구축

- 첨단영상통신시설을 민원처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회의하고 원격지 민원인에게 방문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공유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개인 화상회의민원시스템으로 이용도를 넓혀 나감.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소통의 활성화로 인한 업무의 신속성을 꾀할 수 있으며, 원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대민 서비스 증진효과가 기대됨.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공유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임.
- ▶ 현재 농촌지역 마을에 구축된 정보화사랑방 기반시설을 활용해 화상회의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 지식기반행정시스템 구축

-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비용절감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업무의 자동화로 인력을 절감하고 문서의 전자화 및 결재의 단순화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존문서 정보의 디지털화로 사용의 능률성 확보가 가능하며, 보존문서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문서보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전자도서관의 기본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기록정보 제공체제를 구축함.

- 종합정보시스템 및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직내 여러 곳에서 분산 운영되는 개별업무 위주의 시스템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모아 중앙집중화된 저장소에 두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2. 산업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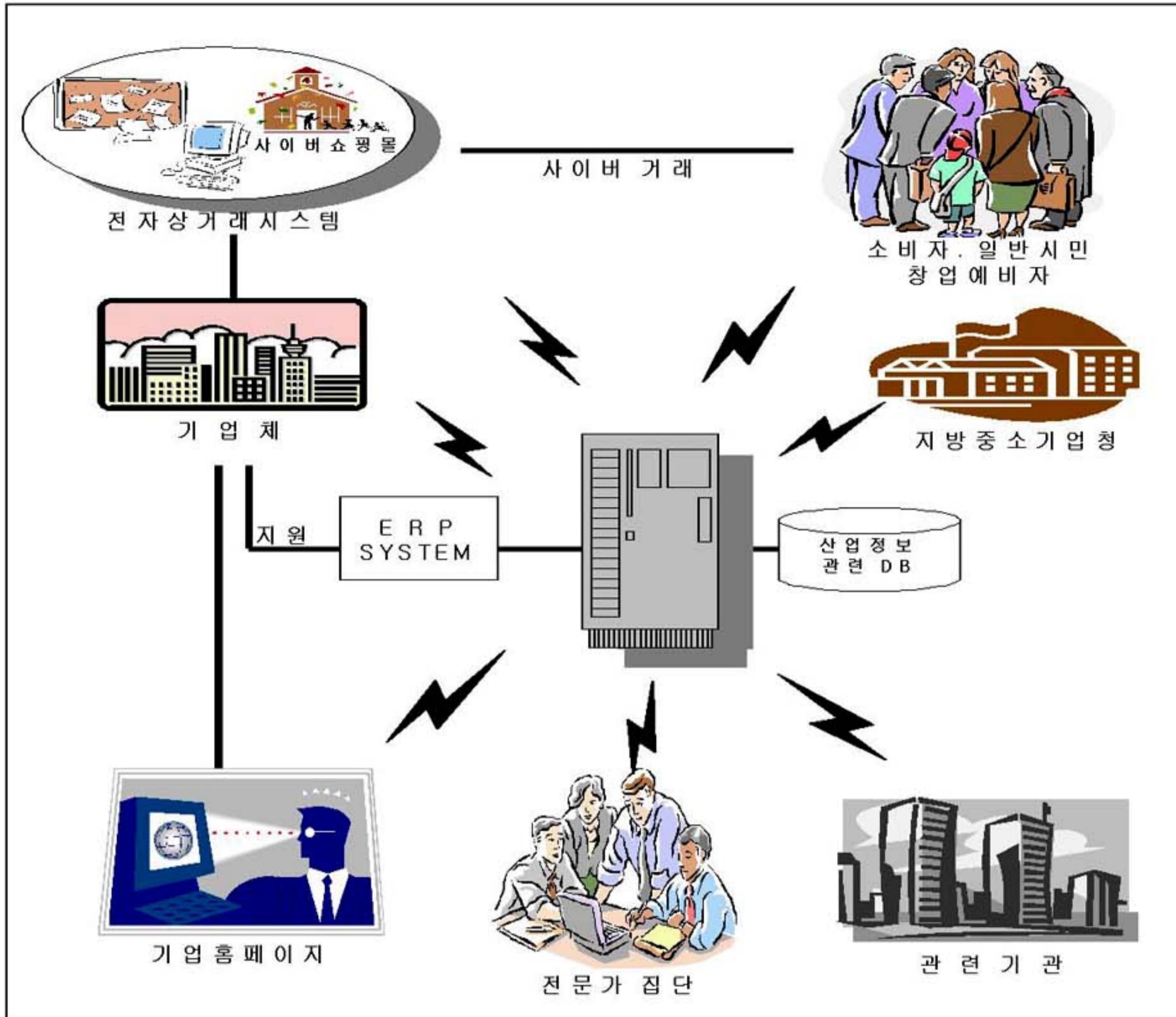
□ 산업정보시스템

- 옥천군 산업정보의 종합성과 체계성을 제고시키며, 지역산업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에게 편리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활동 및 군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군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지역에 적합한 산업육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여도를 높임.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나 기관에서는 산업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인 산업정보망 사업은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가 컴퓨터와 통신설비로 상호 연결되어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유통·활용되도록 하는 산업부문의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산업정보 DB 20종을 개발하였고 2000년도에는 산업정보 DB 20종을 추가 개발하였음.
- 산업정보망 제공 서비스
 - ▶ 산업부문의 신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기존 DB의 연계 등으로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산업정보 제공 서비스
 - ▶ 산업별 단체, 조합 및 협회 중심의 전문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보급
 - ▶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부문의 정보공유 및 유통체계 구축
 - ▶ 전자, 전기, 무역, 섬유, 기계 등 업종별 정보망(Intranet/Extranet)구축
 - ▶ 인터넷, 전자우편 ID 무료 이용 및 Web Hosting 서비스
 - ▶ 개별기업 단위에서 산업별 공동의 정보화산업 추진으로 관련업체 공동의 이익도모 및 중복투자 방지
 - ▶ 부문별로 전력산업의 CALS 체계구축, 유통정보화(ECR/SCM), 섬유산업의 신속대응 시스템(QR), 전자산업의 Electropia 등

- ▶ EDI/CALS/EC 등 전자상거래 촉진사업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 생산성 향상
- ▶ 산업부문의 가상기업, Shopping Mall, Internet EDI 등 전자상거래 실현
- ▶ 특허망, 석유망, 무역망, 지역망 등 산업부문의 업종별 정보망과 종합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추진
-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차원, 충북도 차원 그리고 옥천지역차원의 정보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산업구조에 적합한 정보수요를 파악하고 DB화함으로써 지역산업에 밀접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제조업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함.
-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함으로써 정보의 공동 활용을 기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
- 산업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업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산업정보시스템에 옥천군 소재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업종별로 분류연계
 - ▶ 대기업을 포함하는 옥천군 소재 모든 기업들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나 기업,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해외바이어 등을 주요 수요자로 설정함.
- 홈페이지 연계사업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경우 영문서비스를 동시 제공함.
 -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관 등 기존의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를 공유함.
 - ▶ 개인자영업체와 같은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체를 위해서는 옥천군의 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간편하게 각 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줌. 이를테면 산업정보통신망에 기업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을 제시하고 각 사업체들이 직접 입력하는 형태를 취함.
 - ▶ 사업체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를 옥천군이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게재할 것인가 또는 그대로 게재할 것인가, 그리고 확인을 거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판단은 현행 공중통신망에서의 실태나 초기의 운영과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후에 최종 결정해야 함.

- 옥천군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창업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제공함.
- ▶ 옥천군에서 창업하여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제도나 법령, 자금지원, 입지, 도시계획 등 제반 정보들의 DB를 개발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
- ▶ 특히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되는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국내중소기업들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함.
- 현재 중앙정부나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산업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함.
- ▶ 단순한 연계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성 및 통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지원은 중소기업관리공단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체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하도록 함.
-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옥천군에 소재한 산업체들의 홈페이지 안내 및 연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업체들의 정보화 인식 정도와 홈페이지 구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
- 산업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확대 보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관련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는 제반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옥천군의 산업정보시스템에 적절히 연계하여야 함.
-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함.
- 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군민들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들이 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옥천군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또한 산업정보의 공유 및 활용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산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수요자의 정보획득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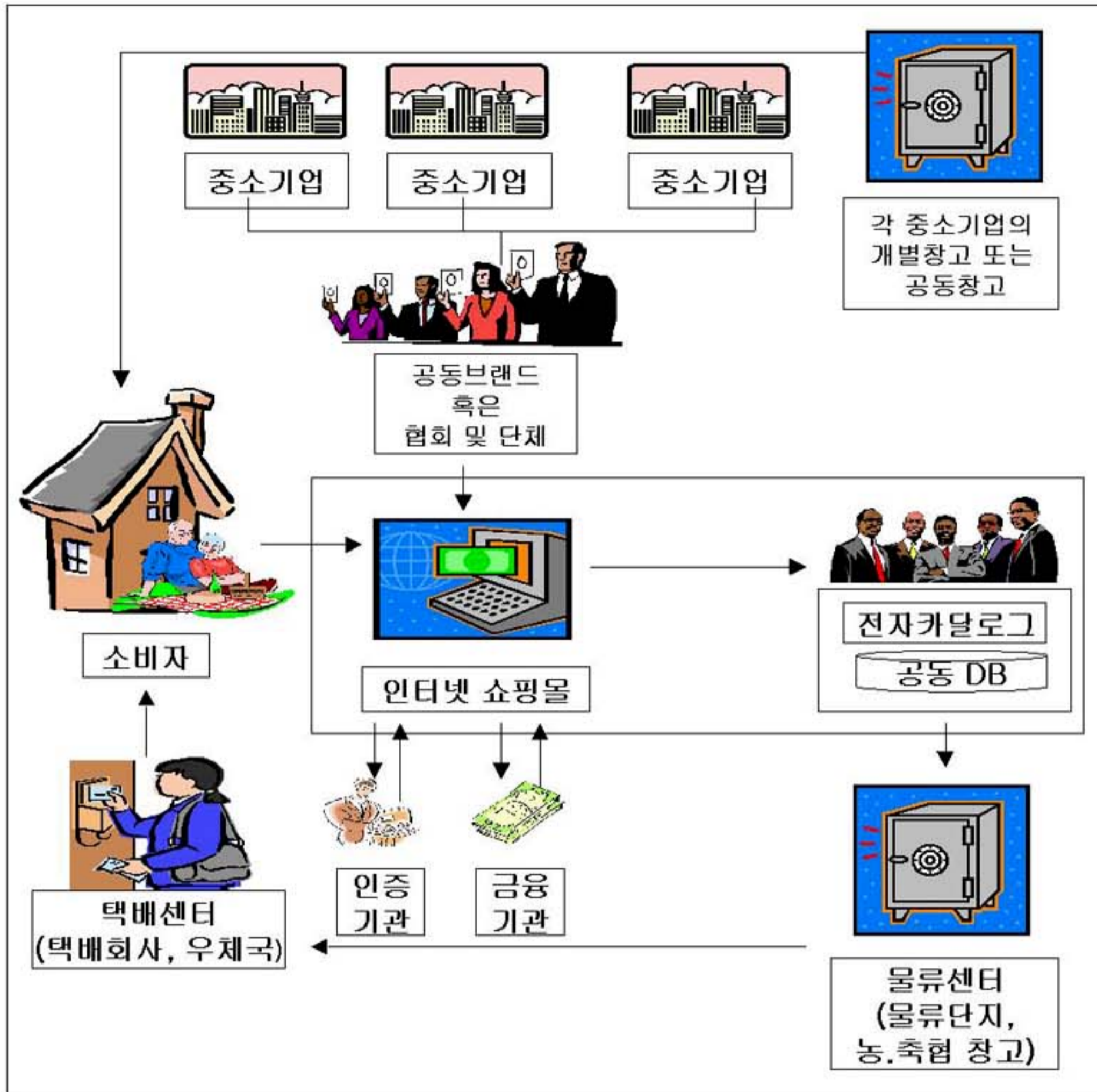
【 산업정보시스템 개념도 】



□ 전자상거래시스템

- 전자상거래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향후 옥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 가상기업을 실현하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 상거래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자금과 기술력 등 제반측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상의 공영시장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함.
- ▶ 즉, 중소기업의 정보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홍보, 통합관리 등을 구현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념도 】



-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향후전망에 대해서는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평균 100% 정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783개 기업, 88,000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9년 10조 1천억원에서 2000년 18조 6천억원으로 84%의 증가를 전망함.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시장은 1999년 9조 8천억원에서 2000년 17조 5천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기업과 소비자간(B2C)시장은 1999년 2천 4백억원에서 1조 1천억원으로 4.5배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음.
- ▶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구조는 좋지 않아 대부분의 사이트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 마진이 작은 B2C에 몰려 수익성이 떨어짐.
- ▶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는 높은 카드수수료, 불안한 쇼핑몰 신뢰성, 개인정보 누출 우려, 비싼 물류비, 표준화 안된 부품 및 결제시스템, 법·제도 미비, 세금문제 등이 있음.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등과 같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추진, 기술모델 개발, 실증사업의 개발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업종별/산업별로 전자상거래가 활용될 예정임.
- ▶ 정부의 2000년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전자상거래시스템 중점시책 】

중 점 시 책	세 부 추 진 과 제
사이버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자금이체, 방판법개정, 표준약관, 분쟁조정위, 공인인증제도, 암호이용제도, 지재권보호,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지침, 일반법 정비, 세제지원, 영업환경개선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초고속통신망조기구축, 기술개발, 표준화추진, 인력양성, 대학학과 신설, 민간교육강화, 관리사제도, 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 공동물류 체계, 물류기반구축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촉진	정부조달전자화, 국방부문전자거래, 건설부문전자거래, 공기업 전자조달체제구축, 조달관련법령정비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시범사업확대, 종합추진단구성, 8개산업 전자상거래 본격추진, 기업간 거래 붐 조성, 유통채널전자거래, 업종전환 지원
사이버무역기반 조성	대외무역법개정, Cyber Trade Map 수립, 무역 자동화, 바이어 통합발굴시스템, 홈페이지구축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확충, 국제협력강화

- 산업자원부는 1997년도 3개 기관, 1998년도 7개 기관, 현재 총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활성화 및 확대 지정계획」에 따라 16개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30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하였음.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의 기능 】

주 요 기 능	세 부 내 용
전문인력 양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와 네트워크기술, 표준화 기술, CALS, EDI 등의 교육 실시
기술지원·지도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컨설팅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각종 경영/관리기술과 정보기술에 대한 컨설팅 수행
기술정보 확산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중소기업청은 2000년 7월 중소·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에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인터넷비즈니스센터(KIBC)의 설립을 허가하였음.
-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인력과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은 큰 어려움 없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 KIBC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월1만원의 협회비만으로 무료 EC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솔루션이 포함된 전자지불시스템인 「eCredit」, 택배서비스 등을 초저가로 제공할 예정임.
- 옥천군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에 적합한 산업분야의 특정업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함.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기술지원·지도, 기술정보 확산 등의 사업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시범사업은 옥천군 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사이버 쇼핑몰의 확대보완을 통해서 추진함.
- 2000년도 신규로 지정된 청주상공회의소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와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옥천군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상품동영상 DB 구축, 가상전시관의 구축 등을 포함하게 됨.
-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 즉 전통적인 상거래 시장에서 이러한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적 기본 틀과 소비자 보호 장치는 디지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옥천군 사업에서도 이러한 신뢰성 제고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산업이 아니라 유통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도입 필요성, 효과, 도구, 업무흐름, 제도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것이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유통구조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판매방식으로는 줄 수 없는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시중의 점포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옥천군의 경우 별도의 전용 초고속통신망의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 소비자 및 공공기관들이 전자상거래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만이 가능하며, 특히 옥천군이 선도적인 사용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시장 형성의 지대한 원동력이 될 것임.
-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의 도입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유통단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자본 및 소수의 인력으로 글로벌한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하게 함.
- 또한 시간·인력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구입과 판매가 가능해지며,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마케팅 및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옥천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 광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조성됨.

□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관련업무의 순차적인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지원관리체제의 정보화를 통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함.
- 장기적으로는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변동내용, 개별 중소기업의 각종 현황을 DB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옥천군 중소기업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극대화함.
- 중소기업청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비해 낙후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북 청주를 비롯한 주요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음.
-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관련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관련한 DB는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작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중앙부처와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및 충청북도 등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과 방향을 반영시키고, 신설되는 옥천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센터와 연계되도록 함.
- 전체적인 중소기업지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점차 제반 지원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옥천군 중소기업 현황 DB를 구축함.

-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단체의 정보화와 병행하여 추진하며,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변동, 현황과 관련한 DB의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타 기관/단체 등의 자료(예를 들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나 업체현황자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활용방안 모색 및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자금확보,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대출 및 상환 등 제반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대상업체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용 등에 대해서도 DB화함.
 - 장기적으로 지역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현황 및 변동자료를 DB화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이를 향후 옥천군의 중소기업정책 수립이나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에 적극 활용함.
 - 옥천군에서는 중소기업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육성자금의 대출거래내역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자금, 인력 등의 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함.
 - 중소기업 현황 DB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청 등과의 협조관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나 그 정도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정책효과 분석 등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반 관련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지원관리업무 및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옥천군에 적합한 특화산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관리체제를 마련함.
- 첨단 벤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입지 등의 창업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첨단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함.

- 창업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산업 환경에 적합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킴.
-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 중앙정부에서는 창업투자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고 있음.
 - ▶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기 설립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시 주식매입선택권을 먼저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업종 등의 벤처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저조한 전통 제조업과 창업초기 기업, 국가의 산업전략상 육성이 긴요한 자본재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종합교육, 벤처기업화모델의 개발·보급, 벤처관련정보의 종합·분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벤처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연계시킴으로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함.
- 육천군에 적합한 산업으로 생명산업, 관광·레저산업, 정보통신 관련 벤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함.
- 지속적인 입지지원 및 창업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며, 육성자금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확대하고,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민간건물을 임차하거나 공공건물 등에 벤처단지를 설치·운영하는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확대함.
- ▶ 현재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대학주변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졸업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옥천군 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 창업관련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창업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함.
-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통한 첨단 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의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도 모색함.
-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옥천군 소재 입주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옥천군 산업에 적합하며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적극성을 가진 시범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업종의 사업체를 일괄적으로 유치하기보다는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도입의 우선 순위 등을 파악하여야 함.
- 벤처기업 유치 및 특화기업 발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지원업체들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내 입주기업의 정보서비스 강화로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업에의 취업 등으로 인해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됨.

3. 문화생활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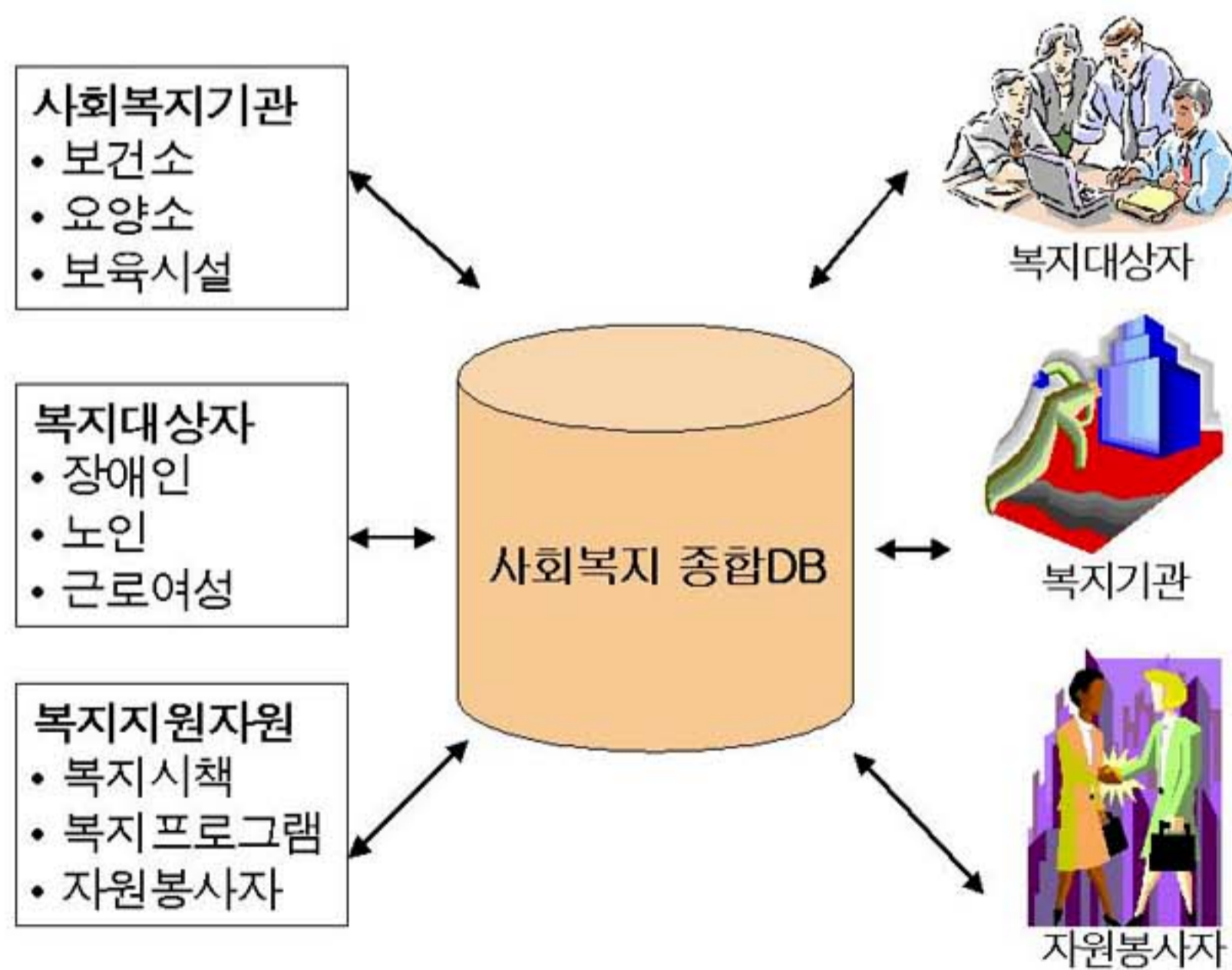
□ 종합생활정보웹서비스 실시

- 설문조사에 의하면 옥천지역의 경우는 예술문화공간 및 공연, 민원행정정보서비스, 버스노선 정보 등의 다양한 생활관련 정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옥천군의 지역정보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에게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진 정보화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함.

- 정보화 계획의 설문조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터넷 웹서비스 기반의 생활정보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구축하고, 각종 생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전달과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 지역주민의 정보교류채널로서 E-mail 계정 부여, 옥천군의 군 정책과 군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의 운영, 옥천군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건의함 등을 마련하여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소로서 역할을 함.
 - 지역주민의 각종 동호회와 상공협회의 정보교류 채널을 제공하여 다양한 동호회 장소(Community) 제공과 웹페이지 제공서비스의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 관광, 교통, 환경 정보를 서비스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포털사이트의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전자상거래를 위한 장터(Marketplace)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일용품에 대한 경매사이트의 제공과 지역 상공기관의 광고 등을 게재함.
 - 웹서비스의 실시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정보수집으로 지역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간의 정보교류 및 공유를 통한 지역주민간의 통신문화를 정착시킴.
 - 웹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Marketplace를 제공하고, 포털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과 컨텐츠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정보의 공개로 열린 군정을 구현함.
 -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이용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기능력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터넷을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
- 사이버사회복지시스템
- 복지부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복지서비스기관 상호간의 교류와 업무협조,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서비스 의뢰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공함.
 - 복지활동 참여를 위한 군민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원봉사·후원·결연 등 적절한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계획·실행·평가과정에 군민 참여를 유도함.
 -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 통합민원창구 구축, 주민복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복지대상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 문화, 여가, 체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복지시설 및 각종서비스,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인터넷, ARS, PC통신, ATM, 키오스크, 정보이용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함.
- 민간에서 사회복지대상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대상자, 복지기관, 자원봉사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사회복지문제의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며, 복지정보 DB의 효율적 활용으로 복지수혜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전달이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관리를 통해 시설 및 인력수급에 관한 정확한 예측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함.
- 중복되어 관리되는 시설 및 인력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로 단일 관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

【 사이버사회복지시스템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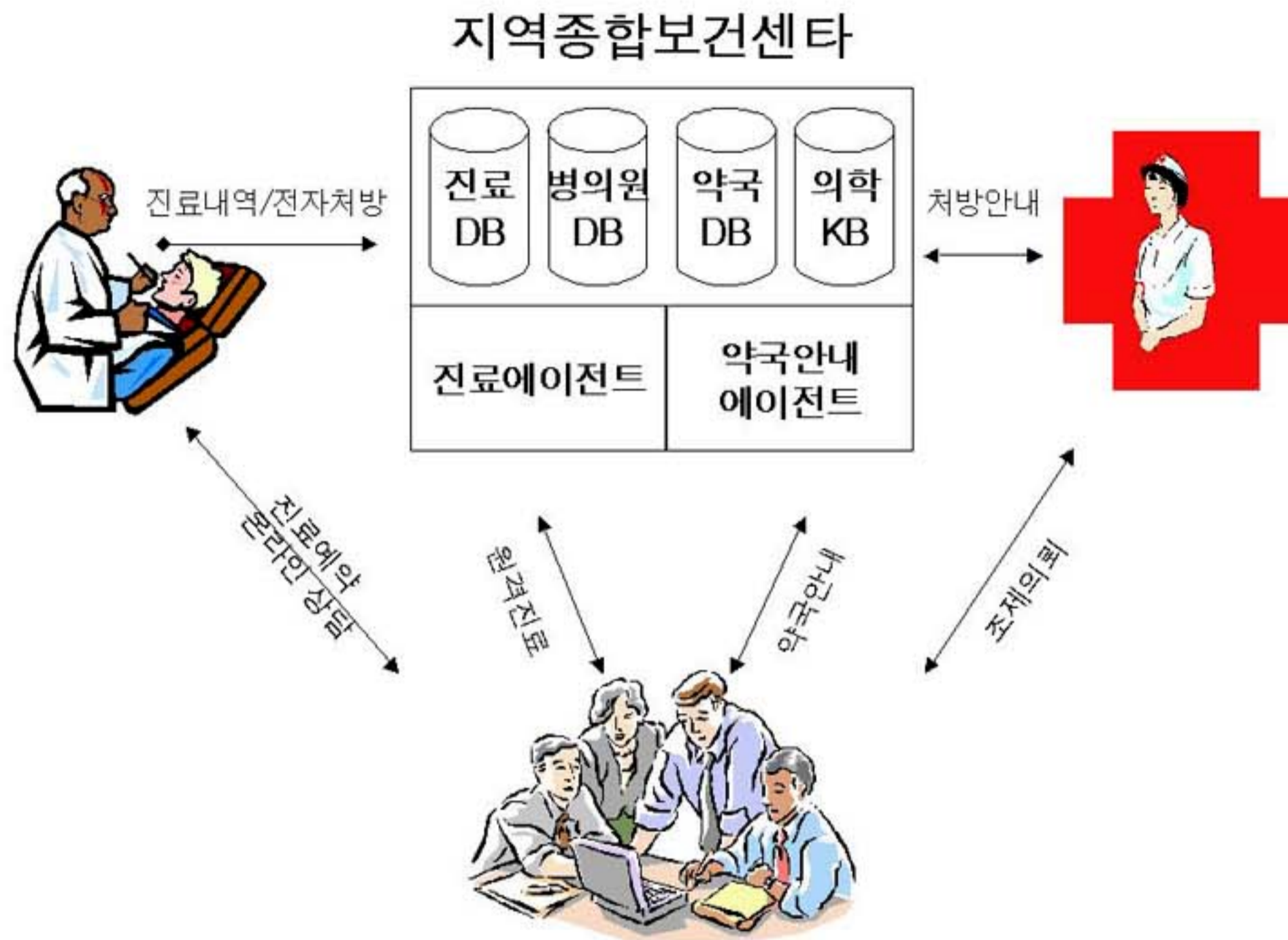


□ 지역종합의료지원시스템

- 정보통신기술의 보건분야에 대한 활용전략으로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현재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행과 병원과 약국이 연계된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사업화하고 있어 이를 군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읍면 단위까지 각종 의료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구현함.
-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신 의료정보제공, 의료기관 안내 등의 웹서비스를 실시함.
- 보건소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정보의 공동활용, 자료의 디지털화,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조를 형성함.
- 지역의 보건소, 병원, 복지기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의 병원, 약국, 의료정보, 의료지식을 DB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의료통합시스템의 주축으로서 옥천군 정보화지원센터의 서버를 활용한 옥천지역 의료기관의 DB를 공동으로 활용함.
- 병원과 약국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자처방전을 이용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의 POS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체계 정립과 유통효율성을 제고함.
- 진료DB, 의학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의료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종합의료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함.
-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 및 마인드 함양으로 종합적인 국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보건기관간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한 통신망의 정비와 보건소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함.
- 각종정보의 DB화로 필요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공공보건기관내 관련업무간 정보의 공유로 보건업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 보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약국의 POS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의 유통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며, 지역종합의료지원사업의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의 사업 지원 신청으로 시범적 지역통합의료지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

【 지역종합의료지원시스템의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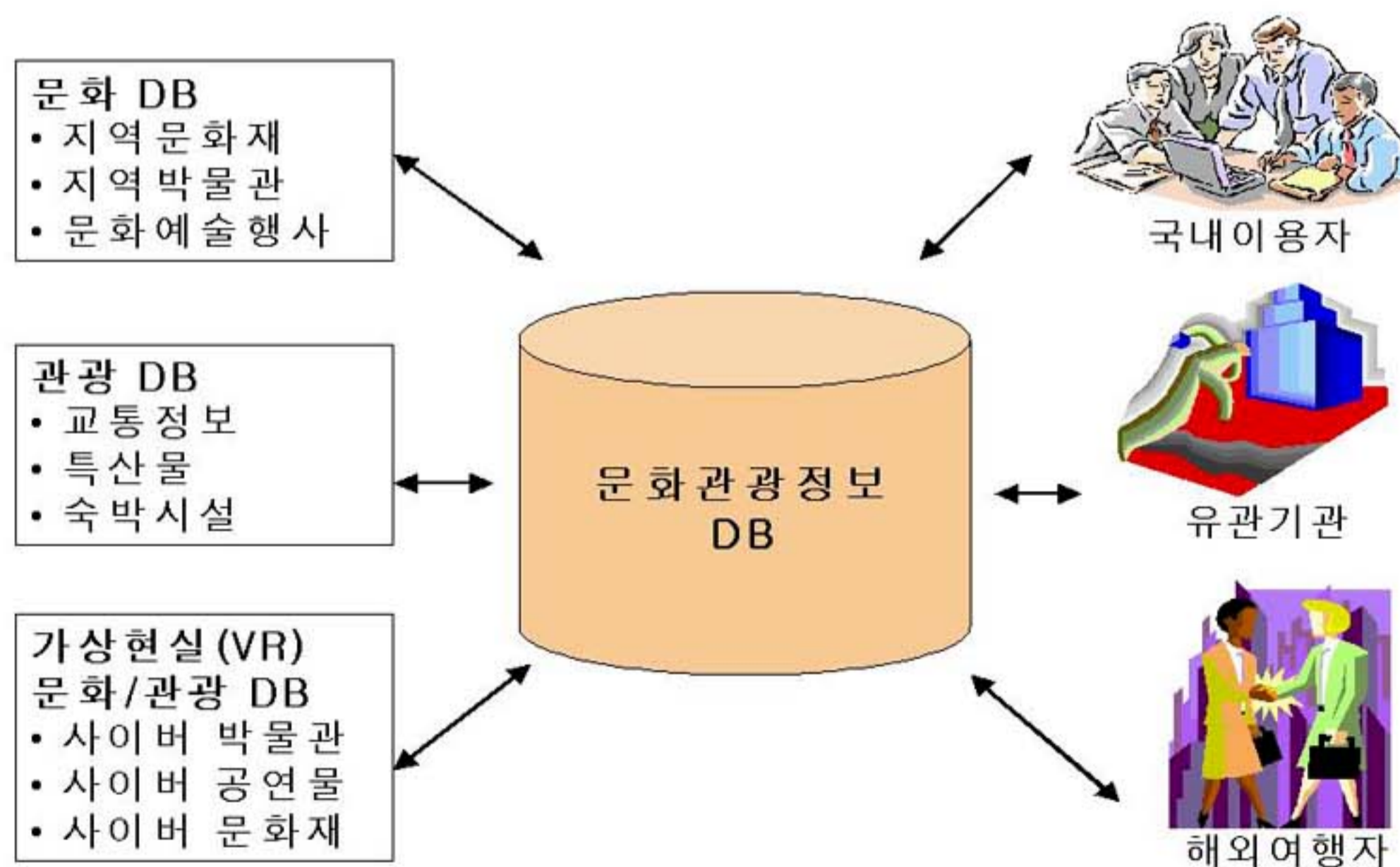
□ 사이버 도서관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 응용서비스로 전자정보의 이용확대와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로 기존 도서관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됨.
- 모든 군민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는 도서관 접근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보화에 대한 지역간 격차의 해소가 요구되며, 국가적 사업으로 전자도서관의 통합연동체계 구축이 필요함.
- 디지털도서관에 걸맞은 시설구축과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군 통계연감 등의 옥천군 고유출판물의 DB를 구축하고 점차 DB 구축범위를 확대함.
- 타 도서관의 서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의 운영과 도서관, 문화, 교육기관 등의 전국적인 정보서비스 기반의 구축을 통해 지역군민이 국가도서관 정보를 종합적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서 지역간 정보화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
- 옥천군 간행도서를 정보화함으로서 다른 지역의 협력기관 등과 공동사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사이버관광문화시스템

- 궁지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 문화자산의 유지 및 보전과 활용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구축된 문화정보 DB를 한 단계 고도화시킨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로서 충실한 문화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멀티미디어로 제공되는 문화관광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문화재 이미지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DB로 구축하며, 지역주민문화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정보에 관한 문자, 화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함.
- 지역내 문화재, 행사, 관광문화단체 및 시설정보를 연계하여 전국적 홍보기능을 구현하고, 문화재, 시설, 행사 등에 대한 각 분야별 DB를 구축하여 기존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며 각종 통계 등 보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문화재의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된 DB를 구축하며, 생활문화,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안내 및 전자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관광부 및 관련 산하단체 등에서 추진중인 시스템과 정보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함.
-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제반 코드의 설정 및 표준화를 이루고 이미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재, 관광 등의 정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

【사이버 문화관광시스템의 구성도】



- 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문자, 이미지, 동화상, 음성,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에 의한 문화 공유가 가능하며, 문화관광 자원을 DB로 구축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행정서비스가 가능함.
- 문화컨텐츠의 디지털화로 지역정보기관과의 인터넷을 통한 단계적 접속확대로 정보의 공동활용이 강화되며, 고도정보화 시대에 주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증대와 각종 문화공간정보에 대한 수용성의 강화를 기대함.
- 양질의 문화자원(정지용, 육영수 생가 등)과 포도, 인삼 등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 관광문화 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14장 교류육천 실현

제1절 현황과 전망

1. 교통현황

(1) 도로망 현황

□ 광역교통현황

- 경부고속도로, 국도 4, 19, 37호선, 지방도 501, 502, 505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주요 교통망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타군에 비해 편리한 도로망체계를 형성함.
- 인접한 보은군을 경유하는 남북6축인 청주-상주간 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로 대전권 및 속리산 관광권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선형구간의 직선화로 교통애로요인이 저감될 전망이다.
- 그러나 동서간 연계성 미흡으로 산업경제기능을 비롯한 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이 옥천읍을 중심으로 한 옥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청성면과 청산면 등의 옥서지역과의 연결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발전정도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고속도로망과 국도·지방도 등 도로 위계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농촌버스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체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철도의 경우 경부선이 군북 증약~이원 포동 구간의 23.5km를 동서로 횡단하고 있으며, 철로가 삼양리, 금구리, 마암리 등 옥천읍내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 공간개발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교통량현황

- 국도 4호선 대전시~옥천읍 구간의 교통량이 2000년 현재 19,619대/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상 애로구간은 국도 4호선 대전시~옥천읍, 옥천읍~영동읍과 37호선 마전리~옥천읍 노선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도의 경우 501호선 중 양산면~이원면 구간이 5,978대/일로 가장 높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2차선의 노선을 확포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기타 지방도의 경우 교통량이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향후 증대되는 교통수요와 남북6축 고속도로(청주~상주)의 개통으로 인해 증가할 수송수요의 적절한 대비를 위해 도로망 정비에 시급히 요구됨.

【 주요도로의 교통량 추이 】

(단위 : 대/일)

구분	노선	차선	1998	1999	2000	증감 추이(%)	V/C,D1	
고속	(소계)		50,527	57,280	61,872	10.7		
국도	경부선	군북 증약-청성 요금	4	50527	57,280	61,872	10.7	1.0
국도	(소계)		48,818	50,990	49,614	0.8		
	4번	대전시-옥천읍	2	21,423	20,757	19,619	-4.3	2.8
		옥천읍-영동읍	2	11,285	12,531	12,802	6.5	1.8
	19번	용산리-보은읍	1→2	3,527	3,929	3,810	3.9	0.5
	37번	마전리-옥천읍	1	6,936	7,762	7,382	3.2	1.1
		옥천읍-후평리	1	5,647	6,011	6,001	3.1	0.9
지방도	(소계)		18,360	19,357	20,804	6.4		
	501번	양산면-이원면	1	5,304	5,822	5,978	6.2	
		동이면-옥천읍	1	4,116	4,318	5,268	13.1	
	502번	회남면-안내면	1	1,126	1,139	1,283	6.7	
		안내면-삼승면	1	2,551	2,571	2,637	1.7	
	505번	심천면-청성면	1	3,531	3,751	3,759	3.2	
청산면-마로면		1	1,732	1,756	1,879	4.2		

주 : 1. V/C는 고속도로서비스기준 C, 국도서비스기준 D를 기준으로 산출(애로구간 음영 표시).
 2. 지방도 575번은 도로교통량통계조사에서는 누락됨에 따라 본표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표에서 제시되는 항목 중 노선은 교통량조사지점(가·종점)을 나타냄.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년도.

(2) 벽지·오지버스 노선 현황

- 벽지·오지마을 농어촌버스노선을 보면 비수익노선 20대, 벽지노선 10대, 수익노선 2대 등 32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회수는 총 395회로 나타남.

- 농어촌버스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행 확보와 벽지·오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결손액 및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등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함.

【 벽지·오지버스 노선현황 】

노 선 명	노 선 수	운 행 회 수	비 고
계	32	395	·현보유대수 : 23대 (공용버스 5대) ·조달요청 : 2대(공용)
비수익 노선	20	264	
벽지노선	10	73	
수익노선	2	58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3) 교통시설현황

□ 도로

- 도로 총연장은 404.36km, 도로 포장율은 50.4%로서 이는 전국 시급 도시 평균인 74.7%보다 낮은 수치이며, 충북 평균인 65.6%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 중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도가 208.1km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포장율이 16.7%로 도로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의 포장율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내 도로현황 】

구 분	도 로 연 장			
	총연장(km)	포장(km)	비포장(km)	포장율(%)
전 국	87,534.3	65,356.3	15,705.9	74.7
충 북	6,042.4	3,965.92	1,436.1	65.6
옥 천	391.3	197.4	172.4	50.4
고속도로	27.2	27.2	-	100.0
국 도	70.6	70.6	-	100.0
지 방 도	85.3	64.8	20.5	76.0
군 도	208.1	34.7	173.4	16.7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보, 2000.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1999년 현재 교량현황을 보면 총 94 개소로 이중 국도에 24개소(1,715.5m), 군도에 39개소(1,832.0m)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군도의 경우 1993년 6개소(373m)에서 1999년 39개소(1,382.0m)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교량 현황 】

(단위 : m)

구 분	국 도		지 방 도		군 도		총 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3	28	1,625.35	13	398.5	6	373.0	47	2,396.85
1994	28	1,625.35	13	398.5	70	1,812.0	111	3,835.85
1995	28	1,625.35	13	398.5	70	1,812.0	111	3,835.85
1996	27	1,618.3	30	999.0	62	3,121.0	119	5,738.3
1997	23	1,699.1	30	999.0	62	3,121.0	115	5,819.1
1998	24	1,715.5	30	999.0	37	1,023.0	91	3,737.5
1999	24	1,715.5	31	1,299.0	39	1,382.0	94	4,396.5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년도.

□ 주차시설

- 주차시설은 1999년 현재 249개소에 4,308면이 있으며, 이 중 부설주차장이 3,496면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고 노외, 노상주차장이 각각 12.0%, 6.8%임.
- 향후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 생활패턴의 변화, 승용차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차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확충이 요구됨.

【 형태별 주차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시설형태	주차시설(A)	주차면수(C)	개소당 면수(C/A)	주차용량에 대한 구성비*(%)
부설주차장 (공영+민영)	225	3,496	15.5	81.2
노외주차장 (공영+민영)	6	517	86.2	12.0
노상주차장 (공 영)	18	295	16.4	6.8
계	249	4,308	17.3	100.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도로시설물

-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1999년 현재 터널이 2개소(692.0m)가 있으며, 가로등은 3,22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육교는 전무함.

【 도로시설물 현황 】

구 분	터 널			가로등
	개소	연장(m)	면적(m ²)	개소
시설수	2	692.0	15,500	3,229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4) 차량현황

- 1999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618대로 이중 승용차의 비중이 58.7%로 가장 높으며, 화물차는 32.0%, 승합차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9년간 연평균 17.7%의 높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차종별로는 특수차와 승용차가 22.4%, 2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단위 : 대)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1990	1,074	377	1,106	8	2,565
1992	2,394	542	1,783	11	4,730
1994	4,169	641	2,429	17	7,256
1996	6,319	803	3,307	43	10,472
1998	7,419	913	3,753	53	12,138
1999	7,411	1,103	4,044	60	12,618
연평균증가율(% '90-'99)	21.5	11.9	14.4	22.4	17.7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년도.

- 1999년 현재 읍·면별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12,618대중 옥천읍에 7,276대 (57.7%)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원면은 1,174대(9.3%) 등 다른 면지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읍면별 자동차 등록현황 】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합 계	12,618	7,411	4,044	1,103	60
옥 천	7,276	4,765	1,844	617	50
동 이	862	459	314	89	0
안 남	301	152	119	30	0
안 내	506	224	233	48	1
청 성	445	180	230	35	0
청 산	818	384	363	71	0
이 원	1,174	596	486	87	5
군 서	573	320	204	49	0
군 북	663	331	251	77	4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 영업용 자동차의 업종별 수송현황을 보면 여객의 경우 등록대수 263대, 수송인원 6,954,152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택시가 204대, 3,706,925명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화물의 경우는 299대(수송량 718,161톤)로 구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선화물은 전 무한 실정이고, 여객화물의 경우는 자가수단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화물의 수송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수송 】

여 객(대, 명)								
구 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 시	
	대수	수송인원	대수	수송인원	대수	수송인원	대수	수송인원
1993	228	9,348,305	24	3,775,946	-	-	193	5,493,609
1994	244	8,146,761	24	3,466,144	-	-	193	4,546,292
1995	248	7,540,443	24	3,463,575	-	-	197	3,941,124
1996	249	7,248,787	24	3,273,662	-	-	198	3,825,675
1997	249	6,962,682	24	3,096,880	-	-	198	3,712,457
1998	260	6,953,956	24	3,093,169	-	-	201	3,707,636
1999	263	6,954,152	24	3,092,507	-	-	204	3,706,925

화 물(대, 톤)						
구 분	계		노 선		구 역	
	대수	수송량	대수	수송량	대수	수송량
1993	165	277,457	-	-	165	277,457
1994	171	275,541	-	-	171	275,541
1995	200	689,521	-	-	200	689,521
1996	215	699,140	-	-	215	699,140
1997	249	707,580	-	-	249	707,580
1998	253	702,315	-	-	253	702,315
1999	299	718,161	-	-	299	718,161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년도

(5) 철도수송

- 철도는 군북 증약에서 이원 포동까지 경부선 철도가 경유하고 있으며, 역별 철도수송현황을 보면 여객의 경우 전체여객인원의 82.6%를 옥천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여객수입의 경우도 96.7%의 점유 비중을 보임.
- 화물의 경우에도 전체 발송 톤 수의 99.6%를 옥천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화물수입은 100.0%를 차지하고 있음.

【 철도수송 현황 】

(단위 : 인, 톤, 천원)

구 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1995	267,972	217,519	669,638	480	21,204	3,365
1996	243,845	202,462	767,284	32,485	46,677	255,255
1997	251,945	218,970	922,150	44,996	56,569	330,523
1998	211,259	194,284	933,597	45,942	63,842	309,226
1999	190,620	168,295	995,000	54,059	77,153	348,000
옥천역	157,387	126,456	962,000	53,866	76,500	348,000
이원역	33,233	41,839	33,000	193	653	-
지탄역	-	-	-	-	-	-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6) 교통사고현황

- 1999년 현재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21건으로 사망자 40명, 부상자는 666명에 달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사상자는 다소 증가한 추세임.

【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인)	부상자(명)
1993	462	34	637
1994	566	36	816
1995	474	36	672
1996	535	33	781
1997	654	43	680
1998	564	23	635
1999	421	40	666
연평균증가율(%)'93-'99	-1.3	2.3	0.6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각 년도.

2. 물류현황

(1) 시장현황

- 시장현황을 보면 옥천읍, 청산면에 각각 1개소의 정기시장이 있지만 최근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그 역할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대형 할인점 및 새로운 상권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하지만 교통망의 개선으로 인한 옥천읍의 접근성 향상과 대전과의 인접성이 강화되어 입지우월성이 향상됨에 따라 영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최적의 물류입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정기시장 현황 】

구 분	정 기 시 장		
	개 소	면 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합 계	2	6,922	748
옥 천	1	2,942	-
청 산	1	3,980	-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 2000.

(2) 운수, 창고업 현황

- 1999년 현재 운수, 창고업은 사업체수의 경우, 옥천군 전산업 3,567개소의 6.9%인 246개소가 있는데 이는 충북전체 운수, 창고업 6,514개소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이 222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수의 경우는 옥천군 전산업 15,613명의 4.1%인 64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전체 운수, 창고업 20,117명의 3.2%, 그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이 473명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음.

【 운수·창고업 현황 】

산업분류	충청북도		옥천군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92,895	395,025	3,567	15,613
운수·창고업	6,514	20,117	246	64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982	15,864	222	473
-철도운송업	36	637	2	18
-육상여객운송업	3,676	11,185	125	293
-도로화물운송업	2,270	4,042	95	162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수상운송업	8	137	-	-
-해상운송업	2	22	-	-
-내륙수상운송업	6	115	-	-
·항공운송업	-	-	-	-
·여행알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524	4,116	24	168
-화물취급업	17	195	-	-
-창고업	58	175	5	9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업	154	701	6	28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295	3,045	13	131

자료 : 충청북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3. 교통여건의 변화전망

- 교통행태의 고속·고급화와 교통안정성에 대한 선호도 및 주민소득의 증가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생활의 다양성과 기동성의 요구로 승용차의 선호도 또한 계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도로 확·포장, 주차애로 요인 등으로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와 첨단교통체계관리기법의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 지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속도로 주변부 개발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으나 옥천군은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주변지역에 극한되어 있으며, 특히 난개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류시설의 계획입지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승차습관의 변화, 관광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자동차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교통수단, 특히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승용차 부담율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변 관광루트의 개발 및 확장으로 자동차, 철도 이용인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측됨.

【 교통수요 전망 】

구 분	단 위	2005	2010	2015	2020
인 구	인	60,500	59,800	60,200	62,000
포장율	%	68.6	76.5	84.5	97.5
자동차 보유율	대/1,000인	258	265	287	322

주 : 포장율 = 포장면적/도로면적×100

제2절 여건분석과 과제도출

1. 강점

- 국도 4차선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 국도 19, 37번의 4차선신설에 따른 대전권과 속리산 관광권역과의 접근성 향상
- 경부고속도로 선형구간의 직선화에 따른 접근성향상 및 교통애로요인 저감
 - 옥천읍의 접근성 및 입지우월성 향상
- 지리적 잇점에 따른 최적 물류입지
 - 대전권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결지대로서의 입지우월성

2. 약점

- 고속교통체계로부터의 접근성 불량
 - ▶ 고속도로망과 지방지역 도로간의 연계성 미흡
- 농촌 버스의 지원체제 미비
 - ▶ 농촌버스의 경영상 애로요인 해소대책 전무
-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심통과 노선의 상습정체 문제
 - ▶ 도심노선의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른 교통애로현상 가중

3. 기회요인

-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지역 접근성 강화
 - ▶ 남북3축 고속도로(청주~상주) 건설
 - ▶ 19, 37번 국도의 4차선 신설
- 경부고속도로 선형구간 직선화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및 지역간 연계성 향상
 - ▶ 선형구간의 직선화 유도로 교통사고 저감
 - ▶ 직선화 사업추진에 따라 폐도구간의 활용성 제고로 지역간 연결성 강화
- IC와 지방지역 도로간 연결성 강화와 유통단지건설
 - ▶ 접근성 향상에 따른 물류시설 및 농특산물 유통단지의 최적입지

4. 제약요인

-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부존자원의 역내유출 가속우려
 - ▶ 인근 대도시권으로 역외유출 심각
-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버스의 수익창출 곤란으로 서비스 저하 우려
 -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촌버스의 서비스 불량
- 육천의 동과 서간의 연계성 미흡에 따른 구심력 약화
 - ▶ 육천읍의 일방향 편중에 따라 구심점이 미약하며, 청산, 청성 등과 단절

제3절 육성방안

- 옥천읍 중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계별 연계성 강화, 통과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도심통과 노선의 정비로 교통수단 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함.
-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농촌버스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함.
- 군과 시민사회단체 민관합동으로 자전거 즐겨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전거도로체계를 확보하는 등 녹색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함.
- 옥천읍 중심의 지역통합을 위한 도로 위계별 연결성 강화방안 강구
 - ▶ 관광순환도로 기능의 국도에 대한 위계별 연결성을 강화하며, 대전권(금산 등)의 여가문화 및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옥천읍 환상노선의 정비확충을 통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함.
-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조화
 - ▶ 교통수단별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와 버스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면단위 오지의 교통공백지역 해소 및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분담을 확대하고 도로건설과정에서 대성토, 대절토를 억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경관·식생을 고려한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21세기형 쾌적한 교통서비스망을 확충함.
-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권역별 물류시설과 유통단지를 확충하여 산업입지적 측면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유통지구 지정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함.
- 교통시설과 물류시설 사업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역간 균형배치에 역점을 둬.



제4절 세부추진계획

1. 지역발전 연계망 정비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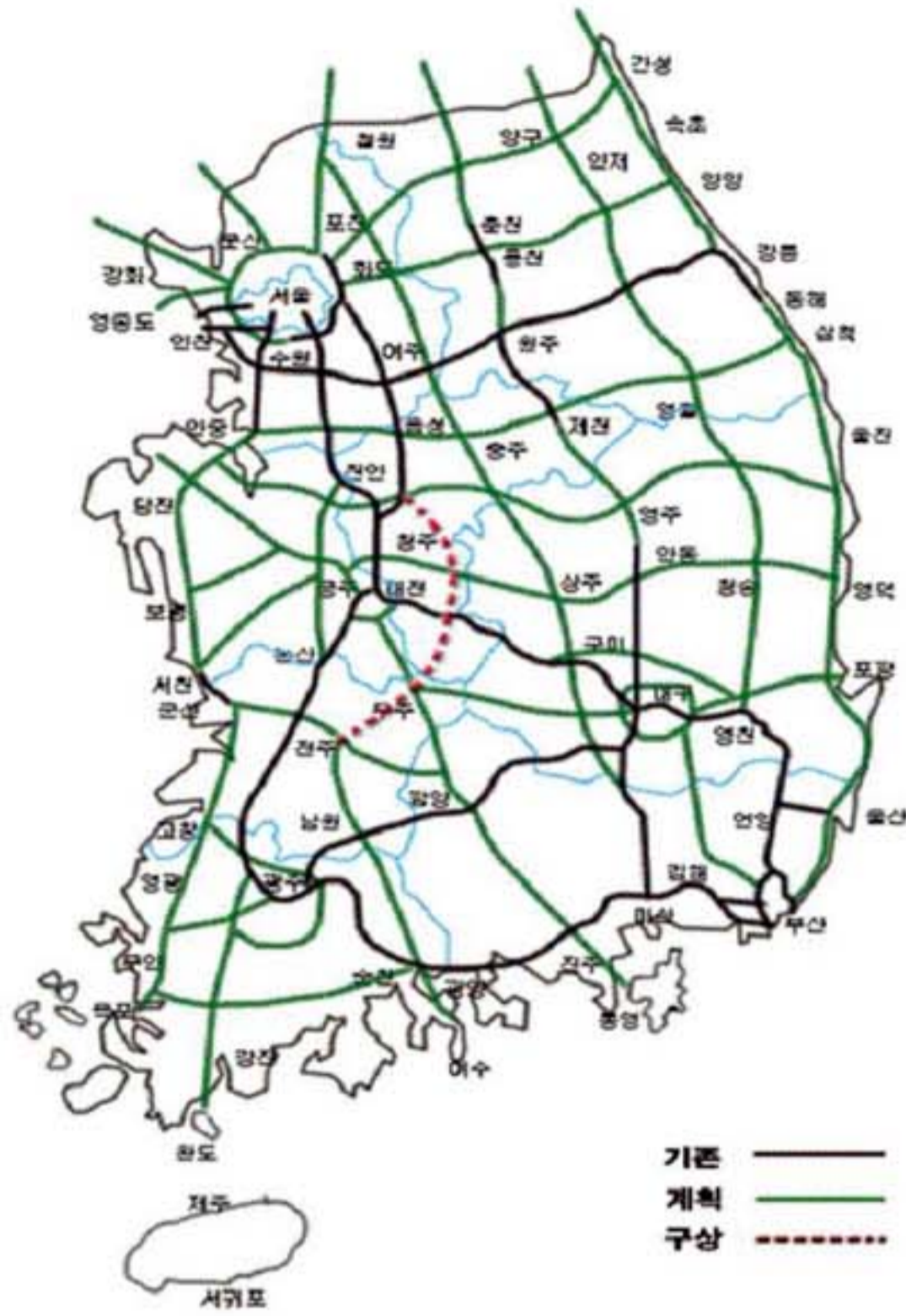
(1) 고속도로의 확충 및 개선

- 국토간선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 개설(증평IC-청주국제공항-청주-보은-옥천-전주)
 - 남북7축, 동서 9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 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주와 상주사이의 남북연결에 있어 고속도로망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완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 남북3축을 보완하게 되면 동서5축(당진-천안-청주-영주-울진)을 활용한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연계되도록 장기구상으로 사업반영이 필요함.
 - 남북3축 보완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간,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할 수 있는 노선임.
 - 본 노선이 추가되면 현재의 청주~대전간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아울러 대전 및 호남권과의 연계성 강화로 육천읍의 연결성이 강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지역발전 연계교통망 확충 】



【 국토간선 도로망 계획 】



□ 경부고속도로의 확장 및 선형변경

- 경부고속도로의 옥천 통과구간(군북 증약~동이 우산)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선형구간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등으로 확장 및 선형구간의 직선화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도로공사에 의해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경부고속도로 김천~구미구간의 확장사업이 착공되었으며, 구미-동대구 구간의 확장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대전과 김천구간의 확장과 병행하여 충북도 경유구간인 동구간의 확장 및 선형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임.

□ 동서연결도로 개설

- 산악이 동서를 가로막고 있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옥천읍 중심의 개발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격차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인적·물류교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단절되어 있는 동과 서의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옥천읍의 구심력을 향상시키고 보은, 영동과의 상대적 교류가 활발한 청성, 청산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옥천읍의 중심으로 중심성 확보측면에서 군민화합 등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임.

□ 교통애로구간 국도의 4차선 신설

- 37번 국도의 4차선 신설에 따른 대전, 충남권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대전권의 근교 농업지대화와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인접 속리산권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19번 국도는 충북의 관광가도인 속리산권과 수안보권을 연결(영동-보은-괴산-충주)하는 도로로서 동 노선 중 보은-미원구간이 4차선 신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조기에 동구간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4차선 신설구간은 산업 및 관광접근 및 이동도로로 기능을 부여하고, 기존노선은 관광가도로 활용함으로써 굴곡부가 많은 2차선 선형구간을 관광도로로 활용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임.

□ 대전-옥천간 국도 4호선 확포장 사업

- 대전권 광역교통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전-옥천간 국도 4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옥천-대전을 최단경로로 연결하고 대전과 옥천간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교통망 역할을 기대함.

【 대전-옥천간 국도 4호선 확포장 사업 】

노선	경유지	사업구분	연장(km)	계획년도	비고
국도4호선	대전-옥천	확장, 4→6차로	20.6	2002	중단기안

자료 : 건설교통부,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대전권), 2001.12.

□ 대전도시철도 1호선(판암-삼양리) 연결

-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도시철도 1호선(판암-외삼동) 22.6km 구간을 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증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옥천까지 추가 연결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문제를 개선하며, 이 경우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과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개요 】

내 용	위 치	연 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대전시 판암동 - 옥천군 삼양리	15km(대전 - 옥천)

2. 지역내 도로망 정비

□ 도시계획도로 정비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

구 분	계		사업비 (억원)	시행기간
	노선수(개소)	면적(m ²)		
계	470	2951044	193.7	
1단계	24	135343	14.4	2002-2004
2단계	29	189165	208	2005-2006
3단계	417	2626536	158.5	2007년 이후

□ 경부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한 지방도 연결(군도 14호선, 증약-향곡간 3.3km)

-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간 확장 및 선형개량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폐도(고속도로)를 대전시와 옥천군에서 이관 받아 지방도로 활용토록 함.
-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동부도시고속화도로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옥천군에서도 군도 14호선(증약-향곡)과 연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경부고속도로 폐도구간 개요 】

내 용	위 치	연 장	구 간
경부고속도로 폐도 활용한 지방도 연결	경부선 서울기점 157.9 - 161.2km	3.3km(대전 - 옥천)	대전시 신상동 - 군북면 증약리

□ 군도 정비를 통한 교통편익 제공

- 군도정비계획에 의거 관내군도에 대한 도로망정비로 교통편익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촉진 및 근교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교통편익 제공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토록 함.

3. 교통공백지역 해소 및 서비스 향상

□ 교통공백지역 불편해소

- 교통시설의 확충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수혜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교통공백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노선개발의 확대를 통한 교통 공백지역의 해소를 위해 고속교통망과의 연계노선을 개발하고, 직행노선 및 벽지노선의 개발을 확대함.
- 여객서비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낙후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지원하고, 부적합 정류장의 이전 및 운영을 개선함.

□ 오지개발사업 실시로 도로여건 개선

- 오지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오지종합개발 10개년계획사업이 '99년도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연장함으로서 오지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함.
- 지정개요
 - ▶ 지정근거 : 오지개발촉진법 제43조-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조
 - ▶ 지정목적 :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 지정대상지역 : 전국 399개면, 충북 37개면, 옥천 2개면(안내, 청성)

【 오지종합개발사업 】

(단위 : 건, 억원)

면	계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시설		국토보존시설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4	40	4	10.7	7	5.8	2	1.4	17	14.3	4	7.8
안내	8	20	3	10	1	1.0	-	-	1	2.0	3	7.0
청성	26	20	1	7	6	4.8	2	1.4	16	12.3	1	0.8

□ 농어촌 대중교통수단 개선

- 군민의 농어촌버스 이용시 불합리한 노선체계 인해 이용에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
- 이를 위해 농어촌 및 벽지 등 전지역에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하며, 이용 편의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시설 등을 개선함.
- 농어촌버스노선체계 구축시 주 고려사항은 수익노선, 외곽연결, 학생들의 통학 편리성, 새로운 개발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 추진시 다양성과 차별성 있는 교통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함.

【 농어촌버스체계 개선 】

개 선 목 표	관 련 사 항
버스운영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편중노선 조정 ▪장거리, 굴곡노선 조정 ▪노선취약지역에 서비스 제공 ▪정류장 이용 편의 제공
교통소통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우선 신호 등 설치 ▪버스 서비스의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내청결, 승무원 친절교육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운영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베이 설치 - 의자, 노선도 등 정류장 시설개선

4. 교통시설 확충과 물류체계 확립

□ 교통안전시설 정비

- 관내 각종 도로시설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구조물 등 대상 시설물을 파악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킴.
- 개보수 정비대상사업으로는
 - ▶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방호벽, 교량난간 및 교명주 파손
 - ▶ 도로측구, 하수구(뚜껑), 맨홀(뚜껑), 보도블럭 파손

- ▶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및 차선표지
- ▶ 도로상 돌출구조물(맨홀, 하수구 등) 및 과속 방지턱
- ▶ 도로법면 유실 및 붕괴 등 기타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정비 및 도색
- 이를 통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 소요예산 절감, 도로시설물의 품질향상으로 결국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할 수 있음.

□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 교통정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규칙화, 통일화와 함께 미설치구간의 조사를 통해 정비하며, 누구나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및 안내표지 등 시설확충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 정보체계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ATIS; 통행자에게 교통여건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교통경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체계)의 도입을 고려함.
- 교통정보의 제공에 따른 통행자들의 반응, 교통정보의 전달수단개발 등으로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지체구간의 시간적, 공간적 분산과 지체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교통지체 활용방안을 강구함.

□ 보행자 안전체계 구축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 입체시설(지하도 및 육교)을 설치하고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며, 보차분리는 보행교통량에 따라 노상주차 금지지역과 허용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학교주변, 시장 등 보행통행량의 밀집지역에는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함.
- 보행자 전용도로는 중심지내의 특정가로 또는 지구에 대해 보행교통을 차량과 분리시킴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 또는 시간대별로 통행을 제한시킴.

□ 자전거도로 확충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별 노선과 유형의 차별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전략은 자전거 도로설치 및 정비시 기준이 되어야 함.
- ▶ 대중교통 대체수단 및 연계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며, 관광교통수요의 자전거 활용을 유도하고, 단순한 노선 설치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도로망 체계를 정립하고 단계별로 수요가 많은 노선부터 우선 설치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함.
- 자전거도로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연결성, 목적지까지 접근성 강화로서 통행발생이 시작되는 주거지역에서 학교지역, 출·퇴근지역, 상가지역으로의 연결망, 시외에서 유입되는 통행을 위해 터미널과 관광지역, 도심지역으로의 연결망이 확충되어야 함.

□ 도심지 종합주차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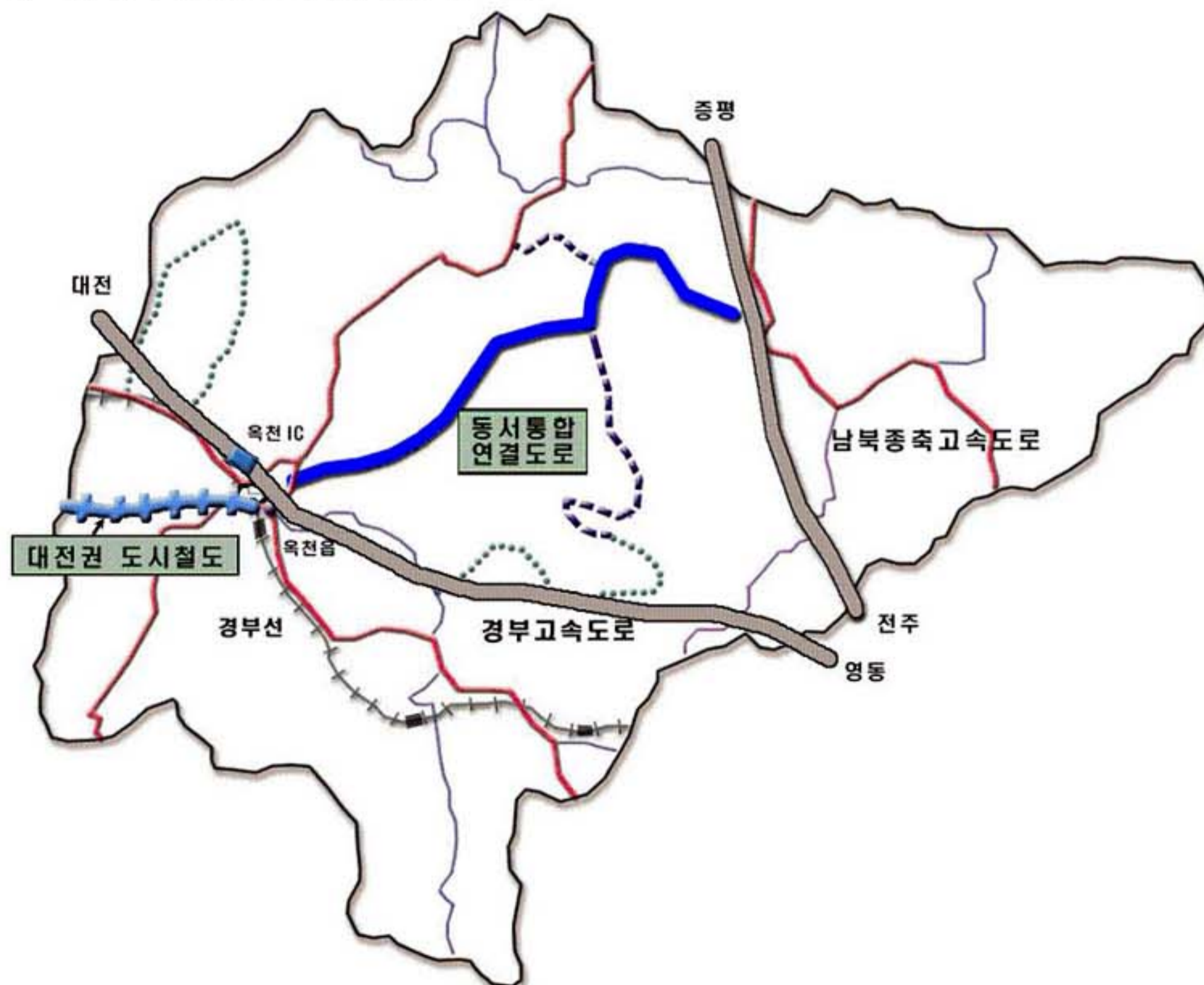
- 주차장 정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관련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혼란을 방지하여 쾌적한 교통운행을 구현함.
- 읍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장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자동차 주차장, 공동주차장, 버스정류장의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는 지역으로 유도함.
- Park and Ride 주차장 건립,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 주차제도(주거지역 주차허가제, 지역별 차고지 증명제, 주차요금 및 주차운영관리 등) 개선 등 주차장 종합정비를 실시함.
- 지역주민과 외래방문객들을 위한 교통지도의 제작 및 주차장 안내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권역별 자전거 임대구역을 확대함.

□ 지역물류지원시스템 구축

-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권 및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옥천IC 주변지역을 유통지구로 지정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옥천을 물류·유통의 중핵지대로 육성함.
-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 침수지구를 개선하고 철도이설에 따른 하천직강 폐부지를 활용하여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시설단지를 조성토록 함.

- 지역 농특산물 및 공산품의 지역 유통·판매는 물론 지리상으로 2시간 이내인 수도권 및 대구권, 인접한 대전권 등 3대 권역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홍보, 수발주, 직접 배송체계를 가동토록 하며, 별도의 구축보다는 청주상의 내 설치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
- 창고 및 집배송단지, 도매센터는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화물터미널도 지역 중소운송업자들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함.
- 운송업자, 도매업, 소매업자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물류단지내의 전체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면 종합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함.
- 물류단지는 입주업체의 고용효과, 판매활동의 촉진, 물류비용의 절감, 교통체증의 완화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 등으로 옥천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유통업의 발달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도 크게 증가하게 됨.
- 지역물류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2차 유통단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바, 계획상 옥천군은 대전·충남권의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2006년까지 37만평, 2016년까지 73만평으로 예정되어 있음.

【 옥천군 교통도로망 계획도 】



집행과 관리

제15장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제16장 행정지원체계 확립

제 4 편

전방위적 행정체계의 구축, 근재정의 건설화와 함께 행정과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지역의 산업입지여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시스템의 완성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할 것이다. 군민통합과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발전의지와 욕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자 한다. 이제 옥천군은 21세기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제15장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제1절 투자계획

1. 옥천군 재정규모 예측

- 부문별, 연도별 투자배분을 함에 있어 옥천군 재정규모에 대한 예측을 하였던 바, 총재정규모는 2002년 현재 115,82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약 93%, 특별회계가 약 7%를 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세재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국적 차원과 비교하여 볼 때 옥천군도 중앙정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 같은 지방재정의 운영틀과 옥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규모를 예측한 결과 2005년 151,102백만원, 2010년 213,437백만원, 2015년 302,908백만원, 2020년 431,522백만원으로 예측됨.

【 옥천군 재정규모 예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10	2015	2020
일 반 회 계	107,723	118,450	124,833	135,336	195,643	282,824	408,855
특 별 회 계	8,106	15,021	15,389	15,766	17,794	20,083	22,667
총 재정규모	115,829	133,471	140,222	151,102	213,437	302,908	431,522

2. 부문별 투자계획

- 옥천군 각 부문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21,357억원의 투자비 중, 교통·물류부문을 7,109억원(33.3%)로 가장 높게 책정하였으며, 영농부문 4,107억원(19.2%), 지식부문 4,048억원(19.0%), 환경, 문화부문 등의 순으로 투자비를 책정함.
- ▶ 이와 같이 투자비를 책정한 것은 교통·물류부문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의 비중이 높아 전체 투자비에 대한 점유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지역특성과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옥천군의 의지를 반영하여 영농부문과 지식산업부문의 투자비중을 높게 책정하였음.

【 부문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지 식 옥 천	4,048 (19.0)
영 농 옥 천	4,107 (19.2)
문 화 옥 천	1,953 (9.1)
그 린 옥 천	2,055 (9.6)
건 강 옥 천	1,730 (8.1)
정 보 옥 천	355 (1.7)
교 류 옥 천	7,109 (33.3)
합 계	21,357 (100.0)



3.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투자비 21,357억원 중 2005년까지 단기에는 4,452억원(20.8%)을 책정하였으며, 2006~2010년까지 중기사업으로 7,080억원(33.2%)을 책정하였고, 2011~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사업의 경우는 9,825억원(46.0%)로 가장 높게 책정하였음.
- ▶ 특히 정보부문의 경우 장기사업의 비중을 60.3%로 높게 책정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교통부문과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환경부문의 경우도 장기사업의 비중을 각각 50.6%, 48.7%로 높게 책정하였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단 기				중 기 (2006 ~ 2010)	장 기 (2011 ~ 2020)
	2002	2003	2004	2005		
지 식 옥 천	15	234	309	437	995 (24.6)	1,173 (29.0)
					(22.3)	(16.6)
영 농 옥 천	35	153	263	388	839 (20.4)	1,687 (41.1)
					(18.8)	(23.8)
문 화 옥 천	2	38	85	263	388 (19.9)	789 (40.4)
					(8.7)	(11.1)
그 린 옥 천	-	97	137.5	186.5	421 (20.5)	634 (30.9)
					(9.5)	(9.0)
건 강 옥 천	3	66	150	245	464 (26.8)	492 (28.5)
					(10.4)	(6.9)
정 보 옥 천	12.5	20.5	14	14	61 (17.2)	80 (22.5)
					(1.4)	(1.1)
교 류 옥 천	50	220	286	728	1,284 (18.1)	2,225 (31.3)
					(28.8)	(31.4)
합 계	118	829	1,245	2,262	4,452 (20.8)	7,080 (33.2)
					(100.0)	(100.0)

4. 재원별 투자계획

- 각 부문의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대규모국책사업 위주의 교통부문이 전체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비의 비중을 9,291.5억원(43.5%)으로 가장 높게 배정하였으며, 민자/외자 4,436억원(20.8%), 군비 3,864억원(18.1%), 도비 3,765.5억원(17.6%)원의 순으로 배정함.
- ▶ 이를 부문별로 보면 교통, 복지, 환경부문의 경우 국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게 배정하였으며, 문화·관광부문, 지식산업, 정보부문은 민자/외자를 통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영농부문은 옥천군 자체예산의 비중을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배정하였음.

【 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국 비	도 비	군 비	민자/외자
지 식 옥 천	938 (23.2)	650 (16.1)	515 (12.7)	1,945 (48.0)
	(10.1)	(17.3)	(13.3)	(43.8)
영 농 옥 천	1,060 (25.8)	915 (22.3)	925 (22.5)	1,207 (29.4)
	(11.4)	(24.3)	(23.9)	(27.2)
문 화 옥 천	176 (9.0)	435 (22.3)	382 (19.6)	960 (49.2)
	(1.9)	(11.6)	(9.9)	(21.6)
그 린 옥 천	1,070.5 (52.1)	452.5 (22.0)	447 (21.8)	85 (4.1)
	(11.5)	(12.0)	(11.6)	(1.9)
건 강 옥 천	875 (50.6)	482 (27.8)	358 (20.7)	15 (0.9)
	(9.4)	(12.8)	(9.3)	(0.3)
정 보 옥 천	100 (28.2)	85 (23.9)	46 (13.0)	124 (34.9)
	(1.1)	(2.3)	(1.2)	(2.8)
교 류 옥 천	5,072 (71.3)	746 (10.5)	1,191 (16.8)	100 (1.4)
	(54.6)	(19.8)	(30.8)	(2.3)
합 계	9,291.5 (43.5)	3,765.5 (17.6)	3,864 (18.1)	4,436 (20.8)
	(100.0)	(100.0)	(100.0)	(100.0)

제2절 재원조달방안

1. 재원관리의 기본체계

기본 목표	군재정의 건전화와 충실화 기업형 재정관리 실현
추진 방향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사업의 핵심역량화 재원 확충방안 모색과 합리적 배분 투자계획의 심사, 모니터링, 평가기능 강화 기업기적 예산관리 및 목표관리(MBO)
주요 계획	사업대상의 선정기준 합리화 사업분석과 결정의 합리화 산출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이윤공유제 및 효율성배당 도입 국고재원 확보 및 자주재원 내실화 합리적인 민자유치 추진

2. 재원관리의 건전화 방안

(1) 효율화 방안

□ 사업대상의 선정기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3차 충북도계획,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옥천군의 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간 연계되는 사업, 광역적 효과가 예상되는 인접 자치단체의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사업분석과 결정의 합리화

-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목표/수단/구체적 활동들)에 대한 분석 필요
- 사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환경인자에 대한 영향규명 필요
 - ▶ 중앙정부의 국가전략과 상급단체 및 주변 단체와의 내적 일관성 유지
- 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시 사업선정의 기준과 목적의 제시 필요
-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관여

□ 기업가적 예산제도 도입과 목표관리

- 산출예산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투자심사 분석의 제도화, 성과주의 예산제도(PPBS) 도입
- 이윤공유제 및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 도입
- 단위 사업별 목표구조의 확립과 세부전략의 지표화를 통해 월별/분기별/반기별/년별 모니터링 강화
- 단위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사업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자료 산출과 피드백 요구

(2)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기준

□ 투자사업의 핵심역량화

- 모든 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하기보다 옥천의 지역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핵심역량화 필요
 - ▶ 지역특성 : 농경지 및 산림지가 86%, 교통편리, 토지이용제한(개발제한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 근교농업 발달(대전), 지역특산품
- BT, 영농, 문화, 물류 등

□ 계획목표의 달성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국토종합계획 및 충북도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화할수 있는 보완적인 사업

□ 지역개발 과급효과

- 지역내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개발의 선도효과 및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지역경제의 개발과급효과가 큰 사업,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간 협력 및 연계사업

-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 기능적 연계성이 높거나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업, 지역간 협력에 따른 개발의 시너지효과가 높은 사업

3. 투자재원 확보방안

(1) 국고지원 확보방안

- 지자체 실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수요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기투자기간 동안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임.
- 가급적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가적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유도하고, 지역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책사업과 연계된 지역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함.
 - ▶ 바이오 농정을 포함한 생명공학(BT) 분야
 - ▶ 문화·예술·전원환경(관광, 실버타운) 등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의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의 정착·발전, 지방예산의 순기를 중앙예산 순기보다 2~3개월 늦추기 위한 현행회계연도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지방재정 확대방안

-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및 간소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 재산세 등 과표 현실화

- ▶ 직접적인 투자사업 및 투자 유인사업의 병행
- ▶ 징세행정의 효율화 : 과세강화를 위한 직무 및 인력 재배치
- 세출예산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여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정비 확대, 경영·경쟁개념의 과감한 도입, 성과관리체계 강화,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예산 운영시 고려해야 함.
- ▶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방식의 다원화 고려(민간위탁과 민영화 등)
- ▶ 사업집행의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평가 추진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 지방재정진단 제도 활용
- ▶ 투융자심사분석제도 강화
- 지자체의 운영에 경쟁과 합리성을 도입, 민간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함.
- ▶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체계 조정
- ▶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3) 민자유치 활성화

- 민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실현성이 있는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민자유치부문을 선정하여야 함.
- ▶ 지역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BT분야, 여가/문화/관광/실버산업 분야에 전략적 마케팅
- ▶ 군수직속 “민간투자유치위원회”(가칭) 가동 - 국내외 관련 기업 홍보
- 민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시설의 운영방식, 부대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제고기법을 개발하고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경쟁제도를 확립해야 함.
- 민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자유치 추진경험을 축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함.
- 산업입지여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시스템을 완성하는 옥천군의 투자여건 및 유치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외자유치환경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사용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하고,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등 간접투자도 유치하며, 해외투자설명회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제16장 행정지원체계 확립

제1절 행정지원의 기본체계

기 본 목 표	경쟁력 있는 옥천군정 실현
추 진 방 향	내부역량 강화 주민분위 군정 성과 지향적 군정 핵심역량 강화
주 요 계 획	전방위적 행정체제 자치업무의 자율화 확대 지속적인 군민통합 과제 발굴 주민참여 및 NGO 활용 주요 핵심 전략사업의 역량강화 (선택과 집중)

제2절 행정력 및 지역역량 결집

1. 군정의 내부역량 강화

- 옥천군의 지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행정체제
- 인접한 자치단체와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 갈등조정, 지역균형 발전,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고, 광역차원의 지역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함.

- 인근 대전광역권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금융, 무역 등의 생산서비스, 국제업무 기능, 중앙행정기능,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 개발기능 등을 집중 육성함.

□ 자율적인 자치업무의 영역확대

-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지속적으로 탐사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직과정 및 구조를 설계하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럭처링을 병행함.
- 업무집행에 업무의 표준화(SOP), 사무처리의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사무능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에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정구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의 연계성 강화와 정책개발과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 분권화를 통한 직무동기 강화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
- 건전한 위원회제 운영과 인사교류로 개방성 증대

□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행정인 확보

- 교육훈련제도
 - ▶ 공직자 정신교육
 - ▶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중앙/지방 공무원교육원, 민간 전문교육기관)
 - ▶ 대학/대학원 수강생 지원
-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만들기

□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장 내 사기진작
-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 업무 유공자 표창
-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2. 주민본위 행정체제

□ 주민참여의 제도화

○ 군민통합의 적극적인 추진

- ▶ 지리적으로 옥천군은 동서간, 도농간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통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군정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군정구축이 필요함.
- ▶ 추진과제 : ① 옥천군인임에 대한 자긍심고취, ② 옥천군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제시, ③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④ 개방적인 지역분위기 조성, ⑤ 주민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 옥천사랑 애향운동, 옥천학 연구사업 추진, 옥천가치 재발견운동 전개, 옥천상징물 선정 및 건립, 옥천의 얼 선양사업, 옥천출신 출향인사 DB구축, 명예군민제 확대방안 등을 마련
- ▶ 군민통합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발전의지와 욕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군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발전을 주도해야 함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업무의 재설계로 기능을 정비하는 등 군정혁신을 병행함.

□ 지방자치의 성숙화

○ 고객만족행정

- ▶ 읍·면 기능전환 점검 / 최일선 민원기능과 함께 복지·문화·교육·편익시설화로 주민자치센터 기능
- ▶ 행정서비스 현장제도 내실화 / 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구현하며, 각 분야별 실천지표 점검

○ 의회의 대군민 욕구수렴 제도화

□ 군정과정에 NGO의 활용

○ 지역사회단체 및 NGO 활동의 육성

-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각 사회단체나 NGO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종 사회단체나 NGO가 얼마나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

- ▶ 이와 관련한 추진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합의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특정한 계층중심이 아니라 전군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원과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임.
- ▶ 추진과제 : ① 주민과 군정의 협력기반 구축, ② 자원봉사자의 군정참여 확대, ③ 민간활력의 적극적 이용, ④ 공익적 주민단체 활동지원, ⑤ 주민커뮤니티 조직의 활성화, ⑥ 의견수렴의 과학화와 다양화, ⑦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장치 마련, ⑧ 사업결과평가제도 마련, ⑨ 행정정보공개와 시민단체(NGO) 참여 확대
- ▶ 추진사업 / 군정시책 정기토론회 개최, 군정시책 토론행구제 시행, 각종 위원회 내실화, 주요사업 주민의견수렴 제도화, 군계획 주요사업 주민평가제 실시
-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주도집단의 형성과 이들간의 유기적인 참여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 시민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며 쟁점이 되는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 성과지향적 사업관리

□ 사업분석과 결정의 합리화

-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우선순위화와 단계별 투자

□ 성공적인 집행전략의 수립

- 집행환경의 전방위적 분석과 대응
- 5년 단위 순환형 집행계획의 수립추진
 - ▶ 본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계획의 수정과 함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 재정능력과 변동요인을 고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함.
 - ▶ 특히, 집행계획은 중앙정부나 충북도의 민간자본, 외자유치 등에 따른 옥천군의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매년도 사업목표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 따라서 단계별 순환형 집행계획은 이 계획의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운영함.

- 계획부서의 관리기능 강화
 - ▶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옥천군종합계획 모니터링위원회’(가칭)를 부군수 또는 기획감사실장 주도하에 운영하여 각종 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조정 및 사업간 연계방안을 마련함.
- 사업별 코드 부여 및 관리
 - ▶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계획내용과 연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함.
 - ▶ 계획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에 관련내용을 삽입하고 코드화하여 계획과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함(사업별 코드부여 작업은 세분화하여 전산관리).
- 상시 평가체제 확립과 피드백
 - 사업의 목표구조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통한 정기적 평가실시
 - ▶ 특히, 1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주민만족도) 의무화
 - ▶ 평가대상 : 사업, 사람, 예산
 - 평가결과를 차기 년도 사업추진 여부와 예산지원 정도에 반영
 - 평가결과를 담당 공무원의 인사 및 배치에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제3절 부문별 행정지원체계

1. 지식옥천 분야

(1) 기본목표

- 바이오 테마를 활용한 농정과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2) 주요 실행계획

□ BT 관련부서의 설치(과 또는 위원회 형태)

- 21세기 BT 강국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생명공학 정책에 부응
- 충청북도 생물건강산업단/경제통상국/농정국/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 등 상위계획에 참여
- 전통적인 농정관리 분야는 유지해가며 생명공학기술을 농정분야에 연계하여 핵심역량화를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 농정과를 생물농정과(가칭)로 전환하여 지역 농산물과 자생식물의 바이오식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정을 구현해야 함.

□ 옥천생물자원연구소(가칭) 설치

- 산학연관 모델에 입각하여 조직
- 옥천지역에 자생 도는 재배하는 식작물의 분포, 생물기원 및 소재연구와 DB화
- 바이오/기능성 식품화, 약품화 추진
- 식작물 종자은행

□ 옥천군 미니 바이오테크노파크(청정산업단지)

- 바이오 공학 연구/교육/홍보/비즈니스/정보교류/시험생산기지 등 복합기능 수행
- 바이오분야 창업보육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TBI) 설치
 - ▶ 지역 식작물(포도, 인삼, 버섯, 묘목)을 활용한 바이오 보육기능
 - ▶ 바이오 벤처기금 설치와 운영
 - ▶ 제품 상용화 추진
- 기존 농공단지(5개 지구 68업체) 외 생물관련 산업체 유치와 향토기업 개발
- 단지조성계획과 인/물적 인프라 구축
- 주변 기업(피엔에프바이오텍, 대덕바이오, HK바이오텍 등) 및 대학(영동대, 충북과학대)과 연계
- 관련 벤처 심사 및 유치
- 전자상거래 운영
- 도농간 직거래 시스템 확립

2. 문화옥천 분야

(1) 기본 목표

- 산자수려한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옥천 건설
- 문화(역사·종교·문학·민속·향토음식)가 살아 숨쉬는 테마옥천 건설
- 다양한 컨셉과 콘텐츠를 통한 관광옥천 실현

(2) 주요 실행계획

- 옥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적 강점을 최대 활용해야 함
 - 출중한 자연지리적 경관
 - 다양한 역사/문화/민속적 콘텐츠
 - 청정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최적의 여가와 문화의 메카로 발전 육성
- 관련 기구의 신설 또는 기존 부서의 조정을 통한 전담기구 정립
 - 현재 기획감사실(군정 기획 및 문화교류), 문화공보실(문화재기획 및 관리, 체육공원 등), 경제교통과(지역경제활성화, 관광홍보), 산림축산과(공원, 국공유 임야관리) 등에 혼재되어 있는 여가 및 문화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 확립이 필요함.
 - 다양한 여가·문화·관광소재 연구와 개발
 - 지역 내 관련 전문가단 구성
 - 중·고등학교/관광협회 및 민간 여행회사에 적극 홍보
- 테마별 6대 문화 권역화와 관광산업 연계
 - 호국문화권 : 중봉, 영규대사
 - 환산문화권 : 환산성, 청석교, 송건호, 김덕수 - 신라/백제 전적지 공원 조성
 - 지용문화권 : 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 민속문화권 : 청마리 탐신제
 - 생태문화권 : 향토음식, 청정농특산물

- 유교문화권 : 경현당, 백촌·우암 유희비, 청주서원 묘정비

- 기존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인근 주변문화권과 연계
 - 중봉총렬제 : 청주의 조헌 역사탐방로와 연계
 - 지용문학제 : 영동의 난계예술제, 보은의 오장환 문학제(시기, 내용, 패키지화, 교통)와 연계
 - 청마리 탐신제 : 가 지역별 장승제와 연계
 - 보은-옥천-영동 불교문화 탐방로
 - 삼국문화패키지 : ‘나제’(羅濟)문화행사(전주, 부여, 공주)

- 산업활동 연계사업 지원
 - 실버 산업시범지구 단지와 전원문화
 - 유스 호스텔 개념의 청소년 문화교육시설 건립
 - 레포츠관련 자전거 생산지와 레저이벤트 개발
 - 전원적 휴양 및 체험농장 확대 : 농지법 개정 참조

3. 그린옥천 분야

(1) 기본 목표

-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실현
- 인간과 자연으로 미래를 여는 Green Networks 구축
- 지속가능한 환경옥천 건설

(2) 주요 실행계획

- 전 지역의 ‘청정지역화’를 위한 오염배출 및 법규위반업소의 관리강화
 - 업소의 총량관리
 - 수시 현장지도 강화

- 정기적 수질측정
- 폐기물종합처리장(4개소)의 관리강화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책 강구
 - 피해의 심각성과 정도 분석
 - ▶ 재산권 행사 제한, 일조량 감소, 생산량 감소, 법적 규제에 의한 산업단지 입지 곤란, 전통적 고유문화 상실, 전파통신 장애, 교통사고 다발 등
 - ▶ '96년 「대청댐 건설과 수질보전특별대책에 따른 옥천군민 피해백서」 참조
 - 각종 보상제도 건의(OECD 권고안 참조)
 - ▶ 직접소득지불(구조조정지불, 소득안정지불, 최저소득지지지불, 직접지불 등)
 - ▶ '01년 제정된 「금강수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의 법적 토대 활용
 - 수자원의 공유자산화 개념 도입
 - ▶ 보상의 사회적 책임화(환경세의 이전지출화)

- Green Networks : '늘푸른 향수옥천 21' 활성화 방안
 - 대청호, 수질, 자연생태, 폐기물, 도시계획,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 27개 실천사업
 - 각 분야별 관리지표 개발과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필요
 - 27개 실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조사 및 문제점 규명

- 경관보전지구 조성
 - 자연친화적 시설 및 건축물 유도
 - 인공자재를 가능한 제한하고 자연소재 활용
 - 시설물에 문화적 심미성을 가미
 - 훌륭한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도 도입

- 훼손녹지 복원 및 생태이동로(Eco-Corridor) 확보계획
 - 백두대간 생태 연계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생태교육장 및 생태서식공간 조성
- 생태이동로 확보

- 생활환경 개선
 - 환경교육 강화
 - 쓰레기 줄이기
 -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4. 건강옥천 분야

(1) 기본 목표

-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복지의 증진
- 쾌적하고 풍요로운 사회환경 구현
- 생산적 사회복지의 달성

(2) 주요 실행계획

- 복지(Welfare)에 대한 장과 의회의 의식전환 및 과감한 투자계획
 - 복지는 전략과 투자의 결실
 -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관리(실태조사, 대책마련, 집행 및 평가)
 -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신축('02년 계획 추진 중)
 - ▶ 운영방식, 주체,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
 - 복지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다원화
 - ▶ 관내 기업, 병원, 식당, 학교, 이미용업소 등과 파트너십 필요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자원의 확충 노력
 - 정기적인 복지욕구 조사와 프로그램 반영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복지프로그램 개발
 -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 평가활동과 피드백
- 자활후견기관 및 후견인 개발

- 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구현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장 강화
 - 노동가능한 수급권자에 대한 유인(교육훈련/노동)과 수당연계 강화
 - 조건부 및 특례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엄격한 사후관리(금융 및 자산조사)로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 자활후견기관 개발
 -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 자원봉사의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자 : 군내 중·청소년·대학생 자원봉사화
 - 주부 자원봉사자 : 주부인력의 자원화 - 모집, 교육, 배치, 활동, 평가 및 피드백
 - 노인 자원봉사자 : 은퇴 노인인력의 자원봉사화
 - 기업 자원봉사 : 군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 유인
 - 전문가 자원봉사 : 의사, 교수, 간호원, 물리치료사, 변호사 등

- 일반적 사회복지서비스
 - 분야별 실태 및 욕구조사
 - 분야별 발전 지표화 및 관리
 - 타 자치단체와 비교
 - ▶ 상수도보급율 : 60.3%(2004), 급수량, 배수지, 취수장, 간이상수도
 - ▶ 하수도 보급율 증진 : 하수도 보급율 53.6%(2004), 하수관거보급율 89.5%(2004), 분뇨수거처리량 52kl/일
 - ▶ 주택보급 및 개선 : 보급율 100%, 농촌주택 내부개선, 취락구조 개선,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 ▶ 보건의료 : 보건소, 지소, 진료소 관리, 1인당 의사수 및 병원수 관리

- ▶ 교육 및 청소년 문화/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및 야영장 투자
- ▶ 여성복지 : 여성회관
- ▶ 고령화와 실버인프라
- ▶ 경로당의 노인종합복지관화(여가, 취미, 정보, 교육)
- 사회체육시설의 확충
- ▶ 각종 공원, 등산로 정비
- ▶ 군유지 및 유휴지에 스포츠 시설화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 실태파악과 욕구별 서비스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과 노동(자활)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인식 변화, 실태조사, 적절한 서비스 공급
- 모자보건 : 불우아동 및 여성 실태파악, 후견인 및 쉼터 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 독거노인 : 실태파악, 결연 및 후원, 식품지원

- 인가 복지시설의 관리지원
- 장애인복지, 정신질환, 아동복지 시설

5. 정보옥천 분야

(1) 기본 목표

- 지식기반시대 교육문화정보도시 건설

(2) 주요 실행계획

- 정보화 담당기구 신설 및 직무재정의 필요
- 현재 자치행정과 직무분장 내용 및 범위로는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
- 정보화 기본계획
- 발전지표 도출과 단계적 추진 필요

- 정보마인드 및 교육훈련 보급
 - 각종 경연대회
 - 분야별 사례발굴
 - 정보인프라 확충(GIS, 도시종합정보 System)

- 정보화를 토대로 한 활용률 증대 : 정보생활화
 - 산업정보화(기업, 제품, 가격, 시장동향, 직거래정보)
 - 문화/관광정보화(문화재, 내용, 가상공간, 관광지, 주요 테마, 여행 및 교통정보)
 - 농업정보화(GIS 정보, 생물소재 및 분포, 재배량 및 생산량, 판로, 전자상거래)
 - 교류정보화(각 도로상황과 안내, 철도, 화물, 운수 및 창고)
 - 복지정보화(기관, 대상자, 자원, 프로그램)
 - 보건의료정보화(보건소, 병원, 약국, 한의원, 당직상황)

- 행정정보화 : 열린 전자정부의 구현
 - 기안 및 결재
 - 각 분야별 사업관리 및 자료 DB화
 - One-Stop 서비스
 - 각종 준정정보 공개 및 공유
 - 각종 민원업무의 단위 프로세스화 및 공개
 - 지역현안과 발전계획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

6. 교류육천 분야

(1) 기본 목표

- 인·물적 자원의 최적 교류망 건설
- 교통행정의 선진화 추진

(2) 주요 실행계획

- 옥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물류가 관건
 - 도로, 철도, 대중교통, 주차 및 시설안전 등 SOC분야에 대한 발전지표별 관리

- 접근성, 원활성,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최적 교류망 건설
 - 고속교통망, 철도망, 국도 및 지방도 망의 종합적 관리체계
 - 인근 생활 및 산업입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 ▶ 대전권 도시철도 추가연결
 - ▶ 청주공항과의 연계
 - ▶ 지역내 유통 물류센터 입지와 도로 및 교통대책(창고 및 집배송단지, 도매센터)
 - 포장도로 연장 및 포장율

- 고속교통망 정비확충
 - 국토간선 남북3축 보완선 개설(증평IC-청주국제공항-청주-보은-옥천-전주)
 -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 변경
 - 국도의 신설 및 재조정

- 지역내 도로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확충정비 : 보조 및 자체사업 추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
 - ▶ 문정삼거리 가감속차선 확보 외 6건
 - 도심지내 주차시설 확충
 - 지방도, 군도, 농로 확충정비 / 마을진입로 및 안길 포장

- 교통공백지역 해소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점검
 - 버스 노선 점검
 -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 ▶ 사고다발지역 분석과 대책
- ▶ 가드레일, 방호벽,
- ▶ 과속방지턱, 차선, 경계선 및 중앙선
- ▶ 교통난간 설치

□ 교통표지판 정비 및 여건개선

- 교통안내, 도로안내
- 여행자 정보/안내체계 확립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확보

부 록

투자계획 세부내역

- ❖ 지식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영농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문화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그린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건강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정보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 ❖ 교류육천 실현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진

연구총괄	고 영 구 (충북개발연구원)
총괄지원	심 용 섭 (충북개발연구원)
지표조사	조 택 희 (충 북 대 학 교)
수요조사	이 귀 형 (충북개발연구원)
생명산업	이 동 철 (충 북 과 학 대)
첨단산업	김 진 덕 (충북개발연구원)
지식농업	우 장 명 (충북개발연구원)
전통문화	정 연 정 (충북개발연구원)
관광산업	지 길 홍 (대 전 대 학 교)
환경관리	류 을 렬 (충북개발연구원)
사회복지	박 은 병 (한 남 대 학 교)
정보통신	이 일 호 (센 터 코 리 아)
교통물류	원 광 희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재정	김 상 해 (충 청 대 학)

옥천군 종합개발계획(2002 ~ 2020)

- 인쇄·발행 2002년 7월
 - 발행처 옥천군
 - 연구기관 충북개발연구원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옥천군의 동의없이는 복제가 불가능함